

옛 글 속에서 인제를 만나다

合江
瑞甫
書

옛 글 속에서
인제를 만나다

■ 옛 글 속에서

인제를 만나다

인쇄 2015년 12월 26일

발행 2015년 12월 28일

발행인 남덕우 인제문화원 원장

기획인 백창현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글 권혁진, 최병현, 최종규, 허남욱

발행처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0

TEL 033)461-6678

편집제작 도서출판 산책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дук길 23

TEL 033)254-8912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인제문화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도·군비의 지원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옛 글 속에서
인제를 만나다



발간사

인제 지방은 오랜 옛날부터 삶의 터전이었다. 북면 율학리나 남면 남전리에서 발견된 지석묘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인제의 역사도 풍부하고 오래되었습니다. 『삼국사기』에 언급된 이래 수많은 역사서가 인제를 주목해왔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서화가 인제현에 소속되기 시작하였고, 이포소(伊布所)는 세종 6년에 인제현 소속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지』는 고종(高宗) 32년(1895)에 군(郡)으로 개칭하였음을 알려줍니다. 기린면은 1906년 10월에 인제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군의 이름은 인제(麟蹄)가 주로 쓰였으나 영소(靈昭)나 설산(雪山)이라고도 불렀음을 알려줍니다.

지리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인제현읍지』에 등장하는 중앙단(中央壇)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앙단이라 하였으며, 극심한 가뭄이나 전염병이 심한 일을 만나면 순찰사가 친히 제사를 올려 천지신명에게 빌었음을 알려줍니다. 인제가 강원도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중요시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인제는 험하고 높은 고개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 있고, 고성과 연결되는 소파령(所波嶺)과, 미시파령(彌時坡嶺)이 있습니다. 『여지도서』는 흘리령(屹伊嶺), 진보령(眞寶嶺), 탄둔령(炭屯嶺), 오색령(五色嶺), 두모치(頭毛峙), 가노치(加奴峙), 건이치(建伊峙)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제현읍지』는 간령(間嶺)과 삼치령(三峙嶺), 그리고 회전령(檜田嶺)을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대동지



인제문화원장 남 덕 우

지』에 언급된 고개로는 오색령(五色嶺), 필노령(彌奴嶺), 박달령(朴達嶺), 선유령(仙遊嶺), 흘리령(屹伊嶺), 소파령(所波嶺), 회전령(檜田嶺), 응봉령(鷹峯嶺), 탄령(炭嶺), 건이령(建伊嶺), 두모현(頭毛峴), 사라치(沙羅峙) 등이 있습니다. 한숨과 원망의 고갯길은 이제 희망의 길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갯길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활용하는 방법의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인제 지역의 특산물로 해송자(海松子), 인삼(人蔘), 영양(羚羊), 누치(訥魚), 열목어, 쏘가리 등을 들고 있다. 『동국여지』는 매(鷹), 황양(黃楊), 강활(姜活)을 추가합니다. 『인제현읍지』는 송이를, 『대동지지』는 마(麻)를, 『인제읍지』는 창목(蒼木), 금은화(金銀花)를 포함시킵니다. 이상의 것들은 인제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적합하기 때문에 특산물이 된 것으로, 인제지역의 재배작물을 선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은 지리지에 실려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인제의 역사와 자연과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인제의 특징적인 면을 다양한 주제로 살핍으로써 인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인 자료를 첨부한 것도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 책을 통해 인제의 다양한 모습이 조금이나마 조명되길 바랍니다. 여러 전문가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 차

contents

| | |
|---|----|
| 삼국사기 三國史記 | 18 |
| 인제의 역사 마의태자 전설의 보고 인제 | 20 |
| 인제를 읊은 한시 김원행(金元行), 「인제를 지나며」, 『미호집(漢湖集)』 | 21 |
| 이식(李植), 「인제 객사에서 지은 즉흥시」 | 22 |
| 고려사 高麗史 | 23 |
| 인제의 역사 마의태자 전설을 들려주는 한계산성 | 25 |
| 인제를 읊은 한시 김창협, 「설악산(雪嶽山)을 바라보며」, 『농암집』 | 26 |
| 세종실록 世宗實錄 | 27 |
| 인제의 역사 향소부곡(鄕所部曲) | 33 |
| 인제를 읊은 한시 정범조(丁範祖, 1723~1801), 「백담사」, 『해좌집(海左集)』 | 34 |
|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承覽 | 36 |
| 인제의 역사 인제군에도 역이 있었다 | 45 |
| 인제를 읊은 한시 김창흡, 「오세암에 도착하여」, 『삼연집』 | 46 |
| 춘주지 春州誌 | 47 |
| 인제의 역사 기린면이 춘천에 속했던 까닭은 | 49 |
| 인제를 읊은 한시 성현(成俔), 「기린현 벽 위의 운에 차하다[次麒麟縣壁上韻]」, 『허백당집』 | 50 |
| 동국여지지 東國輿地志 | 51 |
| 인제의 역사 남효온, 한계령을 넘어 인제에서 머무르다 | 58 |
| 인제를 읊은 한시 이규보, 「한계사(寒溪寺) 주지(住持) 노각사(老覺師)의 여우(旅寓)를 방문하여 삼료자(參寥子)의 시운(詩韻)을 따라 지어 주다」, 『동국이상국집』 | 59 |

| | |
|---|-----|
| 여지도서 輿地圖書 | 61 |
| 인제의 역사 마침내 반드시 합쳐지는 곳에 선 합강정 | 87 |
| 인제를 읊은 한시 김창흡(金昌翕), 「합강정」, 『삼연집』 | 89 |
| | |
| 인제현읍지 麟蹄縣邑誌1 | 90 |
| 인제의 역사 김창흡이 살던 곳에 비를 세우다 | 110 |
| 인제를 읊은 한시 김원형, 「영시암 옛터에서」, 『미호집』 | 112 |
| | |
| 인제현읍지 麟蹄縣邑誌2 | 113 |
| 인제의 역사 강원도의 중심 인제 | 148 |
| 인제를 읊은 한시 김창흡(金昌翕), 「갈역잡영(葛驛雜詠)」 | 149 |
| | |
| 춘천읍지 春川邑誌 | 150 |
| 인제의 역사 목민관의 치적을 기록한 송덕비 | 153 |
| 인제의 역사 무사 백동수 기린에서 무술을 연마하다 | 154 |
| | |
| 대동지지 大東地誌 | 156 |
| 인제의 역사 황장봉산(黃腸封山) | 167 |
| 인제를 읊은 한시 김창협, 「대승폭포」, 『농암집』 | 168 |
| | |
| 인제읍지 麟蹄邑誌 | 170 |
| 인제의 역사 인제향교(麟蹄鄉校) | 191 |
| 인제를 읊은 한시 이지연(李止淵), 「대청봉」, 『희곡유고(希谷遺稿)』 | 192 |
| | |
| 강원도지 江原道誌 | 193 |
| 인제의 역사 인제에서 학문을 연마한 도암(陶庵) 이재(李穡) | 229 |
| 인제를 읊은 한시 이익규(李益圭), 「봉미정(鳳眉亭)」, 『강원도지』 | 230 |



옛 글 속 인제의 모습

총 11권의 자료를 번역하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늘 생각하였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인제의 모습은 무엇인가? 번역을 마치면서 그간의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본다.

1: 역사

인제 지방은 오랜 옛날부터 인류의 터전이었다. 북면 월학리 구미동 지역의 지석묘나 남면 남전리에서 발견된 지석묘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인제 지역이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삼국사기』다. 고구려 땅이었던 인제의 처음 지명은 저족현(猪足縣)이었으며, 오사회(烏斯回)라고도 불렀다. 그러다가 신라의 경덕왕이 차지하자 희제현(狝蹄縣)으로 바꾸고, 지금의 양구인 양록군(楊麓郡)에 속한 현으로 삼았다. 서화면 지역은 고구려의 옥기현(玉岐縣)이었으며 개차정(皆次丁)으로도 불렀는데, 경덕왕이 치도현(馳道縣)으로 바꾸었다. 기린면은 고구려의 기지군(基知郡)이었다가, 고려(高麗)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춘천에 소속시켰다.

『고려사』는 고려에 와서 인제현으로 이름을 고치고 춘주(春州)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소속시켰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공양왕(恭讓王) 원년(元年)에 지역을 다스리는 감무(監務)를 두기 시작했다. 서화면 지역은 고려에 들어와 치도현에서 서화현(瑞禾縣)으로 고치고 춘주(春州)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소속시켰다. 달리 서성(瑞城)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에 들어와서도 고려의 명칭을 그대로 따르다가, 태종(太宗) 13년 계사년(癸巳年)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칭했다고 『세종실록』은 기록으로 남긴다. 이때 서화가 인제현에 소속되었고, 춘천에 소속되었던 이포소(伊布所)는 세종 6년에 인제현 소속이 되었다.

『강원도지』는 고종(高宗) 32년(1895)에 군(郡)으로 개칭하였음을 알려준다. 기린면은 1906년 10월에 인제군으로 편입되었다. 인제군의 이름은 인제(麟蹄)가 주로 쓰였으나 영소(靈昭)나 설산(雪山)이라고도 불렀다.

2: 산

『세종실록』에 인제의 진산인 복룡산(伏龍山)이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다. 복룡산은 나중에 기룡산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후 인제 지역의 산으로 한계산(寒溪山)이 등장한다. 한계산은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좁은 의미로 쓰일 때는 안산을 포함한 서북주릉을 가리키지만 설악산 전체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 설악산만 표시한 경우도 많다. 『대동지지』에 산이 대거 등장한다. 용대산(龍臺山)과 봉비산(鳳飛山), 그리고 가리산(加里山)과 덕산(德山)이다. 용대산과 덕산의 정확한 위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봉비산은 현재 비봉산으로 부른다. 『인제읍지(麟蹄邑誌)』 안에 있는 『인제지속집(麟蹄誌續輯)』은 아미산(峨嵋山)과 만호대(萬戶臺), 팔봉산(八峯山)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 만호대는 합강정 맞은편에 우뚝 솟은 봉우리고, 팔봉산이 끝나는 지점에 용소가 있다. 현재 소양호둘레길3코스가 이곳을 경유하고 있다. 설악산을 포함해서 산은 인제의 축복이다. 특히 설악산은 자연 경관 뿐만 아니라 문화가 쌓여 있다는 점에서 인제의 정체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눈여겨보아야 한다.

인제의 산 중에 황장봉산(黃腸封山)이 있다. 황장목 소나무가 분포하는 양질의 산림을 왕실에서 필요하는 관곽재(棺槨材)와 궁실 건축재 등의 목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반인에 의한 벌채와 입산을 금지한 산이 황장봉산이다. 『대동지지』에 처음 등장한다. 황장봉산이 두 곳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는데, 한계동봉산(寒溪洞封山). 곡백담봉산(曲百潭封山)을 말한다. 『인제읍지』는 황장산(黃腸山)은 현의 동쪽 50리에 있으며, 설악산의 줄기로 양양과 경계를 이룬다고 하니 한계동봉산을 말한다. 곡백담금산(曲百潭禁山)은 현의 동쪽 70리에 있으며, 양양과 경계가 된다고 하니 곡백담봉산을 말한다. 여기에 용대금산(龍臺禁山)을 추가하였다. 현의 북쪽 80리에 있으며, 간성과 경계가 된다고 설명한다. 한계동봉산은 운흥사황장금표에 의해 확인되었다. 곡백담봉산은 백담계곡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대금산은 용대리와 서화면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3: 하천과 나무

인제 지역의 하천과 나무에 대한 언급은 『신증동국여지승람』부터 시작된다. 미륵천(彌勒川)이 등장하는데, 바로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류하면서 미륵천이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소양강의 예전 이름이다. 나루터는 주연진(舟淵津)이 언급되었다. 자세한 연구가 뒤따라야겠으나 예전에 부평리에 있던 나루터를 가리키는 것 같다. 『동국여지』에 새롭게 원통천(圓

通川)이 등장한다. 『여지도서』는 미륵천(彌勒川)과 가노진(加奴津)이 나온다. 가노진은 군축교 주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제현읍지』는 뇌탄진(磊灘津)과 가노천(加奴川), 마노주연진(馬奴舟淵津)을 새롭게 기록하고 있다. 뇌탄진은 원통천과 합류하기 직전의 서화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노천(加奴川)은 가노리 앞을 지칭하며, 마노주연진(馬奴舟淵津)은 부평리 뱃터 일대를 가리킨다. 『대동지지』는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제시해 준다. 서화천(瑞和川)이 처음 등장한다. 기린천(基隣川), 추동천(楸洞川), 탄곡천(炭谷川), 이포천(伊布川), 뇌탄(磊灘), 원통천(圓通川), 미륵천(彌勒川), 백담천(百潭川), 한계천(寒溪川), 김보동천(金寶洞川), 가노탄(加奴灘)이 보인다. 탄곡천과 이포천은 미수복지역에 위치한다. 김부리 앞을 지나 갑둔리로 흐르는 하천의 이름이 김보동천(金寶洞川)이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인제읍지(麟蹄邑誌)』 안에 수록된 『인제지속집(麟蹄誌續輯)』에 합강(合江)이 처음 등장하고, 『강원도지』에는 인제강으로 표시되었다. 강과 나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었다. 나루터는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던 삶이 배어 있는 곳이다. 시인과 묵객들도 이곳을 경유하면서 시로 노래하여서 문화가 꽃피던 장소이기도 하다.

4: 고갯길

인제는 험하고 높은 고개의 고장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고갯길을 다루기 시작했다. 아직 정확한 위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 있고, 고성과 연결되는 소파령(所波嶺)과 미시파령(彌時坡嶺)이 있다. 『여지도서』는 더 자세하게 알려준다. 흘리령(屹伊嶺), 진보령(眞寶嶺), 탄둔령(炭屯嶺), 오색령(五色嶺), 두모치(頭毛峙), 가노치(加奴峙), 건이치(建伊峙)가 보인다. 두모치는 인제와 양구를 잇는 두모령, 가노치는 군축령, 건이치는 건이고개를 말한다. 『인제현읍지』는 간령(間嶺)과 삼치령(三峙嶺), 그리고 회전령(檜田嶺)을 추가로 든다. 『대동지지』에 언급된 고개로는 오색령(五色嶺), 필노령(彌奴嶺), 박달령(朴達嶺), 선유령(仙遊嶺), 흘리령(屹伊嶺), 소파령(所波嶺), 회전령(檜田嶺), 응봉령(鷹峯嶺), 탄령(炭嶺), 건이령(建伊嶺), 두모현(頭毛峴), 사라치(沙羅峙) 등이 있다. 물가 위험한 길로 구장천(九壯遷)과 강천(缸遷), 그리고 반창천(反昌遷)이 등장한다. 천은 길이 뚫리면서 대부분 평탄하게 되었고 이름도 점차 잊혀져 갔다. 『인제읍지(麟蹄邑誌)』 안에 수록된 『인제지속집(麟蹄誌續輯)』에 곰배령인 정령(丁嶺)이 등장한다. 가수현(加水峴)과 건이현(乾泥峴)도 함께 등장한다. 한숨과 원망의 고갯길은 반대로 희망의 길로 변할 수 있다.

5: 역원

옛날 교통·문서전달·숙박의 기능을 담당하던 역원제도(驛院制度)가 있었으며, 인제에도 역(驛)과 원(院)이 있었다. 『세종실록』은 네 곳을 들고 있다. 부림(富臨), 마노(馬奴), 임천(臨川), 남교(嵐校)이다. 부림역은 북면 한계리 관벌에 있었다. 마노역은 부평리나 관대리에 있었던 것 같다. 임천역은 서화면 서흥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교역은 지금의 남교리에 있었다. 『동국여지지』는 기존 네 곳 이외에 몇 곳을 추가한다. 원통역(圓通驛)의 동쪽 15리에 신원(新院)이 있다고 적는다. 가역원(加歷院)은 지금의 용대2리를 말한다. 건이원(巾伊院)은 건이교개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지도서』는 신증원(新增院)이 고을 동쪽 70리 거리에 있으며, 양양과 경계라 적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곳과 문헌 자료의 상이함, 그리고 지명 등에 남아 있는 정보와 거리가 있는 곳도 있어 정확한 위치는 미정이다. 역원(驛院)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거나 하룻밤 자면서 시문이 많이 남겼다. 따라서 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정확한 위치 비정과 함께 문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남겨진 일이다.

6: 저수지

『여지도서』는 원통제(元通堤)를 이렇게 설명한다. 고을의 북쪽 원통역(元通驛) 앞에 있다. 관문에서 15리다. 둘레는 319척이고, 넓이는 83척. 길이는 112척이다. 물깊이는 3척이며 바깥 높이는 3척5촌이다. 이후 『인제현읍지』는 원통언(元通堰)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설명한다. 제(堤)와 언(堰)은 방죽, 막다, 보를 막다는 뜻이다. 원통터미널 뒤를 지역민들은 ‘방치골’이라 불렀다. ‘빙죽’의 음이 변화된 것이다. 일제강점기까지 이곳에 저수지가 있어서 원통 들녘으로 물을 공급했으며, 최근까지도 독의 형태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유적이 사라지고 이름만이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원통제는 인제의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다.

7: 사찰

『동국여지지』는 인제의 사찰로 상승암(上乘菴)과 대승암(大乘菴)을 들고 있다. 바위에 쇠사슬이 있어 사람들은 그것을 휘어잡고 오른다는 표현이 특이하다. 현재 대승폭포 상류에 터만 남아 있다. 한계사(寒溪寺)도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 『여지도서』는 백담사(百潭

寺)와 봉정암(鳳頂庵), 그리고 영시암(永矢庵)을 새롭게 들고 있다. 상승암(上勝庵)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다. “한계사(寒溪寺)가 있던 옛터 뒤로 7리쯤이다. 노송들이 뻗뻗이 들어서서 마치 대나무 같다. 남쪽을 바라보니 부용봉(芙蓉峯)의 우뚝 솟은 기세가 하늘 밖에다 낚시를 드리운 모습이다. 동쪽에는 사자대(獅子臺)와 망폭대가 있다. 북쪽에는 옛 우물이 있는데 달고 차기가 비할 데 없다.” 백운암(白雲庵)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한계사(寒溪寺) 동쪽으로 40리 거리에 있으며, 사면으로 산봉우리들이 병풍 같이 둘러 서 있어 길이 험준하므로 인적도 드물고, 지금은 옛터만 있다고 알려준다. 아직 백운암터를 확인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 없다. 은적암(隱寂庵)은 고을의 동쪽에 있으며, 10칸인데, 관에서 10리라고 알려준다. 은적암터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 『인제현읍지』는 오세암(五歲菴)을 설악산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적고 있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 은둔했기 때문에 오세암이라고 칭하며, 매월당의 영당(影堂)이 있다고 알려준다. 현의 북쪽 50리에 있던 서룡암(瑞龍菴)의 존재도 이곳에서 처음으로 알려준다. 『강원도지』는 원명암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인제는 명찰의 고장이다. 대부분 설악산 품에 안겨 있다. 한계사는 치마골의 운흥사로 이전했다가 대승령을 넘어 옮기게 된다. 수렴동계곡에 심원사의 주춧돌이 아직 남아 있다. 심원사는 백담계곡 입구로 이동했다가 백담사가 되었다. 백담사는 한계사의 후신인 것이다. 오세암은 매월당 김시습과 만해선사가 머물던 곳이고, 봉정암은 설악산을 유람하던 사람들이 하룻밤 머물던 곳이기도 하다. 영시암은 삼연 김창흡이 짓고, 후에 설정 스님이 중건하면서 절이 되었다. 유교와 불교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곳이다. 설악산에 깃들고 있는 사찰뿐만 아니라 절터에 대한 조사도 뒤따라야 한다.

8: 건물

『여지도서』는 관청 건물을 자세히 적고 있다. 객사(客舍), 아사(衙舍), 군기고(軍器庫), 향청(鄉廳), 관청(官廳), 작청(作廳), 현사(縣舍), 군관청(軍官廳) 등이 있었다. 창고(倉庫)로 29칸의 읍창(邑倉)이 있었고, 서화면에 서창(瑞倉)이 있었다. 『춘천읍지』는 현리(縣里)에 기린창(麒麟倉)이 있었다고 전해준다. 『인제읍지』는 관청에서 지은 건물로 영소관, 수선각(睡仙閣), 무고(武庫), 곡창(穀倉)을 예로 들고 있다. 곡식을 저장하고 지역민을 구휼하던 창고는 이제 지명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정확한 위치 파악만이라도 필요하다.

9: 정자

정자의 기능은 다양하다. 자연을 완상하며 문학을 창작하기도 하고, 유흥을 만끽하며 팽팽했던 일상에서 벗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지도서』는 아문(衙門) 위에 있던 이은루(吏隱樓)와 합강정(合江亭)을 적었다. 합강정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다. “한 줄기는 기린현에서 오고, 한 줄기는 설악산에서 오다 원통역에 이르러 서화의 물과 합류하여 강이 되는데 미륵천이라 한다. 동쪽으로 맑은 물을 임하고, 서쪽 뒤 흙산은 등지고 있는데 굽이굽이 오다가 머리가 끊어지는 곳은 절벽이 된다. 솟아오른 언덕 위는 평평한데 정자가 가운데 있다. 맑은 못을 구부러 내려다보아 경치가 산뜻하고 깨끗하여 큰 고을의 승경 중에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지금에 있는 것은 옛터에 병자(丙子)년 겨울에 세웠는데 10자 각(閣)에 5칸이다.” 합강정은 문학을 창작하던 공간이었다. 수많은 문인들의 합강정에 올라 합강을 바라보며 시를 지었다. 인제를 읊은 시 중의 상당 부분이 합강정을 소재로 하였다. 정리가 필요하다.

『강원도지』는 봉미정에 대해 언급한다. 봉미정은 군의 남쪽 비봉산 아래에 있으며, 진사 이시영(李時榮)이 살던 곳이다. 후손의 시가 남아 있으나, 지금은 위치를 알 수 없다.

10: 제사지내는 곳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인제 지역에서 제사지내는 곳으로 사직단(社稷壇)을 먼저 들고 있다. 종묘와 함께 나라의 신과 곡식을 맡은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이다. 가뭄에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 풍년을 비는 기곡제(祈穀祭)등을 여기에서 지냈는데, 관아의 서쪽에 사직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며 국태민안과 풍년을 빌었다. 향교 안에 있는 문묘(文廟)도 빼놓을 수 없다. 성황사(城隍祠)는 고을의 남쪽 4리에 있었다고 한다. 『동국여지』는 여단(厲壇)이 고을의 북쪽에 있다고 증언해 준다. 『인제현읍지』에 중앙단(中央壇)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합강정(合江亭) 뒤에 있는데 강원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앙단이라 하였으며, 극심한 가뭄이나 전염병이 심한 일을 만나면 순찰사가 친히 제사를 올려 천지신명에게 빌었음을 알려준다. 『강원도지』는 사직단과 성황사, 여단(厲壇)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고 적는다. 이미 일제강점기 때 폐지되었지만 각 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시기에 신사(神社)로 신명신사가 인제면 상동리에 있었다. 1928년에 건립하였으며, 천조황대신(天照皇大神)을 제사 지낸 곳인 이곳은 상도리 발 구석에 있다고 지역민은 알려준다. 비록 치욕의 역사지만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인제현읍지』는 서원(書院)으로 김삼연영당(金三淵影堂)을 들고 있다. 삼연 김창흡(金昌翕) 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관문에서 남쪽 30리 거리이며, 지명은 구만리(九萬里)라 한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서원은 강학과 제향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인제지역에 서원이 있었다는 자료는 이것이 유일하다.

11: 특산물

『세종실록』은 인제의 땅은 메마르며 기후가 차다고 기록한다. 적합한 농작물은 조, 피, 팥, 보리, 뽕나무, 삼, 배, 밤이다. 나라에 바치는 인제 지방의 특산물은 꿀, 밀랍, 자석(磁石), 잣, 오배자(五倍子)¹, 석용(石茸), 느타리버섯, 영지, 울, 녹포(鹿脯)², 여우 가죽, 살쥬이 가죽, 노루 가죽, 곰 가죽, 돼지털, 곰털, 시우쇠이다. 약재는 복령, 오미자, 당귀, 인삼, 전호(前胡)³, 작약, 나팔꽃 씨, 쥐꼬리망초뿌리, 왕골, 북나무진, 단풍나무진, 산무애뱀, 산양뿔, 웅담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지역 특산물로 해송자(海松子), 인삼(人蔘), 영양(羚羊), 누치(訥魚), 열목어, 쏘가리 등을 더 들고 있다. 『동국여지지』는 매(鷹), 황양(黃楊), 목적(木賊)⁴, 강활(姜活)을 추가한다. 『인제현읍지』는 송이를 첨가한다. 『대동지지』는 마(麻)를 더하고, 『인제읍지』는 창목(蒼木), 금은화(金銀花)를 포함시킨다.

이상의 것들은 인제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적합하기 때문에 특산물이 된 것으로, 인제지역의 재배작물을 선정하는데 참고가 될 만하다.

12: 명승고적

『세종실록』은 한계산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한계산석성(寒溪山石城)은 둘인데, 현의 북쪽 15리에 있다. 상성(上城)은 둘레가 7백 29보(步)이다. 샘 하나가 있는데 가물면 마른다. 하성(下城)은 둘레가 1천 8백 72보이다. 세 골짜기 물이 합쳐 흘러서 작은 냇가 되는데,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한계산성에 이포소(伊布所)를 추가한다. “고을의 북쪽 144리에 있다. 옛적에는 춘천부(春川府)에 속해 있었으나 세종(世宗) 6년

1 오배자(五倍子): 뽕나무에 오배자벌레가 기생하여 된 흙모양의 충영(蟲屢). 입병, 치통, 치질 등의 약재로 쓰임.

2 녹포(鹿脯): 사슴의 고기로 만든 포.

3 전호(前胡): 미나리과에 속하는 풀로서 1년 생. 다년생이 있다.

4 목적(木賊): 속새, 안질, 치질, 변혈 등의 약재로 쓰인다.

에 인제에 소속시켰다.” 『여지도서』는 유홍굴(兪泓窟)을 포함시킨다. “재상(宰相) 유홍(兪泓)이 강원도관찰사로 있을 당시에 한계령 넘어 뒤로 삼대령(三大嶺)을 넘고 돌을 세우고 굴에 이름을 붙였다. 지금에 와서도 유홍굴(兪泓窟)이라고 부른다.” 『강원도지』는 김부리, 원통역, 마노역, 남교역, 임천역, 가력원, 건이원 등을 들고 있다.

인제의 대표적인 명승고적이 한계산성임을 수많은 문헌들이 증언해준다. 그리고 그동안 도외시했던 명승고적을 알려준다.

13 : 인물

『인제현읍지』에 처음으로 인물이 등장한다. 효자 김경범(金敬範)과 열녀 조옥립(趙玉立)의 처 삼척(三陟)김씨를 선정하였다. 삼척김씨는 삼척인(三陟人) 진국(振國)의 딸로 풍양조씨 문중의 옥립(玉立)과 혼인하였다. 옥립은 당시 경기도 양주군 풍양현에 거주하였는데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지냈다. 인조(仁祖) 14년 병자년(丙子:1636) 12월 호란(胡亂)이 일어나자 관군을 통솔하여 분전(奮戰) 하던 중 대세가 불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로 은신하였다. 그러나 호적(胡賊)들이 급습하여 김씨에게 남편의 소재를 밝히려고 양손에 쇠꼬챙이로 구멍을 내는 등 갖은 고문을 다 했다. 끝내 굴하지 않자 마당에 장작을 쌓고 김씨를 올려놓은 후에 불을 질렀지만 갑자기 뇌성벽력을 치며 폭우가 쏟아져 호적들은 벼락을 맞아죽고 김씨는 화염 속에서 생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한 화상으로 신음하다가 10여일 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김씨의 행실에 하늘이 감동한 처사라 하여 마침내 인조(仁祖) 16년에 정려(旌閭)를 내리게 되었고 인제읍 원대리에 열녀각을 건립하였다고 하는 데,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사마(司馬)벼슬을 한 정도(鄭導), 무과(武科) 김태국(金泰國)도 함께 거론하였다.

『강원도지』는 각 분야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물 선정 영역을 보면 군선생(郡先生), 문과(文科), 무과(武科), 사마(司馬), 사환(仕宦), 음사(蔭仕) 부서사(附筮仕), 수직(壽職), 문학(文學), 필원(筆苑), 효행(孝行), 열부(烈婦), 규행(閨行), 자선(慈善), 독지(篤志), 우거(寓居) 등으로 나누고 해당 인물들에 소개가 자세하다. 이외에 인제현감을 지낸 이들의 명단인 『읍선생안』도 인제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 분들을 중심으로 인제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14 : 인제를 읊은 시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옛 고을 생긴 지 얼마 되었나, 민가(民家)라야 겨우 여덟 아홉 뿐”이란 우승범(禹承範)의 시와, 많은 산들 깊고 멀어 수레와 말 탄 손님 오는 이 없지만, 길 하나 울퉁불퉁 돌 개천 끼고 있네”라는 하연(河演)의 시, 성현(成俔)의 “다리를 건너도 관도(官道)는 멀고, 숲 속에 가려진 인가 두어 채, 땅은 항상 서늘하니 눈 남아 있고, 깊은 산엔 아직도 꽃 피지 않았네. 처마 끝 참새 떼 추위와 싸우는데, 솔숲에 저녁바람 거세게 이니, 나그네의 수심은 더해만 가고, 턱 고이고 있으려니 해는 이미 뉘엿뉘엿”란 시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김창흡의 “만 리 밖 증상(蒸湘)과 비슷한 곳이라, 영호남 여러 정자도 견줄 곳 없네. 우리 형님 밝은 헤아림 있으서, 황량한 고을에 선풍(仙風) 일으키니, 연못 그림자 마음을 맑게 하고, 여울소리 정사(政事)와도 통하네. 시골 백성들 그림 속으로 들어와, 창 너머로 백사장 완상하네”란 시가 『인제현읍지』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실리게 된다. 『인제읍지』 속 『인제군 아사루대형승 제영문(麟蹄郡衙舍樓臺形勝題詠文)』에는 다수의 제영시가 실려 있다. 『강원도지』는 합강정과 봉미정을 다루면서 제영시를 삽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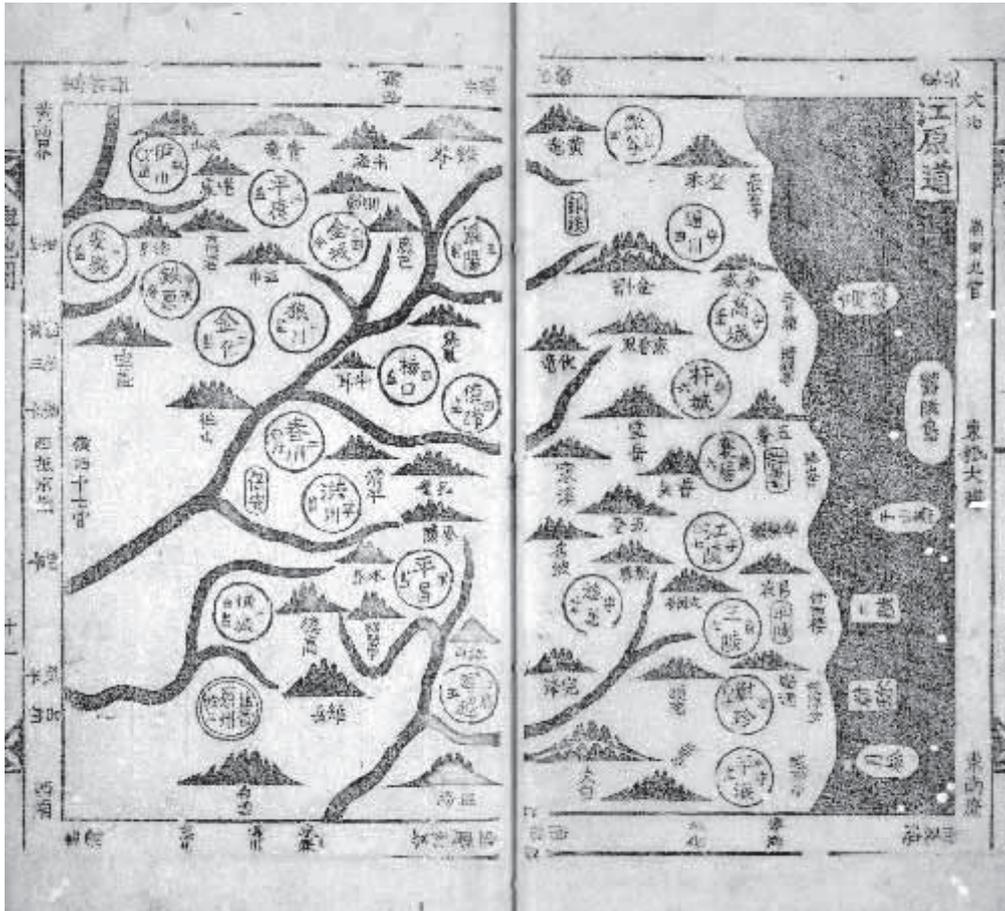
지리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제를 읊은 시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인제는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며, 금강산으로 통하는 길이기도 하여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인제를 경유하면서 시와 문을 남겼다. 또한 설악산을 유람하기 위해 찾은 선비들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그들은 유산기 뿐만 아니라 시를 지어서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삼연 김창흡은 설악산에 오랫동안 살면서 수많은 글로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그렸다. 연구가 필요하다.

지리지에 실려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인제의 역사와 자연과 문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제의 다양한 모습이 조금이나마 조명되길 바란다. 한계도 있다. 한정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다보니 심층적인 탐색이 부족하였다.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작업을 하면서 표계 최병헌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선생님께서는 한평생을 인제를 연구해오셨다. 지리지의 번역뿐만 아니라 위치 비정에 대해서도 막힘이 없으셨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린다.

옛 글 속에서
인제를 만나다

삼국사기三國史記

● 김부식(金富軾)등이 고려(高麗) 인종(仁宗)의 명을 받아 1145년경에 편찬한 역사서다. 「지리지」에 인제 관련 자료가 있으며, 인제군이 처음에 양구군의 속현이었음을 알려준다.



동국여지도

조선 후기 유행했던 원형 천하도, 중국·일본·유구, 그리고 조선지도가 수록된 지도책으로, 총 13장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시대부층에서 소유했던 지도들은 국가에서 제작한 행정·군사적 용도의 지도보다는 소략하면서도 팔도의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도들이었다. 이 지도 역시 그런 지도책 중의 하나이다.

- 양록군(楊麓郡): 원래 고구려의 양구군(楊口郡)을 경덕왕(景德王)¹이 이름을 바꾼 것인데, 지금의 양구현(陽溝縣)이다. 속한 현(縣)이 셋이다.
- 희제현(狶蹄縣)²은 원래 고구려의 저족현(猪足縣)³을 경덕왕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지금의 인제현(麟蹄縣)이다.
- 치도현(馳道縣)⁴은 원래 고구려의 옥기현(玉岐縣)⁵을 경덕왕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지금의 서화현(瑞禾縣)⁶이다.
- 삼령현(三嶺縣)⁷은 원래 고구려의 삼현현(三峴縣)을 경덕왕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지금의 방산현(方山縣)이다.

楊麓郡 本高句麗楊口郡 景德王改名 今陽溝縣. 領縣三.

狶蹄縣 本高句麗猪足縣 景德王改名 今麟蹄縣.

馳道縣 本高句麗玉岐縣 景德王改名 今瑞禾縣.

三嶺縣 本高句麗三峴縣 景德王改名 今方山縣.

-
- 1 경덕왕(景德王): 757년에 모든 지명을 중국식으로 고쳤다.
 - 2 희제현(狶蹄縣): 지금의 인제읍과 남면, 북면 지역을 말한다.
 - 3 저족현(猪足縣): 고구려 때에는 오사회(烏斯回)라고도 불렀다.
 - 4 치도현(馳道縣): 지금의 서화면과 북면의 용대리를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 5 옥기현(玉岐縣): 고구려 때에는 개차정(皆次丁)이라고도 하였다.
 - 6 서화현(瑞禾縣): 서화현(瑞和縣)으로도 쓴다.
 - 7 삼령현(三嶺縣): 지금의 양구군 방산면(方山面)이다. 경덕왕 16년인 757년에 양록군의 속현이 되었다.

인제의 역사

마의태자 전설의 보고 인제

경순왕 9년(935년) 10월, 왕은 여러 신하들을 모아 왕건에게 국토를 모두 바치고 항복할 것을 논의하게 되었다. 신하들의 의논도 엇갈리는 가운데 왕자가 나서서 강하게 반대했다.

“나라의 존망이라는 것이 천명(天命)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충신(忠臣), 의사(義士)와 함께 민심을 수습해 스스로 지키다가 힘이 다한 후에 그만두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년의 사직(社稷)을 하루아침에 가볍게 남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경순왕은 “이젠 더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없는데 버텨봤자 죄 없는 백성만 더 괴롭힐 뿐”이라며 끝내 항복을 청하는 글을 지어 고려에 보냈다.

마의태자(麻衣太子, 912년~?)는 신라 마지막(제56대) 왕 경순왕의 왕자이다. 성은 김(金)씨, 이름은 일(鎰 또는 湫)이라 전한다. 고려에 귀순하려는 아버지 경순왕을 만류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라를 떠나 신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의태자는 양평을 지나 홍천을 거쳐 인제로 들어오면서 인제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마의태자가 신라의 옥새를 숨겼다는 ‘옥새바위’, 태자가 수레를 타고 넘었다는 ‘수거너머’, 태자를 보필하던 맹장군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맹개골’, ‘신라 부흥을 위해 양식을 모아두

마의태자유적지비

김부리에 있는 김부대왕각



었다’는 뜻으로 전해지는 ‘군량리’, ‘고토회복’, ‘광복’을 의미하며. 마의태자의 국권회복의 의지와 노력이 배어있는 ‘다무리’ 등 여러 지명과 유적이 인제 이 곳 저 곳에 남아있다. 특히 김부(金富)는 마의태자 김일과 동일한 인물로 마의태자가 일행과 함께 거주하고 백성을 다스렸던 곳으로 알려진 김부리엔 ‘김부대왕각’이 있어 주민들이 마의태자가 평소 즐겨 먹던 미나리떡과 취떡 등을 제물로 올리며 제례를 드려왔다.

인제는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으로 인해 세상을 한탄하며 은둔한 곳이 아니다. 신라 부흥을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하였다. 김부리 인근의 갑둔리(甲屯里)는 그 이름이 갑옷 갑(甲)과 진칠 둔(屯)이다. 다분히 군사적인 진지 이름이다. 항병골이라는 골짜기 이름도 항병(抗兵)이 의미하는 것이 신라부흥운동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한계리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한계산성을 쌓아 만에 있을 전쟁에도 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제를 읊은 한시

김원행(金元行), 『인제를 지나며』, 『미호집(溪湖集)』

맑은 물 흰 바위 백여 리에 뻗어 있고 清流白石百餘里
 가랑비 속 한가로이 연기 나는 집 몇 채 微雨閒煙數屋村
 여원 말 타고서 푸른 솔숲 지나가니 羸馬行穿松翠去
 무릉도원 찾아간 뱃사공과 어떠한가 何如舟子入桃源

나그네의 눈에 인제는 무릉도원으로 보일 것이다. 진(晉)나라 때 무릉(武陵)의 어부가 복사꽃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 무릉도원으로 들어간 것처럼, 김원행도 맑은 물과 흰 바위를 따라 걷다보니 어느새仙境(仙境)이다. 세상의 시비가 없는 곳, 순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디나 무릉도원이다.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의 시는 인제가 무릉도원임을 먼저 말해주었다.

이식(李植), 「인제 객사에서 지은 즉흥시」

푸른 산속에 자리 잡은 옛 고을 古縣蒼山內
구름 뚫은 돌길 하나 비탈져 놓여 있네 穿雲石逕斜
야전과 백성 모두 들판에 뛰노는 사슴인 듯 吏民同野鹿
정자나 관소나 참선(參禪)에나 걸맞겠네 亭館似禪家
여름철 밭두둑엔 토종(土種) 작물 풍성하고 夏隴多宜粟
봄날 계곡물엔 무수히 떠가는 꽃잎새들 春溪徧漲花
현감은 나를 보고 상객으로 맞으면서 邀頭邀上客
토란 삶고 새 차 끓여 대접하누나 燒芋煮新茶

인제읍 전경



고려사高麗史



세종(世宗) 31년(1449)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문종(文宗) 1년(1451)에 완성된 역사서다. 「지리지」에 인제에 대한 자료가 있다.



광여도

19세기에 만들어진 전국 군현지도집 광여도 전체의 구성은 해동지도와 유사하다. 세계지도, 외국지도, 요계관방도, 조선전도 뒤로 각 도 별지도 아래 군현지도들이 수록되어 있다. 1-7책에 걸쳐 경기도(1책), 충청도(2책), 전라도(3책), 경상좌도(4책), 경상우도(5책), 평안도(6책), 황해도(6책), 강원도(7책), 함경도(7책) 도지도와 군현지도, 그리고 주요 군사적 요충지의 지도들이 실려 있다.

- 기린현(基麟縣)¹ 본래 고구려의 기지군(基知郡)²인데, 고려에 와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춘주(春州)³에 소속시켰다.
- 인제현(麟蹄縣) 본래 고구려의 저족현(猪足縣) 【오사회(烏斯回)라고도 한다】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희제(豨蹄)로 고쳐서 양록군(楊麓郡)의 관할 아래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에 와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춘주(春州)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소속시켰다. 공양왕(恭讓王) 원년(元年)⁴에 감무(監務)⁵를 두었다.
- 서화현(瑞禾縣) 【화(禾)는 화(和)로도 쓴다】 본래 고구려의 옥기현(玉岐縣) 【개차정(皆次丁)이라고도 한다】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치도(馳道)로 고쳐서 양록군(楊麓郡)의 관할 아래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에 와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춘주(春州)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소속시켰다. 달리 서성(瑞城)이라 부른다.

基麟縣 本高句麗基知郡 高麗改今名來屬.

麟蹄縣 本高句麗猪足縣 【一云烏斯回】 新羅景德王改名豨蹄 爲楊麓郡領縣. 高麗更今名來屬. 後屬淮陽. 恭讓王元年置監務.

瑞禾縣 【禾一作和】 本高句麗玉岐縣 【一云皆次丁】 新羅景德王改名馳道 爲楊麓郡領縣. 高麗更今名來屬. 後屬淮陽. 別號瑞城.

-
- 1 기린현(基麟縣): 『고려사』 권 58 춘주(春州)편을 보면 예속된 군이 둘이고, 현이 아홉이라고 하였는데 그 중 하나였다.
 - 2 기지군(基知郡): 지금의 인제군 기린면을 가리킨다.
 - 3 춘주(春州): 춘천을 가리킨다.
 - 4 공양왕(恭讓王) 원년(元年): 1389년.
 - 5 감무(監務):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현령을 둘 수 없는 작은 현에 두었던 우두머리

인제의 역사

마의태자 전설을 들려주는 한계산성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한계산석성(寒溪山石城)은 돌인데, 현의 북쪽 15리에 있다고 적고 있다. 상성(上城)은 둘레가 7백 29보이며, 샘 하나가 있는데 가물면 마른다고 알려준다. 하성(下城)은 둘레가 1천 8백 72보이며, 세 골짜기 물이 합쳐 흘러서 작은 냇가 되는데, 오랫동안 마



한계산성

르지 않는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한계산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려사』 조휘열전(趙暉列傳)에는 1259년(고종 46) 몽고군과 조휘가 이끄는 반란군이 이 성을 공격하였으나, 방호별감(防護別監) 안홍민(安弘敏)이 야별초를 거느리고 출격하여 섬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계산성은 몽고항쟁을 할 때 축조된 성곽만이 아니라 이전에 축조한 성곽도 남아 있으며, 그 축조기법을 볼 때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때부터 산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설은 신라 경순왕 때 마의태자(麻衣太子)가 신라부흥운동을 할 때 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훈련시켰다는 설을 뒷받침한다.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은 인제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에 널리 퍼져있다.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에는 마의태자를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지낸다는 김부대왕각, 마의태자가 옥새를 감추어 두었다는 옥새바위, 마의태자가 수레를 타고 넘었다는 수구네미가 있다.

한계산성 안에 있는 천제단에 비명(碑銘)이 새겨져 있는데 가는 필체에 이끼가 끼어 정확히 판독하기 어렵다. 김성진(金成鎭), 신광택(申光澤), 김세진(金世震)이라는 세 사람의 이름이 보인다. 경오(庚午), 신미(辛未)라는 간지(干支)도 읽을 수 있다. 세 사람이 어느 시기의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마의태자를 따라 나선 신라의 장군이었을 것이라고 추측

하기도 한다. 정확한 연대도 알기 어려워 여러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이 제단은 산성을 쌓고 천지신명께 국가의 무운장구와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목적에서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는 고려시대에 제사를 지냈던 제단이었거나, 산성 내 제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후 선(仙)사상, 도교와 불교가 융합한 교리를 만든 사람이 하늘에 제사지내기 위해 세운 제단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인제 한계산성 학술조사 보고서』 중에서)

인제를 읊은 한시

김창협, 「설악산(雪嶽山)을 바라보며」, 『농암집』

나무 끝에 기이한 산 차례로 나오는데 木末奇峯次第生
수정처럼 빼어난 색 사람을 놀래키네 晶熒秀色使人驚
그 누가 알았으랴 금강산 중향성 밖에 誰知楓嶽香城外
옥을 깎아 세운 듯한 산이 또 있을 줄을 更有山如削玉成

중향성은 금강산 비로봉에서 서남쪽으로 길게 내려 뺨은 하나의 큰 산 줄기로서 산세가 매우 웅장할 뿐만 아니라 백옥같이 흰 암석들이 층층으로 높이 쌓여 성벽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김창협의 발길은 한계령을 따라 간다. 서북주릉을 보면 그의 시선에 동감할 것이다. 참, 서북주릉을 한계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세종실록 世宗實錄



단종 2년(1454)에 완성된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이 본명이다. 「지리지」에 인제 관련 자료가 있다.



동여도

『대동여지도』와 유사한 내용으로 김정호(金正浩)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고본(稿本: 처음 쓴 내용의 책임 가능성과 『대동여지도』에 자료를 보충한 필사본일 수 있다. 『대동여지도』의 22첩에 지도 목록 1첩을 첨가하여 23첩으로 되어 있다. 또한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와도 비슷한데, 『동여도』가 좀 더 내용이 자세하다.

인제현(麟蹄縣)

- 현감(縣監)¹ 한 사람이다.
- 본래 고구려의 저족현(猪足縣) 【오사회(烏斯回)라고도 한다.】인데, 신라에서 희제현(稀蹄縣)으로 고쳐 양록군(楊麓郡) 관할 아래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에서 인제현(麟蹄縣)으로 고치고², 처음에는 춘주(春州)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소속시켰다. 공양왕(恭讓王) 원년 기사년(己巳年)³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르다가, 태종(太宗) 13년 계사년(癸巳年)⁴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칭하였다.
- 소속된 현이 하나다. 서화(瑞和) 【『삼국사(三國史)』에는 화(禾)로 되었다.】는 본래 고구려의 옥기현(玉岐縣)인데, 신라에서 치도(馳道)로 고쳐서 양록군(楊麓郡) 관할 아래의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에서 서화(瑞禾)로 고치고 처음에는 춘주(春州)의 경계안으로 삼았다가, 뒤에 회양(淮陽)⁵에 소속시켰다. 달리 서성(瑞城)이라 부른다.
- 소(所)가 하나이니, 이포(伊布)⁶이다. 【예전에는 춘천(春川)에 소속시켰는데, 세종 6년 갑진(甲辰)에 함께 인제현에 소속시켰다.⁷】
- 북룡산(伏龍山)⁸ 【현의 북쪽에 있는데, 현의 사람들이 진산으로 삼는다.】
-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양양(襄陽)과 떨어진 것이 41리, 서쪽으로 양구(楊口)와 떨어진 것이 27리, 남쪽으로 홍천(洪川)과 떨어진 것이 32리, 북쪽으로 간성(杆城)과 떨어진 것이 69리이다.

1 현감(縣監): 이조 때 작은 현의 우두머리를 말하며, 종육품의 벼슬에 해당된다.

2 인제(麟蹄):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에 전국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의 이름을 고쳤다.

3 기사년(己巳年): 1389년.

4 계사년(癸巳年): 1413년.

5 회양(淮陽): 강원도 북동쪽에 있는 군. 태백산맥 북부의 산악 지대로 동부에는 금강산을 비롯한 높은 산들이 솟아 있다.

6 이포(伊布): 본래 춘천부에 딸린 이포소(伊布所)가 있던 곳인데, 세종 6년(1424)에 인제군에 소속시켰다. 그 후에 이포리(伊布里)가 되었다.

7 세종(世宗) 6년(1424)에 호조에서 회양(淮陽)과 춘천 경내 군현의 소속 변경에 대해 아뢰기를 '회양 경내의 서화, 춘천 경내의 이포(伊布)는 마땅히 가까운 인제현에 소속시키고, 회양 경내의 방산(方山)과 춘천 경내의 해안(亥安)은 가까운 양구현에 소속시킬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8 북룡산(伏龍山): 용이 었드려 있는 것과 같아서 북룡산이라 하였다. 후에 기룡산(起龍山)이라 고쳤다.

- 호수가 1백 25호이며, 인구가 2백 단(單) 7명이다. 서화(瑞和)의 호수는 72호이며, 인구가 1백 91명이다. 군정(軍丁)⁹은 시위군(侍衛軍)¹⁰이 69명이고, 선군(船軍)¹¹이 4명이다.



북룡산. 지금은 기룡산으로 부른다

- 토성(土姓)¹²이 둘인데, 박(朴), 허(許)요, 망성(亡姓)¹³이 둘인데, 조(曹), 손(孫)이다. 서화(瑞和)의 성은 하나로, 최(崔)이고, 망성(亡姓)¹³이 넷으로, 현(玄), 이(李), 곡(谷), 소(邵)이다.
-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차다. 간전(墾田)¹⁴이 1천 2백 33결(結)¹⁵이요, 【논¹⁶이 겨우 14결이다.】 적합한 농작물은 조·피·팥·보리·뽕나무·삼·배·밤이다. 나라에 바치는

9 군정(軍丁): 군적(軍籍)에 있는 지방의 장정을 말한다.

10 시위군(侍衛軍): 조선왕조 초기 병종(兵種)의 하나. 중앙에 교대로 근무하는 지방의 장정을 말한다.

11 선군(船軍):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의 수군을 일컫는 말이다.

12 토성(土姓): 고려시대 이래로 과거 또는 서리직(胥吏職)을 거친 벼슬 품관 집단의 성씨로 대부분 거주 지역을 관향으로 하였다. 인제, 서화를 관향으로 하는 성씨는 10개 성에 14개 본관으로 되어 있다. 인제를 관향으로 하는 성씨는 손(孫), 조(曹), 현(玄), 허(許), 안(安), 최(崔), 박(朴), 이씨(李氏)가 있고, 서화를 관향으로 하는 성씨로는 곡(谷), 소(邵), 현(玄), 이씨(李氏)가 있으며, 기린을 관향으로 하는 성씨는 유일하게 박씨(朴氏)가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성씨는 인제박씨(麟蹄朴氏), 인제이씨(麟蹄李氏), 서화최씨(瑞和崔氏) 3성뿐이다.

13 망성(亡姓): 집단으로 거주하던 지역에서 모두 떠났거나 멸손된 성씨.

14 간전(墾田): 새로 개간한 전지(田地)

15 결(結): 조선조에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결(結), 부(負)라는 단위를 썼다. 토지의 면적과 수확량을 이중으로 표시하는 독특한 계량단위로 벼 한 줌을 파(把)라 하고,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한 짐)라 하였으며, 100부를 1결(結)이라 하였으나, 토질에 따라 산출량이 다르고, 1결이라 하더라도 그 계량 단위는 확실하지는 않았다.

16 수전(水田): 물을 끌어들이 벼를 심게 되어 있는 논.

지방의 특산물은 봉밀(蜂蜜), 황납(黃蠟)¹⁷, 자석(磁石), 송자(松子)¹⁸, 오배자(五倍子)¹⁹, 석용(石茸), 진용(眞茸)²⁰, 지초(芝草)²¹, 옷(漆), 녹포(鹿脯)²², 호피(狐皮)²³, 이피(狸皮)²⁴, 장피(獐皮)²⁵, 웅피(熊皮)²⁶, 저모(猪毛)²⁷, 웅모(熊毛)²⁸, 정철(正鐵)²⁹이다. 약재(藥材)는 복령(茯苓), 오미자(五味子), 당귀, 인삼, 전호(前胡)³⁰, 작약(芍藥)³¹, 견우자(牽牛子)³², 쥐꼬리망초뿌리(秦)³³, 왕골(芎), 안식향(安息香)³⁴, 백교향(白膠香)³⁵, 산무애뱀(白花蛇), 산양이뿔(羚羊角), 웅담(熊膽)이다.

- 한계산석성(寒溪山石城)³⁶은 둘인데, 현의 북쪽 15리에 있다. 【상성(上城)³⁷은 둘레가 7백 29보(步)이다. 샘 하나가 있는데 가물면 마른다. 하성(下城)³⁸은 둘레가 1천 8백 72보이다. 세 골짜기 물이 합쳐 흘러서 작은 냇가 되는데,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다.】

- 17 황납(黃蠟): 밀납(蜜蠟). 꿀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를 끓여서 만드는 유지(油脂).
 18 송자(松子); 잣나무의 열매.
 19 오배자(五倍子): 붉나무에 오배자 벌레가 기생하여 된 흙 모양의 충영(蟲屢). 입병. 치통. 치질 등의 약재로 쓰임.
 20 진용(眞茸): 느타리버섯.
 21 지초(芝草): 영지. 모균류(帽菌類)에 속하는 버섯.
 22 녹포(鹿脯): 사슴의 고기로 만든 포.
 23 호피(狐皮): 여우의 가죽.
 24 이피(狸皮): 삿갓의 가죽.
 25 장피(獐皮): 노루의 가죽.
 26 웅피(熊皮): 곰의 가죽.
 27 저모(猪毛): 돼지 털.
 28 웅모(熊毛): 곰의 털.
 29 정철(正鐵); 시우쇠. 무쇠를 불려서 만든 쇠붙이의 한 가지.
 30 전호(前胡); 미나리과에 속하는 풀로서 1년 생. 다년생이 있다.
 31 작약(芍藥): 미나리 아재비과의 다년생 풀로 뿌리는 약재로 쓰인다.
 32 견우자(牽牛子): 나팔꽃의 씨. 푸르거나 붉은 꽃의 씨는 흑축(黑丑). 흰 꽃의 씨는 백축(白丑)이라고 하는데, 모두 성질이 차며 대소변을 통하게 하거나 부종(浮腫). 적취(積聚). 허리앓이 등에 쓰임.
 33 쥐꼬리망초: 쥐꼬리 망초과에 속하는 1년 생 풀. 키는 30. 40cm 정도 자라고, 잎은 마주 자라며 자루가 있고, 난형 또는 타원형의 버들잎 모양이다. 줄기는 일부 누워있고 7-9월에 줄기의 끝 잎 아귀에서 꽃 줄기가 나와 연분홍빛 혹은 흰빛의 작은 꽃이 이삭 모양으로 핀다.
 34 안식향(安息香); 복나무진.
 35 백교향(白膠香): 단풍나무의 진.
 36 한계산석성(寒溪山石城): 한계산성을 말한다.
 37 상성(上城): 내성이라고도 한다.
 38 하성(下城): 외성이라고도 한다.



한계산성



부림역터. 지금도 관벌이라 부른다.

- 역(驛)이 넷인데, 부림(富臨)³⁹, 마노(馬奴)⁴⁰, 임천(臨川)⁴¹, 남교(嵐校)⁴²이다. 【위의 두 역은 모두 서화(瑞和)에 있다.】

기린현(基麟縣)⁴³

- 소속된 현이 하나이다. 기린(基麟)은 본래 고구려의 기지군(基知郡)인데, 고려에서 기린(基麟)으로 고치고,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 기린은 호수가 1백 단(單) 8호이고, 인구가 2백 51명이다.
- 기린(基麟)은 속성(續姓)⁴⁴이 하나인데, 박(朴)이다.

39 부림역(富臨驛): 원통역이라고도 한다. 현재의 인제군 북면 한계리 관벌에 있었다.

40 마노역(馬奴驛): 마리역(瑪璃驛)으로 표기한 곳도 있다.

41 임천역(臨川驛): 현재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논장교 건너에 있었다.

42 남교역(嵐校驛): 현재 인제군 북면 용대리 남교에 있었다. 지금은 북면에 편입되었으나, 당시에는 용대리 일원이 서화현에 편입되어 있었다.

43 춘천 도호부(春川都護府)에 실려 있는 기린현과 관련된 항목을 발췌하였다.

44 속성(續姓): 고려 말에는 없었으나 조선 초에 생겨난 성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기재된 성씨의 하나로, 모든 성을 수록한 것은 아니고 사족·향리 등 그 지역의 유력한 성씨를 토성·내성·망성·속성 등으로 나누어 기재했다. 이런 조사는 토착세력과 군현상태를 파악하여 지방통치의 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었다.

〈麟蹄縣〉

縣監一人

本高句麗猪足縣【一云烏斯回】新羅改稀蹄縣，爲楊麓郡領縣。高麗改麟蹄縣，初屬春州，後屬淮陽。恭讓王元年己巳，始置監務，本朝因之。太宗十三年癸巳，例稱縣監。

屬縣一，瑞和，【《三國史》作禾。】本高句麗玉岐縣，新羅改馳道，爲楊麓郡領縣。高麗改瑞禾，初爲春州任內，後屬淮陽。別號瑞城。

所一，伊布。【古屬春川，今上六年甲辰，並來屬。】

伏龍山。【在縣北，縣人以爲鎮山。】

四境，東距襄陽四十一里，西距楊口二十七里，南距洪川三十二里，北距杆城六十九里。

戶一百二十五，口二百單七。瑞和戶七十二，口一百九十一。軍丁，侍衛軍六十九，舡軍四。

土姓二，朴 許；亡姓二，曹 孫。瑞和姓一，崔。亡姓四，玄 李 谷 邵。

厥土瘠，風氣寒，墾田一千二百三十三結。【水田止十四結°】土宜，粟 稷 豆 麥 桑 麻 梨 栗。土貢，蜂蜜 黃蠟 磁石 松子 五倍子 石茸 眞茸 芝草 漆 鹿脯 狐皮 狸皮 獐皮 熊皮 猪毛 熊毛 正鐵。藥材，茯苓 五味子 當歸 人蔘 前胡 芍藥 牽牛子 秦艽 安息香 白膠香 白花蛇 羚羊角 熊膽。

寒溪山石城二，在縣北十五里。【上城，周回七百二十九步，有一泉，旱則渴。下城周回一千八百七十二步，有三洞水，合流爲一小溪，長不渴。】

驛四，富臨 馬奴 臨川 嵐校。【右二驛，皆在瑞和。】

〈基麟縣〉

屬縣一，基麟，本高句麗基知郡，高麗改基麟，本朝因之。

基麟戶一百單八，口二百五十一。

基麟續姓一朴。

인제의 역사

향소부곡(鄕所部曲)

향·소·부곡의 발생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먼저 전통적인 견해는 1930년대 이래 유물사관론자들이 제기한 이론으로, 향소부곡을 천민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은 향·소·부곡의 발생이 기원 전후 철기문화의 전래로 사회적 분업이 발전하여 토호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자 소국의 분립과 투쟁에서 광범위한 예속민이 발생했고, 그것이 향·소·부곡의 시초가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최근 학계에서는 고려시대 향·소·부곡 집단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국가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고려 초기 정부는 통합과정중 반왕조적인 호족들의 거주지를 배경으로 그들 세력권 내의 주민을 향·소·부곡민으로 편성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조·포·역의 3세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군현제 주민과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향·부곡민은 이들과 달리 추가로 둔전·공해전 등 국가직속지를 경작하는 특정의 역을 부담했다. 소의 주민은 금·은 등의 광산물, 미역·소금 등의 해산물, 맥·자기·종이 등의 수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역을 추가로 부담했다. 한편, 장과 처의 주민은 궁원과 사원의 토지를 경작했으며, 그곳의 조세를 부담했다. 이와 같이 이들 주민은 특정의 역을 추가로 부담했기 때문에 군현민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신분이 천민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고려는 이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부곡제라 하여 군현체계의 한 단위로 편성했다. 따라서 이들 주민에 대한 수취는 군현체제를 통해 시행되었다. 즉 향·소·부곡은 외관이 상주하여 군현의 행정을 전담한 주현(主縣)에 행정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 대한 수취는 실질적으로 해당지역 외관의 지시를 받는 이속층인 토호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속현과 함께 향·소·부곡 지역은 이들의 집중적인 수탈을 받는 곳이었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 향·소·부곡은 12세기초 이후 주민이 대거 도망하면서 점차 해체되기 시작했다. 소는 각종 수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중앙의 기관이나 권세가의 집중적인 수탈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기록에 의하면 12세기초 향·소·부곡 가운데 소지역의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지역에서 도망했다고 한다. 나아가 12세기 후반 대

규모 농민항쟁은 향·소·부곡 집단이 해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고려는 원(元)과의 전쟁이 마무리된 14세기 이후 일련의 군현개편을 통해 향·소·부곡을 주현으로 승격시키거나 주민을 군현에 예속시켜 그곳의 직할현으로 편성하는 등 부곡제를 해체시키고 군현의 단일 영역으로 재편성했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 초기 군현개편에도 그대로 이어져 16세기 이후 향·소·부곡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인제를 읍은 한시

정범조(丁範祖, 1723~1801), 「백담사」, 『해좌집(海左集)』

유람하느라 세 번 산 속에서 자고 山事經三宿
신선처럼 노닐다 백담사에 이르렀네 仙游到百源

백담사



몸은 깊이 들어와 사슴과 벗하여 살고 身深依鹿住
경계는 고요한 가운데 꽃은 쉽게 시드는구나 境寂易花昏

멀리 있는 폭포소리는 숲속에서 들려오고 遠瀑連林磬
봄 날 별은 계곡 입구에 총총하네 春星繞洞門
유람한 곳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 分明諳所歷
뒷날 스님과 이야기꽃을 피우려네 後約與僧論

정범조(丁範祖): 시울과 문장에 뛰어나 사림의 모범으로 명성을 얻었고, 또 이로 인해 영조와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특히, 문체반정(文體反正)에 주력하던 정조에 의해 당대 문학의 제1인자로 평가되어 70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문사의 임무를 맡았다. 남인 집안 출신으로서 정치적 자세는 불편부당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당시의 탕평책에는 비판적이었다. 즉, 탕평책이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균용론(均用論)만 취하는 것이어서 사의(私意)가 횡행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였다. 대신 봉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 관리와 신의 있는 시책, 분명한 정치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집으로 『해좌집』 39권이 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承覽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찬지리서이다. 이 책은 세 차례의 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다.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愼)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新繪)’의 두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여지도
편찬연대 · 제작자 미상의 군(郡) · 현(縣)별 지도책

인제현(麟蹄縣)

【동쪽으로 양양부(襄陽府)의 경계까지 72리다. 남쪽으로 홍천현(洪川縣)의 경계까지 53리다. 서쪽으로 양구현(楊口縣)의 경계까지 40리다. 북쪽으로 간성군(杆城郡)의 경계까지 80리다. 경도(京都)와의 거리는 367리다】

○ 고을의 내력

본래 고구려의 저족현(猪足縣) 【오사회(烏斯回)라고도 한다.】 이다. 신라 시대에 회제(狝蹄)로 바꾸고 양록군(楊麓郡) 관할 아래 현으로 하였다. 고려 시대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춘천부(春川府)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소속시켰다. 공양왕(恭讓王) 원년¹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시대에서는 태종(太宗) 13년²에 예에 따라 고치고 현감(縣監)을 두었다.

○ 소속된 현(縣)

서화현(瑞和縣) 【화(和)는 화(禾)로도 쓴다. 일명 서성(瑞城)이라고도 한다. 고을의 북쪽 60리에 있다. 본래 고구려의 옥기현(玉岐縣)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치도(馳道)라 바꾸고 양록군(楊麓郡) 관할 아래의 현으로 하였다. 고려에서는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춘천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소속시켰다. 조선 시대에는 세종(世宗) 조³에 인제현(麟蹄縣)에 소속시켰다.】

○ 관원(官員)

현감과 훈도(訓導)⁴ 【각 1명씩이다】

○ 군명(郡名)

저족(猪足), 오사회(烏斯回), 회제(狝蹄)

1 공양왕(恭讓王) 원년: 1389년.

2 태종(太宗) 13년: 1413년.

3 세종조(世宗朝): 세종 6년(1424)

4 훈도(訓導): 500호 이상 되는 고을에 두었던 종9품의 벼슬.

○ 성씨(姓氏)

본현(本縣)⁵: 박(朴)씨, 허(許)씨, 조(曹)씨, 손(孫)씨가 있다.

서화(瑞和): 최(崔)씨, 현(玄)씨, 이(李)씨, 곡(谷)씨, 소(郡)씨가 있다.

○ 산천(山川)

○ 북룡산(伏龍山)⁶ 【고을의 북쪽 2리에 있으며 진산이다.】

○ 한계산(寒溪山) 【산 위에 성(城)이 있다. 냇물이 성안으로부터 흘러 나와서 곧 폭포를 이루어 내려가니 흐름이 수백 척의 높이에 달려 있으므로 바라보면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워진 것 같다. 원통역으로부터 동쪽은 좌우가 다 큰 산이어서 동부(洞府)는 깊숙하고, 산골 물은 가로 세로 흘러 건널목이 무려 36곳이나 된다. 나무들은 갈대 자리를 말아 세운 듯한 것이 위로는 하늘에 솟고 곁에는 가로 뻗은 가지가 없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욱 높아서 그 꼭대기를 볼 수 없다. 또 그 남쪽에는 봉우리가 절벽을 이루었는데 그 높이가 천 길이나 되어서 기괴하기가 형언할 수 없다. 너무 높아서 새도 날아 지나가지 못하며, 행인(行人)들은 절벽이 떨어져 누르지나 않을까 의심한다.

그 아래에는 맑은 샘물이 바위에 부딪쳐 못을 이루었는데 반석이 앞을 만하다. 또 동쪽의 몇 리는 입구가 매우 좁고, 가느다란 작은 길이 벼랑에 걸려 있다. 빈 구멍은 입을 벌리고, 높은 봉우리들은 높이 빼어나서 용이 마주 당



안산

5 본현(本縣): 인제현.

6 북룡산(伏龍山): 현재는 기룡산(起龍山)이라 부른다.



미시령



합강

기고 범이 움켜잡을 것 같으며 층대(層臺)를 여러 층 겹쳐 놓은 것 같은 것이 수없이 많아서 그 좋은 경치는 영서에 으뜸이 된다.】

- 소동라령(所冬羅嶺) 【고을의 동쪽 70리에 있다.】
- 소파령(所波嶺)⁷ 【고을의 북쪽 82리에 있다. 간성군(杆城郡)과 경계를 이룬다.】
- 미시파령(彌時坡嶺)⁸ 【고을의 북쪽 80리에 있다.】
- 미륵천(彌勒川)⁹ 【고을의 동쪽 5리에 있다. 물의 근원은 네 곳인데 하나는 소동라령(所冬羅嶺)에서, 하나는 소파령(所波嶺)에서 나오고, 또 서화현(瑞和縣)과 춘천부(春川府) 기린현(基麟縣)에서 나온다.】
- 주연진(舟淵津)¹⁰ 【고을의 서쪽 9리에 있다. 미륵천(彌勒川)의 하류로 여름에는 노 젓는 배를 사용한다.】

7 소파령(所波嶺): 서파령(西坡嶺)으로 표기한 곳도 있다.

8 미시파령(彌時坡嶺): 미시파령(味施波嶺), 미시파령(彌水波嶺)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미시령(彌矢嶺)으로 사용한다.

9 미륵천(彌勒川): 내린천(內麟川)과 인북천(麟北川)이 합류하면서 미륵천이 된다.

10 주연진(舟淵津): 마노진(馬奴津)이라고도 한다. 마노역(馬奴驛) 앞에 있던 나루터.

○ 지역 특산물

해송자(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자초(紫草), 인삼(人蔘), 복령(茯苓), 봉밀(蜂蜜), 영양(羚羊), 백화사(白花蛇),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¹¹, 금인어(錦鱗魚)¹², 옷(漆).

○ 학교(學校)

향교(鄕校)¹³ 【고을의 동쪽 1리에 있다.】



인제향교

11 여항어(餘項魚): 열목어. 물이 차고 맑은 하천 상류에서만 산다.

12 금인어(錦鱗魚): 쏘가리. 농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

13 향교(鄕校): 인제향교의 건립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각종 문헌을 참고해 보면 1480년 이전에 건립되었으며, 광해군 2년(1610)에 현감 이빙(李憑)이 중건하고, 광해 7년(1615)에 현감 구인기(具仁基)가 군 서쪽으로 옮겨 세웠으며, 영조 갑자(甲子:1744)에는 현감 신진하(申鎭夏)가 군의 동쪽으로 옮겨 세웠다. 또 1934년에는 수해로 인하여 군수 정하형(鄭河亨)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었다.

○ 역원(驛院)

- 원통역(圓通驛)¹⁴: 고을의 동쪽 30리에 있다.
- 마노역(馬奴驛): 고을의 서쪽 30리에 있다.
- 남교역(嵐校驛): 고을의 북쪽 50리에 있다.
- 임천역(臨川驛): 서화현(瑞和縣) 남쪽 2리에 있다.
- 신원(新院): 원통역 동쪽에 있다.

『신증』

- 가역원(加歷院)¹⁵: 고을의 동쪽 72리에 있다. 양양부(襄陽府)와 경계다.
- 건이원(巾伊院)¹⁶: 고을의 남쪽 33리에 있다. 홍천현(洪川縣)과 경계다.

○ 사묘(祠廟)

- 사직단(社稷壇)¹⁷ 【고을의 서쪽에 있다.】
- 문묘(文廟)¹⁸ 【향교에 있다.】
- 성황사(城隍祠)¹⁹ 【고을의 남쪽 4리에 있다.】
- 여단(厲壇)²⁰ 【고을의 북쪽에 있다.】

○ 고적(古跡)

- 이포소(伊布所) 【고을의 북쪽 144리에 있다. 옛적에는 춘천부(春川府)에 속해 있었으나 세종(世宗) 6년에 인제에 소속시켰다.】
- 한계산고성(寒溪山古城) 【석축의 둘레가 6278척이고, 높이가 4척이다. 성안에는 우물이 하나 있으나 지금은 반이나 무너졌다.】

14 원통역(圓通驛): 원통역(元通驛)의 다른 표기.

15 가역원(加歷院): 지금의 인제군 북면 용대리2리에 있었다.

16 건이원(建伊院): 지금의 인제군 남면 어론리 ‘거니고개’ 밑에 있었다. 건이원(巾伊院)으로 표기 한 곳도 있다.

17 사직단(社稷壇): 종묘와 함께 나라의 신과 곡식을 맡은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이다. 가뭄에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 풍년을 비는 기곡제(祈穀祭)등을 여기에서 지냈는데, 지방의 관아에서도 서쪽에 사직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며 국태민안과 풍년을 빌었다.

18 문묘(文廟): 공자를 받드는 건물로 향교안에 세웠다.

19 성황사(城隍祠): ‘서낭당’이라고도 한다. 특정 지역의 수호신을 모시는 집으로 현재에도 각 마을에 전해져 오고 있다.

20 여단(厲壇):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인이 없는 외로운 혼령을 나라에서 제사지내주던 제단이다.

○ 지역을 읊은 시

- 민가(民家)라야 겨우 여덟 아홉 뿐 【우승범(禹承範)²¹의 시에, “옛 고을 생긴 지 얼마 되었나, 민가(民家)라야 겨우 여덟 아홉 뿐”이라고 하였다.】
- 많은 산들 깊고 멀어 수레와 말 탄 손님 오는 이 없지만 【하연(河演)²²의 시에 “많은 산들 깊고 멀어 수레와 말 탄 손님 오는 이 없지만, 길 하나 울퉁불퉁 돌 개천 끼고 있네”라고 하였다.】

『신증』

- 땅은 항상 서늘하니 눈 남아 있고 【성현(成愷)²³의 시에 “다리를 건너도 관도(官道)는 멀고, 숲 속에 가려진 인가 두어 채, 땅은 항상 서늘하니 눈 남아 있고, 깊은 산엔 아직도 꽃 피지 않았네. 처마 끝 참새 떼 추위와 싸우는데, 솔숲에 저녁바람 거세게 이니, 나 그네의 수심은 더해만 가고, 턱 고이고 있으려니 해는 이미 뉘엿뉘엿”라고 하였다.】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 기린현²⁴

○ 소속된 현(縣)

기린현(基麟縣) 부의 동쪽 140리에 있다. 본래 고구려의 기지군(基知郡)이었다. 고려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춘천부에 소속시켰다.

○ 성씨

기린(基麟) 박(朴).

21 우승범(禹承範): 단양인(丹陽人)으로 자는 자시(字試)다. 태종 3년(1408)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세종 8년(1427)에 중시(重試)에 급제한 후에 황해도감사(黃海道監司), 호조판서(戶曹判書)등을 지냈다.

22 하연(河演): 진주인(晉州人)으로 호가 경제(敬齊)다. 세종조의 상신(相臣)으로 고려말 문과에 급제한 뒤 대제학을 지내고, 만년에는 영상의 자리에 올랐다. 성격이 강직하고 단아하였으며, 문장도 뛰어났는데 특히 고학(古學)을 좋아하였다.

23 성현(成愷): 창령인(昌寧人)으로 자는 경숙(馨叔)이고 호는 용제(慵齊)다. 1462년 문과에 급제한 후 강원도감찰사, 평안, 경상도감찰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였다.

24 기린현과 관련된 항목만 발췌하였다.

【東至襄陽府界七十二里，南至洪川縣界五十三里，西至楊口縣界四十里，北至杆城郡界八十里，距京都三百六十七里。】

建置沿革

本高句麗猪足縣。【一云烏斯回】新羅改猪蹄爲楊麓郡領縣，高麗改今名屬春川，後屬淮陽，恭讓王元年置監務，本朝太宗十三年例改爲縣監。

屬縣 瑞和縣【和一作禾，一名瑞城，在縣北六十里，本高句麗玉岐縣，新羅景德王改馳道爲楊麓郡領縣，高麗改今名屬春川，後屬淮陽，本朝世宗朝來屬。】

官員 縣監訓導【各一名】

郡名 猪足烏斯回猪蹄

本縣 朴許曹孫。

瑞和 崔玄李谷邵。

伏龍山【在縣北二里鎮山】

寒溪山【在縣東五十里，山上有城有川，自城中流出卽成瀑布而下懸流數百尺，望之如白虹垂天，自圓通驛而東左右皆大山，洞府深遙，溪水從橫而渡者三十六，樹木如簣上竦雲霄，其南峯作絕壁，其高千仞，奇怪莫狀，禽鳥不能飛度，行人疑遙墜其下，清泉觸巖成潭，盤石可坐東數里，洞口甚狹，細經緣崖竅穴，哈呀峯巒峭拔如龍拏虎攫，如累層臺者無數，其形勝甲於嶺西】

所冬羅嶺【在縣東七十里】

所波嶺【在縣北八十二里，杆城郡界】

彌時坡嶺【在縣北八十里】

彌勒川【在縣東五里，其源有四，一出所冬羅嶺，一出所波嶺，一出瑞和縣，一出春川府基麟縣】

舟淵津【在縣西九里，彌勒川下流，夏用舟楫】

土產

海松子 五味子 紫草 人蔘 茯苓 蜂蜜 羚羊 白花蛇 訥魚 餘項魚 錦鱗魚 漆

學校

鄉校【在縣東一里】

驛院

圓通驛【在縣東三十里】

馬奴驛【在縣西三十里】

嵐校驛【在縣北五十里】

臨川驛【在瑞和縣南二里】

新院【在圓通驛東】

〈新增〉 加歷院【在縣東七十二里襄陽府界】

巾伊院【在縣南三十三里洪川縣界】

祠廟

社稷壇【在縣西】

文廟【在鄉校】

城隍祠【在縣南四里】

厲壇【在縣北】

古跡

伊布所【在縣北一百四十四里 古屬春川府 世宗六年來屬】

寒溪山古城【石築周六千二百七十八尺 高四尺 內有一井 今半頽落】

居民八九家【禹承範詩 古縣幾多歲 云云】

衆山深邃絕輪蹄【河演詩一 云云 路高低傍石溪】

地爽常留雪【成倪詩 過橋官道遠 林掩數人家 云云 山深未有花 棘簷寒雀鬪 松樹晚風多 旅況增愁疾 支願日已斜】

屬縣

基麟縣【在府東一百四十里 本高句麗基知郡 高麗改今名來屬】

姓氏

基麟 朴

인제의 역사

인제군에도 역이 있었다

옛날 교통·문서전달·숙박의 기능을 담당하던 제도로 역원제도(驛院制度)가 있다. 역원제도의 유래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역제(驛制)는 이미 신라 소지왕 9년(487)에 설치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 후 고려조에 이르러 크게 정비되어 전국을 22도 525역으로 연결하고 공문의 전달, 관물의 운송, 공무출장 관리의 오고 감·숙박의 편의를 주고 또한 관청 간의 연락을 신속하게 하였는데, 도에는 역승(驛丞)이 있고 각 역에는 역장(驛長)과 역리(驛吏)·역졸(驛卒)·역정(驛丁) 등이 일을 맡아 하였다. 또 각 역에는 역전(驛田)을 두어 그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역마를 두어 명령 전달에 이용하였다. 조선건국 후 고려의 역원제도는 새 수도인 한양의 경복궁 앞을 기점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역제(驛制)는 처음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였는데 그 후 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 체제의 개혁, 인원 보충, 길의 보수 등이 이루어졌다.

역은 중앙으로부터 각 지방에 이르는 30리마다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로 대로변의 주현 각 읍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간선도로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벽지에도 역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교통에 편의를 주던 시설로는 원(院)·관(館)의 제도가 있었다. 즉 공용여행자의 숙식을 위해서 각 중요한 길에 원을 두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각 주현에 객사(客舍)인 관을 두었다. 이 원 역시 역과 함께 고려 때부터 많이 시설되고 또 정부에서는 땅을 주어서



남교역 역사사료관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다. 특히 고려시대는 불교계에서 승려들이 자선사업의 하나로 이 원을 경영하던 것도 볼 수 있다. 또 원은 역과 동일한 장소에 많이 있으므로 해서 역과 원을 합하여 ‘역원(驛院)’으로 불리어 왔다.

인제를 읊은 한시

김창흡, 「오세암에 도착하여」, 『삼연집』

내 설악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自我爲山主
 자주 오세암에 놀러왔는데 頻頻到此菴
 글에 능한 나그네와 짝하니 方能詞客伴
 늙은 선사와 참선하기 귀찮아 已厭老禪參
 경쇠소리 듣곤 운을 부르고 聽磬仍呼韻
 구름에 자다가 함께 감실에 기대네 眠雲共倚龕
 청한자도 알아주는 이 있어 清寒知己在
 외론 달이 소나무 비추네 孤月照松楠

면운와석(眠雲臥石)이란 말이 있다. 소나무 그늘 아래 바위에 비스듬히 누워 먼 산봉우리 위의 흰 구름을 바라보다가 졸리면 그대로 낮잠을 잔다는 뜻이다. 억지로 졸음을 쫓으려 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다. 이러한 경지가 바로 물외한인(物外閒人)의 경지다. 삼연선생은 설악에서 이렇게 노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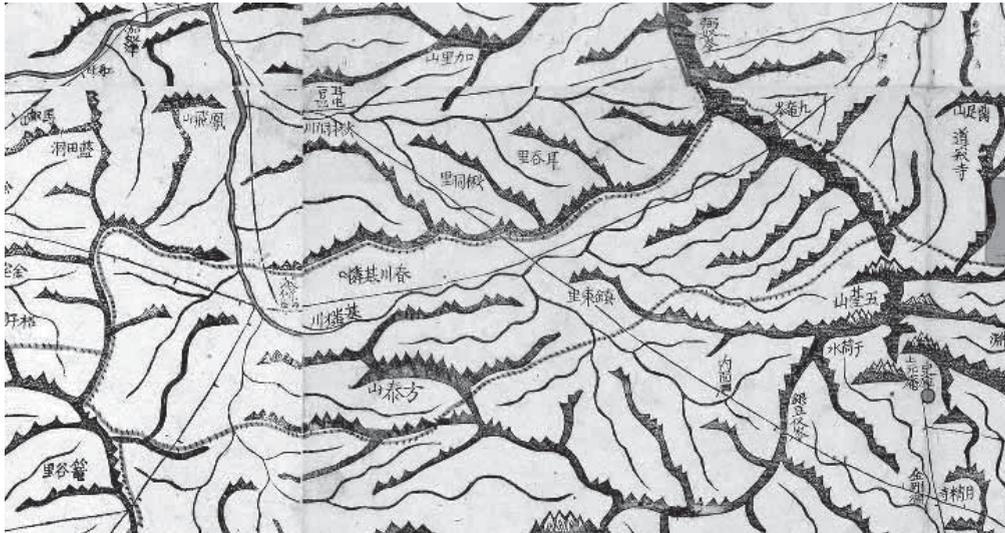


오세암

춘주지 春州誌



『춘주지(春州誌)』 안 『춘주속지(春州續誌)』에서 기린면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였다.



대동여지도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1861년 제작한 한반도의 지도이며, 지도첩이다. 1985년 대한민국의 보물 제850호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대동여지도 목판이 대한민국 보물 제1581호로 지정되었다.[1] 근대적 측량이 이루어지기 전 제작된 한반도의 지도 중 가장 정확한 지도이다.

○ 각 면 소지명 및 인사

기린현(基麟縣) 송현(松峴), 현내(縣內), 방평(旁坪), 광조전(光助田), 구을정(仇乙井), 오리동(五里洞), 이둔(耳屯), 답동(畚洞), 어리(於里), 죽천(竹川), 신패전(薪沛田) 부와의 거리는 230리다. 김보왕동(金甫王洞) 바위가 걸려있는 듯하여 인적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各面小地名及人事

基麟縣 松峴, 縣內, 旁坪, 光助田, 仇乙井, 五里洞, 耳屯, 畚洞, 於里, 竹川, 薪沛田 距府二百三十里. 金甫王洞 及懸石人跡不到處 今有人居.

인제의 역사

기린면이 춘천에 속했던 까닭은

소속 읍의 구역 안에 있거나 붙어 있지 않고, 중간에 끼여 있는 다른 읍의 영역을 뛰어넘어 따로 위치한 땅을 월경지(越境地) 또는 비입지(飛入地)라고 한다. 그리하여 가까운 읍의 통치를 받지 않고 멀리 떨어진 소속 읍의 지배를 받았다.



월경지는 고려 현종 9 기린면 현리

년(1018) 주현(州縣)의 영속(領屬)관계가 확립된 이후 종전의 속현·향·소·부곡 등이 분리, 독립한 데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 또는 조선시대로 내려오며 따라 그것의 형성 배경도 다양해졌다.

월경지의 생성 배경은 크게 속현 등의 분리 독립, 소속 변동, 과거의 연고지, 어염(魚鹽)과 같은 물자 조달, 조운(漕運)·조창(漕倉)과의 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려 중기 이래 조선 말기까지 월경지의 생성과 소멸이 계속되었다. 15세기 초에는 150곳 안팎이었고, 1906년 완전 정리될 때까지 70여 곳이 있었다.

월경지는 군현 구획이 복잡하고 속현과 향·소·부곡이 많은 경주·안동·진주·전주·나주·충주·청주·천안·홍주 등 대읍(大邑)지방과 서해안 및 남해안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규모는 속현에서 1개 촌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것은 1개의 월경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거나 구획을 뛰어넘어 들어오기도 했다.

소속 읍과의 거리는 250리가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0리 이내에 있는 것도 있었다. 100리에서 50리 사이에 있는 것이 가장 많았다. 15세기 이래 군현 병합이나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월경지 정비론이 대두하였다. 그러나 월경지는 쉽게 소멸되지 않았다.

1906년까지 존속한 이유는 조선시대 지방통치체제가 미비했고, 수취체제에 모순이 많았으며, 군현 토착세력과 주민의 이해관계 등이 밀접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제를 읊은 한시

성현(成愜), 「기린현 벽 위의 운에 차하다[次麒麟縣壁上韻]」, 『허백당집』

가파르고 험한 산 속 얼마나 왕래했던고 歷險凌巖幾往還
 황량한 깊은 골짜엔 바람도 차갑구나 荒涼陰壑自風寒
 맘은 시름겨우니 즐겨 우는 새들이 부럽고 心愁羨彼啼禽樂
 몸은 지치니 한가로운 고목이 사랑스럽네 身因憊渠老樹閒
 이리저리 수많은 시내를 자주 건너고 屢涉縱橫千澗水
 높고 험준한 만 겹 산을 우러르며 올랐네 仰攀峭峯萬重山
 허둥지둥 국사에 분주한 몸이 아니라면 不因鞅掌馳王事
 내 발길 무슨 일로 이곳엘 온단 말인가 鞍馬何由到此間

기린면은 너무 외지고 험한 길 때문에 이곳을 찾아 시를 남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린은 양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개길이 양양과 통한다. 기린은 중요한 교통로였다.

성현(成愜, 1439~1504) 1462년(세조 8) 23세로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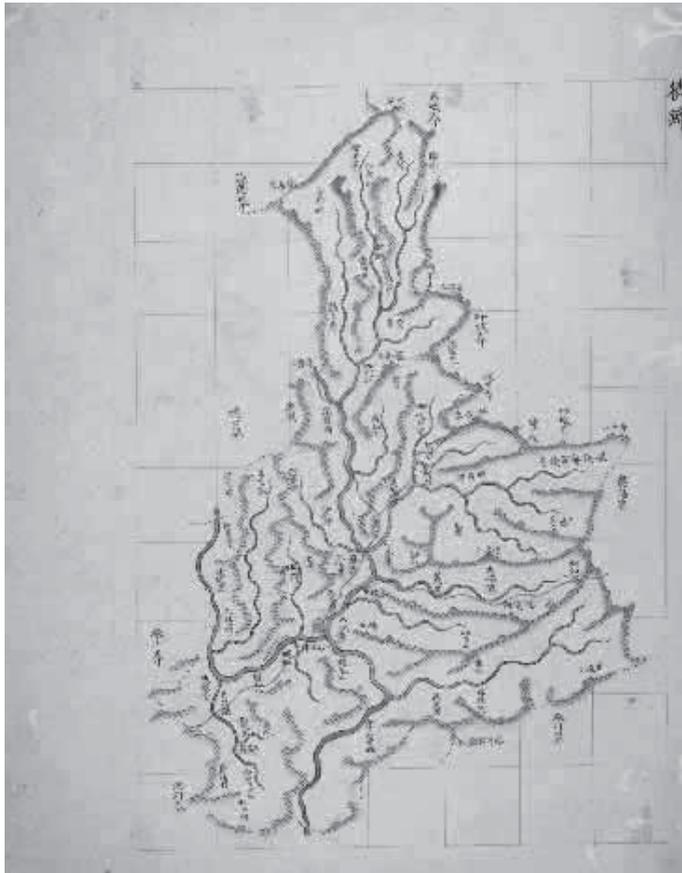
기린면 사무소

사간·대사성·동부승지·형조참관·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악학궤범』을 편찬하였고, 『용재총화』, 『허백당집』, 『부휴자담론』 등이 있다.

동국여지지 東國輿地志



조선 현종(顯宗: 1660~1674) 때 편찬되었으나 편찬자에 대한 의견이 불투명하나, 유형원(柳馨遠)의 저작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조선지도

조선 후기 군현지도책 중 20리 방안위에 그려진 대표적인 지도이다. 다른 군현지도와는 다르게 주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방안의 크기는 4.2cm의 정방형이다. 각 고을의 크기에 따라 사용된 방안 개수가 다르다. 1면에 1개 고을을 그리는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일부 고을은 한 면의 부분만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함경도 함흥, 충청도 충주, 경상도 안동의 경우와 같이 면적이 넓거나 비월지(飛越地)가 있는 고을은 두면에 연결하여 그린 경우도 있다.

인제현(麟蹄縣)

【동쪽으로 양양부(襄陽府)의 경계까지 72리다. 남쪽으로 홍천현(洪川縣)의 경계까지 53리다. 서쪽 양구현(楊口縣)의 경계까지 40리다. 북쪽 간성군(杆城郡)경계까지 80리다. 서울과의 거리는 367리다.】

○ 밭

○ 논

○ 고을의 내력

본래 고구려의 저족현(猪足縣)인데 【오사회(烏斯回)라고도 한다.】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바꾸어 희제(豨蹄)라 하고, 양록군(楊麓郡) 관할 아래의 현으로 하였다. 고려 초기에 인제(麟蹄)로 고쳤다가 회양(淮陽)에 병합시켰다. 공양왕(恭讓王) 초에 다시 인제현(麟蹄縣)으로 복귀시켰는데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3개의 면¹을 관장하였다. 관원(官員) 현감(縣監)과 훈도(訓導) 【각 1명씩이다】

○ 군명(郡名)

저족(猪足), 희제(豨蹄).

○ 형승(形勝)

길은 매우 험난하고 골짜기는 깊숙하면서도 그윽하다. 【조선시대 남효온(南孝溫)²의 「동유록(東遊錄)」에 기록되어 있다.】

○ 산천(山川)

○ 북룡산(伏龍山)³ 【고을 북쪽 2리에 있으며 진산(鎭山)⁴이다.】

1 세 개의 면: 현내면(縣內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2 남효온(南孝溫): 의령인(宜寧人)으로 자는 백공(伯恭), 호는 추강(秋江)으로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이다.

3 북룡산(伏龍山): 현재는 기룡산(起龍山)으로 부른다.

4 진산(鎭山): 도읍의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산.

- 한계산(寒溪山) 【고을 동쪽 50리에 있으며, 매우 높고 크면서도 기이하고 험준하다. 동쪽은 바로 양양부(襄陽府)의 경계인데, 양양 사람들은 설악산(雪岳山)이라고 부른다. 산 위에는 성(城)⁵이 있고, 시내가 있는데 성 안에서 흘러나와 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폭포의 높이는 수 백 척에 이르는데, 바라보면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운 것 같다. 원통역(圓通驛)⁶에서 동쪽 좌우 모든 산들이 큰 산이라 계곡이 깊다. 시내물이 이리저리 흘러 건너는 곳이 서른 여섯 곳이다. 나무는 삼태기가 하늘로 곧게 솟은 것 같다. 남쪽 봉우리는 절벽이다. 몹시 높고 기이하여 형용할 수 없다. 새들도 날아 넘기 어렵고, 지나는 사람들은 떨어져 누를까 두려워한다. 그 아래로는 맑은 물이 바위와 부딪치며 못을 이루고, 반석에 앉을 수 있다.⁷ 또 동쪽으로 얼마쯤 가면 계곡 입구가 매우 협소하여 오솔길이 낭떠러지를 따라가는데 굴이 입을 벌리고 있다. 높은 봉우리들의 빼어난 모습은 용이 끌어당기고, 범이 잡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이 겹겹이 쌓인 층대(層臺)는 무수히 많은데, 뛰어난 경치는 영서에서 제일이다.】
- 소동라령(所冬羅嶺) 【고을의 동쪽 72리에 있으며, 양양부(襄陽府)와 경계를 이룬다.】
- 소과령(所波嶺)⁸ 【고을의 북쪽 82리에 있으며, 간성군(杆城郡)과 경계를 이룬다】
- 미시과령(彌時坡嶺)⁹ 【고을 북쪽 80리에 있으며, 길은 간성군과 통한다. 세속에서 여수과령(麗水波嶺)이라고도 한다】
- 인수(麟水)¹⁰ 【서화현(瑞和縣)에서 발원하여 흘러오다가 고을 동쪽 5리에서 춘천부(春川府)의 기린현(基麟縣) 물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른다. 고을 서쪽 9리에 진(津)이 있는데, 주연진(舟淵津)¹¹이라 하며 여름이면 배를 이용한다. 또 서쪽으로 흐르다가 양구현(楊口縣) 남쪽 경계를 지나 춘천부(春川府)에 이르러 소양강(昭陽江)이 된다.】

5 성(城): 한계산성

6 원통역(圓通驛): 당초의 이름은 부림역(富林驛)이었다.

7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盤石可坐數百人”이라 기록되어 있어 “반석 위에 수 백인이 앉을 수 있다.”로 풀이하였다.

8 소과령(所波嶺): 미시과령과 흘리령 사이에 있다.

9 미시과령(彌時坡嶺): 지금의 미시령이다. 미수과령(彌水波嶺), 여수과령(麗水波嶺)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10 인수(麟水): 인제의 합강에서부터 춘천 경계까지 이르는 강의 옛 이름.

11 주연진(舟淵津): 인제 남면 부평리에 있던 나루터. 옛적에 배를 보던 움막이 있었다하여 지금도 ‘배막께’라는 지명이 전해 오고 있다.

- 원통천(圓通川)¹² 【고을의 동쪽 25리에 있다. 발원지는 소파령(所波嶺)인데 소동라령(所冬羅嶺)의 물과 합류하여 원통역(圓通驛) 앞을 지나 서쪽으로 흐르다가, 고을 동쪽 6리에서 인수(麟水)로 들어간다.】
- 지역 특산물
 - 해송자(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자초(紫草), 인삼(人蔘), 복령(茯苓), 봉밀(蜂蜜), 황랍(黃蠟), 매(鷹), 영양(羚羊), 백화사(白花蛇), 옷(漆), 황양(黃楊), 목적(木賊)¹³, 당귀(當歸), 작약(芍藥), 강활(姜活)¹⁴,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금인어(錦鱗魚).
- 학교(學校)
 - 향교(鄕校): 고을의 동쪽 1리에 있다.
- 궁실(宮室)
 - 객관(客館)¹⁵
- 창고(倉庫)
- 역참
 - 원통역(圓通驛) 【고을의 동쪽 30리에 있다.】
 - 마노역(馬奴驛) 【고을의 서쪽 30리에 있다.】
 - 남교역(嵐校驛) 【고을의 북쪽 50리에 있다.】
 - 임천역(臨川驛) 【고을의 북쪽 59리에 있다. 옛 서화현(瑞和縣) 남쪽이다.】
 - 신원(新院) 【원통역(圓通驛)의 동쪽 15리에 있다.】
 - 가역원(加歷院) 【고을의 동쪽 72리에 있는데, 양양부(襄陽府)와 경계다.】

12 원통천(圓通川): 지금의 인북천(麟北川).

13 목적(木賊): 속새, 안질, 치질, 변혈 등의 약재로 쓰인다. 강활(羌活); 미나리과에 속하는 풀. 해열 및 진통제의 약재로 쓰인다.

14 강활(羌活); 미나리과에 속하는 풀. 해열 및 진통제의 약재로 쓰인다.

15 객관(客館): 나그네의 숙소.



- 건이원(巾伊院) 【고을의 남쪽 52리에 있는데, 홍천현(洪川縣)과 경계다.】
- 제사 지내는 건물
 - 사직단(祠稷壇) 【고을 서쪽에 있다.】
 - 문묘(文廟) 【향교(鄉校)에 있다.】
 - 성황사(城隍祠) 【고을의 남쪽 4리에 있다.】
 - 려단(厲壇) 【고을 북쪽에 있다.】
- 사찰(寺刹)
 - 상승암(上乘菴), 대승암(大乘菴) 【둘 다 한계산(寒溪山)에 있다. 길이 지극히 위험하다. 바위에는 쇠사슬이 있어 사람들은 그것을 휘어잡고 오른다.】
 - 한계사(寒溪寺)¹⁶ 【한계산에 있다.】



상승암터



대승암터

16 한계사(寒溪寺): 진덕여왕(眞德女王) 원년(元年, 647)에 자장법사(慈藏法師)가 지금의 인제군 북면 한계리 장수대(將帥臺)에 창건(創建)하고 '한계사'라 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낭천현(狼川縣: 지금의 화천군)에 비금사(毘琴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사냥꾼들의 포살(捕殺)이 심하고, 부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저질러 하룻밤 새에 설악산 대승폭포 아래 10여 리 지점으로 옮겨놓고 '한계사'라 했다고 하며, 그날 밤 홀연히 관음청조(觀音靑鳥)가 날아와 지저귀는 소리가 "낭천의 비금사를 이제 한계리로 옮겨다."라는 소리로 들려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고 한다.

○ 고적(古蹟)

- 서화폐현(瑞和廢縣) 【화(和)는 화(禾)로도 쓴다. 다른 이름은 서성(瑞城)이다. 고을의 북쪽 60리에 있다. 본래 고구려의 옥기현(玉岐縣)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치도(馳道)로 고쳐 양록군(楊麓郡) 관할 아래의 현으로 하였다. 고려에 서화(瑞和)로 고쳐 춘주(春州)에 포함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포함시켰다. 조선에서는 장헌왕(莊憲王)이 떼어내어 현(縣)으로 하였다.】
- 한계산고성(寒溪山古城) 【석축(石築) 둘레가 6278척이다. 성 안에는 우물이 하나 있으며, 지금은 반 정도가 퇴락하였다.】
- 이포소(伊布所) 【고을의 북쪽 144리에 있다. 본래 춘천부(春川府)의 땅이었으나, 세종(世宗) 6년에 떼어내서 인제현에 포함시켰다.】

【東至襄陽府界七十二里 南至洪川縣界五十三里 西至楊口縣界四十里 北至杆城郡界八十里 距京都三百六十七里】

旱田

水田

建置沿革

本高句麗猪足縣 【一云烏斯回】 新羅景德王改名豨蹄爲楊麓郡領縣 高麗初改麟蹄 仍併入淮陽 恭讓王初復置麟蹄縣 本朝因之 掌面三 官員 縣監訓導 【各一名】

郡名

猪足豨蹄

形勝

道塗險絶 洞壑幽深 【本朝南孝溫東遊錄】

山川

伏龍山 【在縣北二里鎮山】

寒溪山 【在縣東五十里 極高大奇峻 其東卽襄陽府界 襄陽人稱爲雪岳山 山上有城 有川自城中流出 卽成瀑布而下 懸流數百尺 望之如白虹垂天 自圓通驛而東左右 皆大山 洞府深邃 溪水縱橫而渡者三十六 樹木如簣上竦雲霄 其南峯作絶壁 其高千仞 奇怪莫狀 禽鳥不能飛度 行人疑遭壓墜 其下清泉觸巖成潭 盤石可坐 又東數里 洞口甚狹 細經緣崖 窾穴哈呀 峯巒峭拔如龍拏虎攫如累層臺者無數 其形勝甲於嶺西】

所冬羅嶺 【在縣東七十二里 襄陽府界】

所波嶺 【在縣北八十二里 杆城郡界】

彌時坡嶺【在縣北八十里 路通杆城郡 俗稱麗水波嶺】

麟水【流出瑞和縣 至縣東五里 與春川府之基麟縣水合 而西流 至縣西九里有津曰舟淵津 夏即用舟 又西流經楊口縣南境 至春川府爲昭陽江】

圓通川【在縣東二十五里 源出所波嶺 與所冬羅嶺水合流經圓通驛前西流 至縣東六里入麟水】

土產

海松子五味子紫草人蔘茯苓蜂蜜黃蠟鷹羚羊白花蛇漆黃楊木賊當歸芍藥姜活訥魚餘項魚錦鱗魚

學校

鄉校 在縣東一里

宮室

客館

倉庫

郵驛

圓通驛【在縣東三十里】

馬奴驛【在縣西三十里】

嵐校驛【在縣北五十里】

臨川驛【在縣北五十九里 瑞和廢縣南】

新院【在圓通驛東十五里】

加歷院【在縣東七十二里 襄陽府界】

巾伊院【在縣南五十二里 洪川縣界】

祠廟

祠稷壇【在縣西】

文廟【在鄉校】

城隍祠【在縣南四里】

厲壇【在縣北】

寺刹

上乘菴大乘菴【俱在寒溪山 路極危峻 岩有鐵鎖 人攀曳而上】

寒溪寺【在寒溪山】

古蹟

瑞和廢縣【和一作禾 一名瑞城 在縣北六十里 本高句麗玉岐縣 新羅景德王改馳道 爲楊麓郡 領縣 高麗改瑞和 仍併入春州 後入淮陽 本朝莊憲王時移併于縣】

寒溪山古城【石築周六千二百七十八尺 內有一井 今半頽落】

伊布所【在縣北一百四十四里 本春川府地 世宗六年割入于縣】

인제의 역사

남효온, 한계령을 넘어 인제에서 머무르다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는 1485년(성종 16년) 4월 15일부터 윤 4월 21일까지의 금강산 여행 기록으로, 15세기의 대표적인 금강산 기행문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금강산 기행문 안에 설악산에 있는 고개인 한계령을 넘는 과정과 인제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을미일(15일) 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넘으니, 설악산의 여기저기 솟은 봉우리가 무려 수십여 개인데, 산봉우리는 모두 윗부분이 희다. 시냇가의 바위와 나무 또한 흰색이니, 세상에서 소금강산(小金剛山)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다. 운산(雲山)이 말하기를 “매년 8월이면 여러 산에는 아직 서리가 내리지 않아도 이 산에는 먼저 눈이 내리기 때문에 설악이라 합니다.”라고 한다. 고개 위 바위 사이에 팔분체(八分體)로 쓴 한시 한 수가 있다.

단군이 나라 세운 무진년보다 먼저 나서 生先檀帝戊辰歲
기왕(箕王)이 마한(馬韓)이라 일컬음을 직접 보고 眼及箕王號馬韓
영랑(永郎)과 함께 머물며 바다에 노닐다가 留與永郎遊水府
또 춘주(春酒)에 이끌려서 인간 세상에 머무르네 又牽春酒滯人間

글씨 흔적이 아직도 새 로우니, 글씨를 적은 것이 필시 오래되지 않은 것이다. 세상에 신선이란 것은 없으니, 어찌 일 좋아하는 자가 우연히 적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정자(程子)께서 국가의 운명을 하늘에 빌어 길게 만들거나, 보통 사람 중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자



한계령 휴게소

는 정기를 단련하여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하니, 깊은 산과 큰 못 가운데에 또한 이러한 사 람이 있을지 알 수 없다. 시를 읽어 보니 속세를 벗어날 생각을 가지게 한다.

고개 위에서 동해 바다를 하직하고, 고개의 서남쪽으로 내려와서 나무 밑을 가니, 길이 매우 험하며 골짜기가 그윽하고 깊다. 정향(丁香) 꽃을 꺾어 말안장에 꽂고 향기를 맡았 다. 면암(眠巖)을 지나 30리를 가서 말을 쉬게 하였다. 신원(新院)을 지나, 또 15리를 가니 설악의 서쪽 방면에서 오는 냇물이 있는데, 소솔천(所率川)과 합류하여 원통역(元通驛) 아 래에 이르러 큰 강이 된다. 앞으로 나아가서 원통에 이르니, 산천이 넓고 크며 매우 아름답 다. 원통부터는 평지를 밟았다. 또 25리를 가서 원통천(元通川)을 건넜다. 기린현(麒麟縣) 의 물이 여기에서 합류한다. 강을 따라 5리를 가서 인제현(麟蹄縣)에서 묵었다. 이날 산길 로 간 것이 60리이고, 육지로 간 것이 30리이다.

* 남효온(南孝溫, 1454~1492)

호는 추강(秋江)이며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자,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 등과 함께 수학하였으며,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이다. 저서로는 『추강집(秋江集)』·『추강 냉화(秋江冷話)』·『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 등이 있다.

인제를 읊은 한시

이규보, 「한계사(寒溪寺) 주지(住持) 노각사(老覺師)의 여우(旅寓)를 방문하여 삼료자(參寥子)의 시운(詩韻)을 따라 지어 주다」, 『동국이상국집』

노을과 구름 좃아 하늘에서 노닐고자 하니 霞想雲情逸天半
좋은 벼슬 많은 녹(祿)도 날 잡지 못하리 玉籠金鎖莫我絆
내 평생 원차산(元次山)을 배웠기에 平生自學元次山
한계로 가서 낭만랑(浪漫郎)이라 불리고 싶었는데 欲往寒溪稱浪漫
한계의 주인을 우연히 여기서 만나 寒溪主人偶此逢
다시금 눈썹 펴고 함께 웃고 있구나 聊復軒眉一笑同
선(禪)의 모미에 남은 술 어찌 꺼리겠으며 禪味何妨飲餘滴
고상한 얘기에 호방한 기상 더욱 사랑하게 되었네 談鋒更愛生雄風

노느라고 해 지는 줄도 몰랐는데 相從不覺西日側
 자욱하게 낀 저녁연기 저녁노을 재촉하누나 十里靑煙催晩色
 다시는 한계에서 노니는 일 그리워하지 않으리 不須更憶寒溪遊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니 見公眼色奪溪碧

한계사는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원년(647)에 자
 장울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여
 러 차례 화재가 났으며,
 마지막으로 화재가 나자
 절을 옮기고 남은 터가
 한계사지이다. 고려의 문
 인인 이규보(李奎報, 1168
 ~1241)가 한계사의 주지
 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지은 시가 전해진다.



한계사지

이규보는 벼슬살이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자연은 한계(寒溪)로 구체화 된다. 그러던 차에 한계사 주지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속세에 찌들어 미간을 찌푸 리기만 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편안대소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스님의 고담준론(高談峻論)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문득 이규보는 한계에서 노닐지 않겠다고 선포한다.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충분하기 때문에 한계에서 유유자적하는 일을 바라 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 원차산(元次山)은 중국 당나라 사람 원결(元結)의 자(字)이다. 그는 처음에 호를 의간자(猗玗子)로 하였다가 낭사(浪士), 또는 만랑(漫郎)으로 고쳤다. 성품이 고결하고 우국의 충정이 넘쳐, 전란으로 인한 인민의 고통과 사회상에 눈길을 돌린 침통한 작품을 많이 지었고, 당 대종(唐代宗) 때에 아버지가 늙은 까닭으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책을 벗 삼고 살았다고 한다.

여지도서 輿地圖書

단종 2년(1454)에 완성된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이 본명이다. 「지리지」에 인제 관련 자료가 있다.



지승

군사요지인 일부의 관방처와 전국의 군현을 총 6책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식 지도책으로 각 책의 크기는 세로×가로가 27.0×19.0cm이다. 1책에는 경기도, 2책에는 충청도, 3책에는 경상도, 4책에는 전라도, 5책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6책에는 함경도와 강원도가 수록되어 있다

원주진관(原州鎭管)¹ 소속 인제현(麟蹄縣)

【동쪽으로 양양부(襄陽府)와 경계는 72리다. 서쪽으로 양구현(楊口縣)과 경계는 40리다. 남쪽 홍천현(洪川縣)과 경계는 53리다. 북쪽 간성군(杆城郡)과 경계는 80리다. 경성(京城)²과 거리는 367리로 5일이 걸린다. 남쪽 감영(監營)³과 거리는 240리로 3일이 걸린다.】

○ 행정구역

□ 현내면(縣內面)⁴

【○ 하도리(下道里)⁵: 관문(官門)⁶에서 서쪽으로 2리 거리다. 편호(編戶)⁷는 120호이고, 남자가 240인. 여자가 278인이다.

○ 상도리(上道里)⁸: 관문에서 남쪽으로 1리다. 편호는 93호이고, 남자가 199인. 여자가 167인이다.

○ 덕산리(德山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5리다. 편호는 30호이고, 남60인. 여자가 91인이다.

○ 덕적동리(德積洞里)⁹: 관문에서 동쪽으로 20리다. 편호는 7호이고, 남자가 14인. 여자가 28인이다.

○ 가리산리(加里山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40리다. 편호는 13호이고, 남자가 26인. 여자가 27인이다.

1 진관(鎭管): 세종 이래 연해·국경 등의 요새지에 영·진을 두었던 지방 방위 조직은 국내 주현의 방어가 소홀해지는 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조 때부터 국경 지대에 설치되었던 군·익도의 체제를 전국적으로 확장했다. 이러한 군·익 제도는 1457년(세조 3)에 주요 지역을 거진으로 하되 나머지 주변 지역의 여러 진을 그에 속하도록 하는 진관 체제로 개편되었다.

2 경성(京城): 한양(漢陽).

3 감영(監營): 조선시대 각 도의 관찰사가 집무하던 관청을 말한다. 강원도의 감영은 당시에 원주에 있었다.

4 현내면(縣內面): 지금의 인제읍을 말한다.

5 하도리(下道里): 현 인제읍 소재지를 가리킨다.

6 관문(官門): 관아 혹은 관아의 문.

7 편호(編戶): 호적에 편입된 집.

8 상도리(上道里): 현 인제읍 소재지로 상동(上東) 3, 4, 5리 지역이다.

9 덕적동리(德積洞里): 현 덕적리(德積里).

- 청계동리(淸溪洞里)¹⁰: 관문에서 북쪽으로 20리다. 편호는 7호이고, 남자가 15인. 여자가 25인이다.
- 풍곡리(豊谷里)¹¹: 관문에서 동쪽으로 40리다. 편호는 14호이고, 남자는 25인. 여자는 37인이다.
- 고사동리(古沙洞里)¹²: 관문에서 동쪽으로 15리다. 편호는 9호고, 남자는 10인. 여자는 20인이다.】

□ 동면(東面)¹³

- 【◦ 원대리(院垞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30리다. 편호는 53호이고, 남자가 86인. 여자가 149인이다.
- 하추동리(下楸洞里)¹⁴: 관문에서 동쪽으로 35리다. 편호는 9호이고, 남자가 23인. 여자가 46인이다.
- 상추동리(上楸洞里)¹⁵: 관문에서 동쪽으로 40리다. 편호는 8호이고, 남자는 23인. 여자는 44인이다.
- 이탄리(耳呑里)¹⁶: 관문에서 동쪽으로 50리다. 편호는 21호고, 남자는 42인. 여자는 81인이다.】

□ 남면(南面)

- 【◦ 가노진(加奴津)¹⁷: 관문에서 남쪽으로 10리다. 편호는 23호고, 남자는 46인. 여자는 36인이다.
- 남전동리(藍田洞里)¹⁸: 관문에서 남쪽으로 20리다. 편호는 56호고, 남자는 112인. 여자는 95인이다.

10 청계동리(淸溪洞里): 현 가야(加兒) 1리 지역이다.

11 풍곡리(豊谷里): 현 덕적동(德積洞)과 하추리(下楸里) 사이에 있던 마을로 지금은 폐동(廢洞)되었다.

12 고사동리(古沙洞里): 현 고사리(古沙里).

13 동면(東面): 현 인제읍의 일부로 관할구역은 원대리, 하추리, 귀둔리 3개 리였다.

14 하추동리(下楸洞里): 현 하추리(下楸里).

15 상추동리(上楸洞里): 현 하추리(下楸里).

16 이탄리(耳呑里): 현 귀둔리(貴屯里).

17 가노진(加奴津): 가로리(加路里). 군축대교(軍築大橋) 건너 마을.

18 남전동리(藍田洞里): 현 남전리(藍田里).

- 마노리(馬奴里)¹⁹: 관문에서 남쪽으로 30리다. 편호는 56호이고, 남자는 112인. 여자는 144인이다.
- 북평리(北坪里)²⁰: 관문에서 남쪽으로 35리다. 편호는 40호이고, 남자는 86인. 여자는 59인이다.
- 사현리(沙峴里)²¹: 관문에서 남쪽으로 40리다. 편호는 16호이고, 남자는 32인. 여자는 20인이다.
- 어론리(於論里): 관문에서 남쪽으로 50리다. 편호는 15호이고, 남자는 31인. 여자는 27인이다.
- 송현리(松峴里)²²: 마노역(馬奴驛)에서 갈림길 동쪽 8리다. 관문에서 동쪽으로 40리다. 편호(編戶)는 6호이고, 남자는 16인. 여자는 12인이다.
- 정자막리(亭子幕里)²³: 관문에서 남쪽으로 50리다. 편호는 17호이고, 남자는 35인. 여자는 24인이다.
- 김보왕리(金寶王里)²⁴: 관문에서 남쪽으로 50리다. 편호는 12호이고, 남자는 24인. 여자는 21인이다.
- 나가리(羅加里)²⁵: 관문에서 서쪽으로 35리다. 편호는 12호이고, 남자가 24인. 여자는 20인이다.
- 건달리(建達里)²⁶: 관문에서 서쪽으로 40리다. 편호는 28호이고, 남자는 46인. 여자는 41인이다.
- 두모동리(頭毛洞里)²⁷: 관문에서 서쪽으로 50리다. 편호는 7호이고, 남자는 19인. 여자는 15인이다.】

19 마노리(馬奴里): 현 부평리(富平里). 선착장부근이다.

20 북평리(北坪里): 현 부평리(富坪里)로 성재 앞을 말한다.

21 사현리(沙峴里): 신평리(新豐里)와 신남리(新南里) 사이.

22 송현리(松峴里): 갑둔리(甲屯里)리로 소치리(所峙里)지역이다.

23 정자막리(亭子幕里): 현 정자리(亭子里).

24 김보왕리(金寶王里): 김부리(金富里)를 말하나 현재 폐동되었다.

25 나가리(羅加里): 신월리(新月里)로 건달리(建達里) 안쪽마을.

26 건달리(建達里): 신월리(新月里)로 월산(月山) 밑에 있는 마을.

27 두모동리(頭毛洞里): 옛 두무리(斗武里)를 말하나 지금은 양구군에 편입되었다.

□ 북면(北面)

- 【○ 원통리(元通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15리다. 편호는 48호이고, 남자는 112인, 여자는 73인이다.
- 송현리(松峴里)²⁸: 관문에서 북쪽으로 20리다. 편호는 25호이고, 남자는 39인, 여자는 30인이다.
- 대대리(臺垔里)²⁹: 관문에서 북쪽으로 25리다. 편호는 30호이고, 남자, 여자 각각 50인이다.
- 걸미리(傑味里)³⁰: 관문에서 북쪽으로 27리다. 편호는 44호이고, 남자는 64인, 여자는 66인이다.
- 송학동리(松鶴洞里)³¹: 관문에서 북쪽으로 30리다. 편호는 10호이고, 남자 13인, 여자 13인이다.
- 풍전동리(楓田洞里)³²: 관문에서 북쪽으로 30리다. 편호는 10호이고, 남자는 15인, 여자는 12인이다.
- 한계리(寒溪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25리다. 편호는 12호이고, 남자는 15인, 여자는 12인이다.
- 오색령남교리(五色嶺南校里)³³: 관문에서 동쪽으로 40리다. 편호는 36호이고, 남자는 70인, 여자는 100인이다.
- 가역리(加曆里)³⁴: 관문에서 동쪽으로 50리다. 편호는 8호이고, 남자는 12인, 여자는 10인이다.
- 용두동리(龍頭洞里)³⁵: 관문에서 북쪽으로 60리다. 편호는 10호이고, 남자는 15인, 여자는 13인이다.】

28 송현리(松峴里): 원통리(元通里)의 솔거리(松巨洞)을 말한다.

29 대대리(臺垔里): 월학리의 대태(竹垔) 마을이다.

30 걸미리(傑味里): 월학리(月鶴里)의 걸미재(建尾峙)부근에 있던 마을.

31 송학동리(松鶴洞里): 월학리(月鶴里)의 송학동(松鶴洞).

32 풍전동리(楓田洞里): 월학리(月鶴里)의 풍전동(楓田洞).

33 오색령남교리(五色嶺南校里): 용대리(龍垔里)의 남교리(嵐校里).

34 가역리(加曆里): 용대리(龍垔里)의 가평(加坪) 지역.

35 용두동리(龍頭洞里): 용대리(龍垔里)의 용바위 부근 마을.

□ 서화면(瑞和面)

- 【 사천리(沙川里)³⁶: 관문에서 북쪽으로 35리다. 편호는 10호이고, 남자가 20인. 여자가 33인이다.
- 논장리(論長里)³⁷: 창고가 있는데 말하기를 서창(瑞倉)이라고 한다. 관문에서 북쪽으로 40리다. 편호 30호이고, 남자가 50인. 여자가 87인이다.
 - 수제리(水齊里)³⁸: 관문에서 북쪽으로 45리다. 편호는 20호이고, 남자는 20인. 여자는 45인이다.
 - 서화리(瑞和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50리다. 편호는 30호이고, 남자가 50인. 여자가 90인이다.
 - 용대동리(龍臺洞里)³⁹: 관문에서 북쪽으로 60리다. 편호는 21호이고, 남자는 21인. 여자는 41인이다.
 - 부연동(釜淵洞)⁴⁰: 관문에서 북쪽으로 60리다. 편호는 14호이고, 남자가 22인. 여자가 50인이다.
 - 서희리(西希里)⁴¹: 관문에서 북쪽으로 70리다. 편호는 12호이고, 남자는 20인. 여자는 30인이다.
 - 이포리(伊布理)⁴²: 관문에서 북쪽으로 80리다. 편호는 30호이고, 남자는 60인. 여자는 65인이다.
 - 용산리(龍山里)⁴³: 관문에서 북쪽으로 100리다. 편호는 14호이고, 남자는 31인. 여자는 39인이다.
- 기묘(己卯)년 장적⁴⁴을 기준으로 하였다.】

36 사천리(沙川里): 서흥리(瑞興里)의 사천마을.

37 논장리(論章里): 서흥리(瑞興里)의 논장교(論章橋)가 있는 마을.

38 수제리(水齊里): 천도리(天桃里)의 양지마을.

39 용대동리(龍臺洞里): 민통선 북방에 있는 마을로 미수복지역이다.

40 부연동(釜淵洞): 서화리(瑞和里) 큰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금은 북면 용대리에 편입되었다.

41 서희리(西希里): 민통선(民通線) 북방 마을로 미수복지역이다.

42 이포리(伊布理): 민통선(民通線) 북쪽 마을로 미수복지역이다.

43 용산리(龍山里): 민통선(民統線)북방 마을로 미수복지역이다.

44 장적(帳籍): 호적. 나라에서 백성을 파악하고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조사, 작성하던 모든 종류의 문서를 이르는 말.

○ 도로(道路)

【관문에서 동쪽으로 덕산(德山)까지 5리다. 덕산에서 덕적동(德積洞)까지 10리다. 덕적동에서 가리산(加里山)까지 20리다. 가리산에서 춘천(春川)의 기린(基麟) 경계까지는 20리다. 관문에서 남쪽으로 가노진(加奴津)까지 10리다. 가노진에서 남전동(藍田洞)까지는 10리다. 남전동에서 마노역(馬奴驛)까지 10리다. 마노역에서 사치(沙峙) 시점까지 10리고, 사치 시점에서 어론리(於論里)가 10리며, 어론리에서 건이치(建伊峙)까지는 3리로 홍천(洪川)과 접경지다. 마노역 분기점에서 동북으로 나가리(羅加里) 사이는 30리다. 나가리에서 두모동령(頭毛洞嶺)까지는 20리이며 양구(楊口)와의 접경지다. 관문에서 동북간의 원통역(元通驛)까지는 15리이고, 원통역에서 남교역(嵐校驛)까지는 30리다. 남교역에서 미시령(味施嶺)까지는 35리로 간성(杆城)의 원암역(元岩驛)과 접경지다. 관문에서 서북(西北)간의 송치리(松峙里)까지는 20리고, 송치리에서 서화(瑞和)의 장승동(長承洞)까지는 50리다. 장승동에서 용산리(龍山里)까지는 30리고, 용산리에서 회전령(檜田嶺)까지는 20리로 회양(淮陽)의 금강산(金剛山)과 접경지다.】

○ 고을의 내력

본래 고구려의 저족현(猪足縣)이었는데 달리 오사회(烏斯回)라고도 하였다. 신라시대에는 희제(豨蹄)라 하여 양록군(楊麓郡)에 소속된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⁴⁵시대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춘천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예속시켰다. 공양왕(恭讓王) 원년 기사(己巳)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이조시대에는 태종(太宗) 13년 계사(癸巳)년에 인제현(麟蹄縣)으로 고쳐 현감(縣監)을 두었다. 서화현(瑞和縣) 【화(和)를 화(禾)라고도 한다.】 을 속현으로 두었는데 서성(瑞城)이라고도 하였다. 현(縣)의 북쪽으로 60리에 있다. 본래 고구려의 옥기현(玉岐縣)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치도(馳道)로 하여 양록군(楊麓郡) 관할 아래의 현으로 하였다. 고려시대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춘천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예속시켰다. 이조시대에는 세종조(世宗朝)에 원주진(原州鎭)에 소속시켰다.

45 고려(高麗): 여지도서(輿地圖書) 원문에는 고구려로 기록되어 있으나 잘못된 표기로 고려로 정정.

○ 군명(郡名)

저족(猪足), 오사회(烏斯回), 인제(麟蹄), 『신증』 영소(靈昭).

○ 형승(形勝)

○ 성지(城池)

○ 관직(官職)

현감(縣監) 【문관(文官)이나 음관(蔭官)⁴⁶으로 종육품(從六品)이다. 아래에 좌수(座首)⁴⁷ 1인, 별감(別監)⁴⁸ 2인, 군관(軍官)⁴⁹ 3인, 아전(衙前)⁵⁰ 18인, 지인(知印)⁵¹ 10인, 관노(官奴) 20인, 관비(官婢) 6인, 기생(妓生) 10인을 두었다.】

○ 산천(山川)

◦ 북룡산(伏龍山) 【고을의 북쪽 2리에 있다. 이 산은 처음에 회양(淮陽)의 금강산(金剛山) 남쪽 기슭에서 떨어져 나온 줄기로서, 용산리(龍山里) 뒤 회전령(檜田嶺)에서 갈라져 오다가 서화(瑞和) 서쪽 편 대암산(臺岩山)에 이르고 중조봉에서 일어나 꾸불꾸불 오다가 북룡산이 된다. 북룡산에서 남쪽으로 와서 인제현(麟蹄縣)의 터가 되고, 또 방향을 돌려 양구의 사명산(四明山)과 춘천(春川)의 청평산(淸平山)이 된다. 또 서

46 음관(蔭官): 조상의 공덕으로 과거에 응하지 않고 얻은 벼슬. 또는 음직의 관원.
 47 좌수(座首):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향청(鄉廳)의 가장 높은 벼슬.
 48 별감(別監): 조선시대 유향소(留鄕所)에 소속된 직책이다. 좌수(座首)를 도와 지방공속의 조정과 향리(鄕吏)를 규찰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지방행정 관아(官衙)의 일부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방 관아에서 맡는 각종 제수(祭需), 조적(糶糶), 형옥(刑獄), 봉수(烽燧), 도로(道路), 및 교량 보수 등을 담당하였다.
 49 군관(軍官):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임(職任)을 수행하던 무관이다. 지방에서는 조선전기부터 병사(兵使), 수사(水使)나 상비병력이 두어진 거진(巨鎭), 제진(諸鎭)의 진장(鎭將)휘하에 군관이 배치되었으나, 후기에는 관찰사가 순찰사를 겸한 까닭에 그 밑에 군관을 두었다.
 50 아전(衙前):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근무하던 직급이 낮은 관리다. 일명 이서(吏胥)라고도 하는데, 경아전(京衙前)과 외아전(外衙前)으로 구분한다. 아전이라는 명칭은 지방 수령이 근무하는 정청(正廳) 전에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며, 정청(正廳)앞에 있는 이방청(吏房廳)을 비롯한 육방청(六房廳)이 외아전(外衙前)의 주된 근무처였다.
 51 지인(知人): 조선시대 큰 고을에 두었던 향리직의 일종이다. 이들은 서울의 녹사(綠事)와 같이 근무일수 514일마다 1계급씩 진급하여 종육품에 이르면 근무를 면제시켜 주고 토관직(土官職) 임명토록 하였다.

쪽으로 춘천 고론(古論)과 경계를 이루는 낭천(狼川) 강 머리에 이른다.】

- 설악산(雪岳山) 【고을의 동쪽 50리 거리다. 이 산은 회양(淮陽)의 금강산 남쪽 기슭에서 떨어져 나와 용산리(龍山里) 뒤 산줄기에 이르고, 회전령(檜田嶺)에서 갈라져 오다가 고성(高城)의 탄둔령(炭屯嶺)이 되고, 탄둔령을 지나오면 당장산(堂長山)이 된다. 당장산을 지나오면 진보령(眞寶嶺)이 되고, 진보령을 지나오면 흘리령(屹伊嶺)이 된다. 흘리령을 지나면 서과령(西坡嶺)이고, 서과령을 지나면 미시령(昧施嶺)이다. 미시령을 지나오면 설악산(雪岳山)이고 설악산을 지나면 한계산(寒溪山)이다. 한계산을 지나면 오색령(五色嶺)이고, 오색령을 지나면 기린(基麟)의 박달령(朴達嶺)이다. 박달령을 지나면 춘천(春川) 기린(基麟)의 방태산(方胎山)이다. 방태산을 지나오면 인제현(麟蹄縣)의 안산(案山)⁵²으로 남산(南山)인데 미륵천(彌勒川)⁵³에서 그친다. 또 춘천(春川) 기린(基麟)의 방태산(方胎山) 남쪽 기슭에서 시작되는 줄기가 비틀거리며 오다가 정자막리(亭子幕里)⁵⁴ 뒤 산줄기가 되고, 정자막리 뒤 산줄기를 지나오면 김보왕리(金寶王里)⁵⁵ 뒷산이 된다. 김보왕리 뒷산을 지나오면 건이치(建伊峙)⁵⁶가 되고, 건이치에서 떨어져 나간 줄기가 홍천(洪川)의 가리산(加里山)이다. 또 건이치 갈림길에서 30리를 오다 마노역(馬奴驛)에 이르러 봉황대(鳳凰臺)가 되고 주추(蛛湫)에 이르러 그친다.】
- 대승폭포(大勝瀑布) 【고을의 동쪽에 있으며 관문에서 50리 거리에 있다. 산 위에 대승암(大勝菴) 옛터가 있는데 앞산의 샘이 흐르다가 폭포를 이루는데 높이가 수 천 척이나 된다. 바라보면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다. 위에 올라가 끈 내린 것을 재어보니 드리운 것이 2020척이다. 원통역(元通驛)에서 동쪽방향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좌우로 석산(石山)이 죽 늘어섰는데 높이 불쑥 솟아 맑은 하늘에 꽂혀 있고 골짜기는 깊숙하고 그윽하다. 입하(立夏)에도 눈이 있고 가을이 오기 전에 벌써 서리가 내린다. 시냇물은 종횡(縱橫)으로 흘러 건널 곳이 36곳이나 되며, 가운데 좁은 길이 있어 겨우 통한다. 양양부(襄陽府) 쪽은 수목(樹木)이 뺨뺨이 우거지고, 송백(松柏)이 여기저기 흩어져

52 안산(案山): 집터나 밭자리의 앞에 있는 산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고을의 맞은 편에 있는 산을 말한다.

53 미륵천(彌勒川): 합강리 앞강의 옛 이름이다.

54 정자막리(亭子幕里): 현재의 남면 정자리(亭子里)

55 김보왕리(金寶王里): 지금의 남면 김부리(金富里)의 옛 지명이다. 김부리는 지금 폐동 되었다.

56 건이치(建伊峙): 거니고개. 건이현(建伊峴), 간인현(良寅峴)이라고도 하나, 간인현은 기록으로만 전해올 뿐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 어른 남쪽에서 홍천군 두촌면 건남리로 가는 고개로 인제군과 홍천군의 경계가 된다. 이곳에 건이원(建伊院)이 있었다. 고개가 낮아서 “놀이 좋기는 합강정 넘기 좋기는 거니고개”라는 말도 전해오고 있다.



봉황대



12선녀탕계곡

자생(自生)하여, 석벽(石壁) 사이 골 마을에서는 인접해 있다해도 산령(山嶺)의 폭포를 보지 못한다. 남쪽 돌 위에는 네 다섯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데 그 높이가 천(千)이고 기괴하여 날짐승들도 날기를 꺼려하고, 호랑이 자취도 없지마는 지나는 이들은 그 아래서부터 만날까 걱정하고 떨어질까 겁을 낸다. 그 아래 있는 맑은 물은 바위에 부딪치며 흩어져 내리다가 소(潭)를 만든다. 반석(盤石)에는 수 백 사람이 앉을 수 있다. 또 동쪽으로 얼마쯤 가면 동네 입구인데 매우 협소하며 길이 좁은 관계로 낭떠러지 굴에 입을 다물 수 없고, 겹겹으로 쌓인 바위들은 정말로 기이함이 불만하다.】

- 지리실(地理室)⁵⁷ 【남교역(嵐校驛)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돌산이 높이 불쑥 솟아 험하고, 깊은 골(谷)에는 흰 돌 위를 맑은 물이 흩어져 날리며, 가마솔 같은 돌이 있는데 바로 기우제(祈雨祭)를 올리는 곳은 돌 위다.】
- 미륵천(彌勒川) 【관문으로부터 5리에 있다. 14개의 계곡물과, 또 춘천 기린현에서 오는 물이 남쪽으로 흘러가 가노진(加奴津)이 된다.】
- 가노진(加奴津) 【관문으로부터 10리이며 봉황대(鳳凰臺)에서 나와 앞뒤로 6개의 계곡물이 합쳐져, 주추(蛛湫)가 된다. 곧 양구 경계로 유입되고, 또 춘천 신연강(新淵江)으로 유입되는데 낭천(狼川)의 모진강(母津江)과 하나가 된다.】

○ 성씨(姓氏)

박씨(朴氏), 조씨(曹氏), 손씨(孫氏), 최씨(崔氏), 현씨(玄氏), 이씨(李氏), 심씨(沈氏), 전씨(全氏), 김씨(金氏), 정씨(鄭氏)

○ 풍속(風俗)

두메의 풍속은 순박하며 농사일을 주업으로 생활하는데 장수(長壽)하는 자가 많아 간혹 100여세에 이르는 이도 있다.

○ 제사 지내는 곳

- 사직단(社稷壇) 【고을의 서쪽 3리에 있다.】
- 문묘(文廟) 【고을의 동쪽 1리 거리며, 20칸이다.】
- 성황단(城隍壇) 【고을의 서쪽으로 4리에 있다.】

57 지리실: 현재 12선녀탕 계곡을 말한다.

◦ 여제단(厲祭壇)⁵⁸ 【고을의 북쪽 4리에 있다.】

○ 관청

- 객사(客舍)⁵⁹ 【29칸이다.】
- 아사(衙舍)⁶⁰ 【30칸이다.】
- 군기고(軍器庫) 【12칸이다.】
- 향청(鄉廳)⁶¹ 【8칸이다.】
- 관청(官廳) 【21칸이다.】
- 작청(作廳)⁶² 【10칸이다.】
- 현사(縣舍)⁶³ 【3칸이다.】
- 군관청(軍官廳)⁶⁴ 【5칸이다.】

○ 제방

원통제(元通堤) 【고을의 북쪽 원통역(元通驛) 앞에 있다. 관문에서 15리다. 둘레는 319척이고, 넓이는 83척. 길이는 112척이다. 물깊이는 3척이며 바깥 높이는 3척5촌이다.】



원통방축터

58 여제단(厲祭壇): 돌림병이자 극심한 가뭄에 제(祭)를 올리던 곳.

59 객사(客舍): 조선시대에 지방관아의 하나로 각 고을마다 두었었는데,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에 내려오는 벼슬아치를 접대하였다.

60 아사(衙舍): 수령의 처소.

61 향청(鄉廳): 향소(鄉所). 수령의 자문기관.

62 작청(作廳): 아전이 집무하던 처소.

63 현사(縣舍): 현감이 사무를 보던 곳.

64 군관청(軍官廳): 군관(軍官)이 집무를 보던 곳.

○ 창고(倉庫)

- 읍창(邑倉) 【29칸이다.】
- 서창(瑞倉) 【고을의 북쪽 서화면(瑞和面)에 있다. 관문에서 40리며, 19칸이다.】

○ 지역의 특산물

해송자(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자초(紫草). 인삼(人蔘). 복령(茯苓). 봉밀(蜂蜜). 영양(羚羊). 흰꽃뱀(白花蛇).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금인어(錦鱗魚).

○ 교량(橋梁)

- 미륵천(彌勒川) 【관문에서 동쪽으로 5리 거리로, 나루에는 배가 1척이다.】
- 뇌탄천(磊灘川) 【관문에서 북쪽으로 원통역(元通驛) 앞에 있으며 15리 떨어져 있다, 나루에는 배가 1척이다.】
- 가노천(加奴川) 【관(官)에서 남쪽으로 10리 거리다. 나루에는 배가 1척이다.】
- 마노주연진(馬奴舟淵津) 【마노역(馬奴驛) 마을에 있다. 관문에서 남쪽으로 30리 거리이며, 나루에는 배가 1척인데 양구(楊口)로 가는 길이다.】

○ 역원(驛院)

- 원통역(元通驛) 【기마(騎馬)⁶⁵ 1필, 복마(卜馬)⁶⁶ 2필이 있고, 사내종 4명, 계집종 1명이 있다. 관문에서 15리다.】
- 마노역(馬奴驛) 【대마(大馬)⁶⁷ 2필과 복마 4필이 있다. 아전(吏) 5인에 사내종 15명과 계집종이 8명이 있다. 관문에서 남쪽으로 30리 거리다.】
- 남교역(嵐校驛) 【복마가 3필이 있다. 사내종이 5명, 계집종이 3명 있다. 관문에서 동쪽으로 40리 거리다.】
- 신원(新院) 【원통역 동쪽에 있다.】
- 신증원(新增院) 【고을의 동쪽으로 70리 거리다. 양양부(襄陽府)와 경계다.】
- 건이원(建伊院) 【고을의 남쪽 50리에 있다.】

65 기마(騎馬): 사람이 타는 말.

66 복마(卜馬): 짐을 싣는 말.

67 대마(大馬): 이름난 말.

○ 목장(牧場)

【분양(分養)말⁶⁸이 1필인데 8월에 받아와서 5월에 상납한다.】

○ 고개

- 미시령(味施嶺) 【고을 동쪽 73리 거리에 있다.】
- 서과령(西坡嶺) 【고을 동쪽 73리 거리에 있다.】
- 흘리령(屹伊嶺) 【고을 북쪽 73리 거리에 있다.】
- 진보령(眞寶嶺) 【고을 북쪽 80리 거리에 있다.】
- 탄둔령(炭屯嶺) 【고을 북쪽 100리에 있다.】
- 오색령(五色嶺) 【고을 동쪽 72리 거리에 있다.】
- 두모치(頭毛峙) 【고을 서쪽 50리 거리에 있다.】
- 가노치(加奴峙) 【고을 남쪽 5리 거리에 있다.】
- 건이치(建伊峙) 【고을 남쪽 53리 거리에 있다.】



두모령



가넷고개. 일명 군축령이라고도 한다.

68 분양마(分養馬): 조선시대 사복시(司僕寺)에서 각 읍에 나누어주어 기르게 하는 말. 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양육(養育)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 주었다.

○ 봉수(烽燧)

○ 정자

- 이은루(史隱樓) 【아문(衙門) 위에 있으며, 6칸이다.】
- 합강정(合江亭) 【고을의 북쪽에 있다. 관문에서 5리다. 한 줄기는 기린현에서 오고, 한 줄기는 설악산에서 오다 원통역에 이르러 서화의 물과 합류하여 강이 되는데 미륵천이라 한다. 동쪽으로 맑은 물을 임하고, 서쪽 뒤 흙산은 등지고 있는데 굽이굽이 오다가 머리가 끊어지는 곳은 절벽이 된다. 솟아오른 언덕 위는 평평한데 정자가 가운데 있다. 맑은 못을 구부러 내려다보아 경치가 산뜻하고 깨끗하여 큰 고을의 승경 중에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지금에 있는 것은 옛터에 병자(丙子)년 겨울에 세웠는데 10자 각(閣)에 5칸이다.】

○ 사찰(寺刹)

- 백담사(百潭寺) 【고을의 동쪽에 있다. 8칸인데 관에서 60리다.】
- 봉정암(鳳頂庵) 【고을의 동쪽에 있다. 6칸이며, 관문에서 100리다.】
- 영시암(永矢庵) 【고을의 동쪽에 있다. 8칸으로, 관에서 70리다.】
- 상승암(上勝庵) 【한계사(寒溪寺)가 있던 옛터 뒤로 7리쯤이다. 노송들이 뺨뺨이 들어서서 마치 대나무 같다. 남쪽을 바라보니 부용봉(芙蓉峯)의 우뚝 솟은 기세가 하늘 밖에서 님시를 드리운 모습이다. 동쪽에는 사자대(獅子臺)와 망폭대가 있다. 북쪽에는 옛 우물이 있는데 달고 차기가 비할 데 없다.】
- 백운암(白雲庵) 【한계사(寒溪寺) 동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사면으로 산봉우리들이 병풍 같이 둘러서 있어 길이 험준하므로 인적도 드물고, 지금은 옛터만 있다.】
- 은적암(隱寂庵) 【고을의 동쪽에 있다. 10칸인데, 관에서 10리다.】

○ 고적(古跡)

- 한계고성(寒溪古城) 【석축의 둘레가 6278척이고 높이가 4척이다. 성안에 우물이 두 개 있었지만 지금은 무너졌다.】
- 유흥굴(兪泓窟) 【재상(宰相) 유흥(兪泓)⁶⁹이 강원도관찰사로 있을 당시에 한계령 넘어

69 유흥(兪泓): 기계인(杞溪人)으로 자는 지숙(止叔) 호는 송당(松塘)이다.

뒤로 삼대령(三大嶺)을 넘고 돌을 세우고 굴에 이름을 붙였다. 지금에 와서도 유흥굴(兪泓窟)이라고 부른다.】



유흥굴

○ 인물(人物)

○ 정도(鄭導) 【인제(麟蹄)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학업에 힘써 사마(司馬)⁷⁰를 지냈다.】

○ 김태국(金泰國) 【식년과(式年科)⁷¹에 급제하여 죽산(竹山)의 현감(縣監)을 지냈다.】

○ 발

【139결(結) 23부(負) 8속(束)이다. 기묘(己卯, 1759)년의 합이다.】

○ 논

【4결 45부 8속이다. 기묘년의 합이다.】

○ 진공(進貢)

인삼, 송이(松茸), 백청(白淸), 생청(生淸), 여항어(餘項魚), 오미자, 자초용(紫草茸), 복령,羚羊(羚羊), 흰꽃뱀, 당귀, 토사자(兔絲子)⁷².

70 사마(司馬): 군사를 맡아보던 벼슬.

71 식년과(式年科): 식년(式年)마다 보이던 과거. 곧 문과(文科), 무과(武科), 생원진사과(生員進士科), 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의 총칭.

72 토사자(兔絲子): 새삼의 씨. 강장제로서 몽설(夢泄), 유정(遺精), 소변불금(小便不禁)등의 병에 약제로 쓰임.

○ 환곡

【원회부(元會付)⁷³의 곡식은 3687섬(石)이고, 부곡(賦穀)은 2647섬이다. 별회부(別會付)의 곡식은 196섬이고, 영곡(營穀)은 44섬이다. 10월에 창고를 열고 12월에 창고를 닫는다.】

○ 전세(田稅)⁷⁴

【대미(大米)는 1섬(石) 12두(斗)이고, 전미(田米)는 12섬이며 콩이 17섬이다. 2월에 거두어 들였다가, 춘천의 소양강(昭陽江)으로 실어 보내는데 8일 만에 경강(京江)에 도달하여 호조(戶曹)⁷⁵에 납품한다. 대동(大同)⁷⁶. 균세(均稅)도 같다.】

○ 대동(大同)

○ 균세(均稅)

○ 관리 봉급

【아록(衙祿)⁷⁷ 공수위(公須位)⁷⁸는 쌀 24섬 10두(斗)에다가 전미(田米) 24섬 9두이다. 돈(錢)은 330량(兩). 땀감은 쉰나무 1225속(束)과 숯 34섬이다. 평이나 닭은 800수(首)로 무역하는데 사용한다.】

○ 군병(軍兵)

기병(騎兵)⁷⁹ 【72명】

73 원회부(元會付): 장부에 금전이나 곡물 따위의 정부 소유물을 용도별로 모아서 회계장부에 기록하여 원래 계상한 것.

74 전세(田稅): 전지(田地)에 부과하는 조세(租稅).

75 호조(戶曹): 육조의 하나로, 호구(戶口), 공부(貢賦), 정량(錢糧), 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보던 곳.

76 대동(大同): 땅 구실에 기준하여 쌀, 무명 같은 것을 상납케 하는 제도.

77 아록(衙祿): 지방 수령에게 딸린 식구들에게 주던 료(祿).

78 공수위(公須位): 공수전(公須田).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관리가 숙박할 때, 공선(供膳)등의 접대비(接)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전지(田地).

79 기병(騎兵): 말 타고 싸우는 군사.

금위군보(禁衛軍保)⁸⁰ 【47명】
 어영군보(御營軍保)⁸¹ 【81명】
 보병(步兵) 【34명】
 별파진(別破陳)⁸² 【10명】
 금군보(禁軍保)⁸³ 【2명】
 군향보(軍餉保)⁸⁴ 【12명】
 포보(砲保) 【66명】
 호련대보(扈輦隊保)⁸⁵ 【1명】
 내취보(內吹保)⁸⁶ 【2명】
 복직(袂直)⁸⁷ 【6명】
 악공보(樂工保)⁸⁸ 【6명】
 사복제원(司僕諸員)⁸⁹ 【15명】
 아병(牙兵)⁹⁰ 【37명】
 속오군(束伍軍)⁹¹ 【128명】

-
- 80 금위군보(禁衛軍保): 금위영(禁衛營)에 근무하는 정병(正兵)을 돕기 위하여 조정(助丁)을 일컫는 말이다. 금위(禁衛)는 금위영의 주린 말로 3군문(三軍門)의 하나인데 서울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숙종(肅宗) 8년에 정초군(精抄軍)과 훈국중부별대(訓局中部別隊)를 합쳐 설치되었다. 군보(軍保)라 함은 조선왕조의 군제의 하나로 한 사람의 정병(正兵)에 대하여 조정(助丁)인 봉족(奉足) 두 사람씩을 두고, 정병의 농작(農作)을 대신하여 주도록 하였는데, 조선왕조 후기에는 양병(養兵)의 비용에 쓰기 위하여 조정에서 역(役)을 면하여 주고 그 대가로 군포(軍布)를 바치게 한 제도이다.
- 81 어영군(御營軍): 어영청(御營廳)에 복무하는 군사. 어영청은 이조시대에 어영(御營) 이름으로 삼군문(三軍門)의 하나다. 효종(孝宗) 3년에 설치하여 고종(高宗) 18년에 장어영(壯御營)으로 이름을 고쳤다가 19년에 다시 본 이름으로 고쳤다. 다시 21년에 폐하였다.
- 82 별파진(別破陳): 적진(敵陣)을 쳐부수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
- 83 금군(禁軍): 왕실을 지키는 군사.
- 84 군향(軍餉): 군사의 식사를 담당하는 일.
- 85 호련대(扈輦隊): 임금의 행차 시에 뒤따르는 대원.
- 86 내취(內吹): 나팔수.
- 87 복직(袂直): 짐을 나르는 사람.
- 88 악공보(樂工保): 악인(樂人).
- 89 사복제원(司僕諸員); 조선조에 궁중에서 어마(御馬), 구목(廐牧)을 맡아보던 아전(衙前).
- 90 아병(牙兵): 대장을 수행하여 본진에 있는 병사.
- 91 속오군(束伍軍):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무렵 지방에서 역(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인(良人)과 천민(賤民)으로 조직한 군대.

철원진관 소속 춘천현 기린면⁹²

○ 행정구역 기린면(麒麟面)

현리(縣里)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170리 떨어져 있고 편호는 85호다. 남자가 129명, 여자가 91명이다.

북리(北里)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109리 떨어져 있고 편호는 69호다. 남자가 110명, 여자가 79명이다.

서리(西里)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160리 떨어져 있고 편호는 44호다. 남자가 82명, 여자가 67명이다.

상남리(上南里)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200리 떨어져 있고 편호는 49호다. 남자가 75명, 여자가 60명이다.

하남리(下南里)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200리 떨어져 있고 편호는 76호다. 남자가 97명, 여자가 79명이다.

동리(東里)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190리 떨어져 있고 편호는 27호다. 남자가 45명, 여자가 50명이다.

진동리(鎭東里)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240리 떨어져 있고 편호는 59호다. 남자가 80명, 여자가 61명이다.

기묘식(己卯式) 장적(帳籍)에 의거하였다.

○ 건치연혁

속현으로 기린현이 있다.

【현 동쪽 160리에 있다. 본래 고구려의 기지군이었는데, 고려가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어 속하게 하였다.】

○ 참고

기린현창(麒麟縣倉) 현 동쪽으로 170리 떨어져 있고 30칸이다.

92 기린면과 관련된 항목만 발췌하였다.

原州鎮管所屬麟蹄縣

【東至襄陽府界七十二里 西至楊口縣界四十里 南至洪川縣界五十三里 北至杆城郡界八十里
距京城三百六十七里五日程 南距監營二百四十里三日程】

坊里 縣內面

【下道里 自官門西距二里 編戶一百二十 男二百四十口 女二百七十八口

上道里 自官門南距一里 編戶九十三 男一百九十九口 女一百六十七口

德山里 自官門東距五里 編戶三十 男六十口 女九十一口

德積洞里 自官門東距二十里 編戶七 男一十四口 女二十八口

加里山里 自官門北距四十里 編戶十三 男二十六口 女二十七口

清溪洞里 自官門北距二十里 編戶七 男十五口 女二十五口

豐谷里 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十四 男二十五口 女三十七口

古沙洞里 自官門東距十五里 編戶九 男十口 女二十口】

東面

【院垞里 自官門東距三十里 編戶五十三 男八十六口 女一百四十九口

下楸洞里 自官門東距三十五里 編戶九 男二十三口 女四十六口

上楸洞里 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八 男二十三口 女四十四口

耳吞里 自官門東距五十里 編戶二十一 男四十二口 女八十一口】

南面

【加奴津 自官門南距十里 編戶二十三 男四十六口 女三十六口

藍田洞里 自官門南距二十里 編戶五十六 男一百十二口 女九十五口

馬奴里 自官門南距三十里 編戶五十六 男一百十二口 女一百四十四口

北坪里 自官門南距三十五里 編戶四十 男八十六口 女五十九口

沙峴里 自官門南距四十里 編戶十六 男三十二口 女二十口

於論里 自官門南距五十里 編戶十五 男三十一口 女二十七口

松峴里 自馬奴驛分岐東向八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六 男十六口 女十二口

亭子幕里 自官門南距五十里 編戶十七 男三十五口 女二十四口

金寶玉里 自官門南距五十里 編戶十二 男二十四口 女二十一口

羅加里 自官門西距三十五里 編戶十二 男二十四口 女二十口

建達里 自官門西距四十里 編戶二十八 男四十六口 女四十一口

頭毛洞里 自官門西距五十里 編戶七 男十九口 女十五口】

北面

【元通里 自官門北距十五里 編戶四十八 男一百十二口 女七十三口
松峴里 自官門北距二十里 編戶二十五 男三十九口 女三十口
臺岱里 自官門北距二十五里 編戶三十 男五十口 女五十口
傑味里 自官門北距二十七里 編戶四十四 男六十四口 女六十六口
松鶴洞里 自官門北距三十里 編戶十 男十三口 女十三口
楓田洞里 自官門北距三十里 編戶十 男十五口 女十二口
寒溪里 自官門東距二十五里 編戶十二 男十五口 女十二口
五色嶺嵐校里 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三十六 男七十口 女一百口
加曆里 自官門東距五十里 編戶八 男十二口 女十口
龍頭洞里 自官門北距六十里 編戶十 男十五口 女十三口】

瑞和面

【沙川里 自官門北距三十五里 編戶十 男二十口 女三十三口
論長里 有倉曰瑞倉自官門北距四十里 編戶三十 男五十口 女八十七口
水齊里 自官門北距四十五里 編戶二十 男二十口 女四十五口
瑞和里 自官門北距五十里 編戶三十 男五十口 女九十口
龍臺洞里 自官門北距六十里 編戶二十一 男二十一口 女四十一口
釜淵洞 自官門北距六十里 編戶十四 男二十二口 女五十口
西希里 自官門北距七十里 編戶十二 男二十口 女三十口
伊布里 自官門北距八十里 編戶三十 男六十口 女六十五口
龍山里 自官門北距百里 編戶十四 男三十一口 女三十九口
己卯帳籍準】

道路

【自官門東至德山五里 自德山至德積洞十里 自德積洞至加里山二十里 自加里山至春川基
獐界二十里 自官門南至加奴津里十里 自加奴津里至藍田洞十里 自藍田洞至馬奴驛十里 自
馬奴驛至沙峙施店十里 自沙峙施店至於論里十里 自於論里至建伊峙三里 洪川接界 自馬奴
驛分岐東北間至羅加里三十里 自羅加里至頭毛嶺二十里 楊口至接界 自官門東北間至元通驛
十五里 自元通驛至嵐校驛三十里 自嵐校驛至味施嶺三十五里 杆城元岩驛接界 自官門西北間
至松峙里二十里 自松峙至瑞和長承洞五十里 自長承洞至龍山里三十里 自龍山里至檜田嶺
二十里 淮陽金剛山接界】

建置沿革

本高句麗猪足縣 一云烏斯回 新羅改猪蹄爲楊麓郡屬縣 高句麗改今名屬春川 後屬淮陽 恭讓王元年己巳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年例改爲縣監 屬瑞和縣【和一作禾】 一名瑞城 在縣北六十里 本高句麗玉岐縣 新羅景德王改馳道 爲楊麓郡領縣 高麗改今名 屬春川 後屬淮陽 本朝世宗朝來屬原州鎮

郡名

猪足 烏斯回 麟蹄 新增靈昭

形勝

城池

官職

縣監【文蔭從六品 置其屬 座首一人 別監二人 軍官三人 衙前十八人 知印十人 官奴二十名 官婢六名 妓生十名】

山川

伏龍山【在縣北二里 茲山施淮陽金剛山南麓落脈 至龍山里後檜田嶺分岐而來 至瑞和西邊臺 岩山起中祖峯逶迤而來作伏龍山 自伏龍山南來作本縣基 又轉向作楊口四明山 春川清平山 又仍西至春川古論界狼川江頭】

雪岳山【在縣東距五十里 是山自淮陽金剛南麓落脈 至龍山里後龍 檜田嶺分岐而來爲高城炭屯嶺 自炭屯嶺來爲堂長山 自堂長山來爲眞寶嶺 自眞寶嶺來爲屹伊嶺 自屹伊嶺來爲西坡嶺 自西坡嶺來爲味施嶺 自味施嶺來爲雪岳山 自雪岳山來爲寒溪山 自寒溪山來爲五色嶺 自五色嶺來爲基獐朴達嶺 自朴達嶺來爲春川基獐方胎山 自方胎山爲本縣案山名曰南山 至彌勒川而止 又自春川基獐方胎山南麓起脈逶迤來作亭子幕里後龍 自亭子幕里後龍來爲金寶王里後山 自金寶王里後龍來爲建伊峙 自建伊峙落脈作洪川加里山 又自建伊峙分岐選來三十里 至馬奴驛作鳳凰臺 至蛛湫而止】

大勝瀑布【在縣東 自官五十里 山上有大勝庵旧址 前山泉流自成瀑布數千尺 望之如白虹垂天 登其上度繩下垂二千二十尺 自元通驛向東谷入 左右石山列立 嵯峨聳插清空 洞壑幽深 立夏有雪未秋先霜 溪水縱橫而渡水三十六處 中有小路堇通 行履達于襄陽府 樹木茂密落落松柏 自生於石壁之間 洞壑之邊不見山嶺 瀑布之南石上四五峯屹 立其高千仍奇怪莫狀 禽鳥愁飛 態虎莫跡 行人到其下 疑遭壓墜 其下有清川觸岩噴飛 式作潭盤石可坐數百人 又東數里洞口 甚狹細 經緣崖竅穴 嗒呀累作層岩 眞奇觀】

地理室【在嵐校驛東距二十里 有石山嵯峨 深谷中白石之上 清流噴飛 有如釜鑄則祈雨處石上】

彌勒川【自官門五里 合十四洞水 又春川基獐縣來下水南流爲加奴津】

加奴津【自官門十里 自鳳凰臺出前後合六洞水爲蛛湫 仍流入楊口界 又流入春川新淵江 與狼川母津江一合】

姓氏

朴曹孫崔玄李沈全金鄭

風俗

峽俗淳樸 力農資生 多壽考式 或百餘歲

壇廟

社稷壇【在縣西三里】

文廟【在縣東距一里 二十間】

城隍壇【在縣西四里】

厲祭壇【在縣北四里】

公廨

客舍【二十九間】

衙舍【三十間】

軍器【十二間】

鄉廳【八間】

官廳【二十一間】

作廳【十間】

縣舍【三間】

軍官廳【五間】

堤堰

元通堤【在縣北元通驛前 自官門十五里 周回三百十九尺 廣八十三尺 長一百十二尺 水深三尺 外高三尺五寸】

倉庫

邑倉【二十九間】

瑞倉【在縣北瑞和面 自官門四十里 十九間】

物產

海松子 五味子 紫草 人蔘 茯苓 蜂蜜 羚羊 白花蛇 訥魚 餘項魚 錦鱗魚

橋梁

彌勒川【自官門東距五里 津船一隻】

磊灘川 【自官門北元通驛前十五里 津船一隻】

加奴川 【自官南距十里 津船一隻】

馬奴舟淵津 【在縣馬奴驛 自官門南距三十里 津船一隻 去楊口路】

驛院

元通驛 【騎馬一匹 卜馬二匹 奴四名 婢一名 自官門十五里】

馬奴驛 【大馬二匹 卜馬四匹 吏五人 奴十五名 婢八名 自官門南距三十里】

嵐校驛 【卜馬三匹 奴五名 婢三名 自官門東距四十里】

新院 【在元通驛東】

新增院 【自縣東距七十里 襄陽府界】

建伊院 【在縣南五十里】

牧場

【分養馬一匹 八月受來 五月上納】

關阨

味施嶺 【在縣東距七十三里】

西坡嶺 【在縣東距七十三里】

屹伊嶺 【在縣北距七十三里】

眞寶嶺 【在縣北距八十里】

炭屯嶺 【在縣北距百里】

五色嶺 【在縣東距七十二里】

頭毛峙 【在縣西距五十里】

加奴峙 【在縣南距五里】

建伊峙 【在縣南距五十三里】

烽燧

樓亭

吏隱樓 【在衙門上 六間】

合江亭 【在縣北 自官門五里 一派自基麟縣來 一派自雪岳山來 至元通驛 與瑞和水合流 至亭前 合江名彌勒川 東臨清江 西背土山 逶迤來斷頭處爲厓陡出 岸上平鋪 亭在其中 而俯覽澄潭 景致瀟灑 峻邑勝景無出於此 只有旧址丙子冬營建十字閣五間】

寺刹

百潭寺 【在縣東八間 自官六十里】

鳳頂庵 【在縣東六間 自官門百里】

永矢庵【在縣東八間 自官七十里】

上勝庵【在寒溪寺古基後七里許松 檜參天綠竹如織 南望芙蓉峯卓立天表 勢若插鈞 東有獅子臺望瀑臺北有古井甘冽無比】

白雲庵【在寒溪寺東距四十里 四面玉峯環立如屏 行路險峻 人跡罕到 今有旧墟】

隱寂庵【在縣東十間 自官十里】

古跡

寒溪古城【石築周回六千二百七十八尺 高四尺 內有二井 今則頽破】

兪泓窟【兪相公泓爲本道觀察使時 自寒後越三大嶺 立石題名于窟 至今稱兪泓窟】

人物

鄭導【生長邑內 力學司馬】

金泰國【登式年科官 至竹山縣監】

旱田

【一百三十九結二十三負八束 己卯年摠】

水田

【四結四十五負八束 己卯年摠】

進貢

人蔘松茸白清生清餘項魚五味子紫草茸茯苓羚羊白花蛇當歸免絲子

糶糶

【元會付穀三千六百八十七石 賦谷二千六百四十七石 別會付穀一百九十六石 營穀四十四石 十月開倉十二月封倉】

田稅

【大米一石十二斗 田米十二石 太十七石 二月收捧春川昭陽江裝載 八日達于京江 納戶曹 大同均稅同】

大同

均稅

俸廩

【衙祿公須位米二十四石十斗 田米二十四石九斗 錢三百三十兩 柴一千二百二十五束 炭三十四石 雉鷄八百首賀用】

軍兵

騎兵【七十二名】

禁衛軍保【四十七名】
御營軍保【八十一名】
步兵【三十四名】
別破陳【十名】
禁軍保【二名】
軍餉保【十二名】
砲保【六十六名】
扈輦隊保【一名】
內吹保【二名】
裨直【六名】
樂工保【六名】
司僕諸員【十五名】
牙兵【三十七名】
東伍軍【一百二十八名】

鐵原鎮管所屬 春川縣 麒麟面

坊里 麒麟面

【縣里 自官門東距一百九十里 編戶八十五 男一百二十九口 女九十一口

北里 自官門東距一百九里 編戶六十九 男一百十口 女七十九口

西里 自官門東距一百六十里 編戶四十四 男八十二口 女六十七口

上南里 自官門東距二百里 編戶四十九 男七十五口 女六十口

下南里 自官門東距二百里 編戶七十六 男九十七口 女七十九口

東里 自官門東距一百九十里 編戶二十七 男四十五口 女五十口

鎮東里 自官門東距二百四十里 編戶五十九 男七十口 女六十一口

己卯式帳籍唯】

建置沿革

屬縣 麒麟縣

【在縣東一百六十里 本高句麗基知郡 高麗改今名來屬】

倉庫

麒麟縣倉【在縣東距一百七十里 三十間】

인제의 역사

마침내 반드시 합쳐지는 곳에 선 합강정

인제읍 합강2리에 자리한 합강정은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류하는 합강이 흐른다고 하여 명명된 정자이다. 인제 지역 최초의 누정으로 1676년(숙종 2)에 건립하였으며, 화재로 소실된 것을 1756년(영조 32)에 중수하였다. 안중관(安重觀)의 「합강정기(合江亭記)」가 남아 있어 합강정의 의미를 알려준다.

정자는 인제현 관아(官衙)에서 동쪽 1리 부근에 있어 가깝다. 두 물이 동쪽과 북쪽에서 오다가 정자 밑에서 합류하는데, 여울지며 흐르는 물이 씩씩하고 웅맹스러워 물소리가 골짜기마다 진동한다. 중주(中州) 합강(合江)의 모양과 서로 비슷하여 옛 사람들이 취하여 정자에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강 밖의 산은 모두 남쪽으로 뺐었는데, 땅에서 솟아 구름을 찌를 듯 하고, 표범이 서 있고, 고니가 달리는 듯하여 괴이하고 큰 것이 범상치 않다. 정자는 북쪽 기슭 절벽에 의지하여서 강산의 대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한다. 그러나 특별히 산에 가려져 먼 곳의 형세는 없어, 이리저리 거닐 수는 있으나 조망할 수는 없다.

1738년에 나는 홍천(洪川)현감을 지내면서 공무(公務)로 인제현에 갔다가 현감과 정자에 올랐는데, 정자에는 기사(記辭)가 없어서 언제 창건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오직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이 직접 쓴 한문공(韓文公)의 합강시(合江詩) “밤에 파도소리 들으며(波濤夜俯聽), 아침까지 구름과 나무 마주하며 누었네(雲樹朝對暎)”라는 한 연을 처마에 새겨 놓았다. 한예(漢隸)의 필법이라 매우 기이하고 굳세다. 때는 초여름이라 남은 꽃들은 은은하게 절벽 틈에 연이어 있고, 안개구름은 자욱하다. 풀과 나무는 푸르고 온갖 새들은 지저귀며 오르락내리락 날며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합강정



인제 현감 이보인(李普寅)이 술과 안주를 가져왔기에 해가 지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가야금 타는 기생과 피리 부는 아이를 불러 즐겁게 해주려 하였으나, 나는 성품이 이런 것을 즐기지 않는다고 사양하면서 그만두게 하였다. 그러자 현감은 소위 소인배란다. 나는 농담 삼아 말하기를 “천하의 물은 근원이 다르나 끝은 같아서, 그 것이 간혹 백리 천리 떨어져 있어도 마침내 합류하지 않는 것이 없지요. 사람이 제일 영특하다면서 그럴 수 없는 것은 왜입니까?”하자, 현감은 내 뜻을 알고 말하기를 “어질고 밝은 지혜의 임금이 바야흐로 왕위에 올라, 왕도(王道)가 평평하고 고르는데, 어찌 아랫사람들이 물처럼 마침내 반드시 합쳐지지 않음을 근심하십니까?”하였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은 마음이 있으나 물은 마음이 없지요. 마음이 없으면 하려는 것이 없어도 반드시 같아지고, 마음이 있으면 하려는 것이 있으나 어그러지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긋나 외로워하며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이 심합니다. 임금이 비록 왕위에서 애를 쓰나, 고르지 않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고르게 하는 것이 어려움을 근심합니다.”라고 하였다.

자리가 끝날 때 현감이 내게 기문(記文)을 써서 옛 사람이 빠트린 점을 보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허락했으나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꿈에 정자에 이르러 사방을 굽어 보니 옛 경치가 완연한지라 천천히 붓과 먹을 찾는데 장차 글을 쓰려는 모양과 같았다. 아마도 강산(江山)의 신령이 내가 빚진 것을 책망하여 꿈에 나타나 이처럼 된 것인가? 이미 깨어나 간략하게 글을 쓴 것이 이와 같다. 다만 호사자(好事者)들이 글을 취해 벽을 더럽혔다고 하거나 앓을까 모를 일이다.

1747년 이른 여름 상순에 쓰다.

안중관(安重觀, 1683~1752)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국빈(國賓), 호는 회와(梅窩)·가주(可洲).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뒤에 문과 응시는 포기하였다. 뒤에 유일(遺逸)로 천거 받아 세자익위사위수(世子翊衛司衛率)가 되었고, 공조좌랑을 거쳐, 흥천·제천의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벼슬보다는 성리학에 침잠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그는 유학을 비롯하여 문학·경제학(經世學)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의 시문은 그의 6대손 종학(鍾學)이 편집한 『회와집(梅窩集)』에 수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서(序)·제(題)·발(跋)·기·논·설·잡저·행록·행장·찬(贊)·명·송(頌)·서(書)·제문·애사 등이 있다.

인제를 읊은 한시

김창흡(金昌翕), 「합강정」, 『삼연집』

만 리 밖 증상(蒸湘)과 비슷한 곳이라 萬里蒸湘逼
영호남 여러 정자도 견줄 곳 없네 千亭湖嶺空
우리 형님 밝은 헤아림 있으서 吾兄有明眼
황량한 고을에 선풍(仙風) 일으키니 荒縣抗仙風
연못 그림자 마음을 맑게 하고 潭影令人淡
여울소리 정사(政事)와도 통하네 灘聲與政通
시골 백성들 그림 속으로 들어와 村氓來畫裡
창 너머로 백사장 완상하네 沙際翫窓櫺

인제 현감으로 재직 중이던 김창국(金昌國, 1696~1698)은 김창흡의 사촌형이며, 김수증의 아들이다. 김수증의 「유곡연기(遊曲淵記)」에 “병자년(1696)에 아들 창국(昌國)이 인제현(麟蹄縣)을 다스렸는데, 한계와 설악은 인제의 경내에 있다. 무인년(1698) 2월에 다시 인제현에 도착했다. 27일에 아들과 함께 합강정(合江亭)으로 나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라는 구절이 있다.



합강

시를 읽으면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인 합강정의 아름다움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증상(蒸湘)은 동정호로 흘러드는 세 강으로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인제현읍지 麟蹄縣邑誌1

『관동지』 안에 수록되어 있다. 편찬시기가 정확하게 명시된 읍지가 없기 때문에 제작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여러 내용을 검토해보면 1829년~1831년 사이로 추정된다(『국역 관동지』 서문)



청구요람

김정호가 만든 『청구도(靑邱圖)』의 이본은 현재까지 9종이 알려져 있는데 『청구 요람(靑丘要覽)』도 그중 하나이다. 남북으로 총 29층, 동서로는 22판으로 구분되어 있다. 『청구 요람』에는 김정호의 '청구도 범례(靑邱圖凡例)'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본 지도책과 대부분 동일하여 최한기(崔漢綺)가 소장하고 있던 『청구도』의 최종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제작 시기는 김정호의 『청구도』를 고종 연간에 필사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인제현 선생안(麟蹄縣 先生案)

| | | | | |
|----------|----------|----------|----------|----------|
| 권 영(權 詠) | 박인량(朴寅亮) | 류 식(柳 湜) | 김 향(金 沆) | 이공인(李公仁) |
| 김 약(金 約) | 심 국(沈 錡) | 윤사신(尹思愼) | 홍치우(洪致禹) | 이경운(李慶雲) |
| 황응규(黃應奎) | 임 한(任 瀚) | 박지형(朴之亨) | 류 필(柳 秘) | 민충열(閔忠烈) |
| 오극달(吳克達) | 한응인(韓應寅) | 이일원(李一元) | 윤 용(尹 溶) | 윤은경(尹殷卿) |
| 박문필(朴文弼) | 이대이(李大頤) | 이정익(李廷益) | 박대신(朴大信) | 허 녕(許 鑾) |
| 민 간(閔 侃) | 이 결(李 潔) | 최동식(崔東式) | 심종도(沈宗道) | 이의형(李宜兄) |
| 박충생(朴忠生) | 이유경(李有慶) | 이응조(李應祚) | 민 척(閔 滌) | 이 풍(李 馮) |
| 윤 상(尹 祥) | 구인기(具仁基) | 김 물(金 沔) | 이 준(李 竣) | 윤형각(尹衡覺) |
| 박 환(朴 煥) | 박지경(朴知警) | 이담경(李曇慶) | 김 연(金 潑) | 이태남(李泰男) |
| 류문석(柳文錫) | 박 정(朴 挺) | 윤 호(尹 皓) | 김지안(金志顔) | 이상필(李尙秘) |
| 박홍호(朴弘護) | 이 순(李 楯) | 이 옥(李 旭) | 이지병(李之屏) | 이명인(李命寅) |
| 류인성(柳仁聲) | 한석명(韓錫明) | 김여량(金汝亮) | 윤건지(尹建之) | 류 필(柳 苾) |
| 김세호(金世豪) | 최시설(崔時尙) | 김 뉴(金 紐) | 이 핵(李 翮) | 김소하(金韶夏) |
| 정정양(鄭正陽) | 이세억(李世億) | 이희채(李熙采) | 강수남(姜壽楠) | 이순악(李舜岳) |
| 심 집(沈 漵) | 이시흥(李始興) | 김창국(金昌國) | 이 수(李 洙) | 김성대(金盛大) |
| 신 재(申 載) | 조광명(趙光命) | 서종적(徐宗積) | 이우신(李雨臣) | 이경제(李敬躋) |
| 한배후(韓配厚) | 권양성(權養性) | 조명진(趙明震) | 조진세(趙鎭世) | 김상규(金相圭) |
| 임안세(任安世) | 류 징(柳 澂) | 이보인(李普寅) | 윤득성(尹得聖) | 신진하(申鎭夏) |
| 이광구(李廣矩) | 김광수(金光遂) | 김선재(金善材) | 이구로(李龜老) | 황 식(黃 植) |
| 신광리(申光履) | 윤창주(尹昌柱) | 이현백(李顯白) | 이명빈(李命彬) | 정택제(鄭宅濟) |
| 조래진(趙來鎭) | 이국형(李國亨) | 김도순(金道淳) | 여선양(呂善養) | 윤득흠(尹得欽) |
| 임 욱(任 熿) | 오언모(吳彦謨) | 신광하(申光河) | 박종복(朴宗福) | 조의규(趙儀達) |
| 이원응(李元膺) | 백봉주(白鳳周) | 한용겸(韓用謙) | 조진대(趙鎭大) | 홍 혁(洪 赫) |
| 이종효(李宗孝) | 이면심(李勉心) | 류인근(柳仁根) | 임두진(林斗鎭) | 이종우(李種祐) |
| 이도헌(李度憲) | 어재완(魚在琬) | | | |

인제현읍지(麟蹄縣邑誌)

- 원주진관 소속 인제현(原州鎭管所屬麟蹄縣): 동쪽으로 양양부(襄陽府) 경계까지 72리, 서쪽으로 양구현(楊口縣) 경계까지 40리, 남쪽으로 홍천현(洪川縣) 경계까지 50리, 북쪽으로 간성군(杆城郡) 경계까지 80리이다. 서쪽으로 서울까지 370리로 5일 정도 걸리고, 남쪽으로 감영(監營)까지 240리로 3일 정도 걸리며, 동쪽으로 바닷가까지 135리이며 2일 정도 걸린다.

- 행정구역
 - 현내면(縣內面)
 - 하도리(下道里): 관문에서 서쪽으로 2리 거리에 있다. 편호(編戶) 126, 남자 220명, 여자 251명이다.
 - 상도리(上道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2리 거리에 있다. 편호 73, 남자 141명, 여자 181명이다.
 - 덕산리(德山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편호 42, 남자 77명, 여자 85명이다.
 - 덕적동리(德積洞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편호 13, 남자 27명, 여자 31명이다.
 - 가리산리(加里山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편호 17, 남자 39명, 여자 54명이다.
 - 청계동리(淸溪洞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편호 17, 남자 35명, 여자 48명이다.
 - 한계동리(寒溪洞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편호 6, 남자 6명, 여자 10명이다.
 - 고사동리(古沙洞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편호 11, 남자 21명, 여자 28명이다.

 - 동면(東面)
 - 원대리(院垞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편호 40, 남자 84명, 여자 102명이다.

- 상추동리(上楸洞里) : 관문에서 동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편호 20, 남자 39명, 여자 41명이다.
- 하추동리(下楸洞里) : 관문에서 동쪽으로 35리 거리에 있다. 편호 16, 남자 30명, 여자 33명이다.
- 이탄리(耳呑里) : 관문에서 동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편호 24, 남자 59명, 여자 67명이다.

□ 남면(南面)

- 가노리(加奴里) : 관문에서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편호 27, 남자 51명, 여자 62명이다.
- 남전동리(藍田洞里) : 관문에서 남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편호 45, 남자 102명, 여자 109명이다.
- 마노리(馬奴里) : 관문에서 남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편호 90, 남자 193명, 여자 200명이다.
- 북평리(北坪里) : 관문에서 남쪽으로 35리 거리에 있다. 편호 49, 남자 93명, 여자 106명이다.
- 사현리(沙峴里) : 관문에서 남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편호 4, 남자 11명, 여자 15명이다.
- 어론리(於論里) : 관문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편호 22, 남자 39명, 여자 47명이다.
- 송현리(松峴里) : 관문에서 동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편호 2, 남자 5명, 여자 5명이다.
- 정자막리(亭子幕里) : 관문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편호 11, 남자 24명, 여자 28명이다.
- 김보황리(金寶皇里) : 관문에서 남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편호 8, 남자 18명, 여자 24명이다.
- 나가리(羅加里) : 관문에서 서쪽으로 35리 거리에 있다. 편호 9, 남자 16명, 여자 16명이다.
- 건달리(建達里) : 관문에서 서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편호 36, 남자 73명, 여자 81명이다.
- 두모동리(頭毛洞里) : 관문에서 서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편호 8, 남자 12명, 여자 17명이다.

- 화탄리(禾呑里) : 관문에서 남쪽으로 60리 거리에 있다. 편호 12, 남자 27명, 여자 34명이다.
 - 갑둔리(甲屯里) : 관문에서 남쪽으로 70리 거리에 있다. 편호 15, 남자 28명, 여자 34명이다.
- 북면(北面)
- 원통리(元通里) : 관문에서 북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편호 50, 남자 115명, 여자 84명이다.
 - 포미리(包味里) : 관문에서 북쪽으로 27리 거리에 있다. 편호 19, 남자 22명, 여자 27명이다.
 - 송학동리(松鶴洞里) : 관문에서 북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편호 28, 남자 76명, 여자 89명이다.
 - 풍전동리(楓田洞里) : 관문에서 북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편호 21, 남자 47명, 여자 56명이다.
 - 남교역리(嵐校驛里) : 관문에서 동쪽으로 45리 거리에 있다. 편호 36, 남자 70명, 여자 100명이다.
 - 가력리(加歷里) : 관문에서 동쪽으로 50리 거리에 있다. 편호 17, 남자 42명, 여자 46명이다.
 - 용두리(龍頭里) : 관문에서 북쪽으로 60리 거리에 있다. 편호 20, 남자 41명, 여자 45명이다.
- 서화면(瑞和面)
- 사천리(沙川里) : 관문에서 북쪽으로 35리 거리에 있다. 편호 24, 남자 30명, 여자 30명이다.
 - 논장리(論章里) : 관문에서 40리에 창고가 있는데, 서창(瑞倉)이라 한다. 편호 36, 남자 61명, 여자 73명이다.
 - 수제리(水濟里) : 관문에서 북쪽으로 45리 거리에 있다. 편호 43, 남자 97명, 여자 103명이다.
 - 서화리(瑞和里) : 관문에서 북쪽으로 55리 거리에 있다. 편호 77, 남자 131명, 여자 152명이다.

- 서희리(西希里) : 관문에서 북쪽으로 70리 거리에 있다. 편호 7, 남자 15명, 여자 19명이다.
- 이포리(伊布理) : 관문에서 북쪽으로 80리 거리에 있다. 편호 25, 남자 36명, 여자 42명이다.
- 용산리(龍山里) : 관문에서 북쪽으로 100리 거리에 있다. 편호 18, 남자 36명, 여자 39명이다. 호적부에 준한다.

○ 도로(道路)

관문에서 동쪽으로 덕산(德山)까지 5리, 덕산에서 덕적동(德積洞)까지 10리, 덕적동에서 가리산(加里山)까지 20리, 가리산에서 춘천 기린 경계까지 20리이다.

관문에서 남쪽으로 가노진(加奴津)까지 10리, 가노진에서 남전동(藍田洞)까지 10리, 남전동에서 마노역(馬奴驛)까지 10리, 마노역에서 사치시점(沙峙施店)까지 10리, 사치시점에서 어론리(於論里)¹까지 10리, 어론리에서 건이치(建伊峙)까지 3리인데 흥천 경계이다.

마노역에서 갈라져 동북쪽으로 나가리까지 30리, 나가리(羅加里)에서 두모동(頭毛洞) 고개까지 20리로 양구경계이다.

관문에서 북쪽으로 원통역(元通驛)까지 15리, 원통역에서 남교역(嵐校驛)까지 30리, 남교역에서 미시령(味矢嶺)까지 35리인데, 간성(杆城) 원암역(元岩驛) 경계와 접해있다.

관문에서 서북쪽으로 송치리(松峙里)까지 20리, 송치리에서 서화(瑞和) 장승동(長丞洞)까지 50리, 장승동에서 용산리(龍山里)까지 35리, 용산리에서 회전령(檜田嶺)까지 20리인데, 회양(淮陽) 금강산(金剛山) 경계이다.

○ 고을의 내력

본래 고구려 때에 저족현(猪足縣), 또는 오사(烏斯)라고 하다가 신라 때에 희제(豨蹄)라고 이름을 바꾸고, 양록군(楊麓郡)의 속현(屬縣)으로 삼았다. 고려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춘천에 속하게 했다가 후에 회양에 속하게 했다. 1390년(공양왕 1)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1413년(태종 13)에 고쳐 현감(縣監)을 두었다. 속현(屬縣)인 서화현

1 원문에 논리(論里)로 되어 있으나, 남면 어론리(於論里)이다.

(瑞和縣)은 일명 서성(瑞城)이라고도 하는데 현의 북쪽 60리에 있다. 본래 고구려 때는 옥기현(玉岐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치도(馳道)로 고치고 양록군(楊麓郡)의 영현(領縣)을 삼았다. 고려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춘천에 속하게 했다가 후에 회양에 속하게 했다. 본조에서도 따랐다.

○ 고을 이름

저족(猪足), 오사회(烏斯回), 희제(豨蹄)이다. 『신증(新增)』 영소(靈昭)이다.

○ 형승(形勝)

없다.

○ 성지(城池)

없다.

○ 관직(官職)

현감(縣監) 문음(文陰) 종6품이다. 그 아래에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2인, 군관(軍官) 3인, 아전(衙前) 18인, 지인(知印) 10인, 관노(官奴) 20명, 관비(官婢) 4명, 기생(妓生) 10명을 두었다.

○ 산천(山川)

○ 북룡산(伏龍山) 현의 북쪽 2리에 있다. 이 산은 회양(淮陽) 금강산에서 시작하여 남쪽 줄기가 내려와 용산리(龍山里) 뒤에 이르고 회전령(檜田嶺)이 나뉘어져 서화 서쪽가에 이르고, 대암산(臺岩山)이 중조봉(中祖峯)에서 일어나 구불구불 이어내려 오다가 북룡산을 만들었다.

○ 설악산(雪嶽山) 현의 동쪽 50리에 있다. 이 산은 회양 금강산에서 남쪽 기슭이 내려온 줄기가 용산리 뒤쪽 줄기에 이르고, 회전령이 나뉘어져 고성(高城)의 탄둔령(炭屯嶺)이 된다. 탄둔령에서 당장산(堂長山)으로 이어지고 당장산에서 진보령(眞寶嶺)이 된다. 진보령에서 흘이령(屹伊嶺)으로 이어지고, 흘이령에서 서파령(西坡嶺)이 되고,

서과령에서 이어져 미시령(昧矢嶺)이 되고, 미시령에서 이어져 설악산이 된다. 산 안에는 백담사(百潭寺), 영시암(永矢菴), 오장암(五藏菴), 또 만경대(萬景臺), 한계폭(寒溪瀑), 쌍폭(雙瀑), 수렴동(水簾洞)이 있다. 물과 바위가 절경이고, 산봉우리가 기이하고 장엄함이 금강산과 서로 위아래를 다투는다고 한다.

- 대승폭포(大勝瀑布) 현의 동쪽 50리에 있다. 산 위에 승암지(勝菴址)가 있고, 앞 산의 물이 흐르다 폭포를 이루는데 높이가 수천 장으로, 바라보면 흰 무지개가 하늘에서 늘어진 것 같다. 그 위에 올라가서 내린 줄을 재보니 2,020척이다.
 - 지리실(地理室) 남교역(嵐校驛) 동쪽 20리에 있다. 돌산이 우뚝 솟아 성을 이루고,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은 맑고 차갑다. 가을 때에는 기우제를 지낸다.
 - 미륵천(彌勒川) 관문 5리에 있다. 열 네곳 골짜기 물이 모여 남쪽으로 흘러 가노진(加奴津)이 된다.
 - 가노진(加奴津) 관문에서 10리에 있다. 양구 경계로 흘러 들어간다.
- 성씨(姓氏)
- 박(朴), 조(曹), 손(孫), 최(崔), 현(玄), 이(李), 심(沈), 전(全), 김(金), 정(鄭).
- 풍속(風俗)
- 풍속이 순박하며 경작을 생업으로 삼는다.
- 제사 지내는 곳
- 사단(社壇) 현의 서쪽 3리에 있다.
 - 문묘(文廟) 현의 동쪽 1리에 있고, 20칸이다.
 - 성황단(城隍壇) 현의 서쪽 4리에 있다.
 - 여제단(厲祭壇) 현의 북쪽 4리에 있다.
- 관공서
- 객사(客舍) 29칸이다.
 - 아사(衙舍) 35칸이다.
 - 군기고(軍器庫) 12칸이다.

- 향청(鄉廳) 8칸으로 정유년(丁酉) 수해 때 물에 떠내려갔다.
 - 관청(官廳) 21칸이다.
 - 작청(作廳) 17칸이다.
 - 현사(縣舍) 3칸이다.
 - 군관청(軍官廳) 5칸이다.
- 제방
- 원통언(元通堰) 현의 북쪽 원통 앞에 있는데, 관문에서 15리에 있다. 둘레가 319척이고, 너비가 83척, 길이가 112척, 깊이가 3척이며 바깥 쪽 높이가 3척이다.
- 창고(倉庫)
- 읍창(邑倉) 29칸이다.
 - 서창(瑞倉) 현의 북쪽 서화면에 있고, 관에서 40리이고, 19칸이다.
- 지역 특산물
- 해송자(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자초(紫草)², 인삼(人蔘), 복령(茯苓), 봉밀(蜂蜜), 백화사(白花蛇)³, 놀어(訥魚)⁴, 여항어(餘項魚)⁵, 금린어(錦鱗魚)⁶.
- 교량(橋樑)
- 미륵천(彌勒川) 관문 동쪽 5리에 있으며, 나룻배 1척이 있다.
 - 뇌탄진(磊灘津) 관문 북쪽 15리 원통역 앞에 있고, 나룻배 1척이 있다.
 - 가노천(加奴川) 관문에서 10리에 있으며 나룻배 1척이 있다.

2 자초(紫草): 자치(自治)의 뿌리로 찬 성질이 있고 오줌을 순하게 하며 피를 맑게 하여서 창증(脹症). 두중(痘症). 부스럼에 쓰임.

3 백화사(白花蛇): 산무애뱀이라고도 한다. 뱀과의 독이 없는 뱀으로 몸길이 1.5m가량이며, 몸빛은 암갈색이고 목에서 꼬리까지 흰 줄이 양쪽에 있다. 한방에서 '화사(花蛇)'라 하여 문등병·풍약(風藥)·보신(補身) 등의 약재로 쓰임.

4 놀어(訥魚): 누치.

5 여항어(餘項魚): 열목어.

6 금린어(錦鱗魚): 쏘가리.

- 마노주연진(馬奴舟淵津) 관문 남쪽에 서 30리 마노역진에 있으며, 나룻배 1척이 있으며 양구로 가는 길이다.



마노주연진

- 역(驛)
 - 원통역(元通驛) 기마(騎馬) 1필, 복마(卜馬) 2필, 역노(驛奴) 4명, 역비(驛婢) 1명이 있으며, 관문 15리에 있다.
 - 마노역(馬奴驛) 기마 2필, 복마 4필, 역리 5인, 역노 15명, 역비 8명으로, 관문 남쪽 30리에 있다.
 - 남교역(嵐校驛) 복마 3필, 역노 5명, 역비 3명으로, 관문 동쪽 40리에 있다.
- 원(院)
 - 건이원(建伊院) 현 남쪽 50리에 있다.
 - 마노원(馬奴院) 현 남쪽 30리에 있다.
- 목장(牧場)
 - 말 1필을 8월에 분양받아, 이듬해 5월에 바친다.
- 봉수(烽燧)
 - 없다.
- 정자
 - 이은루(吏隱樓) 아문(衙門) 위에 있으며, 6칸이다.

- 합강정(合江亭) 현의 북쪽 5리에 있는데, 한 갈래의 물이 인제현에서 흘러오고, 또 한 갈래의 물이 설악에서 흘러와 정자 앞에서 합류하는 까닭에 이름을 합강정이라 한다.

○ 사찰(寺刹)

- 백담사(白潭寺) 현의 동쪽 60리 설악산 안에 있다.
- 봉정암(鳳頂菴) 현의 동쪽 100리로, 역시 설악산 안에 있다.
- 오세암(五歲菴) 현의 동쪽 80리로, 설악산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



봉정암

- 時習)이 은둔했기 때문에 오세암이라고 칭하고 있다. 매월당의 영당(影堂)이 있다.
- 은적암(隱寂菴) 현의 동쪽 10리에 있으며, 지금은 터의 형태만 있다.
- 서룡암(瑞龍菴) 현의 북쪽 50리에 있다.
- 영시암(永矢菴) 백담사 위 10리 쯤에 있다. 여기에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방을 지어 독서한 곳이다. 그러한 까닭에 삼연의 유허비(遺墟碑)가 있고, 그 옆에 절을 세웠다.

○ 고적(古跡)

- 한계고성(寒溪古城) 둘로 쌓았으며, 둘레가 6,278척, 높이가 4척이다. 성 안에 두 개의 우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무너져 내렸다.
- 상승암(上勝菴) 한계폭포 10리쯤에 있는데, 지금은 옛 터만 남아있다.
- 백운암(白雲菴) 한계사 동쪽 40리에 있는데, 지금은 옛 자리만 남아있다.

○ 진보(鎭堡)

없다.

○ 인물(人物)

예전에 정도(鄭導)란 사람이 읍내에서 낳고 자라 학문에 힘써 사마시에 합격했다.

○ 밭

97결(結) 55부(負) 2속(束)이다.

○ 논

2결 58부 9속이다.

○ 진공(進貢)

인삼(人蔘) · 송용(松茸)⁷ · 백청(白淸) · 여항어(餘項魚) · 복령(茯苓) · 당귀(當歸) · 생청(生淸)이다.

○ 환곡

원회부의 각종 곡식을 합치면 4,682석(石) 12두(斗) 3승(升) 5홉(合) 5작(勺)이다.

○ 대동(大同)

전미(田米)는 34석이고, 작포(作布)는 2동(同) 2필(疋)이다.

○ 전세(田稅)

대미(大米)는 2석 6두 4승 3홉 1작이고, 전미(田米)는 25석 1두 3승 4홉 7작이며, 콩(豆)은 15석 4두 3승 1홉 6작으로, 2월에 거두었다가 춘천 소양강창(昭陽江倉)으로 실어 보내면 서울까지 8일이면 도달한다. 호조(戶曹)에 납부하고, 대동세와 균세도 마찬가지이다.

7 송이.

○ 균세(均稅)

결전(結錢)은 92냥 8전 3푼이고, 선무전(選武錢)은 94냥이다. 백점토(白粘土)는 조운(漕運)으로 상납하고, 선세(船稅)는 4냥이다.

○ 관리 봉급

대미(大米)는 35석 13두 1승 5홉이고, 전미(田米)는 35석 13두 1승 5홉이고, 돈은 479냥 9전 7푼이다. 뿔나무[柴]는 1,200속(束), 숯[炭]은 30석, 꿩과 닭은 800마리이다.

○ 군보(軍保)

- 기병보(騎兵保) 72명이다.
- 금위보(禁衛保) 47명이다.
- 어영보(御營保) 81명이다.
- 보병(步兵) 34명이다.
- 별파진보(別破陣保) 10명이다.
- 금군보(禁軍保) 2명이다.
- 군향보(軍餉保) 12명이다.
- 포보(砲保) 66명이다.
- 호련대보(扈輦隊保) 1명이다.
- 내취보(內吹保) 2명이다.
- 복직보(裋直保) 6명이다.
- 악공보(樂工保) 6명이다.
- 사복제원(司僕諸員) 15명이다.
- 아병(牙兵) 37명이다.
- 속오(束伍) 128명이다.

○ 제영(題詠)

만 리 밖 증상(蒸湘)과 비슷한 곳이라 萬里蒸湘逼

영호남 여러 정자도 건줄 곳 없네 千亭湖嶺空

우리 형님 밝은 헤아림 있으서 吾兄有明眼

황량한 고을에 선풍(仙風) 일으키니 荒縣抗仙風
 연못 그림자 마음을 맑게 하고 潭影令人淡
 여울소리 정사(政事)와도 통하네 灘聲與政通
 시골 백성들 그림 속으로 들어와 村氓來畫裡
 창 너머로 백사장 완상하네 沙際翫窓櫺
 위 시는 김창흠(金昌翕)이 지었고, 호는 삼연(三淵)이다.

麟蹄縣先生案

權詠 朴寅亮 柳湜 金沆 李公仁 金約 沈鉤 尹思慎 洪致禹 李慶雲 黃應奎 任瀚 朴之亨 柳秘 閔忠烈 吳克達 韓應寅 李一元 尹溶 尹殷卿 朴文弼 李大頤 李廷益 朴大信 許鐔 閔侃 李潔 崔東式 沈宗道 李宜兄 朴忠生 李有慶 李應祚 閔滌 李馮 尹祥 具仁基 金岫 李竣 尹衡覺 朴煥 朴知警 李曇慶 金漾 李泰男 柳文錫 朴炳 尹皓 金志顏 李尙秘 朴弘護 李楯 李旭 李之屏 李命寅 柳仁聲 韓錫明 金汝亮 尹建之 柳苾 金世豪 崔時尙 金紐 李嗣 金韶夏 鄭正陽 李世億 李熙采 姜壽楠 李舜岳 沈漵 李始興 金昌國 李洙 金盛大 申載 趙光命 徐宗積 李雨臣 李敬躋 韓配厚 權養性 趙明震 趙鎮世 金相圭 任安世 柳激 李普寅 尹得聖 申鎮夏 李廣矩 金光遂 金善材 李龜老 黃植 申光履 尹昌柱 李顯白 李命彬 鄭宅濟 趙來鎮 李國亨 金道淳 呂善養 尹得欽 任焞 吳彥謨 申光河 朴宗福 趙儀達 李元膺 白鳳周 韓用謙 趙鎮大 洪赫 李宗孝 李勉心 柳仁根 林斗鎮 李種祐 李度憲 魚在琬

麟蹄縣邑誌

原州鎭管所屬麟蹄縣 東至襄陽府界七十二里西至楊口縣界四十里南至洪川縣界五十里北至杆城郡界八十里西至京城三百七十里五日程南距監營二百四十里三日程東距海濱一百三十五里二日程

坊曲

縣內面 下道里 自官門西距二里編戶一百二十六男二百二十口女二百五十一口 上道里 自官門東距二里編戶七十三男一百四十一口女一百八十一口 德山里 自官門東距五里編戶四十二男七十七口女八十五口 德積洞 自官門東距二十里編戶十三男二十七口女三十一口 加里

山里 自官門北距四十里編戶十七男三十九口女五十四口 清溪洞里 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十七男三十五口女四十八口 寒溪洞里 自官門東距三十里編戶六男六口女十口 古沙洞里 自官門東距十五里編戶十一男二十一口女二十八口

東面 院垞里 自官門東距三十里編戶四十男八十四口女一百二口 上楸洞里 自官門東距四十里編戶二十男三十九口女四十一口 下楸洞里 自官門東距三十五里編戶十六男三十口女三十三口 耳吞里 自官門東距五十里編戶二十四男五十九口女六十七口

南面 加奴里 自官門南距十里編戶二十七男五十一口女六十二口 藍田洞里 自官門南距二十里編戶四十五男一百二口女一百九口 馬奴里 自官門南距三十里編戶九十男一百九十三口女二百口 北坪里 自官門南距三十五里編戶四十九男九十三口女一百六口 沙峴里 自官門南距四十里編戶四男十一口女十五口 於論里 自官門南距五十里編戶二十二男三十九口女四十七口 松峴里 自官門東距四十里編戶二男五口女五口 亭子幕里 自官門南距五十里編戶十一男二十四口女二十八口 金寶皇里 自官門南距五十里編戶八男十八口女二十四口 羅加里 自官門西距三十五里編戶九男十六口女十六口 建達里 自官門西距四十里編戶三十六男七十三口女八十一口 頭毛洞里 自官門西距五十里編戶八男十二口女十七口 禾吞里 自官門南距六十里編戶十二男二十七口女三十四口 甲屯里 自官門南距七十里編戶十五男二十八口女三十四口

北面 元通里 自官門北距十里編戶五十男一百十五口女八十四口 包味里 自官門北距二十七里編戶十九男二十二口女二十七口 松鶴洞里 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八男七十六口女八十九口 楓田洞里 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一男四十七口女五十六口 嵐校驛里 自官門東距四十五里編戶三十六男七十口女一百口 加歷里 自官門東距五十里編戶十七男四十二口女四十六口 龍頭里 自官門北距六十里編戶二十男四十一口女四十五口

瑞和面 沙川里 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二十四男三十口女三十口 論章里 自官門四十里有倉曰瑞倉編戶三十六男六十一口女七十三口 水濟里 自官門北距四十五里編戶四十三男九十七口女一百三口 瑞和里 自官門北距五十五里編戶七十七男一百三十一口女一百五十二口 西希里 自官門北距七十里編戶七男十五口女十九口 伊布里 自官門北距八十里編戶二十五男三十六口女四十二口 龍山里 自官門北距一百里編戶十八男三十六口女三十九口 帳籍准

道路

自官門東至德山五里 德山至德積洞十里 自德積洞至加里山二十里 自加里山至春川猓獐界二十里 自官門南至加奴津十里 自加奴津至藍田洞十里 自藍田洞至馬奴驛十里 自馬奴驛至沙

峙施店十里自沙峙施店至於論里十里自於論里至建伊峙三里洪川界自馬奴驛分岐東北間至羅加里三十里自羅加里至頭毛洞嶺二十里楊口接界 自官門北至元通驛十五里自元通驛至嵐校驛三十里自嵐校驛至味矢嶺三十五里杆城元岩驛接界 自官門西北間至松峙里二十里自松峙里至瑞和長丞洞五十里自長丞洞至龍山里三十五里自龍山里至檜田嶺二十里淮陽金剛山界

建置沿革

本高句麗猪足縣一云烏斯新羅改豨蹄爲楊麓郡屬縣高麗改今名屬春川後屬淮陽恭讓王元年己巳置監務 本朝 太宗十三年癸巳改爲縣監屬瑞和縣一名瑞城在縣北六十里本高句麗玉岐縣新羅景德王改馳道爲楊麓郡領縣高麗改今名屬春川後屬淮陽本朝郡名 猪足 烏斯回 豨蹄 新增 靈昭

形勝

無

城地

無

官職

縣監 文蔭從六品置其屬座首一人別監二人軍官三人衙前十八人知印十人官奴二十名官婢四名妓生十名

山川

伏龍山 在縣北二里茲山始淮陽金剛山南麓落脉至龍山里後檜田嶺分岐而來至瑞和西邊臺岩山起中祖峯逶迤而來作伏龍山

雪岳山 在縣東五十里是山自淮陽金剛山南麓落脉至龍山里後脉檜田嶺分岐而來爲高城炭屯嶺自炭屯嶺來堂長山自堂長山來爲眞寶嶺自眞寶嶺來爲屹伊嶺自屹伊嶺來爲西坡嶺自西坡嶺來爲未矢嶺自未矢嶺來爲雪岳山山內有百潭寺永矢菴五藏菴又有萬景臺寒溪瀑雙瀑水簾洞泉石絕勝峯巒奇壯與金剛山相上下云

大勝瀑布 在縣東五十里山上有勝菴址前山泉流成瀑布數千丈望之如白虹垂天登其上度繩下垂二千二十尺

地理室 在嵐校驛東距二十里石山嵯城岩流清冽旱則祈雨

彌勒川 在官門五里合十四洞水南流爲加奴津

加奴津 在官門十里流入楊口界

姓氏

朴 曹 孫 崔 玄 李 沈 全 金 鄭

風俗

風俗淳朴生業耕稼

壇廟

社壇 在縣西三里

文廟 在縣東一里二十間

城隍壇 在縣西四里

厲祭壇 在縣北四里

公廨

客舍 二十九間

衙舍 三十五間

軍器 十二間

鄉廳 八間丁酉水災漂失

官廳 二十一間

作廳 十七間

縣司 三間

軍官廳 五間

堤堰

元通堰 在縣北元通前自官門十五里周回三百十九尺廣八十三尺長一百十二尺水深三尺外高三尺

倉庫

邑倉 二十九間

瑞倉 在縣北瑞和面自官四十里十九間

物產

海松子 五味子 紫草 人蔘 茯苓 蜂蜜 白花蛇 訥魚 餘項魚 錦鱗魚

橋樑

彌勒川 在官門東距五里津缸一隻

磊灘津 在官門北距十五里元通驛前津缸一隻

加奴川 在官門十里津缸一隻

馬奴舟淵津 在官門南距三十里馬奴驛津缸一隻去楊口路

驛

元通驛 騎馬一匹卜馬二匹奴四名婢一名在官門十五里

馬奴驛 騎馬二匹卜馬四匹吏五人奴十五名婢八名在官門南距三十里

嵐校驛 卜馬三匹奴五名婢三名在官門東距四十里

院

建伊院 在縣南五十里

馬奴院 在縣南三十里

牧場

分養馬一匹八月受來五月上納

烽燧

無

樓亭

吏隱樓 在衙門上六間

合江亭 在縣北五里一派水自麟蹄縣來一派水自雪岳來至亭前相合故名合江亭

寺刹

白潭寺 在縣東六十里在雪岳山中

鳳頂菴 在縣東百里亦在雪岳山中

五歲菴 在縣東八十里在雪岳山最高深處梅月堂金時習所隱之地故號稱五歲菴有梅月堂影堂

隱寂菴 在縣東十里今存址形

瑞龍菴 在縣北五十里

永矢菴 在白潭寺上十里許是三淵金昌翁築室讀書之地故有三淵遺墟碑建寺于其傍

古跡

寒溪古城 石築周回六千二百七十八尺高四尺內有二井今則頽破

上勝菴 在寒溪瀑十里許而今有舊墟云

白雲菴 在寒溪寺東四十里今有舊基云

鎮堡

無

人物

古者鄭導生長邑內力學司馬

旱田

九十七結五十五負二束

水田

二結五十八負九束

進貢

人蔘 松茸 白朮 餘項魚 茯苓 當歸 生朮

糶糶

會付各穀四千六百八十二石十二斗三升五合五勺

大同

田米三十四石作布二同二疋

田稅

大米二石六斗四升三合一勺 田米二十五石一斗三升四合七勺 太十五石十四斗三升一合六勺

二月收捧春川昭陽江裝載八日達于京城納于戶曹大同均稅同

均稅

結錢九十二兩八錢三分 選武錢九十四兩 白粘土載運上納稅錢四兩

俸廩

大米三十五石十三斗一升五合 田米三十五石十三斗一升五合 錢四百七十九兩九錢七分 柴

一千二百束 炭三十石 雉鷄八百首

軍保

騎兵保 七十二名

禁衛保 四十七名

御營保 八十一名

步兵 三十四名

別破陣保 十名

禁軍保 二名

軍餉保 十二名

砲保 六十六名

扈輦隊保 一名

內吹保 二名

祿直保 六名

樂工保 六名

司僕諸員 十五名

牙兵 三十七名

束伍 一百二十八名

題詠

萬里蒸湘逼 千亭湖嶺空 吾兄有明眼 荒縣抗仙風

潭影令人淡 灘聲與政通 村氓來畫裡 沙際翫窓櫺

右金昌翁 號三淵

인제의 역사 김창흡이 살던 곳에 비를 세우다

벽운정사에 머물던 김창흡은 화재를 당하자 거처를 옮겨 영시암을 세운다. 숙종 35년인 1709이다. 그러나 영시암의 생활도 잠시, 1714년에 찬모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자 설악에서의 생활을 접고 산을 나오게 된다. 삼연 선생이 영시암을 떠난 후 영시암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된다. 1749년 인제현감 이광구(李廣矩)가 영시암이 폐허가 된 것을 살펴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비(碑)를 세우고 기록하는 것을 도모하였다. 그 때 홍봉조(洪鳳祚)가 마침 관찰사였는데, 그 일에 감동되어 비문을 쓰게 된다.

아! 이곳은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선생이 은거하셨던 곳이다. 선생께서는 어려서부터 특이한 뜻이 있었으며, 이름난 산수를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셨다. 설악의 많은 봉우리와 절벽, 못과 폭포의 뛰어난 곳을 홀로 독차지하여 기이함을 간직하고 보이질 않았다. 은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곳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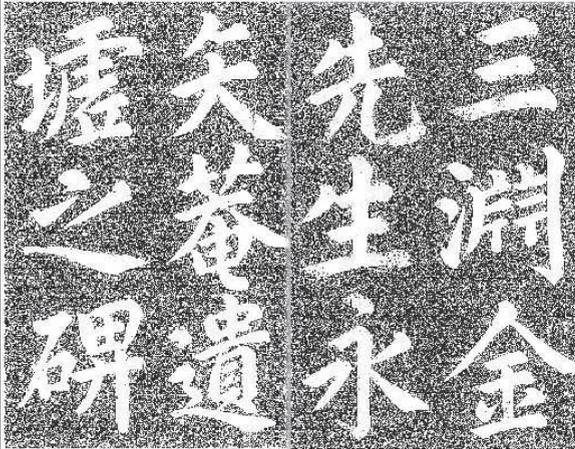
기축년(己丑年:1709)에 다시 절의 동쪽 몇 리 되는 곳으로 들어가니, 바로 조원봉의 남쪽이다. 아홉 기둥의 판자 집을 짓고 늘 그곳에서 계시니, 이른바 영시암(永矢庵)이 이것이다. 암자의 북쪽으로 꺾이면서 누각을 만들었는데, 고명봉(高明峰)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완심루(玩心樓)이다. 동쪽으로 백 보 되는 곳에 가파르면서 높은 대(臺)가 있다. 옆으로 봉정정(鳳頂亭)을 당기고 있다. 그 위에 농환정(弄丸亭)이 있다. 서남쪽으로 이 백 보 되는 곳에 무청정(茂淸亭)이 있다. 또 동쪽으로 10리 가면 수렴동(水簾洞)이니, 역시 산에서 제일 뛰어난 곳이다. 하나의 조그맣게 엮어맨 집을 두었으니 멸영암(滅景庵)이다. 이에 오고가며 노닐고 쉬는 곳이 비로소 갖추어졌고, 선생도 바야흐로 즐기면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으셨다. 6년을 거처하였는데 일하던 찬모가 홀연히 범에게 물렸다. 선생께서는 드디어 춘천의 곡운(谷雲)으로 떠났고, 이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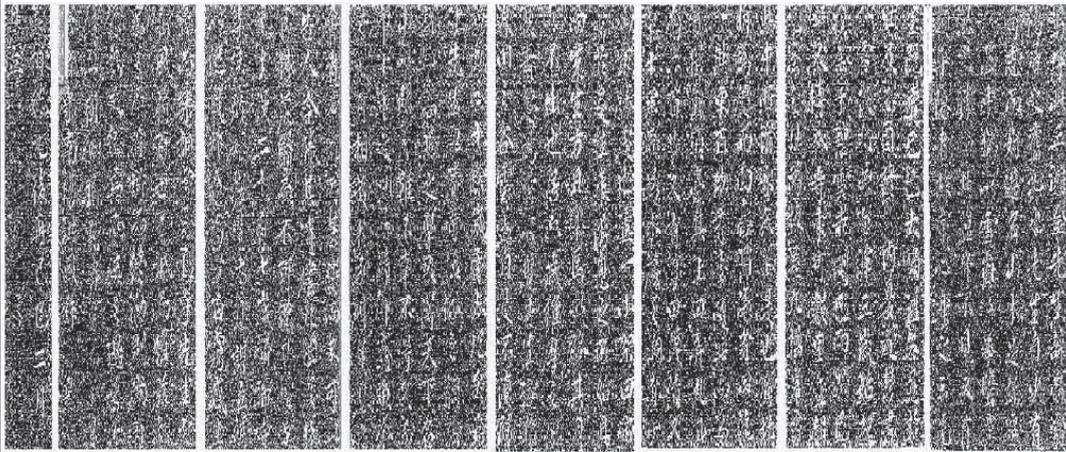
아! 선생의 높으신 품모는 백 세가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몇 자되는 돌에 시간이 걸려 글씨를 새겼으나 아직도 능히 할 일이 이어진다. 뒤에 지나는 사람들이 또한 배회하며 가리키다가 탄식하면서 차마 떠나지 못할 것이다.

1749년 2월 일 세움

그 후 설정(雪淨) 선사가 옛터를 돌아보고 한탄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1760년에 영시암을 중건하게 된다. 중건한 영시암의 성격은 바뀌게 된다. 유학자가 살던 거처에서 스님이 거처하는 절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불(儒佛)이 합쳐지게 된 것이다. 종교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불(儒佛)이 자연스럽게 상생하는 이곳은 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다. 새로 지은 영시암이 언제까지 이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유허비의 행방도 묘연하다. 6.25 전쟁 중 폭격에 의해 비석이 부서졌다는 설이 있지만 확실치 않다. 다만 탁본만이 남아 있어 아쉬움을 달래준다.



삼연 김선생 영시암 유허비 탁본



인제를 읊은 한시

김원형, 「영시암 옛터에서」, 『미호집』

이 산 깊숙한 곳 당시 자취 숨기셨건만 當年滅景此山深
주춧돌 부서지고 잡초 우거져 찾을 길 없구나 敗礎荒榛不可尋
봉우리 위 높이 뜬 애오라지 환한 달만이 獨有高明峰上月
읊조리며 돌아오던 마음 지금도 비취주네 至今留照詠歸心

영시암(永矢庵) : 삼연 김창흡이,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부친 김수항(金壽恒)이 사사(賜死)된 뒤로 더더욱 세상에 진출할 뜻이 없어져 설악산으로 들어가 벽운정사(碧雲精舍)를 지었는데, 불이나자 더 깊숙한 곳에 지어 머물던 곳이다. 『미호집』 권16에 「삼연선생영



영시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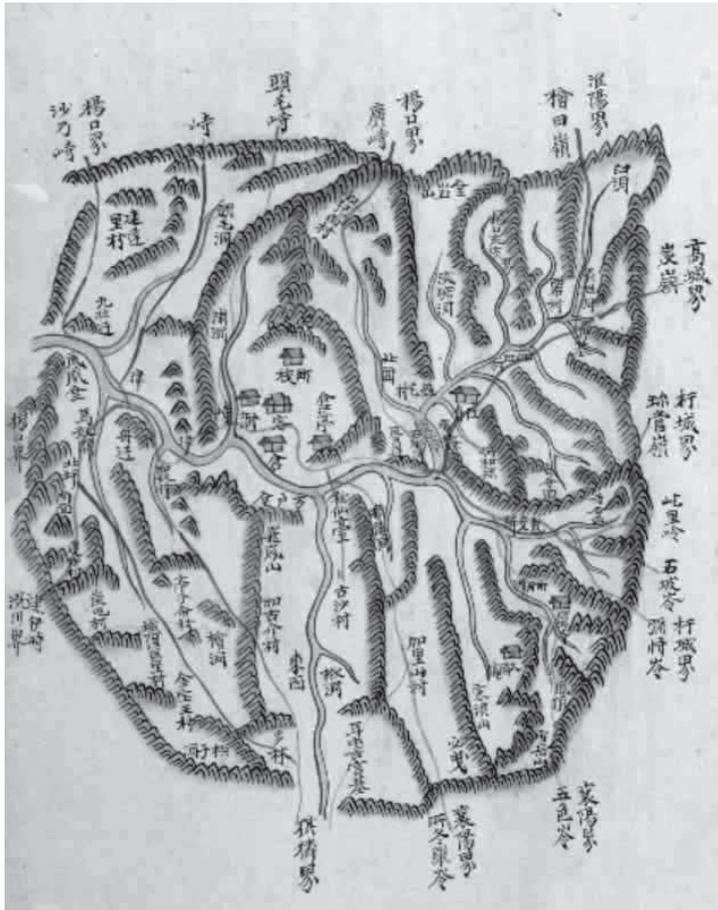
시암유허비(三淵先生永矢庵遺墟碑)」가 실려 있다.

읊조리며 돌아오던 마음 :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뜻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증점(曾點)이 “늦봄에 봄옷이 마련되면 어른 대여섯, 동자 예닐곱과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쐬고 읊조리며 돌아오겠습니다.[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증점과 같은 기상과 마음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論語 先進》

아, 선생의 고상한 풍치(風致)야 백세토록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 몇 자[尺]의 비석은 때가 되면 결국 갈라질 것이니, 오히려 어떻게 계승하여야 뒷날 이곳을 지나는 자가 배회하며 가리키고 탄식하면서 차마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제현읍지 麟蹄縣邑誌 2

『관동읍지』 안에 수록되어 있다. 도광(道光)23년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1843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관동지』에 수록된 『인제현읍지』와 몇몇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관동지』에 수록된 『인제현읍지』와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인제현읍지』 2라 표기하였다.



해동지도 1

1750년대 초에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도집. 이 지도집에는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뿐만 아니라 세계지도(천하도), 외국지도(중국도), <황성도>, <북경궁궐도>, <왜국지도>, <유구지도>, 관방지도(요계관방도)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집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 관한 군현지도집이다.

원주진관(原州鎭管) 소속 인제현(麟蹄縣)

- 동쪽 양양부(襄陽府) 경계까지 72리다.
서쪽 양구현(楊口縣) 경계까지 40리다.
남쪽 홍천현(洪川縣) 경계까지 50리다.
북쪽 간성군(杆城郡) 경계까지 80리다.
서쪽 경성(京城)까지 370리며 5일 걸린다.
남쪽 감영(監營)¹까지 거리는 240리고, 동쪽 해안(海岸)까지 거리는 135리로 이틀 걸린다.

- 행정구역
 - 현내면(縣內面)
 - 하도리(下道里): 관문에서 서쪽으로 2리다. 호(戶) 수는 126호이고, 남자가 220인. 여자가 251인이다.
 - 상도리(上道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2리다. 호 수는 73호이고, 남자는 141인. 여자는 181인이다.
 - 덕산리(德山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5리다. 호 수는 42호이고, 남77인. 여자가 85인이다.
 - 덕적동리(德積洞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20리다. 호 수는 13호이고, 남자가 27인. 여자가 31인이다.
 - 가리산리(加里山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40리다. 호 수는 15호이고, 남자가 39인. 여자가 54인이다.
 - 청계동리(淸溪洞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20리다. 호 수는 17호이고, 남자가 35인. 여자가 48인이다.
 - 고사동리(古沙洞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15리다. 호 수는 11호고, 남자는 21인. 여자는 28인이다.

 - 동면(東面)
 - 원대리(院垞里): 관문에서 동쪽으로 30리다. 호 수는 40호이고, 남자가 84인. 여자가 102인이다.

1 감영(監營); 원주진영을 의미한다.

- 하추동(下楸洞): 관문에서 동쪽으로 35리다. 호 수는 16호이고, 남자가 30인. 여자가 33인이다.
- 이탄리(耳呑里)²: 관문에서 동쪽으로 50리다. 호 수는 24호고, 남자는 59인. 여자는 67인이다.

□ 남면(南面)

- 가노리(加奴里): 관문에서 남쪽으로 10리다. 호 수는 27호고, 남자는 51인. 여자는 62인이다.
- 남전동리(藍田洞里): 관문에서 남쪽으로 20리다. 호수는 45호고, 남자는 102인. 여자는 109인이다.
- 마로리(馬路里): 관문에서 남쪽으로 30리다. 호수는 90호이고, 남자는 193인. 여자는 200인이다.
- 북평리(北坪里)³: 관문에서 남쪽으로 35리다. 호수는 39호이고, 남자는 93인. 여자는 106인이다.
- 사현리(沙峴里): 관문에서 남쪽으로 40리다. 호수는 4호이고, 남자는 11인. 여자는 15인이다.
- 어론리(於論里): 관문에서 남쪽으로 50리다. 호수는 22호이고, 남자는 39인. 여자는 47인이다.
- 소치리(所峙里)⁴: 관문에서 동쪽으로 40리다. 호 수는 2호이고, 남자 5인. 여자도 5인이다.
- 정자막리(亭子幕里): 관문에서 남쪽으로 50리다. 호수는 11호이고, 남자는 24인. 여자는 28인이다.
- 김보황리(金寶皇里)⁵: 관문에서 남쪽으로 50리다. 호수는 8호이고, 남자는 18인. 여자는 24인이다.
- 나가리(羅加里): 관문에서 서쪽으로 35리다. 호수는 9호이고, 남. 여 각각 16인이다.
- 건달리(建達里): 관문에서 서쪽으로 40리다. 호수는 36호이고, 남자는 73인. 여자는

2 이둔리(耳屯里): 현재의 귀둔(貴屯)을 가리킨다.

3 북평리(北坪里): 현재의 부평(富平)이다.

4 소치리(所峙里): 송치리(松峙里)라고도 한다.

5 김보황리(金寶皇里): 김보왕리(金寶王里)로 쓰기도 한다.

81인이다.

- 두모동(頭毛洞): 관문에서 서쪽으로 50리다. 호수는 8호이고, 남자는 12인, 여자는 17인이다.
- 화둔리(禾屯里)⁶: 관문에서 남쪽으로 60리다. 호수는 12호이고, 남자는 27인, 여자는 34인이다.
- 갑둔리(甲屯里): 관문에서 70리다. 호수는 15호이고, 남자는 28인, 여자는 44인이다.

□북면(北面)

- 원통리(元通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10리다. 호수는 50호이고, 남자는 115인, 여자는 84인이다.
- 한계동(寒溪洞): 관문에서 동쪽으로 30리다. 호수는 19호이고, 남자는 22인, 여자는 27인이다.
- 송학동(松鶴洞): 관문에서 북쪽으로 30리다. 호수는 28호이고, 남자 76인, 여자 89인이다.
- 풍전동(楓田洞): 관문에서 북쪽으로 30리다. 호수는 21호이고, 남자는 47인, 여자는 56인이다.
- 남교역(嵐校驛): 관문에서 동쪽으로 45리다. 호수는 36호이고, 남자 70인, 여자 100인이다.
- 가역리(加歷里)⁷: 관문에서 동쪽으로 50리다. 호수는 17호이고, 남자는 42인, 여자는 46인이다.
- 용두리(龍頭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60리다. 호수는 20호이고, 남자는 41인, 여자는 45인이다.

□서화면(瑞和面)

- 사천리(沙川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35리다. 호수는 24호이고, 남자가 30인이다.
- 논장리(論長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40리다. 창고가 있는데 서창(瑞倉)이라고 한다. 호수는 36호이고, 남자가 61인, 여자가 73인이다.

6 화둔리(禾屯里): 지금의 화탄(禾呑)이다.

7 가역리(加歷里): 지금의 백담사(百潭寺)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 수제리(水濟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45리다. 호수는 43호이고, 남자는 97인, 여자는 103인이다.
 - 서화리(瑞和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50리다. 호수는 70호이고, 남자가 131인, 여자가 152인이다.
 - 서희리(西希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70리다. 호수는 7호이고, 남자는 15인, 여자는 19인이다.
 - 이포리(伊布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80리다. 호수는 25호이고, 남자는 36인, 여자는 42인이다.
 - 용산리(龍山里): 관문에서 북쪽으로 100리다. 호수는 18호이고, 남자는 36인, 여자는 39인이다.
- 장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 도로(道路)

관문에서 동쪽으로 덕산(德山)과의 거리는 5리고, 덕산에서 덕적동(德積洞)까지는 10리다. 덕적동에서 가리산(加里山)까지는 20리고, 가리산에서 춘천(春川)의 기린(基□) 경계까지는 20리다.

관문에서 남쪽으로 가노진(加奴津)까지의 거리는 10리고, 가노진에서 남전동(藍田洞)까지는 10리며, 남전동에서 마노역(馬奴驛)까지 10리다. 마노역에서 사치(沙峙) 시점까지 10리고, 사치 시점에서 어론리(於論里)가 10리며, 어론리에서 건이치(建伊峙)까지 3리로 홍천(洪川)과의 접경지(接境地)다. 마로역 분기점에서 동북(東北)으로 나가리(羅加里) 사이는 30리다. 라가리에서 두모동령(頭毛洞嶺)까지는 20리이며 양구(楊口)와 접경지다.

관문에서 동북간의 원통역(元通驛)까지는 15리이고, 원통역에서 남교역(嵐校驛)까지는 30리다. 또 남교역에서 미시령(昧施嶺)까지는 35리로 간성(杆城)의 원암역(元岩驛)과 접경지다.

관문에서 서북(西北)간의 송치리(松峙里)까지는 20리고, 송치리에서 서화(瑞和)의 장승동(長承洞)까지는 50리다. 장승동에서 용산리(龍山里)까지는 30리고, 용산리에서 회전령(檜田嶺)까지는 20리로 회양(淮陽)의 금강산(金剛山)과 접경을 이룬다.

○ 고을의 내력

본래 고구려의 저족현(猪足縣)이었는데 달리 오사회(烏斯回)라고도 하였다. 신라 때는 희제(狝蹄)라 하여 양록군(楊麓郡)의 소속된 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춘천(春川)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소속시켰다. 공양왕(恭讓王) 원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太宗) 13년 계사(癸巳)년에 인제현(麟蹄縣)으로 고쳐 현감(縣監)을 두었다. 속현은 서화현(瑞和縣)인데⁸ 일명 서성(瑞城)이라고도 하였다. 현(縣)의 북쪽으로 60리에 있다. 본래 고구려의 옥기현(玉岐縣)인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치도(馳道)로 하여 양록군(楊麓郡) 관할 아래 현으로 삼았다. 고려시대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춘천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소속시켰다.

○ 군명(郡名)

저족(猪足), 오사회(烏斯回), 희제(狝蹄). 『신증』 영소(靈昭).

○ 산천(山川)

복룡산(伏龍山), 설악산(雪岳山), 대승폭포(大勝瀑布), 지리실(地理室), 미륵천(彌勒川).
『여지도서(輿地圖書)』 참조

○ 풍속(風俗)

선량하고 꾸밈이 없으며 농사일을 생업으로 한다.

○ 제사 지내는 장소

- 사직(社稷): 고을 서쪽 3리에 있다.
- 문묘(文廟): 고을에서 1리에 있으며 20간이다.
- 성황단(城隍壇): 고을의 북쪽 4리에 있다.

8 속현은 서화현인데...: 원문에는 누락되었으나, 고쳐서 삽입하였다.

○ 제단

- 중앙단(中央壇): 합강정(合江亭) 뒤에 있는데 강원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앙단이라 하였다. 극심한 가뭄이나 전염병이 심한 일을 만나면 순찰사가 친히 제사를 올려 천지신명에게 빈다.



중앙단

○ 관공서

- 객사(客舍): 29칸
- 아사(衙舍) 35칸
- 군기(軍器): 12칸
- 향청(鄉廳): 8칸. 정유(丁酉)년에 수해로 유실되었다.
- 관청(官廳): 21칸
- 작청(作廳): 17칸
- 현사(縣司): 3칸
- 군관청(軍官廳): 5칸

○ 제방

원통제(元通堤): 고을의 북쪽 원통 앞에 있다. 관문으로부터 15리에 있는데, 둘레가 319척 넓이가 83척. 길이가 112척이며, 물 깊이는 3척이고, 바깥 높이는 3척 더 높다.

- 창고(倉庫)
 - 읍창(邑倉): 29칸
 - 서창(瑞倉)⁹: 서화면(瑞和面)에 있다. 관문으로부터 40리다. 19칸이다.

- 역(驛)
 - 원통역(元通驛): 기마가 1필. 복마(卜馬)¹⁰가 2필이며, 사내종은 4명이고 계집종은 1명이다. 관문에서 15리다.
 - 마로역(馬路驛): 기마가 2필. 복마가 4필. 역리(驛吏)가 5인이 있고, 사내종 15명. 계집종 8명이 있다.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30리 거리다.
 - 남교역(嵐校驛): 복마가 3필. 사내종 5명. 계집종이 3명이다. 관문에서 동쪽으로 40리 거리다.

- 원(院)¹¹
 - 건이원(建伊院): 고을의 남쪽 50리에 있다.
 - 마로원(馬路院): 고을의 남쪽 30리에 있다.

- 고적(古跡)
 - 한계고성(寒溪古城): 석축의 둘레가 6278척이고, 높이는 4척이다. 안에 우물이 두 곳 있었으나 지금은 무너졌다.
 - 상승암(上勝庵): 한계폭포에서 10리쯤에 있으나 지금은 옛 터만 있다고 한다.
 - 백운암(白雲庵): 한계사(寒溪寺) 동쪽 40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옛 터만 있다고 한다.

9 서창(瑞倉): 고을의 북쪽에 있다하여 북창(北倉)이라고도 한다.

10 복마(卜馬): 각 역에 두는 말을 역마(驛馬) 또는 포마(鋪馬)라고 한다. 중요한 교통통신 수단으로 문서와 군사정보의 전달, 물자 수송, 관리들의 여행편의, 사신의 영송(迎送)등에 쓰였는데, 그 쓰임새에 따라서 사람이 타는 기마(騎馬)와 짐을 운반하는 복마(卜馬: 馱馬라고도 한다)로 나누고, 크기에 따라서 대마(大馬), 중마(中馬), 소마(小馬)로 구분하기도 하고, 상등마, 중등마, 하등마로 구분하기도 한다.

11 원(院): 조선시대에 역과 역 사이에 두었던, 출장하는 관원(官員)을 위한 여관(旅館). 나중에는 일반 나그네도 이용하였다.

○ 인물(人物)

- 호자 김경범(金敬範)¹², 열녀 조옥립(趙玉立)의 처 삼척(三陟)김씨¹³ 다 정문(旌門)이 있다.
- 사마(司馬)¹⁴ 정도(鄭導)
- 무과(武科) 김태국(金泰國) 부사(府使)를 지냈다.



삼척김씨 정려각

○ 발

97결 55부 2속이다.

○ 논

2결 58부 9속이다.

-
- 12 김경범(金敬範): 고려시대 사람으로 호를 행하여 나라에서 정려(旌閭)를 내렸다고 한다.
- 13 삼척김씨: 삼척인(三陟人) 진국(振國)의 딸이다. 김씨는 풍양조씨 문중의 옥립(玉立)과 혼인하였다. 옥립은 당시 경기도 양주군 풍양현에 거주하였는데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지냈다. 인조(仁祖) 14년 병자년(丙子:1636) 12월 호란(胡亂)이 일어나자 관군을 통솔하여 분전(奮戰) 하던 중 대세가 불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로 은신하였으나 호적(胡賊)들이 급습하여 김씨에게 남편의 소재를 밝히라고 양손에 쇠꼬챙이로 구멍을 내는 등 갖은 고문을 다 했으나 끝내 굴하지 않음으로 마당에 장작을 쌓고 김씨를 올려놓은 후에 불을 질렀지만 갑자기 뇌성벽력을 치며 폭우가 쏟아져 호적들은 벼락을 맞아죽고 김씨는 화염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으나 심한 화상으로 신음하다가 10여일 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김씨의 행실에 하늘이 감동한 처사라 하여 마침내 인조(仁祖) 16년에 정려(旌閭)를 내리게 되었고 인제읍 원대리에 열여각을 건립하였다고 하는 데,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 14 사마(司馬): 고려시대에 군사를 맡아보던 벼슬.

○ 나루

- 뇌탄진(磊灘津): 관문 북쪽으로 15리 거리에 있으며, 나룻배가 한 척 있다.
- 가노진(加奴津): 관문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있으며, 나룻배가 한 척 있다.
- 마로진(馬路津): 관문 남쪽으로 30리 거리에 있으며, 나룻배가 한 척 있다.

○ 봉산(封山)¹⁵

- 설악산(雪岳山): 관문에서 북쪽으로 70리에 있다.
- 한계산(寒溪山): 관문에서 북쪽으로 40리에 있다.
- 용대산(龍臺山): 관문에서 북쪽으로 70리에 있다.

○ 고개

- 미시령(彌矢嶺): 관문에서 동쪽으로 80리에 있으며, 양양(襄陽) 경계와 접해 있다.
- 간령(間嶺): 관문에서 북쪽으로 80리 거리로, 간성(杆城) 경계와 접해 있다.
- 진보령(珍寶嶺): 관문에서 북쪽으로 80리 거리로, 간령(間嶺)과 갈라졌으며, 함께 간성 땅과 접해 있다.
- 삼치령(三峙嶺): 관문에서 북쪽으로 100리 거리며, 고성(高城)과 접해 있다.
- 회전령(檜田嶺): 관문에서 북쪽으로 150리 거리며, 회양(淮陽)과 접해 있다.

○ 서원(書院)

김삼연영당(金三淵影堂)¹⁶: 관문에서 남쪽 30리 거리이며, 지명은 구만리(九萬里)이다.

○ 정자

합강정(合江亭): 고을의 북쪽 5리에 있는데, 한 갈래의 물은 기린현(基麟縣)에서 오고, 또 한 갈래의 물은 설악산(雪岳山)에서 오다 정자 앞에 이르러 서로 합류한다. 그래서 합강정이라 부른다.

15 봉산(封山): 나라에서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 산

16 김삼연영당(金三淵影堂): 김창흡(金昌翕) 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

○ 사찰(寺刹)

- 백담사(百潭寺): 고을의 동쪽 60리에 있다. 설악산 안에 있다.
- 봉정암(鳳頂庵)¹⁷: 고을의 동쪽 100리에 있으며, 역시 설악산 안에 있다.
- 오세암(五歲庵)¹⁸: 고을로부터 동쪽 80리에 있으며, 역시 설악산 안에 있는데, 매월(梅月)선생의 영정이 봉안된 곳이다.
- 영시암(永矢庵)¹⁹: 관문에서 동쪽으로 80리 거리며, 암자 앞에 삼연(三淵)선생의 비각(碑閣)이 있다.
- 서룡암(瑞龍庵): 고을로부터 북쪽으로 70리다.

○ 거수(巨藪)²⁰

- 홍진포(紅津浦): 관문에서 동쪽으로 5리 거리다.



홍진포

- 17 봉정암: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 13년(644)에 자장법사(慈藏法師)가 창건하였으며, 오층석탑을 세우고 세존석가사리(世尊釋迦舍利)를 봉안하였다. 진덕여왕(眞德女王) 원년(647)에는 한계사의 속암(屬庵)이 되었다. 신라 문무왕(文武王) 17년(677)에는 원효(元曉)가, 고려 명종(明宗) 13년(1183)에는 보조국사(普照國師)가, 조선 인조(仁祖) 16년(1638)에는 환적(幻寂) 등이 중수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로 유명하다.
- 18 오세암: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 13년(644)에 자장법사가 창건하고 관음암(觀音庵)이라 하였다. 진덕여왕(眞德女王) 원년(647)에는 한계사의 속암이 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세조(世祖) 원년(1456)에는 매월당 김시습(金時習)이 이곳에 머물렀다. 조선 영조(英祖) 37년(1761)에는 설정선사(雪淨禪師)가 중건하고 이름을 오세암(五歲庵)으로 하였다. 고종(高宗) 원년(1864)에는 남호선사(南湖禪師)가 경각(經閣)을 중수하고, 3년 뒤(1867)에는 남호선사가 해인사에서 가져온 장경(藏經)1부를 이곳에 봉안하였다.
- 19 영시암: 조선시대 숙종(肅宗) 35년(1709)에 삼연 김창흡(金昌翕) 선생이 창건하였다. 삼연 김창흡 선생의 유허비(遺墟碑)가 있었으나 암자와 더불어 6.25로 인하여 훼손되어 사라졌다.
- 20 거수(巨藪): 곳을 의미한다.

○ 지역 특산물

오미자, 자초, 인삼, 봉밀, 당귀, 송이.

○ 환곡

원회부(元會付)의 각 곡식을 합하면 4680섬 12두(斗) 3승(升) 5합(合) 5작(勺)이나, 지금은 각 곡이 10525섬 7두 5승 5합 9작이고, 또 영환(營還) 각 곡이 7113섬 2두 3승이다.

○ 대동(大同)

전미(田米)가 34석이고, 베(布)가 2통(同) 2필(疋)이다.

○ 전세(田稅)

대미(大米)가 2석 6두 4승 3합 1작이고,

전미(田米)가 25석 1두 3승 4합 7작,

콩이 15석 14두 3승 1합 6작인데, 2월에 거두어 들였다가, 춘천의 소양강(昭陽江)²¹으로 실어보내는데 8일만에 경강(京江)에 도달하여 호조(戶曹)에 납품한다. 대동(大同). 균세(均稅)도 같다. 지금은 돈으로 대신 납부한다.

○ 관리의 월급

대미(大米)가 35석 13두 1승 5합

전미(田米)가 35석 13두 1승 5합

돈이 479량(兩) 9전(錢) 7푼(分)

비단(紫)이 1200속(束)

땃감(炭)이 30석(石)

꿩이나 닭이 800수(首)다.

21 소양강: 소양강창(昭陽江倉)의 줄인 말이다. 조선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함과 더불어 교통, 통신, 운수조직을 정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운수조직은 주로 조운제(漕運制)에 의하였다. 조운(漕運)이란 국가재정의 근원인 세곡(稅穀)을 선박으로 해안과 하천을 따라 서울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인제에는 읍창(邑倉)과 서창(瑞倉: 北倉이라고도 한다)이 있었으며, 기린(麒麟)에는 현창(縣倉)이 있었다.

○ 군보(軍保)

- 기병보(騎兵保) 72명.
- 금위보(禁衛保) 47명.
- 어영보(御營保) 82명.
- 보병(步兵) 34명.
- 별파진보(別破陳保) 10명.
- 금군보(禁軍保) 2명.
- 군향보(軍餉保) 12명.
- 포보(砲保) 66명.
- 호련대보(扈輦隊保) 1명.
- 내취보(內吹保) 2명.
- 복직보(袞直保) 6명.
- 악공보(樂工保) 6명.
- 사복제원(司僕諸員) 15명.
- 아병(牙兵) 37명.
- 속오군(束伍軍) 128명이다.

○ 제영(題詠)

만 리 밖 증상(蒸湘)과 비슷한 곳이라 萬里蒸湘逼
영호남 여러 정자도 견줄 곳 없네 千亭湖嶺空
우리 형님 밝은 헤아림 있으서 吾兄有明眼
황량한 고을에 선풍(仙風) 일으키니 荒縣抗仙風
연못 그림자 마음을 맑게 하고 潭影令人淡
여울소리 정사(政事)와도 통하네 灘聲與政通
시골 백성들 그림 속으로 들어와 村氓來畫裡
창 너머로 백사장 완상하네 沙際翫窓櫺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²²

22 김창흡: 안동인(安東人)으로 조선시대의 학자(學者)다. 자는 자익(子益)이고 호는 삼연(三淵)이며,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읍선생안(邑先生案)

- 권영(權詒); 1549년 2월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²³로 있다가 왔다. 1554년 2월에 임기를 마치고 활인서(活人署)²⁴ 별제(別提)²⁵에 제수되어 갔다.
- 박인양(朴仁亮): 1554년 2월에 예빈사(禮賓寺)²⁶ 관관(判官)²⁷으로 있다가 왔다. 1559년 2월에 조지서(造紙署)²⁸ 사지(司紙)²⁹에 제수되어 갔다.
- 유식(柳湜): 1559년 2월 사섬시(司贍寺)³⁰ 주부(主簿)³¹로 있다가 왔다. 같은 해 10월에 고가 평가가 낮아서 갔다.
- 김항(金沆): 1560년 1월 사헌부 감찰로 있다가 왔다. 12월에 고가 평가가 낮아서 갔다.
- 이공인(李公仁): 문과(文科). 1561년 2월 감사(監司)³²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호조좌랑(戶曹左郎)³³에서 택차(擇差)³⁴되어 가솔을 이끌고 왔다. 1563년 8월에 전적(典籍)³⁵에 제수(除授)되어 떠났다.
- 김약(金約): 문과(文科). 1563년 8월에 성균관(成均館)³⁶ 전적(典籍)으로 있다가 왔다. 1565년 6월에 평가에서 성적이 낮아서 갔다.
- 심국(沈 錮): 문과(文科). 1565년 성균관 전적으로 있다가 왔다. 1566년 12월에 평가에서 성적이 낮아서 갔다.
- 윤사신(尹思愼): 1567년 2월에 사헌부 감찰로 있다가 왔으며, 1569년 9월 통례원(通禮院)³⁷ 인의(引儀)³⁸로 갔다.

23 감찰: 기강확립, 풍속교정, 억울한 일을 살피고 해결해 주는 임무를 맡아보는 사헌부의 정육품의 벼슬.

24 활인서: 조선시대에 서울 안에서 의료에 종사하던 관청.

25 별제: 육품직 벼슬.

26 예빈사(禮賓寺): 귀한 손님이나 향연(饗宴)등에 있어 의전(儀典)을 맡아보던 관청.

27 관관: 종오품직 벼슬.

28 조지서(造紙書): 종이를 만들고 다루던 관청.

29 사지(司紙): 종육품 벼슬.

30 사섬시(司贍寺): 저화(楮貨)의 제조, 지방의 노비(奴婢)의 공포(貢布)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31 주부(主簿): 정육품직 벼슬.

32 감사(監司): 종이품의 벼슬. 관찰사를 달리 일컫던 말로 지금의 도지사격이다.

33 호조좌랑(戶曹佐郎): 호조에 소속된 정육품의 벼슬.

34 택차(擇差): 쓸만한 인재를 골라 벼슬을 줌.

35 전적(典籍): 정육품(正六品)의 벼슬.

36 성균관: 고려, 조선시대에 유교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청. 국학(國學) 도는 국자감(國子監)으로 불리던 것을 고려 충렬왕(忠烈王)조에서 개칭한 것으로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어온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

37 통례원: 조회(朝會), 제사 등에 관한 의식을 맡아보던 관청.

38 인의(引儀): 종육품(從六品)의 벼슬.

- 홍치우(洪致禹): 1569년 9월에 사헌부 감찰로 있다가 왔다. 1570년 2월 부친을 만나러 안변부(安邊府)에 갔다가 사망하였다.
- 이경운(李慶雲): 1570년 3월에 군기시(軍器寺)³⁹ 관관으로 있다가 왔다. 1572년 9월에 종부사(宗簿寺)⁴⁰ 주부로 갔다.
- 황응규(黃應奎): 문과(文科). 1572년 9월에 공조좌랑(工曹左郎)⁴¹으로 있다가 왔다. 1573년 1월에 감사의 장계(狀啓)로 파면되었다. 관직은 참판(參判)⁴²에 이르렀다.
- 임한(任澣): 문과(文科). 1573년 2월에 사헌부 감찰로 있다가 왔다. 1575년 9월에 성균관 전직에 제수(除授)되어 떠났다.
- 박지형(朴之亨): 문과(文科). 1575년에 성균관 전직으로 있다가 왔다. 1576년 10월에 재상(災傷) 착오로 파면되었다.
- 유필(柳秘): 1576년 11월에 덕산현감(德山縣監)을 지내다가 왔다. 1578년 2월에 사망하였다.
- 민충열(閔忠烈): 1578년 3월에 사헌부감찰로 있다가 왔다. 1579년 6월에 사퇴하였다.
- 오극달(吳克達): 1579년 7월에 사십시(司瞻寺) 주부로 있다가 왔다. 1580년 10월에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잘못 처리해서 파면되었다.
- 한응인(韓應寅): 문과(文科). 1580년 12월에 형조좌랑(刑曹左郎)으로 있다가 왔다. 1583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떠났다. 벼슬이 의정(議政)⁴³에 이르렀다.
- 이일원(李一元): 문과(文科). 1583년 9월에 통례원(通禮院) 인의(引儀)로 있다가 왔다. 1587년 2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갔다.
- 윤 용(尹溶): 1587년 3월에 포천(抱川)현감을 지내다가 왔다. 같은 해 10월에 집안에 상(喪)을 당하여 사퇴하였다.
- 윤은경(尹殷卿): 1587년 11월에 신창(新昌)현감을 지내다가 왔다. 1591년 1월 충훈도사(忠勳都事)⁴⁴에 제수(除授)되어 떠났다.
- 박문필(朴文弼): 1591년 1월에 사헌부 감찰로 있다가 왔다. 1592년 1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갔다.

39 군기시(軍器寺): 군에서 필요한 기구를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

40 종부시(宗簿寺): 왕실의 계보에 관한 사무를 보던 관청.

41 공조좌랑(工曹左郎): 산택(山澤), 공장(工匠), 영선(營繕), 도야(陶冶)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의 정육품(正六品)의 벼슬.

42 참판: 종이품(從二品)의 벼슬.

43 의정(議政): 정일품(正一品)의 벼슬. 영상(領相)이라고도 한다.

44 충훈도사(忠勳都事): 국가에 공로가 있는 신하들이 있던 관청의 종오품(從五品)의 벼슬.

- 이대이(李大頤): 문과(文科). 1592년 4월에 봉상시주부(奉常寺主簿)⁴⁵로 있다가 왔다. 1595년 1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떠났다.
- 이정익(李廷益): 1595년 1월에 내섬시(內贍寺)⁴⁶ 주부로 있다가 왔다. 1596년 12월에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잘못 처리해서 파면되었다.
- 박대신(朴大信): 무과(武科). 1597년 1월에 옥천(沃川) 군수를 지내다 왔다. 같은 해 12월 상(喪)을 당하여 사퇴하였다.
- 허 영(許鑾): 1598년 1월에 감찰(監察)로 있다가 왔다. 1599년 1월 부사(府使)⁴⁷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파면되었다⁴⁸.
- 민 간(閔侃): 1599년 3월에 내자시(內資寺)⁴⁹ 주부로 있다가 왔다. 1599년 12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해임되었다.
- 이 결(李潔): 1600년 1월에 감찰(監察)로 있다가 왔다. 같은 해 4월에 어사(御使)의 장계(狀啓)로 파면되었다.
- 최동식(崔東式): 문과(文科). 1600년 5월에 호조정랑(戶曹正郎)을 지내다 왔다. 같은 해 10월 호조의 전결(田結)의 일로 계(啓)를 받고 파면되었다.
- 심종도(沈宗道): 1600년 11월에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지내다 왔다. 1602년 관직을 포기하고 사퇴하였다.
- 이의형(李宜兄): 1602년 8월에 장흥(長興)⁵⁰주부로 있다가 왔다. 같은 해 11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해임되었다.
- 박충생(朴忠生): 1603년 5월에 감찰로 있다가 왔다. 1604년 9월에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잘못 처리해서 파면되었다.
- 이유경(李有慶): 1604년 11월에 왔다⁵¹. 같은 해 12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해임되었다.

45 봉상시주부(奉常寺主簿): 제사(祭祀)와 시호(諡號)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의 정육품(正六品)의 벼슬.

46 내섬시(內贍寺): 궁에 바치는 음식물. 2품 이상 관리에게 주는 술과 안주. 왜인과 야인에게 주는 음식과 포목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47 부사(府使): 각 도에 두었던 종삼품(從三品)의 벼슬.

48 조선왕조실록에는 2월 20일자로 기록되어 있다.

49 내자시(內資寺): 대궐 안에서 쓰이는 식품과 직조(織造), 내연(內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50 장흥(長興): 돛자리 직물 등의 관리관청.

51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박충생(朴忠生)후임에 고응잠(高應潛)을 보냈으나, 10월10일 헌부(憲府)에서 고응잠을 체치(遞置)하기를 아뢰었으며 이틀 후인 10월 12일 이유경(李有慶)을 헌감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 이경조(李慶祚): 1605년 1월에 주부(主簿)로 있다가 왔다. 1607년 7월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주민이 원하여 1년간 잉임(仍任)⁵²하였다. 1608년 7월 어사(御使)의 장계(狀啓)로 파면되었다.
- 민 척(閔滌): 문과(文科). 1608년 8월에 전부(典簿)⁵³를 지내다 왔다. 1609년 9월에 비방을 받고 교체되었다.
- 이 빙(李憑): 1609년 10월에 맹산(孟山)현감을 지내다 왔다. 1612년 7월 부(府)에서 계(啓)가 있어 파면되었다.
- 윤상(尹祥): 1612년 9월에 감찰로 있다가 왔다. 같은 해 10월에 부(府)에서 계(啓)가 있어 파면되었다.
- 구인기(具仁基): 1612년 11월에 정산(定山)현감을 지내다 왔다. 1616년 6월 부(府)의 계(啓)가 있어 파면되었다.
- 김 물(金物): 문과(文科). 1616년 7월에 전적(典籍)으로 있다가 왔다. 1621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떠났다.
- 이 해(李垓): 1622년 2월에 주부(主簿)로 있다가 왔다. 1623년 5월 어사(御使)의 장계(狀啓)로 파면되었다.
- 윤형각(尹衡覺): 1623년 6월에 사과(司果)⁵⁴로 있다가 왔다. 1625년 9월 관직을 포기하고 사퇴하였다.
- 박 환(朴煥): 1625년 10월에 사평(司評)⁵⁵으로 있다가 왔다. 1628년 1월에 관직을 포기하고 사퇴하였다.
- 박지경(朴知警): 1628년 4월에 상의(尙衣)⁵⁶주부로 있다가 왔다. 1629년 1월에 감사(監司)의 장계(狀啓)로 파면되었다.
- 이담경(李曇慶): 1629년 2월에 은산(殷山)현감으로 있다가 왔다. 1630년 5월 차사(差使)⁵⁷가 군마(軍馬)를 빈번히 이용했다는 죄로 파면되었다.

52 잉임(仍任): 임기가 끝난 관리를 계속 임명함.

53 전부(典簿): 정오품(正五品)의 벼슬.

54 사과(司果): 정육품(正六品)의 벼슬.

55 사평(司評): 정육품의 벼슬.

56 상의(尙衣): 상의원(尙衣院)의 주린 말. 임금의 의복과 궁중에서 쓰이는 일용품 및 보물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57 차사(差使):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직 도는 하인.

- 김연(金 羨): 1630년 7월에 사첨시(司瞻寺) 주부로 있다가 왔다. 같은 해 10월 재상(災傷)착오로 파면되었다.
- 이태남(李泰男): 1630년 11월에 현감을 지내다 왔다. 1632년 6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해임되었다.
- 유문석(柳文錫): 1632년 8월에 통례원인의(通禮院引儀)로 있다가 왔다. 1634년 11월 살인사건으로 잡혀갔다.
- 박 정(朴 挺): 1635년 1월에 금부도사(禁府都事)⁵⁸로 있다가 왔다. 같은 해 3월 파면되었다.
- 윤호(尹 皓): 1635년 4월에 사의(司儀)⁵⁹로 있다가 왔다. 같은 해 12월 상(喪)을 당하여 물러났다.
- 김지안(金志顔): 1636년 1월에 감찰(監察)로 있다가 왔다. 1637년 8월 어사(御使)의 서계(書啓)로 파면되었다.
- 이상필(李尙秘): 1637년 9월에 금부도사(禁府都事)로 있다가 왔다. 1639년 1월 부친 병의 위중함을 진언하였는데, 부친의 상을 당하여 물러났다.
- 박홍호(朴弘護): 문과(文科). 1639년 4월에 예전에 전적(典籍)을 지내다 왔다. 1642년 5월 임기 중에 사망하였다.
- 이 순(李 楯): 문과(文科). 1642년 7월에 봉상판관(奉常判官)을 지내다 왔다. 1644년 6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 해임되었다.
- 이 옥(李 旭): 1644년 7월에 감찰로 있다가 왔다. 같은 해 10월 부친에게 병으로 감영(監營)이 계(啓)를 올려 파면되었다.
- 이지병(李之屏): 문과(文科). 1644년 11월에 전적(典籍)으로 있다가 왔다. 1645년 4월 상(喪)을 당하여 사퇴하였다.
- 이명인(李命寅): 1645년 5월 주부로 있다가 왔다. 1650년 1월 임기가 만료되어 떠났다.
- 유인성(柳仁聲): 1650년 2월에 감찰로 있다가 왔다. 같은 해 3월 산 노루를 궐내에 봉상(封上)하지 않았다는 일로 감영(監營)의 파면 계(啓)가 있었다.
- 한석명(韓錫明): 1650년 4월에 위솔(衛率)⁶⁰로 있다가 왔다. 1651년 7월 차사원(差使員)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감영(監營)의 파면 계(啓)가 있었다.

58 금부도사: 죄인을 취조하는 일과 대옥(大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의 종오품(從五品)의 벼슬.

59 사의(司儀): 종오품의 벼슬.

60 위솔(衛率): 종육품의 벼슬.

- 김여양(金汝亮): 문과(文科). 1651년 9월에 봉상판관(奉常判官)으로 있다가 왔다. 1656년 6월 임기가 만료되어 떠났다.
- 윤건지(尹建之): 1656년 8월에 감찰로 있다가 왔다. 1657년 6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해임되었다.
- 유 필(柳苾): 1657년 8월에 감찰로 있다가 왔다. 1659년 6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해임되었다.
- 김세호(金世豪): 1659년 8월에 별제(別提)로 있다가 왔다. 1664년 6월 임기 만료로 떠났다.
- 최시철(崔時高): 1664년 7월에 금부도사(禁府都事)로 있다가 왔다. 1665년 6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해임되었다.
- 김유(金紐): 1665년 7월에 종부시(宗簿寺) 주부로 있다가 왔다. 1669년 2월 임기 만료로 떠났다.
- 이 핵(李翮): 1669년 4월에 내자시(內資寺) 주부로 있다가 왔다. 1673년 3월 함께 태어난 아우가 본 도감사(道監司)로 오자 상피(相避)⁶¹로 교체되어 갔다.
- 김소하(金韶夏): 문과(文科). 1673년 5월에 영서(迎曙) 찰방(察訪)⁶²으로 있다가 왔다. 1674년 8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해임되었다.
- 정정양(鄭正陽): 1674년 8월에 감찰로 있다가 왔다. 1675년 9월에 비국(備局)⁶³의 계사(啓辭)⁶⁴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 이세억(李世億): 1675년 12월에 금부도사(禁府都事)로 있다가 왔다. 1677년 10월 상(喪)을 당하여 갔다.
- 이회채(李熙采): 문과(文科). 1677년 11월 전에 정랑(正郎)을 지내다 왔다. 1678년 12월 어사(御使)의 서계(書啓)로 파면되었다.
- 강수남(姜壽楠): 1679년 2월 안협(安峽) 현감에서 환차(還差)⁶⁵하였다. 1680년 6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갔다.

61 상피(相避): 예전에, 친척 따위의 관계로 말미암아 같은 곳에서의 벼슬, 청송(廳訟), 시관(試官) 따위를 피하는 것을 이르던 말.

62 찰방: 종육품의 벼슬.

63 비국(備局): 조선 시대, 군국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64 계사(啓辭): 죄를 논할 때 임금님께 올리는 글.

65 환차(還差): 사직했거나 면직되었던 관리를 특지(特旨)로 다시 벼슬을 줌.

- 이순악(李舜岳): 1681년 2월에 형조좌랑(刑曹佐郎)으로 있다가 왔다. 1686년 1월에 임기 만료로 떠났다.
- 심 집(沈湊): 1686년 2월에 금부도사(禁府都事)로 있다가 왔다. 1691년 1월 임기 만료로 떠났다.
- 이시흥(李始興): 1691년 1월에 금부도사로 있다가 왔다. 임기를 마치고 1696년까지 진정(賑政)을 위하여 잉임(仍任)되었으나 1696년 5월에 어사(御使)의 서계(書啓)로 파면되었다.
- 김창국(金昌國): 1696년 6월에 공조정랑(工曹正郎)으로 있다가 왔다. 1698년 6월에 돌아갔다.
- 이수(李洙): 1698년 6월에 금부도사(禁府都事)로 있다가 왔다. 1703년 6월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매년 흉년이 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救濟)하는 일로 1704년 맥추(麥秋)⁶⁶까지 잉임(仍任)되었다. 같은 해 7월 잘 구휼한 일로 어사(御使)의 포계(褒啓)가 있어, 영월부사(寧越府使)로 승진하여 이동시켜 벼슬을 주었다.
- 김성대(金盛大): 1704년 8월에 금부도사로 있다가 왔다. 1706년 10월 관직을 포기하고 사퇴할 것을 아뢰었다. 특명으로 잉임(仍任)시켰으나 1707년 8월에 병으로 관직을 포기하고 사퇴하였다.
- 신재(申載): 1707년 10월에 감찰로 있다가 왔다. 1710년 6월 이조(吏曹)의 장계(狀啓)로 파면되었다.



백담계곡에 김창국이 아버지 김수증을 모시고 유람했다는 글씨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66 맥추(麥秋): 음력 5월.

- 조광명(趙光命): 1710년 윤(閏) 7월에 장악(掌樂)주부로 있다가 왔다. 1715년 7월 임기만료로 떠났다.
- 서종적(徐宗積): 1715년 8월에 형조정랑(刑曹正郎)으로 있다가 왔다. 1718년 4월 한산(韓山)군수로 이배(移拜)되었다.
- 이우신(李雨臣): 1718년 5월에 종묘령(宗廟令)⁶⁷으로 있다가 왔다⁶⁸. 같은 해 10월 선정(善政)을 인정받아 대구판관(大邱判官)으로 승배(陞拜)⁶⁹되었다.
- 이경제(李敬躋): 1718년 12월에 금부도사(禁府都事)로 있다가 왔다. 1720년 7월 본도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 한배후(韓配厚): 1720년 9월에 한성(漢城)주부로 있다가 왔다. 1725년 8월 임기 만료로 떠났다.
- 권양성(權養性): 1725년 8월에 한성(漢城) 주부로 있다가 왔다. 1727년 6월 김제(金提)군수로 승배(陞拜)되었다.
- 조명진(趙明震): 1727년 7월에 왔다. 1728년 4월 집안에 근심거리가 생겨 사퇴하였다.
- 조진세(趙鎭世): 문과(文科). 1728년 군직(軍職)에 임명되고 8월에 문학(文學)에 계속 임명되었다. 1731년 지평(持平)⁷⁰으로 갔다.
- 김상규(金相圭): 전에 현감을 지냈는데 1731년 9월에 왔다. 1734년 6월에 좌천되어 떠났다.



구곡담계곡 입구 바위에 조진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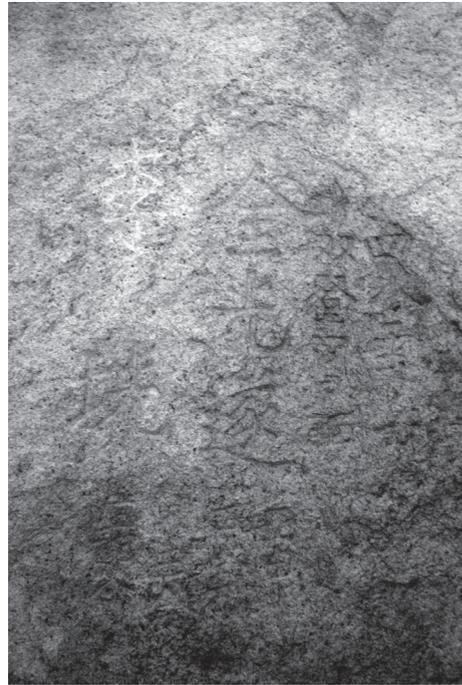
67 종묘령(宗廟令): 왕실의 사당을 관리하는 종 5품의 벼슬.

68 인제 현감으로 부임하는 이우신을 보내며 지은 어유봉(魚有鳳)의 시 2편이 있다. 또 선정비(善政碑)도 있었다고 전해오나 지금은 없다.

69 승배(陞拜): 벼슬이 오름.

70 지평(持平): 정5품 벼슬.

- 임안세(任安世): 1734년 8월에 사직령(社稷令)⁷¹을 지내다 왔다. 같은 해 12월 좌천되어 떠났다.
- 유 징(柳澂): 1735년 1월에 사복시(司僕寺) 주부를 지내다 왔다. 1737년 3월 본도(道)의 장계(狀啓)로 파면되었다.
- 이보인(李普寅): 1737년 3월에 공조좌랑(工曹佐郎)을 지내다가 왔다. 1740년 5월 본도의 장계(狀啓)로 파면되었다.
- 윤득성(尹得聖): 1740년 윤(閏) 6월에 왔다. 1742년 8월 상(喪)을 당하여 사퇴하였다.
- 신진하(申鎭夏): 1742년 9월에 부임하였다. 1745년 1월에 이조(吏曹)의 계(啓)로 파면되었다.
- 이광구(李廣矩): 1745년 3월에 부임하였다. 1749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떠났다.
- 김광수(金光遂): 1749년 9월에 부임하였다. 1753년 12월에 질병 상태 때문에 파면되었다.
- 김선재(金善材): 1754년 2월에 사옹(司饗)⁷² 주부로 있다가 왔다. 1757년 5월 신계(新溪) 현령(縣令)으로 옮겨 임명되었다.
- 이구노(李龜老): 1757년 5월에 부임하였다. 1759년 윤(閏) 6월에 어사(御使)의 서계(書啓)로 파면되었다.
- 황 식(黃植): 1759년 9월에 부임하였다. 1760년 6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갔다.
- 신광이(申光履): 1760년 7월에 부임하였다. 1763년 4월에 질병으로 파면되었다.
- 윤창주(尹昌柱): 1763년 4월에 부임하였다. 1767년 12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떠났다.
- 이현백(李顯白): 1768년 1월에 부임하였다. 같은 해 12월 특별 교지(教旨)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



봉정암에 김광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71 사직령(社稷令): 사직단을 관리하는 종5품의 벼슬.

72 사옹(司饗): 궁중의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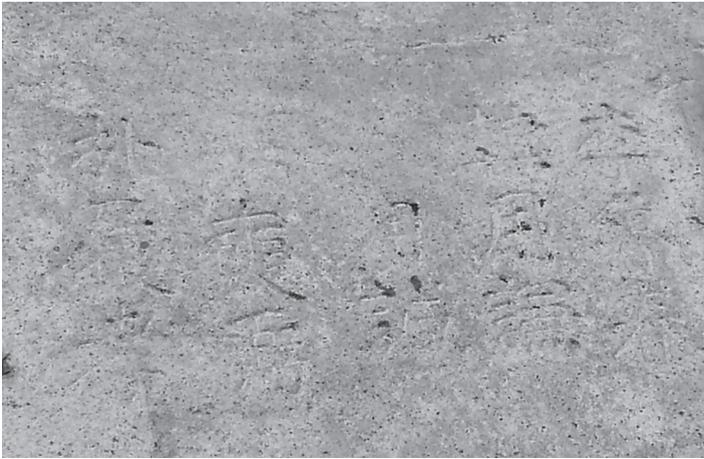
- 이명빈(李命彬): 문과(文科). 홍문관(弘文館)⁷³ 수찬(修撰)⁷⁴으로 있다가 1768년 12월에 인제현감에 제수(除授)되었다. 1769년 5월에 사퇴하였다.
- 정택제(鄭宅濟): 무과(武科). 1769년 5월에 도입 하였다. 1770년 12월에 파면되었다.
- 조래진(趙來鎭): 1771년 1월에 한성판관(漢城判官)으로 있다가 왔다. 1774년 12월에 이조(吏曹)의 계(啓)로 파면되었다.
- 이국형(李國亨): 1775년 1월에 사옹(司饗)주부로 있다가 왔다. 1776년 5월에 장계가 있어 파면되었다.
- 김도순(金道淳): 1776년 5월에 돈령부(敦寧府)⁷⁵ 판관으로 있다가 왔다. 1778년 12월 영천(永川) 군수로 승진 임명되었다.
- 여선양(呂善養): 1779년 1월에 형조좌랑(刑曹佐郎)으로 있다가 왔다. 1780년 10월 재임 중 사망하였다.
- 윤득흠(尹得欽): 1780년 11월에 부임하였다. 1782년 8월 재임 중 사망하였다.
- 임 욱(任焄): 1782년 9월에 부임하였다. 1787년 6월 임기가 만료되어 떠났다.
- 오언모(吳彦謨): 1787년 10월에 부임하였다. 1790년 10월에 재임 중 사망하였다.
- 신광하(申光河): 1790년 10월에 부임하였다. 1791년 9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 파면되었다.
- 박종복(朴宗福): 1791년 10월에 부임하였다. 1794년 6월에 금성(金城) 현령(縣令)으로 이배(移拜)되었다.
- 조의규(趙儀逵): 1794년 7월에 부임하였다. 1795년 1월에 상(喪)을 당하여 사퇴하였다.
- 이원옹(李元膺): 1796년 1월에 영동현감(永同縣監)으로 있다가 바뀌어서 왔다. 1799년 1월에 영화찰방(迎華察訪)으로 바뀌어서 갔다.
- 백봉주(白鳳周): 문과(文科). 1799년 1월에 병조좌랑(兵曹佐郎)으로 있다 왔다. 같은 해 12월 관직 등급이 떨어져서 갔다.
- 한용겸(韓用謙): 1799년 12월에 전생서(典牲署)⁷⁶ 판관으로 있다가 왔다. 1802년 7월 간성(杆城)군수로 옮겨 임용되었다.
- 조진대(趙鎭大): 1802년 8월에 부임하였다. 1804년 6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갔다.

73 홍문관: 궁중의 경서, 사적, 문서를 관리하고 임금을 자문하는 기관.

74 수찬(修撰): 정6품의 벼슬.

75 돈령부: 왕실의 친척, 친목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

76 전생서(典牲署): 궁중의 제사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옥녀탕 바위에 한용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구곡담계곡 멸명암 주변에 어재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 홍 혁(洪赫): 1804년 7월에 장령령(長寧令)⁷⁷으로 있다가 왔다. 1806년 12월에 금구현령(金溝縣令)으로 이배(移拜)되었다.
- 李宗효(李宗孝): 1806년 12월에 금부도사(禁府都事)로 있다가 왔다. 1809년 1월에 어사(御使)의 계(啓)로 파면되었다.
- 이면심(李勉心): 1809년 1월에 형조정랑(刑曹正郎)으로 있다가 왔다. 1811년 5월에 보은(報恩)군수로 옮겨 임명되었다.
- 유인근(柳仁根): 1811년 5월에 사직서령(社稷署令)으로 있다가 왔다. 1814년 6월에 안산(安山)군수로 벼슬이 높아져 임명되었다.
- 임두진(林斗鎭): 1814년 6월에 군자감(軍資監)⁷⁸주부로 있다가 왔다. 1815년 3월 재임 중 사망하였다.
- 이종우(李種祐): 1815년 4월에 형조정랑(刑曹正郎)으로 있다가 왔다. 1819년 순창(淳昌)군수(郡守)로 벼슬이 높아져 임명되었다.
- 이도헌(李度憲): 1819년 5월에 익위사(翊衛司)⁷⁹ 사어(司禦)⁸⁰로 있다가 왔다. 1822년 9월에 어사(御使)의 계(啓)로 파면되었다.

77 장령령(長寧令): 장령전령(長寧殿令)의 주린 말로 종 5품의 벼슬.

78 군자감: 군수품의 출납을 담당하던 관청.

79 익위사(翊衛司): 세자의 시중을 맡아보던 관청.

80 사어(司禦): 종 5품의 벼슬.

- 어재완(魚在琬): 1822년 9월에 사직령(社稷令)으로 있다가 왔다. 1827년 2월에 괴산(槐山)군수로 승배(陞拜)되었다.
- 홍은섭(洪殷燮): 1827년 2월에 종묘서령(宗廟署令)으로 있다가 왔다. 1829년 12월에 단양(丹陽)군수로 이배(移拜)되었다.
- 박규원(朴奎源): 1829년 12월에 사헌부(司憲府)감찰로 있다가 왔다. 1832년 5월에 상(喪)을 당하여 사퇴하였다.
- 정기중(鄭基重): 1832년 5월에 형조정랑(刑曹正郎)으로 있다가 왔다. 1835년 5월 영천(永川)군수로 이배(移拜)되었다.
- 정순영(鄭淳榮): 1835년 5월에 형조좌랑(刑曹佐郎)으로 있다가 왔다. 1836년 12월에 사표를 내고 떠났다.
- 조기순(趙箕淳): 1836년 12월에 공조정랑(工曹正郎)으로 있다가 왔다. 1838년 6월에 평가 성적이 낮아서 갔다.
- 김기순(金箕淳): 1838년 6월에 사헌부(司憲府)감찰로 있다가 왔다. 1841년 윤 3월에 재임 중 사망하였다.
- 이의철(李懿喆): 1841년 윤 3월에 조지서(造紙署) 별제(別提)로 있다가 왔다. 같은 해 10월에 재임 중 사망하였다.
- 강 기(姜 濬): 1841년 11월에 용인(龍仁)현감에서 자리를 바꾸었다.



구곡담계곡 멸영암 주변과 오세암에 홍은섭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東至襄陽府界七十二里

西至楊口縣界四十里

南至洪川縣界五十里

北至杆城郡界八十里

西至京城三百七十里 五日程

南距監營二百四十里東距海濱一百三十五里 二日程

坊曲

縣內面

下道里 自官門西距二里 編戶一百二十六 男二百二十口 女二百五十一口

上道里 自官門東距二里 編戶七十三 男一百四十一口 女一百八十一口

德山里 自官門東距五里 編戶四十二 男七十七口 女八十五口

德積洞 里自官門東距二十里 編戶十三 男二十七口 女三十一口

加里山里 自官門北距四十里 編戶十五 男三十九口 女五十四口

清溪洞里 自官門北距二十里 編戶十七 男三十五口 女四十八口

古沙洞里 自官門東距十五里 編戶十一 男二十一口 女二十八口

東面

院岱里 自官門東距三十里 編戶四十 男八十四口 女一百二口

下楸洞 自官門東距三十五里 編戶十六 男三十口 女三十三口

耳吞里 自官門東距五十里 編戶二十四 男五十九口 女六十七口

南面

加奴里 自官門南距十里 編戶二十七 男五十一口 女六十二口

藍田洞里 自官門南距二十里 編戶四十五 男一百二口 女一百九口

馬路里 自官門南距三十里 編戶九十 男一百九十三口 女二百口

北坪里 自官門南距三十五里 編戶三十九 男九十三口 女一百六口

沙峴里 自官門南距四十里 編戶四 男十一口 女十五口

於論里 自官門南距五十里 編戶二十二 男三十九口 女四十七口

所峙里 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二 男五口 女五口

亭子幕里 自官門南距五十里 編戶十一 男二十四口 女二十八口

金寶皇里 自官門南距五十里 編戶八 男十八口 女二十四口

羅加里 自官門西距三十五里 編戶九 男十六口 女十六口

建達里 自官門西距四十里 編戶三十六 男七十三口 女八十一口

頭毛洞 自官門西距五十里 編戶八 男十二口 女十七口
禾屯里 自官門南距六十里 編戶十二 男二十七口 女三十四口
甲屯里 自官門七十里 編戶十五 男二十八口 女四十四口

北面

元通里 自官門北距十里 編戶五十 男一百十五口 女八十四口
寒溪洞 自官門東距三十里 編戶十九 男二十二口 女二十七口
松鶴洞 自官門北距三十里 編戶二十八 男七十六口 女八十九口
楓田洞 自官門北距三十里 編戶二十一 男四十七口 女五十六口
嵐校驛 自官門東距四十五里 編戶三十六 男七十口 女一百口
加歷里 自官門東距五十里 編戶十七 男四十二口 女四十六口
龍頭里 自官門北距六十里 編戶二十 男四十一口 女四十五口

瑞和面

沙川里 自官門北距三十五里 編戶二十四 男三十口
論長里 自官門北距四十里 有倉日瑞倉 編戶三十六 男六十一口 女七十三口
水濟里 自官門北距四十五里 編戶四十三 男九十七口 女一百三口
瑞和里 自官門北距五十里 編戶七十 男一百三十一口 女一百五十二口
西希里 自官門北距七十里 編戶七 男十五口 女十九口
伊布里 自官門北距八十里 編戶二十五 男三十六口 女四十二口
龍山里 自官門北距百里 編戶十八 男三十六口 女三十九口 帳籍準

道路

自官門東至德山五里 自德山至德積洞十里 自德積洞至加里山二十里 自加里山至春川基獐界二十里 自官門南至加奴津里十里 自加奴津里至藍田洞十里 自藍田洞至馬奴驛十里 自馬路驛至沙峙施店十里 自沙峙施店至於論里十里 自於論里至建伊峙三里 洪川接界 自馬路驛分岐東北間至羅加里三十里 自羅加里至頭毛嶺二十里 楊口至接界 自官門東北間至元通驛十五里 自元通驛至嵐校驛三十里 自嵐校驛至味施嶺三十五里 杆城元岩驛接界 自官門西北間至松峙里二十里 自松峙至瑞和長承洞五十里 自長承洞至龍山里三十里 自龍山里至檜田嶺二十里 淮陽金剛山接界

建置沿革

本高句麗猪足縣 一云烏斯回 新羅改猪蹄爲楊麓郡屬縣 高句麗改今名屬春川 後屬淮陽 恭讓王元年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年例改爲縣監縣 名瑞城在縣北六十里 本高句麗玉岐縣 新羅景德王改馳道爲楊麓郡領縣 高麗改今名 屬春川 後屬淮陽

郡名

猪足 烏斯回 豨蹄 新增靈昭

山川

伏龍山 雪岳山 大勝瀑布 地理室 彌勒川 輿地圖書 參照

風俗

風俗淳朴 生業耕稼

壇廟

社稷在縣西三里

文廟在縣一里二十間

城隍壇在縣北四里

壇壝⁸¹

中央壇 在合江亭後 而以一道之中故 若值旱災癘疫之甚 則巡部親祭祈禳

公廨

客舍二十九間

衙舍三十五間

軍器十二間

鄉廳八間 丁酉水災流失

官廳二十一間

作廳十七間

縣司三間

軍官廳五間

堤堰

元通堤在縣北元通前 自官門十五里 周回三百十九尺 廣八十三尺 長一百十二尺 水深三尺 外

高三尺

倉庫

邑倉二十九間

瑞倉在瑞和面 自官門四十里 十九間

驛

元通驛 騎馬一匹 卜馬二匹 奴四名 婢一名 在官門十五里

81 단유(壇壝): 단견(壇遣), 흙으로 높이 쌓아만든 제단.

馬路驛 騎馬二匹 卜馬四匹 吏五人 奴十五名 婢八名 在官門南距三十里

嵐校驛 卜馬三匹 奴五名 婢三名 在官門東距四十里

院

建伊院 在縣南五十里

馬路院 在縣南三十里

古跡

寒溪古城 石築周回六千二百七十八尺 高四尺 內有二井 今頽破

上勝庵 在寒溪瀑十里許 而今有舊墟云

白雲庵 在寒溪寺東四十里 今有舊基云

人物

孝子金敬範 烈女趙玉立妻 三陟金氏 並有旌門

司馬 鄭導

武科 金泰國 行府使

旱田

九十七結 五十五負 二束

水田

二結 五十八負 九束

津渡

磊灘津 在官門北距十五里 津船一隻

加奴津 在官門南距十里 津船一隻

馬路津 在官門南距三十里 津船一隻

封山

雪岳山 自官門北距七十里

寒溪山 自官門北距四十里

龍臺山 自官門北距七十里

嶺阨

彌矢嶺 自官門東距八十里 地接襄陽界

間嶺 自官門北距八十里 地接杆城界

玆寶嶺 自官門北距八十里 而與間嶺分岐 并接杆城界

三峙嶺 自官門北距百里 地接高城界

檜田嶺 自官門北距一百五十里 地接淮陽界

書院

金三淵影堂 自官門南距三十里 地名九萬里

樓亭

合江亭 在縣北五里 一派水自基麟縣來 一派水自雪岳山來至亭前相合 故名稱合江亭

寺刹

百潭寺 在縣東六十里 在雪岳山中

鳳頂庵 在縣東百里 亦雪岳山中

五歲庵 自縣東八十里 亦在雪岳山中 而梅月先生影幀奉安之所

永矢庵 自官門東距八十里 而庵前三淵先生碑閣

瑞龍庵 自縣北七十里

巨藪

紅津浦 自官門東距五里

物産

五味子 紫草 人蔘 蜂蜜 當歸 松栝

糶糴

會付各穀四千六百八十石十二斗三升五合五勺 今爲各穀一萬五百二十五石七斗五升五合九勺 又營還各穀七千一百十三石二斗三升

大同

田米三十四石 作布二同二疋

田稅

大米二石六斗四升三合一勺 田米二十五石一斗三升四合七勺 太十五石十四斗三升一合六勺 二月收捧春川昭陽江 裝載達于京江納于戶曹 大同均稅同 今則以錢代納

俸廩

大米三十五石十三斗一升五合 田米三十五石十三斗一升五合 錢四百七十九兩九錢七分 紫一千二百束 炭三十石 雉鷄八百首

軍保

騎兵保七十二名

禁衛保四十七名

御營保八十二名

步兵三十四名

別破陳十名 禁軍保二名

軍餉保十二名砲保六十六名

扈輦隊保一名內吹保二名

祿直保六名

樂工保六名

司僕諸員十五名

牙兵三十七名

束伍軍一百二十八名

題詠

萬里蒸湘逼 千亭湖嶺空 吾兄有明眼 荒縣抗仙風 潭影令人淡 灘聲與政通 村珉來畫裡 沙際
翫窓櫺 右金昌翁號三淵

『邑先生案』

- 權詠: 嘉靖己酉二月自司憲府監察來 甲寅二月箇滿而授活人署別提去
- 朴仁亮: 嘉靖甲寅二月以禮賓寺判官來 己未二月除造紙署司紙去
- 柳湜: 嘉靖己未二月自司贍寺主簿來 同年十月居水去
- 金沆: 嘉靖庚申正月自司憲府監察來 十二月居水去
- 李公仁: 文 嘉靖辛酉二月監司狀啓據以戶曹左郎擇差 除挈家 癸亥八月除授典籍去
- 金約: 文 嘉靖癸亥八月自成均館典籍來 乙丑六月殿最居下去
- 沈鍍: 文 嘉靖乙丑自成均館典籍來 丙寅十二月居水去
- 尹思愼: 隆慶丁卯二月自司憲府監察來 己巳九月除通禮院引儀去
- 洪致禹: 隆慶己巳九月自司憲府監察來 庚午二月觀親于安邊府損世
- 李慶雲: 隆慶庚午三月自軍器寺判官來 壬申九月授宗簿寺主簿去
- 黃應奎: 文 隆慶壬申九月自工曹左郎來 萬曆癸酉正月以監司狀啓罷去官至參判
- 任澣: 文 萬曆癸酉二月自司憲府監察來 乙亥九月授成均館典籍去
- 朴之亨: 文 萬曆乙亥自成均館典籍來 丙子十月以災傷差錯罷去
- 柳秘: 萬曆丙子十一月前任德山縣監來 戊寅二月損世
- 閔忠烈: 萬曆戊寅三月自司憲府監察來 己卯六月居水去
- 吳克達: 萬曆己卯七月前任司贍寺主簿來 庚辰十月災傷差錯罷去
- 韓應寅: 文 萬曆庚辰十二月自刑曹左郎來 癸未八月箇滿遞去官至議政
- 李一元: 文 萬曆癸未九月前任通禮院引儀來 丁亥二月居水去

- 尹溶: 萬曆丁亥三月前任抱川縣監來 同年十月在喪去
- 尹殷卿: 萬曆丁亥十一月前任新昌縣監來 辛卯正月授忠勳都事去
- 朴文弼: 萬曆辛卯正月司憲府監察來 壬辰正月居下去
- 李大頤: 文 萬曆壬辰四月自奉常寺主簿來 乙未正月箇滿遞去
- 李廷益: 萬曆乙未正月自內贍寺主簿來 丙申十二月以災傷差錯罷去
- 朴大信: 武 萬曆丁酉正月前沃川郡守來 同年十二月在喪去
- 許鑾: 萬曆戊戌正月自監察來 己亥正月府啓罷去
- 閔侃: 萬曆己亥三月自內資寺主簿來 同年十二月居水去
- 李潔: 萬曆庚子正月自監察來 同年四月御使狀啓罷去
- 崔東式: 文 萬曆庚子五月前戶曹正郎來 同年十月戶曹以田結事啓罷去
- 沈宗道: 萬曆庚子十一月前戶曹佐郎來 壬寅呈辭棄官去
- 李宜兄: 萬曆壬寅八月長興主簿來 同年十二月居下去
- 朴忠生: 萬曆癸卯正月以監察來 甲辰九月災傷差錯罷去
- 李有慶: 萬曆甲辰十一月來 同年十二月居下去
- 李慶祚: 萬曆乙巳正月以主簿來 丁未七月箇滿以民願一年仍任 戊申七月御使狀啓罷去
- 閔滌: 文 萬曆戊申八月前典簿來 己酉九月被貶遞去
- 李憑: 萬曆己酉十月以前孟山縣監來 壬子七月以府啓罷去
- 尹祥: 萬曆壬子九月以監察來 同年十月以府啓罷去
- 具仁基: 萬曆壬子十一月前定山縣監來 丙辰六月以府啓罷去
- 金叻: 文 萬曆丙辰七月以典籍來 辛卯七月箇滿去
- 李玆: 天 啓壬戌二月以主簿來 癸亥五月御使狀啓罷去
- 尹衡覺: 天啓癸亥六月以司果來 乙丑九月棄官去
- 朴煥: 天啓癸亥十月以司評來 戊辰正月棄官去
- 朴知警: 崇禎戊辰四月以尙衣主簿來 己巳正月監司狀啓罷去
- 李曇慶: 崇禎己巳二月殷山縣監來 庚午五月以差使員濫騎罷去
- 金羨: 崇禎庚午七月以司贍主簿來 同年十月災傷差錯罷去
- 李泰男: 崇禎庚午十一月以前縣監來 壬申六月居水去
- 柳文錫: 崇禎壬申八月以通禮院引儀來 甲戌十一月殺人事拿去
- 朴挺: 崇禎乙亥正月以禁府都事來 同年三月罷去
- 尹皓: 崇禎乙亥四月以司儀來 同年十二月在喪去
- 金志顏: 崇禎丙子正月以監察來 崇禎丁丑八月御使書啓罷去

- 李尙秘: 崇禎丁丑九月以禁府都事來 己卯正月進親病之重仍丁憂
- 朴弘護: 文 崇禎己卯四月以前典籍來 壬午五月損世
- 李楯: 崇禎壬午七月以前奉常判官來 順治甲申六月居水去
- 李旭: 順治甲申七月以監察來 同年十月以親病監營啓罷去
- 李之屏: 文 順治甲申十一月以典籍來 乙酉四月在喪去
- 李命寅: 順治乙酉五月以主簿來 庚寅正月箇滿去
- 柳仁聲: 順治庚寅二月以監察來 同年三月以生獐闕封事監營罷啓
- 韓錫明: 順治庚寅四月以衛率來 辛卯七月以差使員不晉監營罷啓
- 金汝亮: 文 順治辛卯九月以奉常判官來 丙申六月箇滿去
- 尹建之: 順治甲申八月以監察來 丁酉六月居水去
- 柳苾: 順治丁酉八月以監察來 己亥六月居水去
- 金世豪: 順治己亥八月以別提來 甲辰六月瓜滿遞去
- 崔時高: 康熙甲辰七月以禁府都事來 乙巳六月居下去
- 金紐: 康熙乙巳七月以宗簿寺主簿來 己酉二月以年滿遞去
- 李翮: 康熙己酉四月以內資主簿來 癸丑三月以同生弟才道監司相避遞去
- 金韶夏: 文 康熙癸丑五月以迎曙察訪來 甲寅八月居水去
- 鄭正陽: 康熙甲寅八月以監察來 乙卯九月以備局啓辭罷去
- 李世億: 康熙乙卯十二月以禁府都事來 丁巳十月在喪去
- 李熙采: 文 康熙丁巳十一月以前正郎來 戊午十二月御使書啓罷去
- 姜壽楠: 康熙己未二月以安峽縣監還差 庚申六月居水去
- 李舜岳: 康熙辛酉二月以刑曹佐郎來 丙寅正月瓜滿遞去
- 沈漵: 康熙丙寅二月以禁府都事來 正月箇滿遞去
- 李始興: 康熙辛未正月以禁府都事來 瓜滿後賑政仍任 丙子五月以御使書啓罷去
- 金昌國: 康熙丙子六月以工曹正郎來 戊寅六月居水去
- 李洙: 康熙戊寅六月以禁府都事來 癸未六月瓜滿年凶賑救事限 甲申麥秋仍任 同年七月以善賑事因御使褒啓陞資移拜寧越府使
- 金盛大: 康熙甲申八月以禁府都事來 丙戌十月棄官啓罷自上特命只推仍任 丁亥八月以病棄官去
- 申載: 康熙丁亥十月以監察來 庚寅六月吏曹啓罷去
- 趙光命: 康熙庚寅閏七月以掌樂主簿來 己未七月瓜滿遞去
- 徐宗積: 康熙乙未八月以刑曹正郎來 戊戌四月移拜韓山郡守

- 李雨臣:康熙戊戌五月以宗廟令來 同年十二月以善治陞拜大邱判官
- 李敬躋: 康熙戊戌十二月以禁府都事來 庚子七月因本道狀啓罷去
- 韓配厚: 康熙庚子九月以漢城主簿來 雍正三年乙巳八月瓜滿去
- 權養性: 擁正乙巳以漢城主簿來 丁未六月陞拜金提郡守
- 趙明震: 擁正丁未七月來 戊申四月遭內艱去
- 趙鎮世: 文 擁正戊申以軍職除拜 八月拜文學仍任 辛亥八月以持平去
- 金相圭: 擁正辛亥九月以前縣監來 甲寅六月貶去
- 任安世: 擁正甲寅八月以社稷令來 同年十二月貶去
- 柳澂: 擁正乙卯正月以司僕寺主簿來 丁巳三月因本道啓罷去
- 李普寅: 擁正丁巳三月以工曹佐郎來 庚申五月因本道啓罷去
- 尹得聖: 擁正庚申閏六月來 壬戌八月在喪去
- 申鎮夏: 壬戌九月到任 乙丑正月吏曹啓罷去
- 李廣矩: 乙丑三月到任 己巳八月瓜遞去
- 金光遂: 己巳九月到任 癸酉十二月以病狀罷去
- 金善材: 甲戌二月以司饗主簿來 丁丑五月移拜新溪縣令
- 李龜老: 丁丑五月到任 己卯閏六月御使書啓罷去
- 黃植: 己卯九月到任 庚辰六月居水去
- 申光履: 庚辰七月到任 癸未四月以病狀罷去
- 尹昌柱: 癸未四月到任 丁亥十二月瓜滿遞去
- 李顯白: 戊子正月到任 同年十二月因特教遞差去
- 李命彬: 文 戊子十二月以弘文館修撰除授 己丑五月遞去
- 鄭宅濟: 武 己丑五月到任 庚寅十二月罷去
- 趙來鎮: 辛卯正月以漢城判官來 甲午十二月吏曹啓罷去
- 李國亨: 乙未正月以司饗主簿來 丙申五月狀罷去
- 金道淳: 丙申五月以敦寧府判官來 戊戌十二月陞拜永川郡守
- 呂善養: 己亥正月以刑曹佐郎來 庚子十月損世
- 尹得欽: 庚子十一月到任 壬寅八月損世
- 任焞: 壬寅九月到任 丁未六月瓜滿去
- 吳彥謨: 丁未七月到任 庚戌十月損世
- 申光河: 庚戌十月到任 辛亥九月狀罷
- 朴宗福: 辛亥十月到任 甲寅六月移拜金城縣令

- 趙儀達: 乾隆甲寅七月到任 乙卯十二月在喪去
- 李元膺: 乾隆丙辰正月以永同縣監換來 己未正月以迎華察訪換去
- 白鳳周: 文 乾隆己未正月以兵曹佐郎來 同年十二月貶下去
- 韓用謙: 嘉慶己未十二月以典牲暑判官來 壬戌七月移拜杆城郡守
- 趙鎮大: 嘉慶壬戌八月到任 甲子六月居水去
- 洪赫: 嘉慶甲子七月以長寧令來 丙寅十二月移拜金溝縣令
- 李宗孝: 嘉慶丙寅十二月以禁府都事來 己巳正月以御使啓罷去
- 李勉心: 嘉慶己巳正月以刑曹正郎來 辛未五月移拜報恩郡守
- 柳仁根: 嘉慶辛未五月以社稷署令來 甲戌六月陞拜安山郡守
- 林斗鎮: 嘉慶甲戌六月以軍資監主簿來 乙亥三月損世
- 李種祐: 嘉慶乙亥四月以刑曹正郎來 己卯五月陞拜淳昌郡守
- 李度憲: 嘉慶己卯五月以翊衛司司禦來 道光壬午九月御使啓罷
- 魚在琬: 道光壬午九月以社稷令來 丁亥二月陞拜槐山郡守
- 洪殷燮: 道光丁亥二月以宗廟署令來 己丑十二月移拜丹陽郡守
- 朴奎源: 道光己丑十二月以司憲府監察來 壬辰五月在喪去
- 鄭基重: 道光壬辰五月以刑曹正郎來 乙未五月移拜永川郡守
- 鄭淳榮: 道光乙未五月以刑曹佐郎來 丙申十二月投印符去
- 趙箕淳: 道光丙申十二月以工曹正郎來 戊戌六月居水去
- 金箕淳: 道光戊戌六月以司憲府監察來 辛丑閏三月損世
- 李懿喆: 道光辛丑閏三月以造紙署別提來 同年十月損世
- 姜瀟: 道光辛丑十一月以龍仁縣監換來

인제의 역사

강원도의 중심 인제

강원도 중앙단(中央壇)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제단이다. 나라에 역질이 돌거나 가뭄이 들었을 때 각 도(道)의 중심부에 신을 모시고 여제(厲祭)를 지냈다. 조선시대 여제는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 중 소사에 해당하는 제사로 정종 2년인 1400년에 지방의 주현까지 행해졌다. 제사는 매년 청명, 7월 15일, 10월 1일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고 역병이나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는 시기와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별여제(別厲祭)를 시행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제사인 경우 임금이 직접 제문을 짓고 친히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지방 군현의 경우는 대부분 수령의 주관 하에 지내도록 하였다. 1742(영조 18)년에 왕명에 의해 전국 중앙단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는데 강원도 인제, 경상도 상주, 충청도 공주, 전라도 광주에서 시행되었다. 인제의 중앙단은 1843년에 작성된 『인제현읍지(麟蹄縣邑誌)』에 처음 등장한다. 현재의 강원도 중앙단은 2001년 7월 24일에 복원되었다.

* 여제(厲祭): 여귀(厲鬼)에게 지내는 제사. 여제에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관행제(官行祭)와 임시로 행해지는 별여제(別厲祭)가 있다. 여제가 국가와 지방에서 정례적으로 행해진 것은 농경중심의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가뭄이나 전염병 등 재난의 원인이 제사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죽어 원한 맺힌 신들 때문이라 생각하여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 위로함으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여귀(厲鬼): 여귀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제사를 받을 수 없는 귀신 또는 적(籍)이 없는 귀신을 말한다. 이들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탈이 나기 때문에 이를 제사지냄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인제를 읊은 한시

김창흡(金昌翕), 「갈역잡영(葛驛雜詠)」

예전처럼 밥 먹고 사립문 나서면 尋常飯後出荊扉
그때마다 범나비 나를 따라 나서네 輒有相隨粉蝶飛
삼밭 지나 보리밭둑 구불구불 걸어가니 穿過麻田迤麥壟
들풀의 가시가 금방 옷에 걸리네 草花芒刺易冒衣

설악산에서 내려온 저 달 月自雪山來
초라한 내 사립문 안 비추네 照吾蓬戶裏
달빛 받아들임 어찌 넓고 좁음 가릴까 容光何闊狹
내 마음엔 이미 찌꺼기 없는 것을 靈府已無滓

김창흡은 자신의 담박한 삶을 「갈역잡영(葛驛雜詠)」 400여 수에 담았다. 시의 배경인 갈역은 지금의 용대2리다.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이다.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자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수항(壽恒)이며, 형은 영



용대2리 전경. 예전에 갈역이라 불렀다.

의정을 지낸 창집(昌集)과 예조판서·지돈녕부사 등을 지낸 창협(昌協)이다. 형 창협과 함께 성리학과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다. 저서로는 『삼연집』, 『심양일기(瀋陽日記)』 등이 있다.

춘천읍지 春川邑誌



기린면에 해당되는 항목만 발췌하였다.



대동방여전도

대동여지도를 설명 내지 필사한 21첩 채색지도로 철종연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지도

조선 후기 군현지도책 중 20리 방안위에 그려진 대표적인 지도이다. 다른 군현지도와는 다르게 주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방안의 크기는 4.2cm의 정방형이다. 각 고을의 크기에 따라 사용된 방안 개수가 다르다. 1면에 1개 고을을 그리는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일부 고을은 한 면의 부분만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함경도 함흥, 충청도 충주, 경상도 안동의 경우와 같이 면적이 넓거나 바월지(飛越地)가 있는 고을은 두면에 연결하여 그린 경우도 있다.

○ 행정구역

□ 기린면(麒麟面)

【현리(縣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170리 거리다.

북리(北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190리 거리다.

서리(西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160리 거리다.

상남리(上南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00리 거리다.

하남리(下南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00리 거리다.

동리(東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190리 거리다.

진동리(鎭東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40리 거리다. 민호(民戶)를 합하면 745호이다.

민호를 모두 합하면 6221호다. 도광(道光) 11년¹ 신묘(辛卯)에 기준한 것이다.】

○ 관직

기린(麒麟) 관리 15명

○ 창고

기린창(麒麟倉) 부 동쪽 200리 현리(縣里)에 있다.

○ 고적(古蹟)

기린현(麒麟縣) 부 동쪽 200리에 있다. 본래 고구려 기지군(基知郡)²이다. 고려(高麗)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본 주(州)³에 소속시켰다.

1 도광(道光) 11년: 1831년으로 순조 31년이다.

2 기지군(基知郡): 지금의 인제군 기린면(麒麟面).

3 본 주(州): 춘주(春州)를 이르는 말.

麒麟面

【縣里 自官北距一百七十里

北里 自官北距一百九十里

西里 自官北距一百六十里

上南里 自官北距二百里

下南里 自官北距二百里

東里 自官北距一百九十里

鎮東里 自官北距二百四十里 合民戶七百四十五 都合民戶六千二百二十一 道光十一年辛卯
準.]

官職

麒麟 人吏十五名

倉庫

麒麟倉 在府東二百里縣里.

古蹟

基麟縣 本高句麗基知郡 高麗改今名 來屬

인제의 역사

목민관의 치적을 기록한 송덕비

송덕비는 일명 선정비(善政碑)라고도 한다. 특히, 관직에 있으면서 은혜와 교화를 끼쳤을 때 백성들이 이를 생각하고 비를 세워 송덕하는 것이 항례인데,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심사하여 그 상황을 전달한 다음 왕의 칙령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세우게 하였다.



현리 송덕비

그러나 백성을 위협하거나 자신의 재물을 들여 억지로 송덕비를 세우는 예도 있었다. 비석을 세우는 일은 늘 백성들의 피와 땀을 요구하였고 권력자들은 앞을 다투어 비석을 세웠다. 권필의 한시는 그러한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권필(權鞮), 「충주석(忠州石)」

충주 좋은 돌은 유리처럼 고우니 忠州美石如琉璃(충주미석여유리)

천 명이 캐내고 만 마리 소가 옮기네 千人剗出萬牛移(천인출만우이)

문노라, 돌을 옮겨 어디로 가는고? 爲問移石向何處(문노라, 돌을 옮겨 어디로 가는고?)

“가서, 세도가의 신도비를 만든다오.” 去作勢家神道碑(가서, 세도가의 신도비를 만든다오.)

신도비에 누가 글을 짓는고? 神道之碑誰所銘(신도비에 누가 글을 짓는고?)

“필력도 굳건하고 문장도 특출타오.” 筆力偏強文法奇(필력도 굳건하고 문장도 특출타오.)

모두가 말하길, “이분이 살아 계실 때 皆言此公在世日(모두가 말하길, “이분이 살아 계실 때)

자질과 학업이 모두 높으니 天姿學業超等夷(자질과 학업이 모두 높으니)

임금을 섬김에 충성하고 강직하며 事君忠且直(임금을 섬김에 충성하고 강직하며)

집안에 있어서는 효도하고 인자했네. 居家孝且慈
 문 앞에는 뇌물이 끊어지고 門前絕賄賂
 창고 안에는 재물이 없었으니 庫裏無財資
 그 말은 세상의 법이 될 만하고 言能爲世法
 그 행실은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하여 行足爲人師
 평생토록 나아가고 물러감에 平生進退間
 도리에 어긋남이 한 치도 없었다네. 無一不合宜
 그리하여 이 비석을 세우니 所以垂顯刻
 길이길이 빛나며 잊히지 않으리.” 永永無磷緇
 이 말을 믿든 믿지 않든 此語信不信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他人知不知
 마침내 충주 산 위의 돌들은 遂令忠州山上石
 날로 달로 사라져 남은 게 없네. 日銷月鑠今無遺
 하늘이 돌을 낼 때 입 없게 했으니 망정이지 天生頑物幸無口
 돌에 입이 있었다면 응당 할 말이 있었으리라 使石有口應有辭

인제의 역사

무사 백동수 기린에서 무술을 연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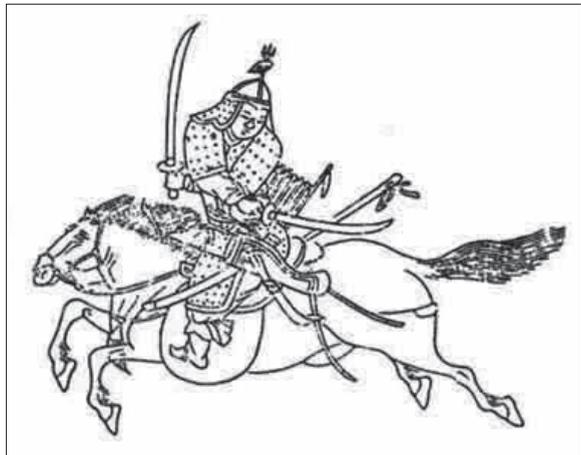
백동수(白東修, 1743~1816)는 자가 영숙(永叔)이고, 호는 인재(靑齋), 야뇌(野餒)다. 그는 평안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백시구(白時壽, 1649~1722)의 서자인 백상화(白尙華)의 손자이기에 때문에 서얼에 속하여, 일찍 무과에 급제해서 선전관이 되었으나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1789년(정조 13) 장용영 초관이 되어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와 함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그 후 비인 현감(庇仁縣監)과 박천 군수(博川郡守) 등을 지냈다. 백동수는 이덕무의 처남이기도 하다.

그와 교류를 하던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인재군 기린면(麒麟面)으로 거처를 옮기려는 백동수에게 글을 써 주었는데, 그 글이 「기린협으로 들어가는 백영숙에게 증정한 글(贈白永叔入麒麟峽序)」이다.

영숙은 장수 집안의 자손이다. 그 조상 중에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목숨 바친 이가 있어서 이제까지도 사대부들이 그를 슬프게 여긴다. 영숙은 전서와 예서를 잘 쓰고 전장(典章)과 제도(制度)도 익숙히 잘 알며, 젊은 나이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아 무과에 급제하였다. 비록 운을 타지 못해서 벼슬과 복을 누리지는 못하였으나,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죽을 그 뜻만은 조상의 공적을 계승함직하여 사대부들에게 부끄럽지 않았다.

아! 이런 영숙이 무엇 때문에 온 식구를 거느리고 예맥의 땅으로 가는 것인가? 영숙이 일찍이 나를 위해서 금천(金川)의 연암협(燕巖峽)에 집터를 살피 준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산이 깊고 길이 험해서 하루 종일 걸어가도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할 정도였다. 갈대숲 속에 들어 서로 말을 세우고 채찍을 들어 저 높은 언덕을 구분하며, “저기는 울을 쳐 뽕나무를 심을 만하고, 갈대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면 일 년에 조 천 석은 거둘 수 있겠다.”하면서 시험 삼아 부시를 쳐서 바람 따라 불을 놓으니 꿩이 깹깹 울며 놀라서 날아가고, 노루 새끼가 바로 앞에서 달아났다. 팔뚝을 걷고 쫓아가다가 시내에 가로막혀 돌아와서는 나를 쳐다보고 웃으며, “인생이 백 년도 못 되는데, 어찌 답답하게 나무와 돌 사이에 거처하면서 조 농사나 짓고 꿩 · 토끼나 사냥한단 말인가?”했었다.

이제 영숙이 기린협에 살겠다고 송아지를 등에 지고 들어가 그걸 키워 밭을 갈 작정이고, 된장도 없어 아가워나 담가서 장을 만들어 먹겠다고 한다. 그 험하고 궁벽함이 연암협에 비길 때 어찌 똑같이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나 자신은 지금 갈림길에서 방향하면서 거취를 선뜻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하물며 영숙의 떠남을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오히려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길망정 그의 궁핍을 슬피 여기지 않는 바이다.



대동지지大東地志



『대동지지(大東地志)』 : 김정호(金正浩)가 편찬한 지리서로 1861년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1866년까지 보완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동여지도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1861년 제작한 한반도의 지도이며, 지도첩이다. 근대적 측량이 이루어지기 전 제작된 한반도의 지도 중 가장 정확한 지도이다.

인제(麟蹄)

○ 고을의 내력

본래 오사회(烏斯回)였으나 신라 때 저족(猪足)으로 고쳤다. 경덕왕(景德王) 16년에 다시 희제(豨蹄)로 고쳐 양록군(楊麓郡) 관할 아래의 현으로 하였다. 고려 태조(太祖) 23년에는 인제(麟蹄)로 고치고, 현종(顯宗) 9년에 춘주(春州)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소속시켰다. 공양왕(恭讓王) 원년(元年)에 감무(監務)를 설치하였다. 조선 태종(太宗) 13년에 현감(縣監)을 두었다. 【옛 읍의 터는 남쪽 20리인 이둔리(耳屯里)다¹.】

○ 관원(官員)

현감(縣監) 1인이다.

○ 옛 고을

서화(瑞和) 【북쪽 60리에 있다. 본래 개차정(皆次丁)인데 신라 때 옥기(玉岐)로 고쳤다. 경덕왕(景德王) 16년에 치도(馳道)로 고치고 양록군(楊麓郡)의 관할 아래 현으로 하였다. 고려 태조(太祖) 23년에 서화(瑞和)로 고치고, 현종(顯宗) 9년에 춘주(春州)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소속시켰다. 조선 세종조(世宗朝) 때 인제(麟蹄)에 소속시켰다. 읍 이름은 서성(瑞城)이다.】

○ 산수(山水)

○ 북룡산(伏龍山)² 【북쪽으로 2리에 있다.】

○ 한계산(寒溪山) 【동쪽으로 60리에 있다. 곧 양양 설악산 서남의 한 가지로 본래 하나의 산인데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산의 형세는 웅장하고 기이하며 높은데, 다 돌로 이루어졌다. 계곡은 깊고 칩칩이 막혔으며, 냇물은 이리저리 흘러 건너야 할 곳이 36곳이나 된다. 남쪽 봉우리는 절벽을 이루는데 높이가 수 천 척이나 되고, 기괴함이 이를

1 이둔리(耳屯里)는 지금의 귀둔(貴屯)을 말한다. 귀둔은 본래 춘천부 기린현에 속해 있었으며, 옛 기린현이 있었다. 1415년에 현의 소재지를 지금의 방동으로 옮기면서 인제군 동면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고읍(古邑)이라 함은 인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린현을 뜻한다.

2 북룡산: 기룡산



加里山



봉비산. 지금은 비봉산이라 부른다.

데 없다. 그 아래로 맑은 물이 암석에 부딪치며 흐르다가 담(潭)을 이룬다. 산꼭대기 높은 봉우리들의 빼어난 모습은 용이 끌어당기고, 범이 잡고 있는 듯하다. 겹겹이 쌓인 누대 같은 것은 셀 수 없다. 그 형승이야 말로 영서에서 제일이다. 또 산 위에는 옛 성이 있다. 성안에서 흘러나오다가 폭포가 되는데 쏟아지는 것이 수백 척이다. 바라 보면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운 것 같다. 이름 하여 대승폭포(大勝瀑布)다. 심적사(深寂寺). 백담사(百潭寺). 봉정암(鳳頂庵)이 있다.】

- 용대산(龍臺山)³ 【북쪽 70리에 있다.】
- 봉비산(鳳飛山)⁴ 【남쪽 15리에 있다.】
- 加里산(加里山) 【동쪽 40리에 있다.】
- 덕산(德山) 【동쪽 10리에 있다.】

○ 고개와 길[嶺路]

- 연수파령(連水坡嶺)⁵ 【동쪽으로 75리에 있다. 간성(杆城)과 경계인데 위험해서 멀리 돌아가야 한다.】

3 용대산: 서화면 북동쪽에 있으며, 진부령의 한 줄기다.

4 봉비산: 지금은 비봉산(飛鳳山)이라고 한다.

5 연수파령(連水波嶺): 지금의 미시령을 말한다.

- 오색령(五色嶺), 필노령(弼奴嶺), 박달령(朴達嶺) 【모두 동쪽 70리에 있다. 양양과 경계다.】
- 진부령(珍富嶺) 【동북향 90리에 있다.】
- 선유령(仙遊嶺), 흘리령(屹伊嶺), 소파령(所波嶺) 【모두 동북향 70리에 있으며, 간성과 경계다.】
- 회전령(檜田嶺)⁶, 응봉령(鷹峯嶺) 【함께 북쪽 140리에 있다. 회양과 경계다.】
- 탄령(炭嶺)⁷ 【북쪽으로 140리에 있다. 고성과 경계다.】
- 건이령(建伊嶺) 【서남으로 55리에 있다. 홍천과 경계다.】
- 두모현(頭毛峴)⁸ 【북으로 40리에 있다. 양구와 경계다.】
- 사라치(沙羅峙)⁹ 【서북 방향 30리에 있다.】
- 구장천(九壯遷) 【서쪽으로 40리 강변에 있다. 양구의 남강(南江) 상류다.】
- 강천(缸遷) 【서쪽으로 20리 강변에 있다.】
- 반창천(反昌遷) 【동쪽으로 10리 강변에 있다.】
- 서화천(瑞和川) 【북쪽으로 60리에 있다.】
- 기린천(基麟川)¹⁰ 【남쪽으로 20리에 있다.】
- 추동천(楸洞川)¹¹ 【동남 쪽으로 30리에 있다. 근원은 오색령 서쪽에서 시작하여 기린천 하류로 유입된다.】
- 탄곡천(炭谷川)¹² 【근원은 탄령(炭嶺) 남쪽에서 시작되어 흐른다.】
- 이포천(伊布川) 【근원은 응봉령(鷹峯嶺) 남쪽에서 시작되며 서화천(瑞和川)¹³의 근원과 함께 흐른다.】
- 뇌탄(磊灘) 【동쪽으로 30리에 있다.】
- 원통천(圓通川) 【뇌탄(磊灘)의 아래에 있다.】
- 미륵천(彌勒川) 【원통천(圓通川) 아래 서화천(瑞和川)과 함께 흐른다.】

6 회전령: 이포리(伊布里)에 있으며, 민통선 북방 지역이다.

7 탄령: 이포리(伊布里)에 있으며 민통선 북방지역이다.

8 두모현: 두무리에 있으며, 지금은 양구에 편입되었다.

9 사라치: 두무리와 건달리(建達里) 사이에 있으며, 지금은 양구에 편입되었다.

10 기린천: 지금은 통상 내린천(內麟川)이라고 부른다.

11 추동천: 하추리에 있는 하천.

12 탄곡천: 이포리에 있다.

13 서화천: 용대리 연화동에서 가평(加坪)을 거쳐 남교(嵐校)로 흐르는 하천.



건이령



내린천

- 백담천(百潭川) 【동쪽 40리 거리에 있다. 한계산 서쪽에서 시작되어 서화천(瑞和川)으로 유입된다.】
 - 한계천(寒溪川) 【동쪽으로 30리 거리다. 근원은 대승폭포 서쪽인데 흐르다가 원통천으로 유입된다.】
 - 김보동천(金寶洞川)¹⁴ 【서남쪽 30리에 있다. 근원은 김보동(金寶洞) 북쪽에서 시작되며, 봉황대(鳳凰臺) 남쪽으로 유입된다.】
 - 가노탄(加奴灘)¹⁵ 【남쪽 10리에 있다.】
- 행정구역
- 현내면(縣內面) 【제일 먼 곳이 40리다.】
 - 북면(北面) 【가까운 곳은 20리고, 먼 곳은 80리다.】
 - 동면(東面) 【가까운 곳은 40리고, 먼 곳은 70리다.】
 - 남면(南面) 【가까운 곳은 10리, 먼 곳은 40리다.】
 - 서화(瑞和) 【가까운 곳은 40리고, 먼 곳은 140리다.】

14 김보동천(金寶洞川): 김부리에서 시작하여 갑둔을 지나 성재 앞을 흐르는 하천.

15 가노탄(加奴灘): 현 인제대교 밑 여울.

○ 이포소(伊布所) 【북쪽으로 140리에 있다. 옛적에는 춘천에 속하였으나, 세종 6년에 인제현에 소속되었다.】

○ 성지(城池)

○ 한계산고성(寒溪山古城) 【동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6272척이며, 큰 샘이 있다.】

○ 창고(倉庫)

○ 북창(北倉) 【북쪽 80리 거리에 있다.】

○ 서화창(瑞和倉) 【북쪽 60리 거리에 있다.】

○ 역참(驛站)

○ 마노역(馬奴驛) 【옛 이름은 마뇌역(瑪惱驛)이다. 서쪽 30리에 있다.】

○ 부림역(富林驛) 【옛 이름은 임천역(臨川驛)이다. 예전에는 서화(瑞和)에 있었으나 지금은 원통리(圓通里)로 옮겼다. 동쪽 20리에 있다.¹⁶⁾】

○ 남교역(嵐校驛) 【동쪽 40리에 있다. 위 세 역은 모두 은계도(銀溪道)¹⁷⁾에 속한다.】

○ 나루(津渡)

○ 마노진(馬奴津) 【서쪽 30리에 있다.】

○ 가노진(加奴津) 【서쪽 10리에 있다.】

○ 주연진(舟淵津) 【일명 서저진(西底津)이라고도 한다. 동쪽 15리에 있다.】

○ 지역 특산물

해송자, 오미자, 자초, 인삼, 복령, 봉밀, 영양, 흰꽃뱀, 누치, 열목어, 쏘가리, 당귀, 옥, 마(麻).

16 각종 기록에 인제에는 마노역, 부림역, 임천역, 남교역 4개의 역이 있었다고 전하고, 『조선왕조실록』 세조(世祖) 8년에 각 도의 역참(驛站)을 파하고 역로(驛路)를 정비하였다는 기록에도 부림역(富林驛)과 임천역(臨川驛)은 별개의 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잘못된 기록으로 보여진다.

17 은계도(銀溪道):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조(世祖) 8년(1462. 8. 5)에 각 도의 역참(驛站)을 파하고 역로(驛路)를 정비하여 찰방(察訪)과 역승(驛丞)을 두었는데, ‘강원도의 은계역, 신안역, 대창역, 서운역, 생차역, 옥동역, 거천역, 용진역, 산양역, 원천역, 방천역, 함춘역, 수인역, 마노역, 부림역, 남교역, 임천역 이상 17개 역을 은계도(銀溪道) 찰방으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합강정

- 황장봉산(黃腸封山) 【두 곳¹⁸이다.】
- 정자
 - 합강정(合江亭) 【동쪽 5리에 있다. 서화와 기린의 두 물이 합류하는 곳이다.】
- 전고(典故)
 - 신라 진성왕(眞聖王) 9년 궁예(弓裔)가 저족(猪足)을 취하였다.
 - 고려 고종(高宗) 46년¹⁹에 이르러 화주(和州)²⁰를 비롯한 여러 성에서 민족을 배반하

18 황장봉산(黃腸封山) 두 곳: 한계동봉산(寒溪洞封山), 곡백담봉산(曲百潭封山)을 말한다.

19 고종 46년: 1259년

20 화주(和州): 지금의 영흥군(永興郡)을 말한다.

고 【조휘(趙暉)²¹의 무리들인데, 영흥(永興)에 보인다.】 스스로 관인(官人)이라 칭하며 몽고병을 이끌고 한계성(寒溪城)을 공격하였는데, 방호별감(防護別監) 안홍민(安洪敏)²² 장군이 야별초(夜別抄)²³를 이끌고 나아가 모두 섬멸하였다.

춘천현 기린면²⁴

○ 옛 고을

기린(基麟) 【동쪽으로 140리에 있다. 본래 신라 기지현(基知縣)이다. 경덕왕 16년에 기린으로 고치고 양록군 관할 아래의 현으로 삼았다가 고려 현종 9년에 춘천현에 소속시켰다.】

○ 행정구역

기린(基麟) 【동쪽으로 시작되는 곳은 130리, 끝나는 곳은 250리다. 동서 120여리, 남북 230리 이다. 동으로 양양, 남으로 강릉, 서로는 홍천, 북으로 인제와 접경한다.】

○ 창고(倉庫)

기린창(基麟倉) 【기린의 고현(古縣)에 있다.】

21 조휘(趙暉): 한양인(漢陽人)으로 『고려사』 열전(列傳) 반역자(反逆者) 편에 나오는 자로서 뒤에는 용진현(龍津縣)에 옮겨 살았다. 그는 고종(高宗) 45년(1258)에 동북면지방(東北邊地方) 즉 철령이북(鐵嶺以北)을 몽고(蒙古)에 빼어주어 몽고가 화주(和州: 지금의 영흥)에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를 설치하도록 도왔고, 자신이 총관(摠管)이 되고 대대로 내려오며 습작(襲爵)되어 공민왕(恭愍王) 5년(1356) 그 지방이 다시 고려에 복귀될 때까지 계속하였다. 몽고병이 고종(高宗) 45년에 동북면(東北面)의 고주(高州), 화주(和州), 정주(定州), 장주(長州), 의주(宜州), 문주(文州) 등 15개 주에 침입하자 동북면 병마사(兵馬使) 신집평(愼執平)은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을 인도하여 대피하던 중 식량이 떨어져 별초군(別抄軍) 일부를 구호(救護)를 청하러 조정에 보낸 뒤, 수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정주사람 탁청(卓靑) 등과 모의하여 몽고병을 이끌고 쳐들어가 신집평 과 등주부사(登州副使) 박인기(朴仁起), 화주부사(和州副使) 김선보(金宣甫) 등을 죽이고, 철령 이북의 땅을 들어 몽고에 투항하였다. 그 뒤로도 그는 인제의 한계산성을 위시하여 춘주 등 강원도 북부와 함경도 지역의 여러 성읍을 침입하여 관민을 괴롭히는 몽고병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22 안홍민(安洪敏):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사』 열전 최충헌에 관한 기록에 보면 고종 45년에 최의(崔瑱)에 의하여 장군 변식(邊軾),랑장(郎將),안홍민(安洪敏), 산원(散員), 정한규(鄭漢珪)와 함께 강화수획사(江華收獲使)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23 야별초(夜別抄): 고려의 군대. 최우(崔瑀)가 조직한 좌우의 두 부대로 밤마다 순행하며 도둑을 방지하던 병사.

24 기린면과 관련된 항목만 발췌하였다.

沿革

本烏斯回新羅改猪足。景德王十六年改豨蹄爲楊麓郡領縣。高麗太祖二十三年改麟蹄，顯宗九年屬春州，後淮陽。恭讓王元年置監務。本朝太宗十三年改縣監【古邑趾南二十里耳屯里】

官員

縣監一員

古邑

瑞和【北六十里。本皆次丁。新羅改玉岐。景德王十六年改馳道。爲楊麓郡領縣。高麗太祖二十三年改瑞和。顯宗九年屬春州。後屬淮陽。本朝世宗朝來屬。邑號瑞城】

山水

伏龍山【北二十里】

寒溪山【東六十里。卽襄陽雪岳山西南支。本一山而異名。山勢雄高奇峻皆石作。洞府幽深疊阻。溪水縱橫而渡者三十六。其南峰作絕壁。其高千仞。奇怪莫狀。其下清泉觸岩成潭。峯巒峭拔如龍拏虎攫。如累層臺者無數。其形勝甲於嶺西。山上有古城。有川自城中流出成瀑。懸注數百尺。望之如白虹垂天。名爲大勝瀑。深寂寺。百潭寺。鳳頂庵】

龍臺山【北七十里】

鳳飛山【南五十里】

加里山【東四十里】

德山【東十里】

嶺路

連水坡嶺【東七十五里。杆城界迂回危險】

五色嶺。弼奴嶺。朴達嶺【俱東七十里。襄陽界】

珍富嶺【東北九十里】

仙遊嶺。屹伊嶺。所波嶺【俱東北七十里。杆城界】

檜田嶺。鷹峯嶺【俱北一百四十里。淮陽界】

炭嶺【北一百四十里。高城界】

建伊嶺【西南五十五里。洪川界】

頭毛峴【北四十里。楊口界】

沙羅峙【西北三十里】

九壯遷【西四十里。江邊。楊口南江上流】

缸遷【西二十里。江邊】

反昌遷【東十里。江邊】

瑞和川【北六十里】
基麟川【南二十里】
楸洞川【東南三十里 源出五色嶺西 流入基麟川下流】
炭谷川【源出炭嶺南流】
伊布川【源出鷹峯嶺南 流俱瑞和川源】
磊灘【東三十里】
圓通川【磊灘之下】
彌勒川【圓通川下俱瑞和川】
百潭川【東四十里 出寒溪山西 流入瑞和川】
寒溪川【東三十里 源出大勝瀑西 流入圓通川】
金寶洞川【西南三十里 源出金寶洞北 流入鳳凰臺之南】
加奴灘【南十里】
坊里
縣內面【終四十里】
北面【初二十終八十】
東面【初四十終七十】
南面【初十終四十】
瑞和【初四十終一百四十】
伊布所【北百四十里 古屬春川 世宗六年來屬】
城池
寒溪山古城【東五十里 周六千二百七十二尺 有大泉】
倉庫
北倉【北八十里】
瑞和倉【北六十里】
驛站
馬奴驛【古名瑪惱 西三十里】
富林驛【古名臨川 舊在瑞和今移圓通里 東二十里】
嵐校驛【東四十里 右三驛屬銀溪道】
津渡
馬奴津【西三十里】
加奴津【西十里】

舟淵津【一云西底津 東十五里】

土産

海松子 五味子 紫草 人蔘 茯苓 羚羊 白花蛇 訥魚 餘項魚 錦鱗魚 魚 漆麻

黃腸封山【二處】

樓亭

合江亭【東五里 瑞和基隣二川合流處】

典故

新羅眞聖王九年 弓裔取猪足

高麗高宗四十六年 登和州諸城叛民【趙暉之黨 見永興】自稱官人 引蒙古來攻寒溪城 防護別監安洪敏率夜別抄出擊盡殲

〈기린면 원문〉

古邑

基隣【東一百四十里 本新羅基知縣 景德王十六年改基隣爲楊麓 郡領縣高麗顯宗九年來屬】

方里

基隣【東初一百三十終二百五十 東西一百二十餘里 南北二三十里 東接襄陽 南接江陵 西接洪川 北接隣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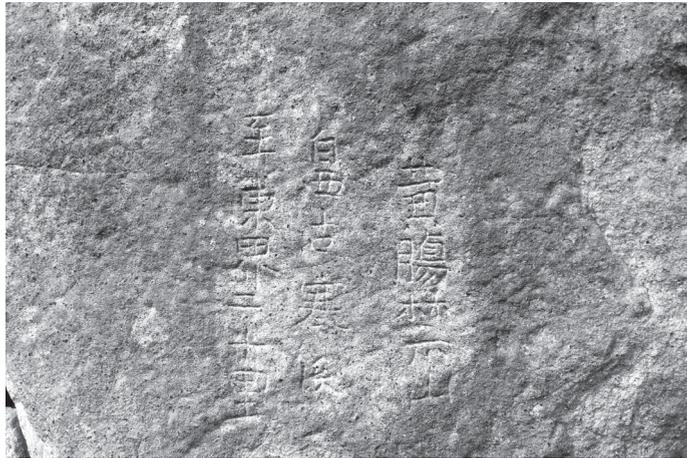
倉庫

基隣倉【在基隣古縣】

인제의 역사

황장봉산(黃腸封山)

황장이라 함은 소나무가 오래되어 줄기의 속이 성숙해지며 붉은색을 띠게 되어 재질이 크게 향상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황장재는 소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자라야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황장재는 관의 재료로 숭상되었는데, 임금의 관은 황장재로 만든다는 기록이 있



은혜사지 황장금표

다. 즉, 1420년(세종 2) 예조의 계(啓)에 “천자(天子)의 관은 황장으로 만들고 군제후(君諸侯)도 송장(松腸)으로 관을 만드는데 황장송심(黃腸松心)이 그것입니다. 옛적부터 천자제후의 관을 반드시 황장으로 만드는 이유는 황심은 목재가 견고하고 오래되어도 썩지 않으며 백변은 내습성이 없어서 속히 썩는 데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다.

또, 1424년 예조의 계에 “우리 나라의 소나무는 근래 작별이 심해서 깊은 산중에 가도 광판(廣板)을 얻을 만한 것이 희소하여 관재를 얻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관을 만들고자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천자제후의 장례에 있어서도 나무를 이어 관을 만들도록 하여 옛적의 폐습을 고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는 의견을 재가한 바 있다.

황장봉산의 목재는 국가용재였으므로 왕은 흔히 신하의 장례에 관을 만들도록 황장재를 내려준 사례가 많다. 『속대전』에 의하면 1746년(영조 22)에는 황장봉산이 경상도에 7개소, 전라도에 3개소, 강원도에 22개 소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이것은 더 증가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제를 읊은 한시

김창협, 「대승폭포」, 『농암집』

위로는 푸른 벼랑 하늘을 가려 蒼厓上塞天
천 길 철벽을 쌓은 듯하고 千仞立積鐵
아래로는 밑이 없는 골짜기라 下有無底谷
깊디깊은 땅속을 갈라놓았네 豁豁九地裂
폭포수 이 길로 쏟아지거니 奔泉此借道
험한 지형 피할 겨를 없자 未暇避險絕
더 이상 의심 없이 곧장 떨어지니 直下更無疑
용맹한 결단에 내 탄복하였네 舍我服勇決

소나무 위로 아스라이 떨어지자 縹緲杉松表
골짜크 안에 물안개 피어나는데 霏微澗谷中
바람에 물줄기 흩어져 날리니 風吹不成水
햇빛에 홀연히 무지개 뜨네 日映忽生虹
멀리 흰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迥入白雲去
은하수 닿을 듯 높기도 하네 高疑銀漢通
누대에서 둘러보니 더욱 뛰어나 窺臨臺更勝
가을빛이 단풍을 물들여가네 秋色倚丹楓

곡운 김수증은 대승폭포를 감상하기에 적당한 바위를 자연대(紫煙臺)라 부르고 그곳에 구천은하(九天銀河)란 글을 새긴다. 조카인 창협은 그곳에서 폭포를 바라보며 시를 한 수 남긴다. 주저 없이 떨어지는 폭포수. 검붉은 바위 위로 하얗게 선을 굿다가 안개로 피어오르자 나도 절로 탄성을 질렀다.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이다.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자이고, 영의정을 지낸 창집(昌集)의 아우이다. 아버지는 영의정 수항(壽恒)이다. 청풍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진도에서 사사되자, 사직하고 영평(永平)에 은거하였다.

그의 문장은 단아하고 순수하여 구양수(歐陽修)의 정수를 얻었으며, 그의 시는 두보(杜甫)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고상한 시풍을 이루었다. 특히, 문장에 능하

고 글씨도 잘 썼다. 저서로는 『농암집』·『주자대전차의문목(朱子大全筭疑問目)』·『논어
상설(論語詳說)』·『오자수언(五子粹言)』·『이가시선(二家詩選)』 등이 있고, 편저로는 『강
도충렬록(江都忠烈錄)』·『문곡연보(文谷年譜)』 등이 있다.

대승목포



인제읍지 麟蹄邑誌

『인제읍지(麟蹄邑誌)』 : 도광(道光) 23년(1843)에 당시 현감 강기(姜耆)에 의하여 『인제현읍지(麟蹄縣邑誌)』가 작성되었다. 이것은 『관동읍지(關東邑誌)』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명칭은 『인제현읍지(麟蹄縣邑誌)』다. 여기에 많은 부분이 가필(加筆)된 것이 『인제읍지(麟蹄邑誌)』이고, 이 속에 『인제지속집(麟蹄誌續輯)』이 있다. 여기서는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고, 『인제지속집』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읍선생안(邑先生案)에 정기항(鄭基恒) 현감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정기항 현감 때 가필이 있었던 것 같다.



해동지도2

海東地圖(古4709-61)는 정상기의 原本 河東鄭氏 계열의 사본 지도로 규장각 소장 지도 중에서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舒川이 始興으로 표기되어 있고 충청도 魯城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1800년 이후에 제작되었다. 또한 1822년 함경도 厚州府가 처음으로 설치되는데 이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1822년 이전에 그려졌다고 추정된다.

인제지속집(麟蹄誌續輯)

- 동쪽으로 정령(丁嶺)에 이르면 양양과 경계로 90리 거리고, 미시령과 간령(間嶺)은 간성과 경계를 이루는데 80리 거리다. 서쪽으로 두무동이 양구와 경계를 이루는데 55리가 되고, 남쪽은 가수현(加水峴)이 춘천과 경계가 되는데 45리 거리다. 건니현(乾泥峴)은 홍천의 경계로 55리다. 북쪽으로는 삼치령(三峙嶺)이 고성과의 경계로 100리, 회전령(檜田嶺)은 회양과 경계로 130리이다. 읍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370리로 5일간 걸어야 한다.

- 고을의 내력
신라 때는 이름이 오족현(烏足縣)이었다. 당 고종 시에는 백제가 멸하고 고구려시에는 서성현(瑞城縣)이라 했다. 고려 태조 시에는 저족현(猪足縣)이었으며, 지금은 인제현이나 언제 이름을 바꿨는지 알 수 없다. 원주진영에 속하며 관원은 현감 1명이다.

- 군명(郡名)
인제(麟蹄). 영소(靈昭)나 설산(雪山)이라고도 불렀다.

- 행정구역
 - 현내읍(縣內邑) 고려 태조시 저족현(猪足縣)이었다.
 - 동면(東面) 현의 동쪽 30리에 있다.
 - 남면(南面) 현의 남쪽 10리에 있다.
 - 북면(北面) 현의 북쪽 20리에 있다.
 - 서화면(瑞和面) 현의 북쪽 30리에 있다. 본 면의 이포리(伊布里)는 120리 거리다. 신라 때에는 오족현(烏足縣)이라 하였다. 본 면의 서화리는 현의 북쪽 20리에 있다. 고구려 때에 서성현(瑞城縣)이라 하였다. 모두 5개 면이다.

- 성씨
심(沈), 김(金), 최(崔), 이(李), 정(鄭), 박(朴), 권(權)

○ 산천

- 기룡산(起龍山): 현의 북쪽 2리에 있다. 현의 진산으로 금강산의 줄기다.
- 아미산(峨嵋山): 현의 서쪽 3리에 있다. 양구 두술산의 줄기다.
- 비봉산(飛鳳山): 현의 서쪽 4리에 있다. 강릉 오대산 줄기다.
- 만호대(萬戶臺): 현의 동쪽 5리에 있으며, 비봉산 줄기다.
- 홍진포(紅塵浦): 현의 동쪽 3리에 있다.
- 팔봉산(八峯山): 현의 남쪽 5리에 있다. 아미산의 줄기다.
- 용소(龍沼): 현의 남쪽 5리 팔봉산 밑에 있다. 소가 크고 깊어서 수심을 알 수 없다.
- 대암산(大巖山): 현의 북쪽 50리에 있다. 금강산의 줄기다.
- 지리산(智異山): 현의 동쪽 60리에 있다. 설악산의 줄기이다.
- 대승폭포(大勝瀑布): 현의 북쪽 65리에 있다. 한계산에 있으며 떨어지는 물이 수백 척이다.
- 삼치령(三峙嶺): 현의 북쪽 100리에 있다. 고성과 경계가 되며 금강산과 이어지는 줄기다.
- 회전령(檜田嶺): 현의 북쪽 130리에 있다. 회양과 경계가 되며 금강산과 이어지는 줄기다.
- 간령(間嶺): 현의 북쪽 80리에 있다. 간성과 경계가 되며 삼치령과 이어지는 줄기다.
- 미시령(彌矢嶺): 현의 동쪽 80리에 있다. 양양, 간성과 경계가 되며 간령과 이어지는 줄기다.



만호대



용소

- 정령(丁嶺): 현의 동쪽 90리에 있다. 양양과 경계가 되며 오대산과 이어지는 줄기다.
 - 두무동현(斗武洞峴): 현의 서쪽 55리에 있다. 양구와 경계가 되며, 양구의 두솔산과 이어지는 줄기다.
 - 가수현(加水峴): 현의 남쪽 45리에 있다. 춘천과 경계를 이루며 건이현과 이어지는 줄기다.
 - 건이현(乾泥峴): 현의 동쪽 50리에 있다. 홍천과 경계를 이루며 춘천의 가리봉(加里峰)과 이어지는 줄기다.
 - 황장산(黃腸山): 현의 동쪽 50리에 있다. 설악산의 줄기로 양양과 경계를 이룬다.
 - 오색령(五色嶺): 현의 동쪽 70리에 있다.
 - 곡백담금산(曲百潭禁山): 현의 동쪽 70리에 있다. 양양과 경계가 된다.
 - 용대금산(龍垓禁山): 현의 북쪽 80리에 있다. 간성과 경계가 된다.
 - 합강(合江): 현의 동쪽 5리에 있다. 합강리 마을 앞을 흘러내리는데 하류는 춘천과 경계가 된다.
- 지역 특산물
 당귀, 창목(蒼木), 인삼, 청밀(淸蜜), 금은화(金銀花), 작약, 마포(麻布), 금인어(金鱗魚), 열목어.
- 관청에서 지은 건물
 영소관, 수선각(睡仙閣), 무고(武庫), 곡창(穀倉)
- 정자
 합강정: 6칸으로 아래 두 물줄기가 있다. 을축년(1865)년에 현감 박종영(朴宗永)이 중수하였다.
- 관방(關防), 봉수(烽燧), 명현총묘(名賢塚墓), 인물(人物), 명현(名賢), 충절(忠節), 효자(孝子) 모두 없다.¹

1 기존의 항목에 더 추가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 토지의 총 결수

원결(元結): 202결 55부 1속

매결(每結): 25양식(兩式) 가전(價錢) 5,063량 7전 8푼

대속결(大粟結): 130결 30부

매결(每結): 20양식(兩式) 가전(價錢) 2606량

○ 호구의 총 수

살림집: 1613호. 매호(每戶) 3양식(兩式) 4839량

화전민: 565호. 매호 2량 5전씩 1412량 5전

읍선생안(邑先生案)²

- 박제승(朴齊崧): 1844년 5월 3일에 통례원(通禮院) 인의(引儀)로 있다가 왔다. 1848년 12월 22일 사과(司果)로 갔다.
- 송종문(宋鍾聞): 1848년 12월 22일에 군자감(軍資監) 주부로 있다가 왔다. 1851년 2월 26일 재임 중 사망하였다.
- 남희중(南義重): 1851년 3월 3일에 진령(殿令)³으로 있다가 왔다. 1854년 3월 16일 고성(高城)군수로 이배(移排)되었다. 선정비(善政碑)가 있다.
- 김현초(金顯初): 1854년 3월 8일에 제용감(濟用監)⁴ 판관(判官)으로 있다가 왔다. 1856년 12월 27일 풍기(豊基)군수로 이배(移排)되었다. 선정비가 있다.
- 이만익(李晩翊): 1856년 12월 27일 정능령(貞陵令)⁵으로 있다가 왔다. 1860년 1월 20일 상(喪)을 당하여 사퇴하였다.
- 이인회(李仁會): 1860년 2월 12일 경모궁령(景慕宮令)⁶으로 있다가 왔다. 1863년 6월

2 기존의 읍선생안에 가필된 부분만 다루었다.

3 령(令): 종 5품 벼슬.

4 제용감(濟用監): 궁중에서 쓰이는 모시, 마포, 인삼의 진헌(進獻) 및 의복과 사(紗), 포화(布貨)의 염직을 맡아보던 관청.

5 정릉령(貞陵令): 조선 태조의 계비(繼妃) 신덕왕후의 능을 관리하는 종 5품의 벼슬.

6 경모궁령(景慕宮令): 사도세자와 그의 비인 현경왕후의 사당을 관리하는 종 5품의 벼슬.

4일에 구전(口傳)에 의하면 간성(杆城)군수로 이배(移排)되었다고 한다. 선정비(善政碑)가 있다.

- 박종영(朴宗永): 1863년 6월 10일 구전(口傳)에 의하면 검서관(檢書官)⁷으로 있다가 왔다고 한다. 1866년 12월 20일 경기도 양근(陽根)군수로 이배(移排)되었다. 선정비(善政碑)가 있다.
- 허 좌(許佐): 1866년 12월 20일까지 광흥창령(廣興倉令)으로 있다가 1867년 1월에 왔다. 같은 해 3월 16일 재임 중 사망하였다.
- 신석완(申錫完): 1867년 3월 22일까지 한성부(漢城府) 관관으로 있다가 4월 13일 도입(到任)하였다. 1870년 6월 8일 익산(益山)군수로 이배(移排)되었다. 선정비가 있다.
- 정숙조(鄭翹朝): 1870년 6월 8일 장릉령(長陵令)⁸을 지냈으며 7월 10일 도입(到任)하였다. 1873년 6월 16일 금천(金川)군수로 이배(移排)되었다. 선정비가 있다.
- 임백헌(任百憲): 1873년 6월 16일 장흥고(長興庫)주부에서 승배(陞拜)되었다. 1875년 7월 24일 창평(昌平)현령으로 승배(陞拜)되었다.
- 황의룡(黃義龍): 1875년 7월 24일 전생서(典牲署)관관에 제수(除授)되고 동년 8월 25일 도입(到任)하였다. 1880년 4월 25일 평창(平昌)군수로 갔다. 선정비가 있다.
- 강익수(姜翼秀): 1880년 4월 25일 경모궁령(景慕宮令)에 제수(除授)되었다가 같은 해 5월 27일 도입(到任)하였다. 1882년 2월 30일에 임기 중 사망하였다.
- 정헌시(鄭憲時): 1882년 3월 16일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⁹주사에 제수(除授)되었다가 4월 1일 도입(到任)하였다. 중시(重試)¹⁰에 합격하여 등과(登科)되어 떠났다.
- 정한규(鄭漢奎): 1882년 12월 24일 공조정랑(工曹正郎)에 제배(除拜)되었다가 1883년 1월에 도입(到任)하였다. 1884년 1월 10일 용담(龍潭)현령으로 이배(移排)되었다.
- 조창호(趙昌鎬): 1884년 1월 10일 사옹원(司饔院)주부에 제배(除拜)되었다가 2월 16일 도입(到任)하였다. 1885년 6월 29일에 경기도 시흥(始興)현령으로 승배(陞拜)하였다.
- 주만섭(朱晩燮): 1885년 6월 30일 석성(石城)현감으로 있다가 8월 15일에 도입(到任)하였다. 같은 해 10월 10일 함경도 홍원(洪原)현감으로 승배(陞拜)되었다.

7 검서관(檢書官): 규장각의 한 벼슬.

8 장릉령(長陵令): 파주군 갈산리에 있는 인조와 왕후 한씨의 능을 관리하는 종 5품의 벼슬.

9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청나라 제도를 본떠 베푼 군국기무(軍國機務)를 관장하던 관청.

10 중시(重試): 당하관(堂下官)을 위하여 본 과거제도로 합격하면 당상관(堂上官)의 정삼품(正三品)의 품계를 주었다.

- 박성근(朴聖根): 1885년 10월 20일 왔다가 다음달 11월 6일자로 구전(口傳)에 의하면 은율(殷栗)현감과 자리를 바꾸었다고 한다.
- 정희섭(丁喜燮): 1885년 11월 6일 은율(殷栗)현감을 지냈는데 구전에 의하면 서로 자리를 바꾸었다고 하는데 1886년 2월 15일에 도임(到任)하였다. 같은 해 6월 풍기(豊基)군수로 이배(移排)되었다.
- 현제창(玄濟昶): 1886년 7월 22일까지 군위(軍威)현감을 지내다가 9월 10일 도임(到任)하였다. 같은 해 11월 24일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한진상(韓鎭庠): 1886년 11월 25일 관직에 오르고 1887년 1월 11일 도임(到任)하였다. 1888년 6월 13일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이문현(李文鉉): 1888년 6월 30일 까지 통천(通川)군수를 지냈으며, 8월 4일 도임(到任)하였다. 1889년 2월 5일 함경도 고원(高原)군수로 이배(移排)되었다.
- 안창렬(安昌烈): 1889년 2월 5일 경상도 하양(河陽)현감으로 있다가 왔다. 같은 해 2월 22일 흡곡(歙谷)현령으로 이배(移排)되었다.
- 방한칠(方漢七): 1889년 2월 22일 충청도 연원(延原)찰방으로 있다가 왔다. 같은 해 4월 7일 평창(平昌)군수와 자리를 바꾸었다.
- 홍승태(洪承泰): 1889년 4월 7일 평창(平昌)군수로 있다가 5월 10일 도임(到任)하였다. 1892년 7월 30일 충청도 평택(平澤)현감으로 이배(移排)되었다.
- 이교수(李教秀): 1892년 7월 30일까지 성균관 사예(司藝)¹¹로 있다가 9월 16일 도임(到任)하였다. 1893년 1월 25일 상(喪)을 당하여 사퇴하였다.
- 조한근(趙漢根): 1893년 7월 29일 경상도 순흥(順興)부사로 있었다. 1894년 6월 26일 도임(到任)하였다. 1895년 2월 15일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권용진(權溶鎭): 참의(參議)¹²로 있다가 1895년 4월 13일 도임(到任)하였다. 같은 해 12월 7일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김태진(金太鎭): 1896년 2월 30일 육품(六品)에 제수(除授)되고 음력 1897년 2월에 본 관직을 면(免)하였다.
- 정기항(鄭基恒): 1897년 3월 26일 외부(外部)의 주사(主事)에 제수(除授)되어 음력 1897년 3월 25일 도임(到任)하였다.

11 사예(司藝): 정 4품의 벼슬.

12 참의(參議): 정 3품의 벼슬.

『인제군 아사루대형승 제영문(麟蹄郡衙舍樓臺形勝題詠文)』

「늦게 인제에 이르러서」

붉은 여뀌 아래 배를 매고 繫舟紅蓼下

흰 모래밭 사이로 말 몰아가니 驅馬白沙間

높고 낮은 길에는 숲 그림자 지고 松影高低路

모든 산들은 가을 빛이며 秋光遠近山

산골의 농사일은 모자람 없고 峽農得無歎

인제현은 한산하기 그지없네 巖邑寂多閑

설악산 하늘의 반 가로지르니 雪嶽橫天半

내일 아침에 참으로 오를 수 있을까 明朝政可攀

을유(乙酉)년¹³ 가을에 관찰사 홍경모(洪敬謨)¹⁴. 동헌 현판에서.

「회문시인 ‘폭포를 보다’에 차운하다」

한 낮에 깊이 잠들어 머리털 드리우고 있는데 昏昏亭午睡毛垂

아전은 통 들고 갑자기 ‘기(奇)’자를 소리치네 小吏持筒忽叫奇

거뭇거뭇한 분박지¹⁵에 무수한 점은 噴簿紙中疎萬點

인제 태수의 폭포를 읊은 시일세 麟蹄太守水簾詩

계해(癸亥)년¹⁶ 여름

인제는 나의 선조이신 수우(守愚)공이 일찍이 부임한 현이다. 나는 못 낮지만 외람되어

13 1825년.

14 홍경모(洪敬謨): 1774(영조 50) ~1851(철종 2) 본관은 풍산. 자는 경수, 호는 관암·운석일민. 할아버지는 이조판서 양호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낙원이다. 1816년(순조 16) 별시문과에 급제했으며, 그뒤 대사성·이조참의에 올랐으나 1824년 관리 등용에 잘못이 있었다 하여 법성첨절제사로 좌천되었다. 그뒤 중용되어 헌종 때 대사헌·이조판서·호조판서·관동녕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 왕실상황을 시기별로 기록한 <관암전서>·<관암외사 冠巖外史>·<관암유사 冠巖遊史> 등이 있고, 남한산의 지지인 <중정남한지 重訂南漢志>, 역대 국명·성씨·연대를 기록한 <대동장고 大東掌攷>, 기로소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기사지 耆社志> 등을 편찬했다. 시호는 문정이다.

15 먹물을 뿌린 듯 거뭇거뭇한 얇은 종이.

16 계해(癸亥)년: 1863년.

운자를 맞추어 짓는다.

「경침(敬詹)¹⁷ 선생안 뒤에 느낌을 적다」
나의 선조님이 다스렸던 곳에 吾祖曾臨地
후손이 다시 발령 받았네 後孫復莅官
고을은 어찌나 아득한지 桐鄉何杳茫
수령이 오히려 편안하구나 梅閣尙平安
다스리는 마음 아직도 다르니 御下心猶別
선조 따르는 건 정말로 어려워라 追先政益難
다음 날 설악을 바라보면서 明朝看雪嶽
늙은이는 너그러움을 다짐하네 白首我懷寬

계해(癸亥)년 10월 상순에 6대손 박종영(朴宗永)¹⁸이 삼가 적음. 동헌현판에서
「수선각(睡仙閣)」

푸른 언덕에서 흰 담장으로 돌아오니 翠塢回來白粉牆
현감은 여기서 길게 휘파람 부네 使君於此嘯聲長
서리 내려 파초 질까 걱정하지 않으니 不愁霜落芭蕉病
국화 누렇게 피는 걸 서서히 볼 수 있기 때문 漸見秋花欲吐黃
그대 거처 고요하며 맑고 맑아라 公軒寂寂復澄澄
태수는 전생에 그림에 능하였나 太守前身是畫能
종일 향 사르며 옛 그림 펼쳐 놓고 盡日焚香開古畫
그림 앞에서 설악산 스님 마주하누나 畫前相對雪山僧

신사(辛巳)년 초여름에 온주(溫州)인 현감 이당(李墻)이 삼가 씀. 동헌현판에서.

「합강정 중수 상량문」

17 종영(宗永)의 선대조(先代祖)의 호.

18 박종영(朴宗永, 1804~1875): 1863년 6월에 인제현감으로 부임 하였다. 부임 후 그는 선정(善政)에 힘 썼으며, 인제와 관련한 여러 편의 시문(詩文)과 제문(祭文)을 남겼다.

삼산(三山)은 위로 금오(金鰲)와 설악(雪嶽)을 이고, 절벽에 모이는 두 물줄기는 백로주(白鷺洲)로 가운데가 갈리는데, 붉은 정자가 강을 베고 있다. 백 년 만에 중수를 하니 두 아름다움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 생각건대 동쪽 골짜기는 인제의 명승지로 일컬어지고, 두 강은 제비꼬리처럼 나뉘어져 있다. 대승폭포와 쌍용폭포에서 발원한 것이 세 모래섬에 보이는 것이 뚜렷하고, 오대산 우통(于筒)에서 떨어져 나온 줄기가 천 리를 달리는 것이 아득히 멀다. 제수(濟水)와 낙수(潑水)¹⁹가 그 사이에서 나오니 역원(酈元)의 길²⁰을 상고할 수가 있다. 증수(蒸水)와 상수(湘水)가 왼 쪽에서 만나니 한유(韓愈)²¹의 시(詩)가 전해주는 합강정(合江亭)이라는 이름의 정자가 이곳에 있다.

큰 고을의 만나는 곳에 세 강이 이미 흘러들어와 그대로 등왕각(藤王閣)²²의 옷깃이 되었고, 술한 골짜기의 물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연진(延津)²³의 칼이 되었다.²⁴ 위치한 곳이 현(縣)의 북쪽 5리 근처이다. 비록 제운(齊雲) 낙성(落星) 정간(井幹) 여초(麗譙)²⁵의 높고 화려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관동(關東)의 8경 중에 있으면서 월송(越松) 망양(望洋) 청간(淸澗) 경포(鏡浦)²⁶ 정자의 높고 널찍하며 맑은 명성에 어찌 양보하겠는가. 끝은 절개는 멀리 오세암(五歲菴) 옛터를 당기고 못 그림자와 여울 물소리엔 오래도록 삼연(三淵)옹의 빼어난 시귀(詩句)가 남겨져 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서까래와 지붕이 기울고 무너지게 되

19 제수(濟水)와 낙수(潑水): 중국의 하남성 산둥지방에 있는 강 이름.

20 역원(酈元)의 길: 중국 호남성 경계에 있는 상수(湘水)가 충양성 북쪽에서 증수(蒸水)와 합류하는 곳으로, 이른바 증상(蒸湘)이 하나가 된다.

21 한유(韓愈): 당(唐)나라 시대에 중국 하남성 창려(昌黎) 사람. 자는 퇴지(退之)며 시호는 문공(文公)이다. 저서로는 『한창려문집(韓昌黎文集)』이 있다.

22 등각(滕閣): 등각(藤閣)으로도 쓰이며, 등왕각(藤王閣)과도 같다. 당(唐)나라 태종의 동생인 등왕 이원영(李元英)이 홍주(洪州) 도독(都督)으로 있을 때 지은 누각의 이름.

23 연진(延津): 나루터 명칭. 당시에는 백마(白馬)와 여양(黎陽) 두 성의 서쪽에 있었으며 황하의 중요한 나루터였다. 후에 황하의 물길이 바뀌면서 매몰되었다. 옛터는 지금의 하남성 신향(新鄉)성 동쪽에 있다.

24 이순악이 1701년(숙종 27) 사망하여 장례를 치렀다가 1706년 부인의 별세로 묘소를 옮겨 부부를 합장(合葬)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진(晉)나라 때 뇌환(雷煥)이 용천(龍泉)과 태아(太阿)라는 두 보검을 얻어 그중 하나를 장화(張華)에게 주었는데, 후에 장화가 주살(誅殺)당하자 그 칼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뇌환이 죽은 뒤 그 아들이 칼을 가지고 연평진(延平津)을 지날 때 칼이 갑자기 손에서 벗어나 물에 떨어져 사람을 시켜 물속을 찾게 하였더니, 두 마리 용이 서리어 있을 뿐이고 보검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을 ‘연진검합(延津劍合)’ 또는 ‘연진지합(延津之合)’이라 하여 다시 합하게 되는 인연이나 부부가 죽은 뒤에 합장하는 것을 비유하게 되었다.

25 제운(齊雲), 낙성(落星), 정간(井幹), 여초(麗譙): 모두 중국에 있던 누정(樓亭)의 이름이다.

26 월송(越松), 망양(望洋), 청간(淸澗), 경포(鏡浦): 정자이름.

었다. 난정(蘭亭)²⁷의 큰 대나무와 무성한 숲이 때를 만나지 못한 한을 어찌 면하겠는가? 황학루(黃鶴樓)²⁸가 많은 눈과 폭우에 나그네는 쉽게 썩을까 걱정하고 주민들이 함께 탄식하였다. 이제부터 뛰어난 장소가 무색해지니 지나는 나그네가 손가락질하며 응당 태수가 풍류가 없음을 비웃었던 것이다.

현감 박종영(朴宗永)은 명가(名家)의 뛰어난 자질을 갖추어 현에 내려와 송계(松桂)의 수령 곽세후(郭細侯)²⁹처럼 선정(善政)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스스로 호산(湖山)을 얻게 하고, 등자경(滕子京)³⁰처럼 2년간 정사를 잘 돌본 후 누대(樓臺)를 수리하려고 이곳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고 슬퍼하였다. 신단(神壇)을 새롭게 하여 고을의 가운데 두었으나 향촉(香燭)과 폐백(幣帛)을 받들 곳이 없었다. 관찰사가 남북의 길을 통하는 것이 휘장의 반듯함에 머무르는 것 같아서 우뚝 홀로 있으니, 아마 천공(天公)³¹께서 불어 넘어뜨린 것 같다. 일관되게 하려 예전의 실질을 따라 지주(地主)가 경영(經營)에 힘을 쓰게 했다. 산은 가까워 황장목(黃腸木)은 쓰기도 남고, 곳집의 적축(赤仄)³²을 덜어내니 관리나 백성이 함께 완성을 즐거워하며 함께 하였다. 이에 위로 솟은 비각(飛閣)은 붉은 빛을 흐르게 하고 아래로 큰 강이 흰 색을 휘감는 것에 임하였다.

그 근원은 기린현에서 나오고, 만나는 곳은 세 갈래 길 십자 거리와 같은데, 처하고 있는 곳이 봉황대다. 갑자기 다섯 개의 대들보와 한 층의 누대가 나타난다. 맑은 내는 질펀히 흐르고 초승달은 용의 비늘에 빛난다. 평탄한 숲은 아득하고 지는 높은 따오기 등과 나란하다. 개천과 들판은 시야에 가득하니, 누각 밖에 누각이 있고 산 밖에 산이 있다. 마을이 가

27 난정(蘭亭):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서(蘭亭序)에 나오는 누정(樓亭)의 이름.

28 황루(黃樓): 황학루(黃鶴樓). 중국 호북성 무창(武昌)에 있는 누정(樓亭)의 이름.

29 곽세후(郭細侯): 후한(後漢) 시대 곽급(郭伋)을 말한다. 병주목(并州牧)이 되어 은정(恩政)을 베풀었다고 한다. 『후한서(後漢書)』 「곽급전(郭伋傳)」에 ‘河潤九里’라 하였는데, 황하(黃河)의 물이 연안(沿岸) 구리(九里)를 축축이 적시듯이 어진 태수의 선정(善政)이 백성들에게 스미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30 등자경(滕子京): (宋)나라 등종량(滕宗諫)을 말한다. 하남인으로 자가 자경(子京)이다. 범중엄(范仲淹)의 추천으로 대장각대제(大章閣待制)에 발탁되었다. 범중엄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 ‘政通人和’라 하였으니, 정치가 잘 행해지면 백성들이 화목하게 된다는 말이다.

31 천공(天公): 천제(天帝)와 동의어.

32 적축(赤仄): 동전(銅錢)과 동의어. 한(漢)나라에 적축(赤仄)이라는 돈이 있었다.

득 들어오니 받은 그대로 받이요 집은 그대로 집이다. 파릉(巴陵)³³의 뛰어난 경치가 이곳에 있고, 서호(西湖)³⁴의 열은 화장과 들어맞는다.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서로 친하고, 물은 푸르고 모래는 깨끗하다. 양쪽 언덕의 제비와 참새들이 와서 축하를 하니 세월이 바뀌고 만물이 변한 것이 몇 년이던가? 이에 날아갈 듯한 모양의 새로운 정자에 어찌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승휘(承輝)가 때마침 안찰사(按察使)의 임무를 맡았는데, 평소에 글을 쓰는 재주와 호공(胡公)³⁵의 행적으로 형주를 지나다 올라 구경하고 직분이 아닌 것을 알면서 범중엄(范仲淹)³⁶이 붓을 들어 「악양루기」를 지어 나가고 물러남에 모두 걱정이라는 것에 감회를 부쳤다. 비록 이태백(李太白)의 「황학루기(黃鶴樓記)」처럼 먼저 짓지 못했지만 소동파가 여산(廬山)³⁷의 낮선 나그네처럼 되는 것을 벗어나길 바라면서, 삼가 어진 수령의 자취를 적는데 아랑위(兒郎偉) 노래를 쓴다.

아랑위 들보를 동쪽으로 던지니, 동해의 붉은 해는 창살을 비추네. 창살 그림자 속으로 넓고 잔잔한 강 들어오고, 사람은 쌍무지개 뜨는 양쪽 거울 속에 있네.

아랑위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맑은 달 아래 쌍계 지나는 나그네가 시를 쓰네. 황학(黃鶴)³⁸은 천 년인데 사람은 멀리 가버리고, 비 개인 시내의 꽃 풀은 푸르름이 더하네.

아랑위 들보를 남쪽으로 던지니, 안개 낀 숲이 좌우에서 띠처럼 빛나네. 한계사(寒溪寺)의 아침 종소리에, 큰스님 법당에서 예불 올림을 알겠네.

아랑위 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니, 멀고 먼 서울 땅 북두성에 의지했네. 비단버선 발로 파도를 타고 나는 신선이여, 난간에 기대어 유리 빛 바라보네.

아랑위 들보를 위로 던지니, 빗물로 하늘은 흐릿하나 기운은 시원하고 상쾌하구나. 흰

33 파릉(巴陵): 중국 사천성 중경에 있는 지명(地名). 등자경(滕子京)이 건책을 받아 이곳 태수로 강임(降任)되었는데, 이듬해에 정사가 잘 되어 백성이 화합하니 피폐했던 일들이 흥성해졌다고 전한다.

34 서호(西湖): 중국 절강성 항주(杭州)에 있는 호수.

35 호공(胡公): 진(晉)나라 호위(胡威)를 말한다. 호위는 그 부친인 호질(胡質)과 함께 청렴하기로 이름을 떨쳤으며, 평춘후(平春侯)에 봉해졌다.

36 범중엄(范仲淹): 북송(北宋) 때의 이름난 재상으로 자는 희문(希文)이고 시호(諡號)는 문지(文正)다. 그가 쓴 「악양루기(岳陽樓記)」에서 “천하의 근심에 앞서 걱정하고, 천하의 기쁨은 나중에 기뻐한다.”라고 한 말은 유명하다.

37 여산(廬山): 중국 강서성에 있는 명산(名山).

38 황학(黃鶴): 정자를 비유한 말.

떠처럼 평평하게 퍼졌다가 두 깃 합쳐지고, 바람 부는 모래 벌의 새 어지럽게 날아오르네.

아랑위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우물처럼 흩어진 민기는 들판에 둥글게 있네. 백성들 장수하고 해마다 풍년들라, 높은 곳에서 제사 올리려 청소를 하네.

엎드려 비읍니다. 들보를 올린 뒤 강줄기는 천지와 더불어 오래도록 이어지고, 정자는 비바람에도 걱정 없기를. 합하면 필히 나누어지고 나누면 반드시 합해지나니, 나그네도 또한 저 물을 알지 않는가? 일으키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일으킴이 있나니, 내가 이것으로 이 정자에 이름 붙였다. 남포(南浦)³⁹의 구름과 서산(西山)⁴⁰의 비가 항상 주렴과 서까래 사이에 머물고 수많은 대나무와 구원(九腕)의 난초가 함께 정원의 섬돌아래 무성하기 바라네.

성상(聖上)⁴¹ 즉위 원년(元年) 갑자(甲子)⁴² 9월 상순에 관동안찰사 박승휘 지음

「합강정(合江亭)」

합강정에서 쉬면서 성은(聖恩)을 느끼며 合江林沐感君恩

십년 만에 정자에서 다시 술을 드네 十載紅亭更把樽

비바람 겪은 푸른 소나무는 높고 閱來風雨蒼松臥

물결에 다 씻기고 흰 돌만 남았네 洗盡波濤白石存

적은 봉급에 차라리 그만둔 도연명처럼 斗米寧辭彭澤縣

작은 배 타고서 무릉도원 찾고 싶구나 扁舟欲訪武陵村

무슨 일로 앞에 분들 이 땅에 살았는지 底事前賢棲此地

이제야 밝은 달이 마음에 비치네 至今明月照心魂

현감 박종영(朴宗永)

39 남포(南浦): 중국의 지명으로 광윤문(廣潤門) 밖에 있으며, 남포정(南浦亭)이 있음.

40 서산(西山): 중국의 산 이름으로 남창부(南昌府) 서쪽 30리에 있음. 왕발(王勃)의 〈등왕각(□王閣)〉이란 시에 ‘畫棟朝飛南浦雲 珠簾暮捲西山雨’라는 시귀가 있음.

41 성상(聖上): 고종(高宗).

42 갑자(甲子): 1864년.

「합강정에서 큰물을 보고」⁴³

두 강이 만나는 곳 이 높은 누대에서 二江交處此高臺
오월에 물결 보니 어찌나 장대한자 五月觀濤何壯哉
붉은 정자에서 솟구치는 물 기뻐하다가 且喜紅亭猶聳出
설악이 떠내려 올까 걱정스럽네 還愁雪嶽忽浮來
많은 나무 쓰러지니 산은 어찌됐을까 千章顛倒何山水
백 리 길 우르르 광광 땅이 울리네 百道砰訇出地雷
늙은이 보고서도 말하기 어려워 老子眼中難語水
예전에 본 바다 그리며 한 잔 술 드네. 曾看滄海一泓盃

옛적에 도암(陶庵)선생께서 일찍이 은거하셨는데, 정자 서쪽에 아직도 유적지가 있다. 이곳 현감으로 와서 옛 자취를 찾으니, 지금은 손수 심은 소나무 한 그루만 있다. 사시던 당시에 약기를 두드리던 홍취를 생각할 수 있다. 문집 중 7언 율시 한 수를 취하여 정자 도리에 새기고, 가을 햇볕과 같으며 양자강과 한수와 같이 깨끗한 선생님을 그리는 마음을 부친다.

정유(丁酉)년⁴⁴ 여름 후학(後學) 양주인(楊州人) 조기순(趙箕淳)⁴⁵이 삼가 씀

「증조부(曾祖父)⁴⁶의 시판의 대(臺)자 운(韻)을 따서 짓다」.

모래는 희고 골짜기 트인 강 모퉁이에 沙明峽坼古江隈
사월이라 향기로운 철쭉꽃 피었구나 四月芳菲躑躅開
관찰사 수레는 맥우(麥雨)⁴⁷ 속을 지나는데 刺史輜車隨麥雨
어진 선비 수레 옆에 소나무와 정자 있네 大賢邁軸傍松垓
교외에서 만난 두 강물 서쪽으로 흐르고 野迎二水西流去

43 『도암집(陶菴集)』에 기록과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도암집(陶菴集)』의 기록을 따라 번역한다. 제영 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二江交處此高垓 五月觀濤何壯哉 且喜江亭猶聳出 還愁雪岳忽浮來 文章顛倒何山水 百道砰訇出地雷 老中眼中難於水 曾看滄海一泓盃”

44 정유(丁酉)년:1837년.

45 조기순(趙箕淳): 1836년에 인제현감에 발령받았다가 1838년에 이임하였다.

46 증조 부(曾祖父):도암 이재를 말한다.

47 맥우(麥雨): 보리가 익을 무렵에 오는 비.

길은 삼산(三山)을 끼고 첩첩이 돌아가네 路接三山百疊回
 쓸쓸히 한계(寒溪)에서 이르러서 惻惻寒溪猶到耳
 텅 빈 정자에서 해는 지자 술잔 잠시 멈추네 空亭日暮且停盃
 정자 서쪽에 선조께서 머무시던 터가 있다.
 경자(庚子)년⁴⁸ 초여름 초하루에 증손(曾孫)인 관찰사 이광정(李光正) 쓰다.

「현관 위의 운에 차운하다」
 합강정 합강 모퉁이에 있어 合江亭在合江隈
 재자가인 날마다 잔치 벌이네 才子佳人日宴開
 때때로 바람 맞으며 기대서 멀리 보려고 時或臨風憑遠眺
 병약한 몸 지팡이 짚고 누대에 오르니 病能扶杖上層台
 높고 험한 산세는 천년되도록 의연한데 巒峻山勢千年古
 편평하게 퍼진 가을빛 온 들판으로 돌아오네 平鋪秋光四野回
 마음대로 물러나 맘껏 취하고 싶지만 縱欲退公謀一醉
 이 자리서 함께 마실 이 없어 한스럽구나 恨無此席共酬盃
 정유(丁酉)년 가을 상순에 군수 정기항(鄭基恒)⁴⁹

48 경자(庚子)년: 1840년.

49 정기항(鄭基恒): 1897년 3월 25일에 인제현감에 임명되었다.

東至丁嶺襄陽界九十里，彌矢嶺杆城界八十里，間嶺杆城界八十里。西至斗武洞楊口界五十五里，南至加水峴春川界四十五里，乾泥峴洪川界五十里指京路，北至三峙嶺高城界一百里，檜田嶺淮陽界一百三十里，邑距京都三百七十里五日程。

建置沿革

新羅時號曰烏足縣，唐高宗滅百濟高句麗時爲瑞城縣，王太祖時爲猪足縣，今爲麟蹄縣未知何年改號，鎮管屬原州，官員縣監一員。

郡名

麟蹄別號靈昭雪山。

坊曲

縣內邑治 王太祖時爲猪足縣。

東面在縣東三十里。

南面在縣南十里。

北面在縣北二十里。

瑞和面在縣北三十里，本面伊布里一百二十里，新羅時爲烏足縣，本面瑞和里在縣北二十里，高句麗時爲瑞城縣，合爲五面。

姓氏

沈金崔李鄭朴權

山川

起龍山 在縣主北二里，縣之鎮山金剛山落脈。

峨嵋山 在縣西三里，楊口兜率山落脈。

飛鳳山 在縣東四里，江陵五臺山落脈。

萬戶臺 在縣東五里，飛鳳山落脈。

紅塵浦 在縣東三里，邑之守口。

八峯山 在縣南里五里，峨嵋山落脈。

龍沼 在縣南里五里，八峯山下。巖石中匯爲沼，其深無底。

大巖山 在縣北五十里，金剛山落脈。

智異山 在縣東六十里，雪岳山落脈。

大勝岫 在縣北六十五里，寒溪山上有一水飛下長百尺。

三峙嶺 在縣北一百里，高城界連脈金剛山。

檜田嶺 在縣北一百三十里，淮陽界連脈金剛山。

間嶺 在縣北八十里，杆城界連脈三峙嶺。

彌矢嶺 在縣東八十里, 襄杆界連脈間嶺.

丁嶺 在縣東九十里, 襄陽界連脈五臺山.

斗武洞峴 在縣西五十五里, 楊口界連脈楊口兜率山.

加水峴 在縣南四十五里, 春川界連脈乾泥峴.

乾泥峴 在縣南五十里, 洪川界連脈春川加里峰.

黃腸山 在縣東五十里, 雪岳山落脈. 襄陽界.

五色嶺 在縣東七十里.

曲百潭禁山 在縣東七十里, 襄陽界.

龍垞禁山 在縣北八十里, 杆城界.

合江 在縣東五里, 合江里村前流下, 春川界.

土產

當歸, 蒼朮, 茯苓, 人蔘, 清蜜, 金銀花, 芍藥, 麻布, 金鱗魚, 熱目魚

館宇

靈昭館, 睡仙閣, 武庫, 穀倉

樓亭

合江亭 間數六間, 下有兩水, 乙丑縣監朴宗永重修.

關防, 烽燧, 名賢塚墓, 人物, 名賢, 忠節, 孝子 并無.

結摠

元結 合二百二結五十五負一束, 每結 二十五兩式價錢五千六十三兩七錢八分

大粟結 合一百三十結三十負, 每結 二十兩式價錢二千六百六兩.

戶摠

元戶一千六百十三戶 每戶三兩式四千八百三十九兩

山戶五百六十五戶 每戶二兩五錢式一千四百十二兩五錢

邑先生案

朴齊崧 甲辰五月初三日政以通禮院引儀來戊申十二月二十二日司果去

宋鍾聞 戊申十二月二十二日政以軍資監主簿來辛亥二月二十六日損世咸豐⁵⁰元年

南義重 辛亥三月初三日政以殿令來甲寅三月十六日政移排高城郡守有政碑

金顯初 甲寅三月初八日政以濟用監判官來丙辰十二月二十七日政移排豐基郡守有政碑

50 함풍(咸豐): 청나라의 연호로 원년은 1851년이다.

李晚翊 丙辰十二月二十七日政貞陵令來庚申正月二十日在喪去
 李仁會 庚申二月十二日政景慕宮令來同治⁵¹二年癸亥六月初四日口傳政移排杆城郡守有政碑
 朴宗永 癸亥六月初十日口傳政以檢書官來丙寅十二月二十日都政移排京畿道陽根郡守有政碑
 許佐 丙寅十二月二十日都政以廣興倉令丁卯正月來同年三月十六日損世
 申錫完 丁卯三月二十三日政以漢城府判官四月十三日到任庚午六月初八日政移排益山郡守
 有政碑
 鄭翹朝 庚午六月初八日政以長陵令七月初十日到任癸酉六月十六日政移排金川郡守有政碑
 任百憲 癸酉六月十六日都政以長興庫主簿陞拜乙亥七月二十四日都政陞拜昌平縣令光緒⁵²元年
 黃義龍 乙亥七月二十四日都政以典牲署判官除授同年八月二十五日到任庚辰四月二十五日
 都政排平昌郡守有政碑
 姜翼秀 庚辰四月二十五日政以景慕宮令除授同年五月二十七日到任壬午二月三十日損世
 鄭憲時 壬午三月十六日都政統理機務衙門主事除授四月一日到任登科呈遞
 鄭漢奎 壬午十二月二十四日都正以工曹正郎除拜癸未正月到任甲午正月初十日政移排龍潭
 縣令
 趙昌鎬 甲申正月初十日都政以司饗院主簿除拜二月十六日到任乙酉六月二十九日都政陞拜
 京畿道始興縣令
 朱晚燮 乙酉六月三十日都政以石城縣監移除八月十五日到任十月初十日都政陞拜咸鏡道洪
 原縣監
 朴聖根 乙酉十月二十日政除十一月初六日以口傳殷栗縣監相換
 丁喜燮 乙酉十一月初六日以殷栗縣監口傳相換丙戌二月十五日到任同六月都政移排豐基郡守
 玄濟昶 丙戌七月二十二日政以軍威縣監移排同年九月初十日到任十一月二十四日遞歸
 韓鎮庠 丙戌十一月二十五日政排丁亥正月十一日到任戊子六月十三日遞歸
 李文鉉 戊子六月三十日政以通川郡守移除八月初四日到任己丑二月初五日咸鏡道高原郡守移排
 安昌烈 己丑二月初五日政以慶尙道河陽縣監移除同年二月二十二日政以歙谷縣令移排
 方漢七 己丑二月二十二日政以忠清道延原察訪移除同年十月初七日政以平昌郡守相換
 洪承泰 己丑四月初七日政以平昌郡守相換五月初十日到任壬辰七月三十日政忠清道平澤縣
 監移排
 李教秀 壬辰七月三十日都政以成均館司藝九月十六日到任癸巳正月二十五日在喪去

51 동치(同治): 청나라의 연호로 원년은 1862년이다.

52 광서(光緒): 청나라의 연호로 원년은 1875년이다.

趙漢根 癸巳七月二十九日都政以慶尙道順興府使移除甲午六月二十六日到任乙未二月十五日遞歸

權溶鎮 參議乙未四月十三日到任乙未十二月初七日遞歸

金太鎮 建陽⁵³元年二月三十日以六品除授陰曆丁酉二月免本官

鄭基恒 以外部主事建陽二年⁵⁴三月二十六日政除排陰曆丁酉三月二十五日到任

麟蹄郡衙舍樓臺形勝題詠文

晚抵麟蹄縣

繫舟紅蓼下 驅馬白沙間 松影高低路 秋光遠近山
峽農得無歉 巖邑寂多閑 雪岳橫天半 明朝政可攀

乙酉秋觀察使洪敬謨 東軒懸板

次回看瀑詩

昏昏亭午睡毛垂 小吏持筒忽叫奇 噴簿紙中疎萬點 麟蹄太守水簾詩

癸亥夏宿源

麟蹄卽我先祖守愚公會莅縣也余以無肖猥叨繩武

敬詹先生 案後志感

吾祖曾臨地 後孫復莅官 桐鄉何杳茫 梅閣尙平安
御下心猶別 追先政益難 明朝看雪岳 白首⁵⁵我懷寬
歲癸亥十月上泮六代孫 宗永謹稿 東軒懸板

翠搗回來白粉墻 吏君於此嘯聲長 不愁霜落芭蕉病 漸見秋花欲吐黃
公軒寂寂復澄澄 太守前身是畫能 盡日焚香開古畫 畫前相對雪山僧

辛巳維夏溫州李縣監埴謹書 東軒懸板 題睡仙閣

合江亭重修上樑文

述夫三山上戴金鰲雪岳 攢壁二水中分白鷺 紅亭枕江 百年重修 兩美相合 念東峽稱麟蹄之勝 而兩江如燕尾之分 大勝雙瀑之發源 見三洲之歷歷 于筒五坵之落脉 馳千里之遙遙 濟灤出其

53 건양(建陽): 대한제국(大韓帝國) 건국 당시의 연호로 원년은 1896년이다.

54 건양이년(建陽二年): 1897년을 말하나, 이 해부터는 광무(光武)라는 연호로 개칭되었다.

55 백수(白首): 백신(白身).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

間 鄴元之經可攷 蒸湘會于左 韓愈之詩所傳肆以合江亭名在茲
 大都會處三江既入 居然成騰閣之襟 萬壑爭流到此爲延津之劍 居縣北五里之近 雖不及齊雲落
 星井幹麗譙之高華 在關東八景之中 亦何讓越松望洋清澗鏡浦之軒敞清名 直節遠挹五歲菴遺
 墟 潭影灘聲長留三淵翁秀句 祇緣歲年之久遠 遂致棟宇之欹傾 蘭亭之脩竹茂林 那免不遇之恨
 黃樓之蜜雪急雨 實有易朽之憂 居民興嗟 自此名區之無顏色 過客指點應笑太守之不風流
 縣監朴侯宗永名家芝蘭之姿 下縣松桂之宰郭細侯之九里河潤 人自得於湖山 騰子京之二年
 政通治先 修於樓觀 登茲四望慨然 一新神壇 處中央之州 可無奉香幣之所 巡部通南北之路
 若爲駐幃帷之方 巖然獨存 豈容天公之吹倒 貫之仍舊實 勞地主之經營 山近黃腸材木不可勝
 用 廩損赤仄 吏民樂與其成 於是上聳飛閣之流丹 下臨長江之繚白
 其源出麒麟之縣 會合如三叉路十字街 是處爲鳳凰之坵 突凡見五架樑一層樓 晴川演漾 暎細
 月於龍鱗 平林蒼茫 齊落霞於鶯背 川原盈視 樓外樓而山外山 村落入望 田爾田而宅爾宅 巴
 陵之勝賞在此 西湖之淡粧相宜
 鷗鷺相親 水碧沙明 兩岸 燕雀來賀 星移物換 幾秋 惟茲翼然之新亭 詎無奐焉之善頌 承輝適
 忝按節之任 素之授簡之才 胡公之行 部過衡 固知登覽 非職范老之授筆記岳 庸寓進退皆憂
 雖太白未着鶴樓之先鞭 庶子瞻免爲廬山之生客 恭疏賢侯之蹟 用助兒郎之呼
 兒郎偉拋梁東 扶桑紅旭照窗櫺 窗櫺影入平江澗 人在雙虹兩鏡中
 兒郎偉拋梁西 明月雙溪過客題 黃鶴千年人去遠 晴川芳草綠萋萋
 兒郎偉拋梁南 煙林暎帶鏡波涵 寒溪寺裡鐘聲早 知有高僧禮佛龕
 兒郎偉拋梁北 京國迢迢依斗極 羅襪凌波挾飛仙 憑軒一望玻璃色
 色兒郎偉拋梁上 天水空濛氣爽朗 練帶平鋪合兩襟 風颿沙鳥紛相颺
 兒郎偉拋梁下 閭閻井落環平野 民無天札歲豐登 厲祭坵高動掃灑
 伏願上樑之後 江流與天地長存 坵榭閱風雨無恙 合必分 分必合 客亦知夫水乎 成有毀毀有成
 吾以名斯亭也 南浦雲西山雨 常留簾棟之間 萬介竹九畹蘭 共茂堦庭之下
 聖上則祚元年甲子九月上瀚關東按察使朴承輝叙

合江休休感君恩 十載紅亭更把樽 閱來風雨蒼松臥 洗盡波濤白石存
 斗米寧辭彭澤縣 扁舟欲訪無陵村 底事前賢棲此地 至今明月照心魂
 知縣 朴宗永 題合江亭

合江觀漲

二江交處此高坵 五月觀濤何壯哉 且喜江亭猶聲出 還愁雪岳忽浮來
 文章顛倒何山水 百道砰訇出地雷 老中眼中灘於水 曾看滄海一泓盃

昔陶庵先生嘗棲隱於亭之西尚有遺墟余自出宰是縣爲訪舊蹟只有手植松一樹足以想當日考
繁之趣而又取集中七律一章刻揭亭楣以寓秋陽江漢之思歲丁酉夏後學楊州趙箕淳謹書

謹次曾王考板上詩用臺字

沙明峽垠古江隈 四月芳菲躑躅開 刺史輜車隨麥雨 大賢邁軸傍松垠
野迎二水西流去 路接三山白疊回 悵悵寒溪猶到耳 空亭日暮且停盃
亭西尚有先祖遺墟

庚子初夏朔日曾孫觀察使李光正書 題合江亭

次板上韻

合江亭在合江隈 才子佳人日宴開 時惑臨風憑率眺 病能扶杖上層垠
嶒嶸山勢千年古 手鋪秋光四野回 縱欲退公謀一醉 恨無此席共酬盃
丁酉仲秋上浣 郡守 鄭基恒

인제의 역사

인제향교(麟蹄鄉校)

향교라 함은 문묘(文廟)와 거기에 부속된 과거의 학교로서 제궁(齊宮)과 더불어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까지 계승된 지방 교육기관입니다. 인제 향교의 건립연대는 『인제군지(麟蹄郡誌)』 『인제향교지(麟蹄鄉校誌)』의 몇몇 자료



인제향교

집에 광해군(光海君) 2년 경술(庚戌1610)에 창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전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 이미 향교가 “현(縣)의 동쪽 1 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제향교의 최초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480년 그 이전으로 홍천(洪川:1398). 금화(金化:1402). 양구(楊口:1405) 향교와 같은 연대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광해군(光海君) 2년 경술(庚戌:1610)에 현감 이풍(李憑)이 중건(重建)하고, 광해 7년 을묘(乙卯:1615)에 현감 구인기(具仁基)가 군의 서쪽으로 옮겨지었으며, 또 영조(英祖) 갑자(甲子:1744)에는 현감 신진하(申鎭夏)가 군의 동쪽으로 옮겨 짓고, 소화(昭和) 갑술(甲戌:1934)년에는 수해로 인하여 군수 정하형(鄭河亨)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었습니다.

6.25동란으로 대성전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1954년 본 고장이 수복되면서 이승춘(李承春) 군수 재임 시 명륜당(明倫堂)을 중건하고, 1966년에는 유림(儒林)들의 정성으로 동서재(東西齋)를 세우고 이듬해에 삼문루(三門樓)를 중건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향교에서는 매년 2월과 8월에 제례를 봉행하고 있으며, 대성전에는 공자(孔子)를 비롯한 중국의 이름난 학자들과 우리나라 유현(儒賢) 등의 신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인제향교는 1985년 5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제10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병헌의 인제이야기 중에서)

인제를 읊은 한시

이지연(李止淵), 「대청봉」, 『희곡유고(希谷遺稿)』

청봉(靑峰)의 높이는 삼만 척 靑峰三萬尺
하늘 속 눈 가운데 보이네 天半雪中瞻
종묘에 신령이 모여든 듯 太室神靈積
어른의 기상처럼 엄정하구나 丈人氣像嚴
이미 만물 밖에 거처하니 已居羣物表
다시 조금도 덧붙일 것 없고 更莫一舉添
동해와 웅장함을 다투려 하니 東海爭雄地
비로봉(毘盧峰)이 감히 아우를 수 없네 毗盧不敢兼

대청봉은 하늘을 향해서 완만한 각도로 솟아오른다. 푸른 하늘과 서로 연결되기 때 문에 멀리서 보면 단지 푸르게만 보인다. 그러므로 청봉(靑峯)이라 부른다. 자연스럽게 하늘과 합쳐진다. 기세가 웅장하며 드넓고, 거침없으며 아득해 경계가 없는 경지. 옹혼(雄渾)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본다.

이지연(李止淵, 1777~1841). 1805년 증광문과 을과, 1806년 문과중시 을과에 각각 급제, 승문원에 등용되었고 주서를 거쳐 경연관이 되었다. 그 뒤 형조·이조·호조판서를 지내고 1837년 우의정에 오른다. 시호는 문익(文翼), 저서로 『희곡유고(希谷遺稿)』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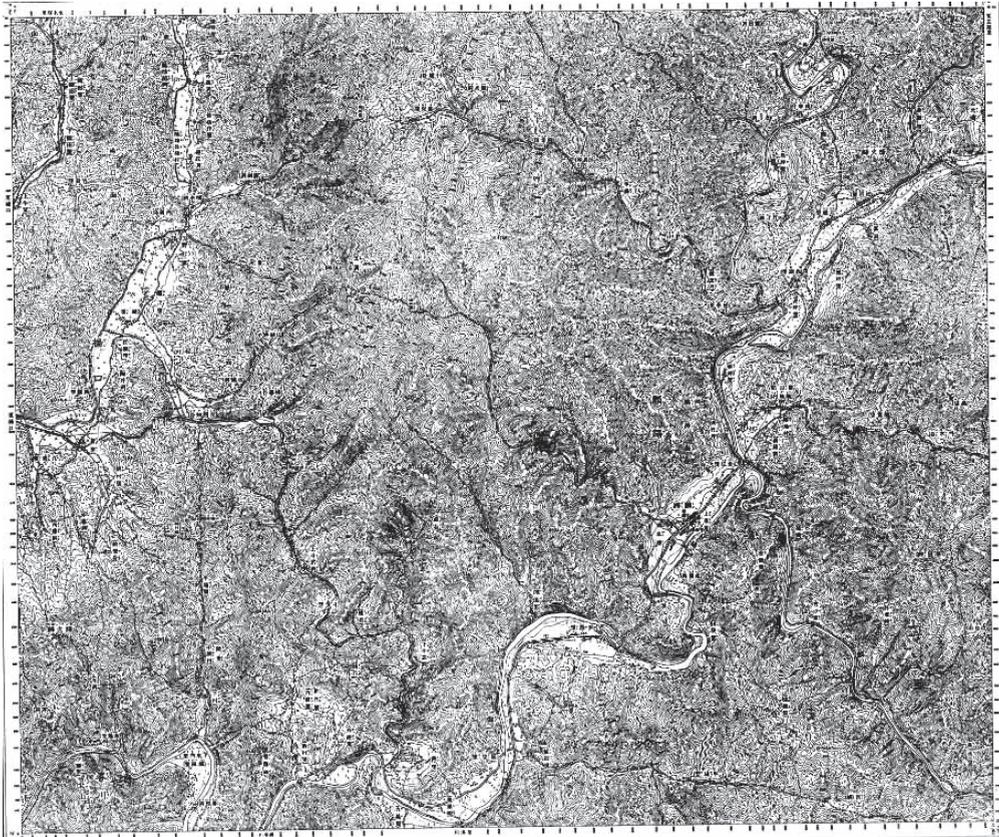


대청봉

강원도지江原道誌



『강원도지(江原道誌)』 : 1940년 강원도에서 주관하여 발간된 도지(道誌).



1910년대 제작된 지형도

일제가 한반도를 본격적으로 수탈할 목적으로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1914년에서 1918년까지 5년간 제작한 축척 1:50,000의 '근세한국 오만부지일 지형도'는 근대적인 토목공사에 의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인 구한말 한반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인제(麟蹄)

○ 고을의 내력

본래 고구려의 저족현(猪足縣) 【오사회(烏沙回)라고도 한다】 이다. 신라 때 희제(豨蹄)로 바꾸어 양록군(楊麓郡)의 소속된 현으로 삼았다. 고려 때 인제(麟蹄)로 개칭하여 춘천에 소속시켰다가, 다시 회양(淮陽)에 이속시켰다. 공양왕(恭讓王) 원년(1389)에는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太宗) 13년(1413)에는 고쳐서 현감(縣監)을 두었다.

○ 소속된 현(縣)

서화현(瑞和縣) 【화(和)는 화(禾)라고도 썼고 성(城)으로도 썼다. 군(郡)의 북쪽 6리¹에 있다. 본래 고구려(高句麗) 옥기현(玉岐縣)이었다.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치도현(馳道縣)으로 바꾸어 양록군(楊麓郡)의 령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高麗) 때 서화현(瑞和縣)으로 개칭하여 춘천에 이속시켰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이속시켰다. 조선 세종(世宗) 때 인제현(麟蹄縣)에 이속시켰다. 지금의 서화면(瑞和面)이다.】 고종(高宗) 32년(1895)에 군으로 개칭하였다. 49년(1912)에 강릉의 3개면²이 인제군에 이속되었다. 한일 합병 후에 그대로 따랐다.

○ 옛 군명(郡名)

저족(猪足). 오사회(烏沙回). 희제(豨蹄)

○ 위치(位置) 및 지세(地勢)

본도의 중앙에 있다. 동쪽으로 양양에 인접하고, 남쪽으로 평창 및 홍천에 인접하며, 서쪽으로 양구 및 춘천에 이어지고, 북쪽으로 회양(淮陽) 및 고성(高城)과 경계를 이룬다. 동서(東西)의 길이는 짧고 남북(南北)의 길이는 길다. 금강산 맥이 서북쪽으로부터 와

1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縣北六十里로 기록되어 있다.

2 3개면이 아니라 강릉(江陵郡) 내면(內面)의 내3리(內三里: 龍淵洞, 美山洞, 如車洞, 鵝溪洞, 坊內洞, 城內洞)가 인제군 기린면에 편입되었으며, 편입된 연도는 광무(光武) 10년(1906년)이다. 1914년 3월 행정구역 재조정시에 기린면의 미산동(美山洞)과 용연동(龍淵洞)이 강릉군(江陵郡) 내면(內面)으로 환원되었다가, 1939년 다시 강릉군(江陵郡) 내면(內面)일원이 다시 인제군으로 편입되었다.

서 무봉산(巫峰山). 대암산(大巖山). 설악산(雪嶽山) 등 여러 산을 만들었다. 인제강이 서화면(瑞和面)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소양강(昭陽江)으로 들어간다. 산악(山岳)이 중첩하여 본도의 가장 두메산골로 불린다. 논이 적고 화전(火田)이 많다.

○ 관직(官職)

- 현감(縣監), 훈도(訓導)³ 【각 1인. 고려(高麗) 문종(文宗) 때 각 도의 모든 현에 현위(縣尉) 1인을 두었다가 고종(高宗) 때 폐지되었다. 조선 초에 모든 군. 현에 모두 훈도(訓導) 1인을 두었다가 뒤에 폐지하였다.】
- 군수(郡守) 【1인】
- 군속(郡屬) 【8인】
- 경찰서장(警察署長) 【1인】

○ 성씨(姓氏)

- 본현(本縣): 박(朴), 허(許), 조(曹), 손(孫)
- 서화(瑞和): 최(崔), 현(玄), 이(李), 곡(谷). 소(邵) 【이상은 여람(輿覽)을 참고하였음】 심(沈) 【청송(靑松)】, 김(金) 【삼척(三陟)】, 이(李) 【평창(平昌)】, 박(朴) 【밀양(密陽)】, 최(崔) 【해주(海州)】, 길(吉) 【선산(善山)】, 정(鄭) 【연일(延日)】

○ 풍속(風俗)

근검을 숭상하고 공무(公務)를 받드는데 힘쓰며 교육을 장려하였다.

○ 형승(形勝)

산 돌 눈처럼 흰데, 은빛 폭포 비단처럼 걸려있네

○ 산천(山川)

- 기룡산⁴ 【군 북쪽에 있으며, 진산(鎭山)이다.】

3 훈도(訓導): 정9품의 벼슬.

4 기룡산(起龍山):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복룡산(伏龍山)으로 되어 있다. 와룡산(臥龍山)이라고도 하였다.

- 설악산 【동국여지승람에서는 한계산(寒溪山)이라고 일컬었다. 군 동쪽에 있다. 그 산의 돌은 하늘까지 맞닿아 있고, 색깔은 눈처럼 희어 설악이라고 부른다.

산꼭대기에 성터가 있다. 냇물은 성안으로부터 흘러나와 폭포가 되어 아래로 떨어지는데, 걸려있는 물줄기가 수백 척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워진 듯하다. 원통역으로부터 앞으로 가면 좌우가 모두 큰 산이다. 물이 모여 흐르는 골짜기는 깊고 조용한데 냇물이 이쪽저쪽으로 마구 흐른다. 건널목이 36개나 있다. 나무는 대나무처럼 위로 치솟아 하늘에 꽃꽂이 솟아 있는데 곁가지가 없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더욱 높아 그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다. 또 그 남쪽 봉우리는 절벽을 이루고 있는데, 높이는 만 길이나 되고, 모양도 괴상하여 무엇이라 형상하기 어렵다. 나는 새도 날아 넘을 수 없다. 길가는 사람은 그 돌이 무너져 깔릴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 아래에 맑은 샘물은 바위에 부딪혀 맑은 못을 이루는데 넓은 바위에는 앉을 수 있다. 도 동쪽 몇 리의 골짜기 입구는 몹시 좁은 데 실 같은 오솔길이 벼랑 따라 나 있고, 바위 구멍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봉우리와 산줄기가 힘 있고, 속기(俗氣)가 없어 용이 호랑이를 끌어당겨 움켜 쥔 듯 겹겹이 쌓아올린 것 같은 높은 대(台)가 수도 없다. 아름다운 경치는 영서(嶺西)에서 제일이다.

권우상(權佑相)의 기문(記文)에 설(雪)은 변함없는 빛깔을 말하고, 악(岳)은 빼어난 기상을 말한다. 그 골수는 모두 돌이니 설악이란 뜻이 거기에 모두 들어난다. 태조(太祖)는 금강에서 노닐고는 만 가지 변환을 으뜸으로 쳤다. 금으로 빛고 옥으로 쪼아 만든 듯 한 연꽃들이 꿈틀거리듯 하고, 동쪽으로 치달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절벽은 바로 바다를 지키는 중요한 관건의 하나이다. 불쭉불쭉 치솟아 하늘을 찌를 듯 번쩍이는 기세는 깃발 같기도 하고 홀 같기도 하다. 높이 나는 듯, 빙빙 돌며 나는 듯, 눈을 돌리면 닿는 곳마다 안개 노을 젖은 조용한 골과 첩첩이 겹친 험준한 산이 눈앞에 드러난다. 맑은 샘물은 평평 아저 산골을 가득 채우면서 맑은 돌을 깔고 다듬는다. 옥 같은 물이 고인 담은 절구처럼 되어 공이질 할 수 있는데, 물이 넘쳐 동으로 흐르기도 하고 고였다가 다시 북으로도 흐른다. 왼쪽으로 굽이지고, 오른 쪽으로 비탈져 꾸불꾸불 도는데 길게 자란 등나무와 늙은 상수리나무는 반쯤은 물에 잠기고 반쯤은 말라 죽었다. 빛 고운 새와 기이한 짐승들. 원숭이. 노루. 사슴. 등이 짝지어 수놈 따라 숲으로 내달리니 참으로 숨겨진 곳이오, 비밀스런 곳이다. 골짜기의 길이 다 끝나는 곳에 이르니 아득히 높은 절벽이 먹줄을 띄워 깎아낸 듯 곧게 깎여 엄청난 양의 물을 날리면서 흐른다. 걸면 한 필의 명주요. 꿰면 긴 무지개니 세속에서 말하는 대승폭(大勝

瀑)이다. 구슬을 굴리고 옥을 내뿜으며 우레 소리 울리며 번개가 번쩍번쩍, 물이 넘쳐 쿵쿵 치솟아 오르며 재빠르게 내닫는 장건한 기세는 산의 험한 기세를 허물어 버릴 듯한 골짜기에 광광 울려 퍼진다. 꽃처럼 날리고 눈처럼 흩어지는 물거품이 사람에게 달려들어 이마를 적시니, 부딪히는 힘이 그렇게 강한 줄 알만하다. 냇이 나가고 기운이 빠져 멍하니 있다가 한참만에야 정신을 수습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송악(松嶽)의 박연폭포(朴淵瀑布)와 신계(新溪)의 용연(龍淵)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지 결정짓기 어렵다. 물길을 버리고 백담사에 이르렀다. 법당(法堂)은 검푸른 빛을 띠고 있다. 삼한(三韓)때 세워진 것이라고 하니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다. 얼마쯤 떨어진 곳에 맑은 물이 수렴동(水濂洞)을 빔어 놓고 있다. 몽계구름 높이 뜨고 바람이 지나니 신선 사는 곳이 멀지않은 듯하다. 동봉(東峰) 김시습(金時習)의 오세암(五歲菴), 그리고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의 영시암(永矢菴)이 금강을 버리고 이곳에 지어져 허망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뜻을 부친 것은 참으로 까닭이 있도다.】

- 소동라령(所冬羅嶺) 【군 동쪽 7리⁵에 있다.】
- 소파령(所派嶺) 【군 북쪽 8리⁶로 간성군(杆城郡)과의 경계에 있다.】
- 미시파령(彌時坡嶺) 【군 북쪽 8리⁷에 있다.】
- 인제강 【여지승람(輿地勝覽)에서는 미륵천(彌勒川)이라고 했다. 군 동쪽 1리⁸에 있다. 그 근원은 넷인데 하나는 소동라령(所冬羅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파령(所派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서화현(瑞和縣)에서 나오고, 하나는 춘천부(春川府) 기린현(基麟縣)에서 나온다.】
- 주연진(舟淵津) 【군 서쪽 1리⁹에 있다. 인제강의 하류로 여름에는 배를 이용한다.】

○ 고적명소(古蹟名所)

- 이포소 【군의 북쪽에 있다. 옛날에는 춘천군(春川郡)에 속했으나 후에 세종(世宗) 갑진(甲辰:1424)년에 인제군으로 옮겼다.】
- 한계산고성 【둘로 쌓았는데 둘레가 6,178척이고, 높이가 4척이다. 성안에 우물자리

5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70리로 되어 있다.
 6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82리로 되어 있다.
 7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80리로 되어 있다.
 8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5리로 되어 있다.
 9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9리로 되어 있다.

가 있다. 지금은 반쯤 무너져 있다.】

- 김부리 【남면 김부리에 있다. 옛날 김부대왕(金傅大王)의 가마가 머무르던 곳이다.】
- 원통역 【군의 동쪽에 있다.】
- 마노역 【군의 서쪽에 있다.】
- 남교역 【군의 북쪽에 있다.】
- 임천역 【서화현(瑞和縣) 남쪽에 있다.】
- 가력원¹⁰ 【군의 동쪽 양양군(襄陽郡)의 경계에 있다.】
- 건이원 【군의 남쪽 홍천군(洪川郡)의 경계에 있다.】

○ 지역 특산물

철. 옥. 자단향¹¹. 안식향¹². 오미자. 자초. 인삼. 복령. 석심¹³. 봉밀. 영양. 백화사. 놀어¹⁴. 여항어¹⁵. 금. 황서피. 수달피. 산돼지. 사슴

○ 행정구역

- 인제면 【상동리. 남북리. 합강리. 덕산리. 덕적리. 귀둔리. 가리산리. 고사리. 가아리. 하추리. 원대리】
- 남면 【관대리. 남전리. 부평리. 신흥리. 두무리. 신월리. 어론리. 갑둔리. 김부리. 정자리】
- 북면 【원통리. 월학리. 한계리. 용대리】
- 서화면 【서화리. 서흥리. 천도리. 심적리. 장승리. 이포리. 서희리. 가전리】
- 기린면 【현리. 서리. 방동리. 북리. 진동리. 상남리. 하남리】
- 내면 【창촌리. 자운리. 광원리. 미산리. 울전리. 방내리】

10 가역원(加歷院): 삼연 김창흡 선생 문집에는 갈역(葛驛)으로 나온다.

11 자단향(紫檀香): 자단나무를 잘게 깎은 향. 약으로 쓰기도 한다.

12 안식향(安息香): 때죽나뭇과의 갈잎큰키나무. 잎은 알 모양인데 뽀족하고 어긋맞게 나며, 여름에 가지 끝에 잔 꽃이 핀다. 나무진은 향기가 길으므로 훈향료, 방부제, 소독제로 쓴다.

13 석심(石葷): 돌미나리

14 놀어(訥魚): 누치

15 여항어: 열목어. 물이 차고 맑은 하천 상류에서만 산다.

○ 호구(戶口)

- 12,217호 이다. 【일본인이 48호. 조선인이 12,164호. 외국인이 5호이다.】
- 69,817인 이다. 【일본인이 153인. 조선인 69,648인. 외국인 16인 이다.】

○ 토지(土地)

- 전(田) 12,020정(町)
- 답(沓) 2,701정(町)
- 대(垓) 379정(町)
- 잡종지(雜種地) 1정(町)
- 임야(林野) 196,477정(町)

○ 세액(稅額)

- 국세(國稅) 39,987원 【지세(地稅) 12,345원, 소득세(所得稅) 592원, 광세(鑛稅) 9,876원, 주세(酒稅) 15,811원, 영업세(營業稅) 451원, 상속세(相續稅) 234원, 세외수입(稅外收入) 678원】
- 도세(道稅) 32,773원 【지세부가세(地稅附加稅) 8,759원, 소득세부가세(所得稅附加稅) 12원, 광세부가세(鑛稅附加稅) 531원, 영업세부가세(營業稅附加稅) 232원, 호별세(戶別稅) 9,570원, 가옥세(家屋稅) 4,150원, 임야세(林野稅) 4,523원, 차량세(車輛稅) 881원, 도축세(屠畜稅) 373원, 부동산취득세(不動產取得稅) 2,394원, 세외수입(稅外收入) 1,348원】

○ 도로(道路)

- 춘천간성선 【188km】
- 인제홍천선 【48km】
- 홍천양양선 【128km】
- 진부창춘선 【48km】
- 인제양양선 【미개수. 이상은 지방도 이다.】

○ 교량(橋梁)

- 인제교 【군의 북쪽에 있으며, 인제 홍천 선에 있다.】
- 관대교 【남면에 있으며, 인제 홍천 선에 있다.】
- 서호교 【북면에 있으며, 춘천 간성 선에 있다.】
- 용대교 【북면에 있으며, 춘천 간성 선에 있다.】

○ 제방

- 원통방축 【군의 북쪽 원통리 서화천(瑞和川) 언덕에 있다.】

○ 관청 건물

객관, 관아, 동헌 【이우(李瑀)의 시(詩)에, 이 몸 어부 따라 들어가니, 물색(物色)이 선가(仙家)인양 놀랍네. 청명에 비 한차례 지나니, 복사꽃 살구꽃 일제히 피었네. 기장 술의 즐거움도 건디기 어려우나, 오히려 새벽차를 마시네. 오던 길 다시 찾으려하니, 산머리에 구불구불 비껴있구나.】 향청, 장관청, 군관청, 인리청, 대동청, 사창, 호적고, 군기고.

○ 관공서(官公署)

- 군청 【인제면 상동리에 있다.】
- 인제면사무소 【상동리에 있다.】
- 남면사무소 【관대리에 있다.】
- 북면사무소 【원통리에 있다.】
- 서화면사무소 【서화리에 있다.】
- 기린면사무소 【현리에 있다.】
- 내면사무소 【창촌리에 있다.】
- 경찰서 【인제면 상동리에 있다.】
- 남면주재소 【관대리에 있다.】
- 원통주재소 【북면 원통리에 있다.】
- 용대주재소 【북면 용대리에 있다.】
- 서화주재소 【서화리에 있다.】
- 기린주재소 【현리에 있다.】

- 내면주재소 【창촌리에 있다.】
- 상남출장소 【기린면에 있다.】
- 지방법원출장소, 연초관매소 【모두 기린면 상남리에 있다.】

○ 교원(校院)

- 향교(鄕校) 【인제군 동쪽에 있다. 처음에는 군의 북쪽에 있었는데, 광해군(光海君) 을묘(乙卯:1617)년에 현감 이치(李峙)가 군의 서쪽으로 옮겼으며, 순조(純祖) 갑자(甲子:1804)에 현감 신진하(申鎭夏)가 군의 동쪽으로 옮겼다. 소화(昭和) 갑술(甲戌:1934)년에 수재(水災) 때문에 군수 정하형(鄭河亨)이 이곳으로 옮겨서 세웠다.¹⁶

박영재(朴榮哉)의 기(記)

크도다! 건곤(乾坤)의 도여! 선천(先天) 세계와 후천(後天) 세계의 밝음을 이루었도다. 해와 달의 빛은 반드시 고금의 세계를 빠트림 없이 운행하여 넓은 하늘 아래를 두루 비치니, 어느 땅인들 해와 달의 빛 비치지 않으리오. 처음으로 향교가 본 읍에 건립된 것은 만력(萬曆) 을묘(乙卯)년이었는데 다시 신령스런 땅으로 옮겼으니 바로 건륭(乾隆) 갑자(甲子:1744)년이다. 선인이 기틀을 다진 정성을 생각해 보면 여러 선비들은 세월을 뛰어넘는 인재(人才)로, 그 풍화의 가르침을 입어 먼 곳의 벗들도 덕화(德化)에 물들게 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눈 먼 사람을 감동시켜, 비록 오랑캐 땅이라도 가서 백가지 행실의 순수함으로 영원토록 아름다운 복을 도맡게 하도록 장차 만전의 공고함을 기약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아! 경오년(庚午年) 6월 20일. 갑자기 북쪽 한줄기 물의 광포함이 산을 삼키고 언덕을 넘어 벌떼가 일어나듯 거센 기세로 지나갔다. 하늘까지 물이 불어 땅을 쪼개니 물결은 누애가 뽕잎을 갠아먹듯 땅을 갠아 먹었다. 누런 흙탕물을 바라만 보며 산악에서 비가 그쳐주기를 빌어 겨우 그치게 되었으니 “검은 구름인들 어찌 황천(皇天)의 돌보심을 어기겠는가.” 이 말이다. 우리 고을의 불행을 그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임금 때의 홍수는 우임금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 홍수를 이겨냈겠는가.

16 인제향교의 건립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각종 문헌을 종합해 볼 때 1480년 이전에 건립되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광해군(光海君) 2년(1610)에 현감 이치(李峙: 一名 李憑)이 중건(重建)하고, 광해군 7년(1615)에는 현감 구인기(具仁基)가 군 서쪽으로 이건(移建)하였으며, 영조(英祖) 갑자(甲子:1744)에는 현감 신진하(申鎭夏)가 군의 동쪽으로 이건(移建)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읍선생안(邑先生案)을 참고하면 현감 재직(在職)년도와 증개축(增改築)년대가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다.

상(商)나라가 수해를 피해 남쪽으로 터를 옮긴 것은 반경(盤庚)¹⁷일세. 대중이 호소하여 옮긴다 한들 사람들이 인(仁)을 택하지 않으면 어찌 하늘이 감춘 길지(吉地)를 알겠는가. 하늘은 반드시 좋은 땅을 감추어 두었다가 복을 내려 준다. 이 갑을(甲乙)년간을 넘겨 서북쪽 땅을 가려 성인들을 모실 집을 짓기 시작하여 오래지 않아 이루게 되었다. 공치사 같지만 우리들이 축원하는 기도를 특별히 하늘같이 큰 덕으로 여기시어 오르내리시니, 과연 정령(精靈)이 이에 계시며 흠향하심을 마침내 보게 되니 신성한 복이라.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 옳드려 바라건대 후학(後學)들의 진로(進路)가 서투르니 원컨대 살피주십시오. 흔흔히 기쁨에 젖어 모두가 진실로 숭배하오며, 끊임없이 따르며 찬양함을 가상히 여기소서.】

◦ 문묘(文廟) 【향교 안에 작은 규모로 위패를 배열하였다.】

○ 제사 지내는 곳

- 사직단 【군의 서쪽에 있다.】
- 성황사 【군 남쪽에 있다.】
- 여단(厲壇) 【군의 북쪽에 있었다.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다.】

○ 신사(神社)

- 신명신사 【인제면 상동리에 있다. 소화(昭和) 무진(戊辰:1928)년에 건립하였으며, 천조황대신(天照皇大神)을 제사 지낸다.】



인제읍내에 있는 신사터

17 반경(盤庚): 은(殷)나라 17대 왕. 상(商)의 도읍지를 황하 건너 남쪽으로 옮김.

○ 정자

◦ 합강정 【합강리에 있다. 서강(瑞江)¹⁸이 북쪽에서 흘러오고 기린천이 동쪽에서 흘러와 합류하여 그렇게 이름 지었다. 앞에는 중앙단(中央壇)이 있는데, 본도(本道)가 이곳에서 동서로 똑같이 나누어지므로 제단을 세우고 동서의 수령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물가가 맑고 모래가 희며 들판이 조금 넓어서 불만하다.

이응규(李應奎)의 시, 모래와 흰 돌 강이 합쳐지는 곳에, 샷갓 같은 정자가 중봉(中峰)에 빗겨 있네. 만호대는 춘몽인양 허허롭고, 중앙단엔 천추의 달빛만 예와 같네. 멀리 나는 해오라기 처마 끝에서 사라지고, 단소소리 여운에 취해 해 지는 줄 모르는데, 보이는 산천이 승경인지라, 예가 바로 인제의 명승이로세.

박영재(朴榮哉)의 시, 합강정은 합강 머리에 서 있고, 그림자만 합강에서 마음을 씻네. 기러기 날개 짓은 달 밝은 밤에 가볍고, 물고기 등은 흰 구름 뜬 가을에 무겁네. 세상사람 취하지 않은 날 없이, 신선 같은 노인들 수시로 와 노니네. 고금(古金)에 수호(修護)하던 일 부(賦)로 짓나니, 이리하여 이름이 영원토록 이어지리.

하상규(河尙奎)의 시, 두 물이 감돌아드는 돌 머리에, 높은 정자 흡사 이무기가 뿔어 놓은 누각일세. 동서(東西)로 갈리는 길 중앙의 경계, 남북(南北)의 벼꽃은 하나같이 가을빛이네. 좋은 땅 여러 해 세상 티끌 없으니, 술병 들고 한가한 날 반쯤은 신선놀이. 옛 건물 새로 지어 빛나고 성대하니, 옥패(玉佩)같은 금빛 문장 끝이 없으리.】

◦ 만호대 【군의 북쪽 비봉산 자락에 있다.】

◦ 봉미정 【군의 남쪽 비봉산 아래에 있다. 진사 이시영(李時榮)이 살던 곳이다. 그의 아들 익규(益奎)의 시, 옛날 나의 선친께서 이 정자 지으시고, 아름다운 이름 새겨 오래남기 꾀하였네.

단풍 진 한가을 초승달 희고, 찬물에 지는 해 저녁연기 푸르네. 옛 부터 문장가들 안취하는 이 없으니, 지금의 현달한 이들 누가 깨어 있을 건가. 예 오르니 더욱더 사모함이 간절해, 추도하는 마음이 가득 차누나.】

○ 사찰(寺刹)

◦ 백담사 【북면 용대리 설악산에 있다. 신라(新羅) 진덕왕(眞德王) 정미(丁未:647)년에 자장법사(慈藏法師)가 창건하여 한계사(寒溪寺)라 칭하고, 미타상(彌陀像) 삼위(三

18 서강(瑞江): 서화강(瑞和江). 서화에서 흘러내리는 강.

位)를 봉안 하였다. 신무왕(神武王)¹⁹ 경인(庚寅:690)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성덕왕(聖德王) 기미(己未:719)년에 중건하였으나 원성왕(元聖王) 을축(乙丑:1685)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²⁰. 경오(庚午:1690)년에 승려 종연(宗演), 광학(廣學), 각사(覺詞)²¹, 영희(靈熙), 법찰(法察), 설흙(雪洽) 등이 서로 도모하여 옛 터의 북쪽에 중건하고 운흥사(雲興寺)로 개칭하였다.²² 고려(高麗) 성종(成宗)²³ 갑신(甲申:1704)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사승(寺僧) 동훈(洞薰), 준희(俊熙) 등이 서로 도모하여 옛 터의 북쪽으로 이건하고 심원사(深源寺)로 개칭하였다. 조선(朝鮮) 세종(世宗)²⁴ 임자(壬子:1732)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갑인(甲寅:1734)년에 사승 의준(儀俊), 해섬(海暹), 취웅(翠雄), 신열(慎悅), 재익(載益), 재화(載和) 등이 서로 도모하여 옛 터의 아래에 중건하고 선귀사(旋歸寺)²⁵로 칭하였다. 계해(癸亥:1743)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정묘(丁卯:1747)년에 옛 터의 서쪽으로 이건하고 영취사(靈鷲寺)로 개칭하였다. 세조(世祖) 병자(丙子:1756)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정축(丁丑:1757)년에 사승 재화(載和), 신열(慎悅) 등이 옛 터로 이건하고 백담사(百潭寺)로 개칭하였다. 선조(宣祖)²⁶ 임진(壬辰:1772)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을미(乙未:1775)에 사승 최봉(最鵬), 대현(大賢).

19 신무왕(神武王): 신문왕(神文王)의 착오인 듯하다.

20 1985년 인제군에서 펴낸 『한계사(寒溪寺)』에 ‘조선조 세조 2년(1457)에 창건된 백담사가 영조 48년(1772)에 소실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 한계사라고 이름 하였던 절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그 증거로는 조선조에 만든 기와의 명문으로 ‘한계사선(寒溪寺禪)’이라 쓴 것과 함께 ‘숭정(崇禎)13년 기묘(己卯)’명, ‘순치(順治) 을미(乙未)’명 ‘강희(康熙)3년 갑진(甲辰)’명 ‘강희(康熙)22년 계해(癸亥)’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제작연대는 각각 서기 1639년 1655년 1664년, 1683년으로서, 한계사라고 하는 절이 1683년까지는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원성왕(元聖王)이 아닌 숙종(肅宗) 11년 을축(乙丑)에 불에 탄 것이다. 간지착오 900년.

21 각사(覺詞): 『백담사사적(百潭寺史蹟)』에는 각동(覺洞)으로 되어 있다.

22 김수증(김수증)의 『곡운집(谷雲集)』에는 1691년에 쓴 『한계산기』에 ‘고원통(古圓通)을 지나 한계사(寒溪寺)입구로 들어서니 모래 길에 송림(松林)이라, 풍악산(楓嶽山, 금강산(金剛山)) 장안동(長安洞) 입구를 방불할 만큼 여러 차례 냇물을 건너야 했다. 북쪽 한 골짜기 옆에 있는 절에 도착하여 이곳 주위를 살펴보니 말할 것 없이 가관이다. 뒤편에 있는 산봉우리나 고개들이 깊고 아득하여 멀리 보였다. 좌우에 있는 승방(僧房)은 새로 지은 판옥(板屋)이고 법당(法堂)은 이제 막 시작중이라 승도(僧徒) 10여명이 말할 틈도 없이 쉬지도 않고 바쁘게 움직였다.’라고 하였다,

23 숙종(肅宗) 20년.

24 영조(英祖) 8년.

25 선귀사(旋歸寺): 『백담사사적』에는 선구사(旋龜寺)로 되어 있다.

26 선조(宣祖): 『백담사사적』에는 영조(英祖)로 되어 있다.

태수(太守) 등이 서로 도모하여 중건하고 다시 심원사(沈源寺)²⁷로 칭하였다가 정조(正祖) 계묘(癸卯:1783)에 다시 백담사로 칭하였다.】

- 영시암 【백담사 산 안에 있다. 세조(世祖) 무자(戊子:1648)에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이 창건 하였다²⁸. 기사(己巳:1689)²⁹에 군수 이광구(李光矩)가 김삼연유허비(金三淵遺墟碑)를 세웠다.】
- 봉정암 【백담사 산 안에 있다. 신라 선덕왕(善德王) 갑진(甲辰:644)에 자장법사(慈藏法師)가 창건하고 5층탑을 세워 불사리(佛舍利)를 봉안 하였다.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중수하였다. 봉정암의 건립이 백담사 보다 앞선다.】
- 오세암 【백담사 안에 있다. 신라 선덕왕 갑진년에 자장법사가 봉정암을 창건할 때 관음암(觀音菴)을 세웠다. 조선(朝鮮) 세조(世祖) 병자(丙子:1456)에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 여기에 와서 머리를 깎고 검은 승복(僧服)을 입었다. 인조(仁祖) 계미(癸未:1643)³⁰에 설정선사(雪淨禪師)가 중수하고 오세암으로 개칭 하였다. 고종(高宗) 을축(乙丑:1865)³¹에 남호대사(南湖大師)가 해인사(海印寺)에서 대장경(大藏經)을 오세암에 봉안하였다. 지금도 매월당의 속상(俗



원명암터

27 심원사(沈源寺): 『백담사사적』에는 심원사(尋源寺)로 되어 있다.

28 『백담사사적』에는 인조(仁祖) 무자(戊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조(世祖)나 인조(仁祖) 둘 다 맞지 않는다. 불기(佛紀) 2675년은 숙종(肅宗) 35년(己丑)으로 서기 1709년이 된다. 또 한 삼연(三淵)선생이 입산한 해는 서기 1705년이므로 1709년에 영시암(永矢菴)을 창건한 것이 옳바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불기(佛紀)로 표기함에 있어 착오인 듯 하다.

29 1749년의 착오다. 이광구(李光矩)의 재임 기간은 1745-1749년이다.

30 「오세암경각중건기(五歲菴經閣重建記)」에는 건륭(乾隆) 신사(辛巳:1761)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설정선사(雪淨禪師)가 주로 활동한 연대는 1748년 후기임으로, 이 또한 불기(佛紀) 표기 과정의 착오로 보임.

31 고종(高宗) 을축(乙丑:1865)년은 남호선사가 해인사를 떠난 해이다. 실제로 장경(藏經)을 봉안한 해는 고종(高宗) 정묘(丁卯: 1867)년이다.

像)과 도상(道像)이 여기에 있다.】

- 원명암 【백담사 산 안에 있다. 숙종(肅宗) 병진(丙辰:1676)³²에 설정선사(雪淨禪師)가 창건하였다.】

○ 세거씨족(世居氏族)

- 청송심씨 【청성백(靑城伯) 백부(伯符)의 후손들이다. 남면 관대리. 북면 월학리에 살았다.】
- 삼척김씨 【목사(牧使) 태국(泰國)의 후손들이다. 월학리에 살았다.】
- 평창이씨 【한림(翰林) 천기(天驥)의 후손들이다. 인제면 상동리. 남북리에 살았다.】
- 밀양박씨 【규정(糾正) 현(鉉)의 후손들이다. 덕산리. 북면 원통리에 살았다.】
- 해주최씨 【문헌공(文憲公) 충(冲)의 후손들이다. 덕산리에 살았다.】
- 연일정씨 【문충공(文忠公) 몽주(夢周)의 후손들이다. 서화면 서흥리에 살았다.】
- 선산길씨 【충절공(忠節公) 재(再)의 후손들이다. 남면 구만리에 살았다.】

○ 종교(宗教)

- 불교 【9인】
- 기독교조선감리교 【320인】
- 천도교 【174인】

○ 교육(教育)

- 인제동심상소학교 【인제면 상동리에 있다.】
- 인제남심상소학교 【인제면 남북리에 있다.】
- 동부설추동간이학교 【인제면 추리(楸里)³³에 있다.】
- 동부설추대간이학교 【인제면 원대리(遠垔里)³⁴에 있다.】
- 관대심상소학교 【남면 관대리에 있다.】
- 동부설어론간이학교 【남면 어론리에 있다.】

32 정조(正祖) 병진(丙辰:1796)의 착오.

33 추리(楸里): 지금의 하추리다.

34 원대리(遠垔里): 지금은 원대리(院垔里)로 쓴다.

- 원통심상소학교 【북면 원통리에 있다.】
 - 서화심상소학교 【서화면 서화리에 있다.】
 - 장승심상소학교 【서화면 장흥리에 있다.】
 - 동부설이포간이학교 【서화면 이포리에 있다.】
 - 기린심상소학교 【기린면 현리에 있다.】
 - 창촌심상소학교 【내면 창촌리에 있다.】
 - 동부설광원간이학교 【내면 광원리에 있다.】
 - 동부설울전간이학교 【내면 울전리에 있다.】
- 공공사업(公共事業)
- 인제군농회 【인제군청 내에 있다.】
 - 창춘부업조합 【내면에 있다.】
 - 인제학교조합 【인제면에 있다.】
 - 인제소방조합 【인제면에 있다.】
 - 농촌진흥회부인회 【모두 각 면에 있다.】
- 통신(通信)
- 인제우편소 【인제면에 있다. 서울과 인제는 2일 내지 4일이 걸린다.】
 - 서화우편소 【서화면에 있다. 위와 같다.】
 - 창춘우편소 【내면에 있다. 위와 같다.】
- 금융(金融)
- 인제금융조합 【인제면에 있다.】
 - 동서화지소 【서화면에 있다.】
 - 동기린지소 【기린면에 있다.】
- 시장(市場)
- 인제시 【인제면. 2일. 7일.】
 - 관대시 【남면. 3일. 8일.】

- 원통시 【북면. 1일. 6일.】
- 서화시 【서화면. 3일. 8일.】
- 현리시 【기린면. 4일. 9일.】
- 창촌시 【내면. 2일. 7일.】
- 상남시 【기린면. 5일. 10일.】

○ 군선생(郡先生)

[이조]

이치(李峙), 신진하(申鎭夏), 정헌시(鄭憲時)

[병합]

강창희(姜昌熙), 정해운(鄭海運), 석명선(石明瑄), 심상희(沈相熹), 이동진(李東鎭), 오유영(吳維泳), 이은즙(李殷楫), 최만달(崔晚達), 임시재(任是宰), 김극일(金極一), 정하형(鄭河亨), 명인화(明麟華), 전재우(全在禹), 김학수(金學洙), 김촌주방(金村周邦) 【김주혁(金周赫)】

경찰서장 좌등룡남(佐藤隆男), 청산덕치(靑山德治), 굴강춘오랑(堀江春五郎), 소전행삼랑(沼田幸三郎), 원등국태(遠藤國太), 근등진등(近藤眞登), 원천직지(猿千直之), 좌등학송(佐藤鶴松), 광전전일(廣田專一), 덕구정중(德久貞重), 산전전남(山田辰男)

○ 문과(文科)

[고려]

- 현맹인(玄孟仁) 【우왕(禡王) 계해(癸亥:138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간(司諫)에 이르렀다. 이조(李朝) 태종 때 특별히 만호(萬戶)에 임명하였다.】
- 현숙(玄束) 【아마도 안동인(安東人)인 듯 하다. 음직(蔭職)으로 중랑장(中郎將)이 되었고, 우왕(禡王) 계해(癸亥:138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강릉부사(江陵府使)에 제수되었다가 가선(嘉善)으로 승진하였다. 이조(李朝) 때 벼슬은 전라도출척사(全羅道黜陟使)에 이르렀다.】

[이조]

- 정립(鄭立) 【연일인(延日人)이다.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후손으로 효종(孝宗) 때 생원이 되었다. 문과에 급제한 뒤 강원감사(江原監司)를 역임하였다.】

○ 무과(武科)

[이조]

- 김태국(金泰國) 【삼척인이다. 실직군왕(悉直郡王) 김위옹(金渭翁)의 후손이다. 선조(宣祖) 임진(壬辰:1592)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죽산(竹山)과 원주(原州)의 목사(牧使) 및 부사(府使)를 역임하였다.】
- 박준희(朴準熙) 【호는 추은(楸隱)이다. 밀양인(密陽人) 규정(糾正) 박현(朴鉉)의 후손이다. 성품이 호탕하고 완력이 남보다 뛰어나다. 고종(高宗) 때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임천(林泉)에 물러나 살면서 여생을 마쳤다.】

○ 사마(司馬)³⁵

[이조]

- 정도(鄭導) 【진사】
- 이형록(李亨祿)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의 후손으로 영조(英祖) 때 진사(進士)를 지냈다. 뜻과 기개가 고상하였으며, 경전(經典)의 뜻을 널리 궁구하였다. 성리학(性理學)에 마음을 다하였다. 일찍이 태학관(太學館)³⁶에서 노닐 때 선비들이 그를 추앙하여 중하게 여겼다.】
- 최영(崔瑛) 【호는 묵재(默齋)이고 해주(海州)인이다. 문헌공(文憲公) 최충(崔冲)의 후손으로 효성과 우애를 겸비하였으며, 문장을 성취하였다. 순조(純祖) 기묘(己卯:1819)년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으며 유고(遺稿)가 있다.】
- 신재병(申在秉) 【평산(平山)인이다. 순조(純祖) 때 진사를 지냈다.】
- 최기석(崔箕錫) 【호는 연사(研史)이고 문헌공 최충(崔冲)의 후손으로 시율(詩律)을 잘 했으며, 철종(哲宗) 때 진사를 지냈다. 유고(遺稿)가 있다.】
- 이회영(李晦榮) 【호는 운초(雲樵)로 평창(平昌)인이다. 산기상시(散騎常侍) 이천기(李天驥)의 후손으로 고종(高宗) 을유(乙酉:1885)년에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문학을 잘 했으며 천성적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3년 동안 시묘(侍墓)살이를 했다. 죽을 때 채색무지개가 그의 집에 뻗쳐 보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그 일이 오행실록(五行實錄)에 실려 있다.】

35 사마(司馬): 과거 제도의 하나.

36 태학관(太學館):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을 달리 이르는 말.

- 이시영(李時榮) 【호는 소란(小蘭). 산기상시 천기(天驥)의 후손이다. 고종(高宗) 임오(壬午:1882)년에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며 벼슬이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에 이르렀다.】
 - 이태규(李泰奎) 【이시영(李時榮)의 아들이다. 박학다식(博學多識)하였으며, 글을 잘 지었다. 고종(高宗) 무자(戊子:1888)년에 진사가 되었다.】
 - 김철규(金哲奎) 【고종(高宗) 때 진사를 지냈다.】
 - 이익규(李益奎) 【호는 벽남(碧南). 이시영의 둘째 아들이다. 집안의 학문을 잘 이어받아 문사(文詞)를 일찍 성취하였다. 고종(高宗) 신묘(辛卯:1891)년에 진사가 되었다.】
 - 박귀대(朴龜大) 【호는 춘미(春湄). 밀양(密陽)인 규정(糾正) 현(鉉)의 후손이다. 고종(高宗) 갑오(甲午:1894)년에 진사를 지냈다.】
- 사환(仕宦)³⁷
- [고려]
- 소광빈(邵光賓) 【평산(平山)인이다. 명종(明宗) 때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를 지냈다.】
- [이조]
- 심연(沈演) 【청송(靑松)인이다. 청성백(靑城伯) 심덕부(沈德符)의 후손으로 숙종(肅宗) 때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이르렀으며, 송학동(松鶴洞)에 물러나 살다가 죽었다.】
- 음사(蔭仕)³⁸ 부서사(附筮仕)³⁹
- [이조]
- 허상(許鎰) 【양천(陽川)인이다. 양천군(陽川君) 문정공(文正公) 허백(許伯)의 후손이다. 인조(仁祖) 때 음직(蔭職)으로 춘천부사(春川府使)가 되었다.】
 - 김노규(金魯奎) 【호는 죽사(竹史)이며 삼척(三陟)인이다. 목사(牧使) 김태국(金泰國)의 후손이며, 성품이 순수하고 온후하였으며 글을 잘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 빈궁한 사람을 구휼하였다. 고종(高宗) 때 통사랑(通仕郎)이 되었다.】

37 사환(仕宦): 벼슬. 또는 벼슬살이를 함.

38 음사(蔭仕): 음직(蔭職).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얻은 관직.

39 서사(筮仕): 처음으로 벼슬을 얻음.

- 이시익(李時益) 【호는 남일(南逸)이며 산기상시(散騎常侍) 천기(天驥)의 후손이다. 성품이 남보다 훨씬 뛰어났으며 작은 예절에 구속받지 않았다. 고종(高宗) 계묘(癸卯:1903)년에 수능(綏陵)참봉이 되었다.】
- 윤태익(尹泰益) 【호는 사해(史海)이며 과평(坡平)인이다. 문숙공(文肅公) 윤관(尹瓘)의 후손이다. 문학이 있었으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였다.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이 되었다.】
- 이창규(李昌奎) 【호는 동암(東庵)이며 산기상시(散騎常侍) 천기(天驥)의 후손이다. 성품이 순수하고 후덕하며 강직했다. 고종(高宗) 때 수능(綏陵)참봉이 되었다.】
- 이증운(李曾云)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후손이다.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이 되었다.】
- 안경순(安敬淳) 【순흥(順興)인이다.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후손이다.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이 되었다.】
- 박여국(朴汝國) 【통정대부(通政大夫) 박상훈(朴祥勳)의 아들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며 문학이 있었다. 재물을 나누어 곤궁한 사람을 구휼했으며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었다.】

○ 수직(壽職)⁴⁰

[이조]

- 이시옥(李時玉) 【호는 포암(浦庵). 평창(平昌)인이다. 산기상시(散騎常侍) 천기(天驥)의 후손이다. 성품이 단아하고 문학을 좋아했다. 가선(嘉善)에 수직되었다.】
- 정의원(鄭義元) 【호는 운헌(雲軒). 감사(監司) 정립(鄭昱)의 후손이다. 성품이 순수하고 중지를 중시하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침중추(僉中樞)에 수직되었고 가선(嘉善)에 올랐다.】
- 박상훈(朴祥勳) 【호는 德庵. 밀양(密陽)인이다. 규정(糾正) 박현(朴鉉)의 후손으로 통정(通政)에 수직되었다.】
- 장두선(張斗善) 【인동(仁同)인이다. 태사(太師) 장정필(張貞弼)의 후손이다. 통정(通政)에 수직 되었다.】

40 수직(壽職):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관원 및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벼슬. 노직(老職), 화직(華職)이라고도 한다.]

○ 문학(文學)

[이조]

- 이지선(李祉善) 【전주(全州)인이다. 진사(進士) 이형록(李亨祿)의 증손이다. 집안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명성이 자자했다. 종친의 추천으로 예빈시(禮賓寺)에 들어가 동중추(同中樞)에 이르렀다.】
- 박기주(朴基柱) 【호는 일수(一樹) 밀양(密陽)인이다. 규정(糾正) 박현(朴鉉)의 후손이다. 성품이 명민하며 천상(天象)과 인사(人事)에 두루 통달하였고, 경사(經史)를 깊이 연구하였다. 구름처럼 산수에 노닐다가 만년에 흙집을 짓고 시역림(詩易林) 상하 전질(全帙)을 저술하였다.】
- 김승도(金昇燾) 【호는 운암(雲岩). 삼척(三陟)이이다. 통사랑(通仕郎) 김노규(金魯奎)의 아들이다. 성품이 영특하고 널리 배웠으며 문장을 잘 지어 일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 최해철(崔海澈) 【초명(初名)은 학서(學瑞)이고, 호는 학서(鶴棲)이며, 전주(全州)인이다. 감무(監務) 최사흥(崔士興)의 후손이다. 문학이 넉넉하고 풍부하였으며 통정(通政)에 수직되었다. 유고(遺稿)가 있다.

○ 필원(筆苑)

[이조]

- 이원규(李元奎) 【호는 무우당(無憂堂). 산기상시(散騎常侍) 천기(天驥)의 후손이다. 성품이 맑고 편안하다. 시속(時俗)을 초월하여 옛 필법을 좋아하였으며 서화(書畫)를 잘했다. 특히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를 잘 써서 당세(當世)에 저명하였다.】

○ 효행(孝行)

[고려]

- 김정범(金敬範) 【효행으로 정려(旌閭)를 받았다.】⁴¹

[이조]

- 심춘택(沈春澤) 【일명 유태(裕澤)이라고도 한다. 호는 효목(孝睦)이며, 공조참판(工曹參判) 연(演)의 후손이다. 천성이 돈후하였다. 하늘로부터 타고나서 어렸을 때부터

41 조선시대 인물이나 잘못 기록되었다.

효성과 우애가 있었다. 어머니가 칠순이 되어 노환이 들자 몇 개월 동안 그 대변을 맞 보면서 하늘에 빌었고, 손가락을 끊어서 희생하시기를 빌었다. 모친상을 당하여 시묘(侍墓)살이를 했으며, 흘린 눈물로 소나무가 말랐다.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효자골’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림(士林)들이 여러 차례 관직에 천거하였다. 관에서 표창하여 상을 내리고 비각(碑閣)을 세웠다.】

- 현덕경(玄德卿) 【연안(延安)인이다. 중랑장(中郎將) 박(籜)의 후손이다. 성품이 온순하고 부모를 효성으로 모셨다. 모친이 병이 들자 손가락을 끊어 피를 흘려 드렸다. 사림(士林)들이 여러 차례 천거하여 관으로부터 특별히 표창을 받았다.】

○ 열부(烈婦)

[이조]

- 김씨 【삼척(三陟)인 진국(震國)의 딸이다. 풍양(豐壤) 조옥립(趙玉立)의 아내로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남편이 벼슬하러 나아가고 혼자 집에 있다가 피난을 하게 되었다. 수십 명의 도적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김씨를 겁탈하려 하자 죽음을 맹세하며 굽히지 않았다. 도적들이 그를 포박하여 쌓아놓은 쉼 위에 올려놓고 사방에서 불을 질렀다. 때마침 비와 눈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 죽지 않았지만, 머리 위에는 화상으로 종기가 생겨 끝내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숙종(肅宗)조에 세금을 면제하고 정려(旌閭)를 내렸다.】
- 김씨 【전주(全州)인 태용(兌容)의 딸이다. 해주(海州)인 최병근(崔秉根)의 아내로 나이 열여덟에 부친상을 당하자 따라 죽기를 맹세하였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성으로 봉양함에 조금도 게을리 함이 없었다. 고을에서 모두 칭송하였고, 사림(士林)들이 여러 차례 천거하여 열녀각(烈女閣)을 세웠다.】
- 이씨 【경주(慶州)인 동영(東榮)의 딸이다. 김해(金海)인 김병권(金秉權)의 아내로 정숙하고 단정하면서도 엄숙하였다. 시집 온지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대변을 맞보고 약 시중을 들었으며 제단을 쌓고 하늘에 기도하였다. 상을 당했는데 집이 가난하여 시집을 때 가지고 온 화장도구를 모두 팔아 상을 치렀다. 산에 안장한 후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나쁜 병에 걸리자 지성으로 약 시중을 들고 대변을 맞보며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죽자 즉시 따라 죽으려 했지만 어린 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있었기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손수 염습을 하여 10리 밖에 있는 산을 구해서 상을 치렀다. 아침이면 묘소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호랑

이가 지켜 주었다. 시아버지를 안장하고 이어서 그 남편을 안장함에 애통함이 예에 맞았다. 맑은 마음으로 절개를 지켰으며, 품팔이와 바느질, 절구질로 자식을 가르치는 비용을 마련해서 집안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사림(士林)들이 여러 차례 대사(臺司)에 천거하여 표창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열녀각(烈女閣)을 세우고 비를 세웠다.】

○ 규행(閨行)

[이조]

- 한씨 【청주(淸州)인이다. 평강(平康)인 채민영(蔡民永)의 아내로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겼다. 남편의 병이 위독해지자 하늘에 축원하여 자신이 대신하게 해 달라고 원했다. 남편의 상을 당하자 마음속으로 따라 죽기를 맹세하였다. 그러나 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있어서 마침내 처음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남편의 묘소를 돌보았는데 호랑이가 보호해 주었다. 사림(士林)에서 표창하였다. 승지(承旨) 달성(達成)인 서광필(徐光弼)이 비문(碑文)을 지었다.】
- 김씨 【삼척(三陟)인이다. 김희하(金禧河)의 딸로 양천(陽川)인 허희(許熙)의 아내다. 부덕(婦德)이 있었으며 효성으로 시부모를 모셨다. 불행히도 남편이 요절하였는데, 울며 보채는 아이도 있고 집 또한 가난하였으나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마침내 장례를 예법대로 치렀다. 나무하기와 베 짜기를 함께 하면서 자식을 가르쳐서 집안의 명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집안이 조화롭고 친척이 화목하니 이웃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 자선(慈善)

[이조]

- 정희수(鄭羲洙) 【연일(延日)인이다. 가선(嘉善) 정의원(鄭義元)의 아들로 가정의 가르침을 잘 이어 받았으며, 문학을 잘 하였다. 성품 또한 베풀기를 좋아하여 굶주리고 추운 사람을 보면 옷과 음식을 주었다. 길가에 송덕비(頌德碑)가 있다..】

○ 독지(篤志)

[이조]

- 김택연(金澤演) 【강릉(江陵)인이다. 명주군왕(溟州郡王) 주원(周元)의 후손으로 효

성스럽고 우애가 있었다. 불의를 보면 슬퍼 한탄하는 지조가 있었고, 굶주려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면 문득 구휼할 것을 생각하였다.】

○ 우거(寓居)

[이조]

- 이현보(李賢輔) 【호는 농암(叢岩). 영천(永川)인 현감(縣監) 흠(欽)의 아들이다. 허백(虛白) 홍귀달(洪貴達)의 문인으로 연산군(燕山君) 을묘(乙卯:1495)년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무오(戊午:1498)년에 문과에 급제 하였다.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지냈으며, 동부승지(同副承旨)와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이르렀다.】
- 이재(李緯) 【호는 도암(陶菴). 우봉(牛峯)인 충숙공(忠肅公) 만성(晩成)의 조카다. 현종(顯宗) 때에 문과 급제하여 관직은 대제학(大提學)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정(文貞). 서원에 배향되었다. 일찍이 인현왕후(仁顯王后)를 모시다가 와서 살았다.】
- 김상필(金商弼) 【경주(慶州)인 상촌(桑村) 자수(自粹)의 후손이다. 고종(高宗) 때에 양산(梁山), 산청(山淸), 거창(居昌), 경주(慶州) 등의 군을 다스렸다. 성품이 청렴하여 지나는 군. 현마다 치적이 있었다. 장례원부경(掌隸院副卿)에 이르렀다. 만년에 옮겨와서 살았다. 은파(隱坡)라고 스스로 호를 삼고 산수 속에서 읍조리며 살았다.】
- 한만성(韓萬晟) 【호는 우악(愚岳). 청주(淸州)인 판윤(判尹) 금강(金剛)의 후손이다. 성품이 영민하고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널리 배웠으며, 시부(詩賦)를 잘 했다. 함경남도 정평(定平)으로부터 와서 군의 동쪽 하추촌(下楸村)에 우거했다.】

○ 제영(題詠)

- 우승범(禹承範)의 시 【이 옛 고을은 얼마나 오래 되었나, 민가(民家)라야 겨우 여덟. 아홉뿐】
- 하연(河演)의 시 【맑은 산 깊고 깊어 수레와 말 탄이 오는 없고, 길 하나 오르락내리락 돌 개천 따라가네.】
- 성현(成愷)의 시 【다리를 건너도 관도(官道)는 멀고, 숲 속에 가려진 인가 두어 채. 땅 높은 곳이라 항상 눈 남아 있고, 깊은 산엔 아직도 피지 않았네. 처마 끝엔 추위와 참새들이 싸우고, 솔숲에 저녁바람 거세게 이니, 나그네의 수심은 더해만 가서, 턱 피고 있으려니 해는 이미 누엿누엿】



용소



○ 총담(叢談) 부기사(附記事)

- 상(喪)이 끝나는 날 집으로 돌아오다 【인제군의 동쪽 팔봉산(八峯山) 아래에는 용소(龍沼)가 있는데,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물고기가 많이 난다. 그 옆에 어부 조윤오(趙允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고기를 잡으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도달한 곳은 알 수 없으나 붉은 난간과 그림 같은 누각이 보이고, 그 속에 한 노인이 있다가 물었다. “너는 무엇 하는 사람이나?” 대답하기를 “저는 집이 원래 가난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졸지에 여기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노인이 말하기를 “불쌍한 사람이군.” 하였다. 그는 이틀 밤을 묵은 뒤 돌아가려고 집안 일이 너무 바빠서 가야한다고 말했다. 즉시 절을 하고 하직한 뒤 돌아왔는데, 집은 예전과 달랐다. 아내와 자식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슬프게 곡을 하고 있었다. 괴이하게 여기면서 그 까닭을 물어보니, 그 아내가 의아해 하면서 대답하기를, “남편이 고기 잡으러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지금 삼년상을 마치는 제사를 올리는 날입니다.” 하였다.】

○ 능묘(陵墓)

[고려]

- 평장사박원평묘(平章事朴元宏墓) 【기린면(麒麟面)하마로(下馬路)에 있다. 비록 높

은 관리라도 이곳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말발굽이 저절로 멈추어 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비를 세웠기 때문에 하마로(下馬路)라고 부른다. 묘소 아래에는 영당(影堂)이 있다.】



박원광묘역

○ 비판(碑版)

- 문정공 이재(李穡) 유허비 【인제면 합강리에 있다.】
- 의관 이시영(李時榮) 시혜불망비 【인제면 상동리에 있다. 비명(碑銘)은 다음과 같다. <의로운 재물 내놓고 어짊을 쌓아 빈궁한 사람들을 구휼하였다. 군에 혜택 베풀고 이웃에 덕을 다했다.】



이재 유허비

建置沿革

本高句麗猪足縣【一云烏沙回】新羅改猪蹄爲楊麓郡領縣 高麗改爲麟蹄屬春川 更移屬淮陽 恭讓王元年置監務 李朝太宗十三年改爲縣監

屬縣

瑞和縣【和一作禾一作城 在郡北六里 本高句麗玉岐縣 新羅景德王改馳道爲楊麓郡領縣 高麗改瑞和屬春川 後移屬淮陽 李朝世宗朝來屬 今瑞和面】高宗三十二年改爲郡 四十九年江陵郡三面來屬 併合後因之

舊郡名

猪足烏沙回猪蹄

位置. 地勢

在本道中央 東接襄陽 南隣平昌及洪川 西連楊口及春川 北界淮陽及高城 東西短南北長 金剛山脉自西北來爲巫峰大岩雪岳諸山 麟蹄江原出瑞和面 南流入昭陽江 山岳重疊稱本道最峽地 少水田多火田

官職

縣監訓導【各一人 高麗文宗置各道諸縣尉一人 高宗朝罷 李朝初諸郡縣皆置訓導一人 後罷】

郡守【一人】

郡屬【八人】

警察署長【一人】

姓氏

本縣 朴許曹孫

瑞和崔玄李谷邵【以上興覽】 沈【青松】 金【三陟】 李【平昌】 朴【密陽】 崔【海州】 吉【善山】 鄭【延日】

風俗

俗常勤儉 務奉公 獎教育

形勝

山石如雪 銀瀑掛練

山川

起龍山【在郡北爲鎮山】

雪嶽山【興覽稱寒溪山在郡東其石勢連天色白如雪故稱雪嶽山上有城媚川自城中流出即成瀑布而下懸流數百尺望之如白虹垂天自圓通驛而前左右皆大山洞府深邃溪水縱橫而渡者

三十六有樹木如簣上竦雲霄傍無橫枝松栢尤高不見其巔又其南峯作絕壁其高千仞奇怪莫狀禽鳥不能飛度行人疑遭壓墜其下清泉觸岩成潭盤石可坐又東數里洞口深峽細徑緣崖竅穴嗒呀峯巒峭拔如龍拏虎攫如累層坳者無數其形勝甲於嶺西

權佑相記雪言尙色岳言秀氣其髓蓋石也而山之名義著焉太祖金剛道甲萬幻金芙玉蓉蜿蜿東馳撐柱於九霄之堦乃海鎮關鍵之一也其起伏撞閃之勢如撞如笏若翥若翔觸眸各呈烟霞邃窟習坎靈源瀉出冲漠澗腮礪而磨玉潭腹白而容杵溢爲東滙爲北左沿右坨紆縈谿線而脩藤壽櫟半浸半翳彩羽異族獼猴磨麕之侶倩人走林眞奧區秘地也谷路將窮千仞石壁直斲其繩而萬斛飛流掛爲疋練貫爲長虹俗傳大勝瀑吐珠噴玉雷轟霆燁決決潰潰迅駛壯健之勢崩山峭峯應谷噌吰泡花浪雪逼人過類固知突激所使自不覺魄遞氣殭久而後整竊念松岳之朴淵新溪之龍淵抗顏頡頏未知其尤也捨流至百潭寺迦龕黝爛三韓已古數武許聚精而爲水濂洞蓬雲閩風去仙不遠金東峯五歲菴金三淵永矢菴脾金剛而粧點于此以寓逃空之趣者良有以也歟】

所冬羅嶺【在郡北七里】

所派嶺【在郡北八里杆城郡界】

彌時坡嶺【在郡北八里】

麟蹄江【輿地勝覽稱彌勒川在郡東一里其源有四一出所冬羅嶺一出所派嶺一出瑞和縣一出春川府基麟縣】

舟淵津【在郡西一里麟蹄江下流夏用舟楫】

古蹟名所

伊布所【在郡北 古屬春川郡 後世宗甲辰來屬】

寒溪山古城【石築周六千一百七十八尺 高四尺 內有缺井 今半頽落】

金富里【在南面金富里 昔日金傳大王輦處云】

圓通驛【在郡東】

馬奴驛【在郡西】

嵐校驛【在郡北】

臨川驛【在瑞和縣南】

加歷院【在郡東襄陽郡界】

巾伊院【在郡南洪川郡界】

土產

鐵漆紫檀香安息香五味子紫草人蔘茯苓石蕈蜂蜜羚羊白花蛇訥魚餘項魚金黃鼠皮水獺皮猪鹿

邑面町里

麟蹄面【上東里南北里合江里德山里德積里貴屯里加理山里古沙里加兒里下楸里院岱里】

南面【冠岱里藍田里富坪里新豐里斗武里新月里於論里甲屯里金富里亭子里】

北面【圓通里月鶴里寒溪里龍岱里】

瑞和面【瑞和里瑞興里天桃里深積里長丞里伊布里西希里加田里】

麒麟面【縣里西里芳東里北里鎮東里上南里下南里】

內面【蒼村里紫雲里廣院里美山里栗田里坊內里】

戶口

一萬二千二百七十七戶【內地人四十八戶 朝鮮人一萬二千六百六十四戶 外國人三十七戶】

六萬九千八百七十七人【內地人一百五十三人 朝鮮人六萬九千六百四十八人 外國人十六人】

土地

田一萬二千二十町

沓二千七百一町

岱三百七十九町

雜種地一町

林野十九萬六千四百七十七町

稅額

國稅三萬九千九百八十七圓【地稅一萬二千三百四十五圓所得稅五百九十二圓鑛稅九千八百七十六圓酒稅一萬五千八百一十一圓營業稅四百五十一圓相續稅二百三十四圓稅外收入六百七十八圓】

道稅三萬二千七百七十三圓【地稅附加稅八千七百五十九圓所得稅附加稅十二圓鑛稅附加稅五百三十一圓營業稅附加稅二百三十二圓戶別稅九千七十圓家屋稅四千一百五十圓林野稅四千五百二十三圓車輛稅八百八十一圓屠畜稅三百七十三圓不動產取得稅二千三百九十四圓稅外收入一千三百四十八圓】

道路

春川杆城線【一百八十八籽】

麟蹄洪川線【四十八籽】

洪川襄陽線【一百二十八籽】

珍富蒼村線【四十八籽】

麟蹄襄陽線【未改修以上地方道】

橋梁

麟蹄橋【在郡北 麟蹄洪川線】

冠岱橋【在南面 全上】

西湖橋【在郡北面 春川杆城線】

龍岱橋【在北面 全上】

堤堰

圓通防築【在郡北圓通里瑞和川岸】

公廨

客館官衙東軒【李堦詩 身隨漁子入 物色駭仙家 一過清明雨 齊開桃杏花 不堪嘗黍酒 猶可啜晨茶 更覓來時路 山頭曲線斜】 鄉廳 將官廳 軍官廳 人吏廳 大同廳 司倉 戶籍庫 軍器庫.

官公署

郡廳【在麟蹄面上東里】

麟蹄面事務所【在上東里】

南面事務所【在冠岱里】

北面事務所【在圓通里】

瑞和面事務所【在瑞和里】

麒麟面事務所【在縣里】

內面事務所【在蒼村里】

警察署【在麟蹄面上東里】

南面駐在所【在冠岱里】

圓通駐在所【在北面圓通里】

龍岱駐在所在【北面龍岱里】

瑞和駐在所【在瑞和里】

麒麟駐在所【在縣里】

內面駐在所【在蒼村里】

上南面出張所【在麒麟面】

地方法院出張所煙草販賣所【俱在麒麟面上南里】

校院

鄉校【在郡東初在郡北光海乙卯縣監李峙移建于郡西純祖甲子縣監申鎭夏移建于郡東昭和甲戌因水災郡守鄭河亨移建于此 朴榮哉記 大哉乾坤之道以成先後之天明矣日月之光必照古今之世不越乎變敢陳于運欽普天之下何地不中始建本邑粵自萬曆之乙卯更移靈地正當乾隆之甲子年先人肇基之誠宜諸士超世之材被其風化之由述遠方之朋漸于聲教之暨感流支之盲雖蠻可往既篤百行之溫永世純禧將期萬全之聲鳴乎庚午六月之念卒然壬癸一水之狂吞山襄

陵汰如蜂起之勢滔天割地波若蚕食像萬濶或不措維嶽降神之手黑雲何敢欺皇天眷顧之眼是也吾州之不幸母其何人之稱冤堯之洪非大禹卽有誰之導商之河乃盤庚歟籲衆之遷人不擇仁焉得知乎天必藏吉以賜福矣隔茲甲乙年間卜其乾亥地局營此聖廡克致不日成之功祝以吾道特推如天之德乃陟乃降果然精靈之在茲是饗是宜聿覩神聖之福汝曷不休哉於斯盛矣伏念後學拙所進也願其察焉欣欣有喜庶殫崇拜之忱斷斷無他縱乏贊襄之譽】

文廟【鄉校內小設位】

壇祠

社稷壇【在郡西】

城隍祠【在郡南】

癘壇【在郡北今并廢】

神社

神明神社【在麟蹄面上東里昭和戊辰建祭天照皇大神】

樓亭

合江亭【在合江里瑞江北來麒水東流合流故名焉前有中央祭壇本道東西均於此故立壇令東西守令祭之渚清沙白原野稍廣有奇觀處. 李應奎詩, 明沙白石合江頭 笠樣高亭半樣樓 萬戶臺空春一夢 中央壇古月千秋 飛霞孤鶩簷⁴²端沒 短筵長筩日下遊 望裏山川皆勝狀 麟城從此擅名休. 朴榮哉詩

合江亭立合江頭 影入合江心洗樓 鴻雁羽輕明月夜 魚龍背重白雲秋 世人不日稱千醉 仙老有時借一遊 第賦古今修護事 名從此大永無休. 河尙奎詩, 二水交回轟石頭 高亭恰似蜃嘘樓 東西驛路中央界 南北稻花一色秋 勝地多年無俗累 提壺暇日半仙遊 新創舊制煥然大 玉珮金章不盡休】

萬戶臺【在郡北飛鳳山麓】

鳳眉亭【在郡南飛鳳山下進士李時榮棲息之所. 其子益奎詩, 昔我先君築此亭 嘉名肇錫擬長停⁴³ 楓葉仲秋新月白 寒江落日暮烟青 從古文章無不醉 當今賢達有誰醒 登臨尤切羹牆⁴⁴慕 彷彿洋洋陟降靈】

寺刹

百潭寺【在北面龍垞里雪岳山新羅眞德王丁未慈藏法師創建稱寒溪寺奉安彌陀像三位新⁴⁵武

42 목침(鶩簷): 『인제군지』에는 로안(鶩雁)으로 되어 있다.

43 장정(長停): 장정(長征)으로 해석.

44 경장(羹牆): 다른 사람을 경모(敬慕)하여 추념(追念)하는 일.

45 『백담사사적』에는 문(文)으로 되어 있음.

王庚寅火失聖德王己未重建元聖王乙丑火失庚午寺僧宗演廣學覺詞⁴⁶靈熙法察雪洽等相謀重建于舊址北改稱雲興寺高麗成宗甲申失火丁亥寺僧洞薰俊熙等相謀移建于舊址北改稱沈源寺李朝世宗壬子失火甲寅寺僧儀俊海暹翠雄慎悅載益載和等相謀重建于舊址下改稱旋歸⁴⁷寺癸亥又火失丁卯移建于舊址西改稱靈鷲寺世祖丙子失火丁丑寺僧載和慎悅等移建又舊址改稱百潭寺宣祖壬辰火失乙未寺僧最鵬大賢太守等相謀重建還稱深源寺正祖癸卯又稱百潭寺】

永矢菴【在百潭寺山內世祖戊子三淵金昌翁創建己巳郡守李光矩建金三淵遺墟碑于此⁴⁸】

鳳頂菴【在百潭寺山內新羅善德王甲辰慈藏法師創建設五層塔奉安佛舍利元曉大師重修蓋菴之建先於百潭寺】

五歲菴【在百潭寺內新羅善德王甲辰慈藏法師建鳳頂菴時設觀音菴李朝世祖丙子梅月堂金時習來此斷髮着緇衣仁祖癸未雪淨禪師重修改稱五歲菴高宗乙丑南湖大師奉安海板大藏經于菴中至今有梅月堂俗像道像于此】

圓明菴【在百潭寺山內肅宗丙辰雪淨禪師創建】

世居氏族

青松沈氏【青城伯伯符后居南面冠岱里北面月鶴里】

三陟金氏【牧使泰國后居月鶴里】

平昌李氏【翰林天驥后居麟蹄面上東里南北里】

密陽朴氏【糾正鉉后居德山里北面元通里】

海州崔氏【文憲公冲后居德山里】

延日鄭氏【文忠公夢周后居瑞和面瑞興里】

善山吉氏【忠節公再后居南面九萬里】

宗教

佛教【九人】

基督教朝鮮監理教【三百二十人】

天道教【一百七十四人】

教育

麟蹄東尋常小學校【在麟蹄面上東里】

麟蹄南尋常小學校【在麟蹄面南北里】

46 『백담사사적』에는 동(洞)으로 되어 있음.

47 『백담사사적』에는 귀(龜)로 되어 있음.

48 2차 본에는 우차(又此)가 빠져있음.

同附設楸洞簡易學校【在麟蹄面楸里】
同附設楸岱簡易學校【在麟蹄面遠岱里】
冠岱尋常小學校【在南面冠岱里】
同附設於論簡易學校【在南面於論里】
元通尋常小學校【在北面元通里】
瑞和尋常小學校【在瑞和面瑞和里】
長丞尋常小學校【在瑞和面長興里】
同附設伊布簡易學校【在瑞和面伊布里】
麒麟尋常小學校【在麒麟面縣里】
蒼村尋常小學校【在內面蒼村里】
同附設廣院簡易學校【在內面廣院里】
同附設栗田簡易學校【在內面栗田里】

公共事業

麟蹄郡農會【在郡廳內】
蒼村副業組合【在內面】
麟蹄學校組合【在麟蹄面】
麟蹄消防組合【在麟蹄面】
農村振興會婦人會俱【在各面】

通信

麟蹄郵便所【在麟蹄面京麟間二日乃至四日】
瑞和郵便所【在瑞和面全上】
蒼村郵便所【在內面全上】

金融

麟蹄金融組合【在麟蹄面】
同瑞和支所【在瑞和面】
同麒麟支所【在麒麟面】

市場

麟蹄市【在麟蹄面二日七日開市】
冠岱市【在南面三日八日開市】
元通市【在北面一日六日開市】
瑞和市【在瑞和面三日八日開市】

縣里市【在麒麟面四日九日開市】

蒼村市【在內面二日七日開市】

上南市【在麒麟面五日十日開市】

郡先生

[李朝]李峙⁴⁹·申鎮夏

[併合]姜昌熙 鄭海運 石明瑄 沈相熹 李東鎮 吳維泳 李殷楫 崔晚達 任是宰 金極一 鄭河亨 明麟華 全在禹 金學洙 金村周邦【金周赫】

警察署長 佐藤隆男 青山德治 堀江春五郎 沼田幸三郎 遠藤國太 近藤眞登 猿千直之 佐藤鶴松 廣田專一 徳久貞重 山田辰男

文科

[高麗]

玄孟仁【禡朝癸亥文科官至司諫李朝太宗朝特點萬戶】

玄束【或安東人陰中郎將禡朝癸亥文科除江陵府使陞嘉善李朝官全羅道黜陟使】

[李朝]

鄭立【延日人圃隱夢周后孝宗朝生員文科歷江原監司】

武科

[李朝]

金泰國【三陟人悉直郡王金渭翁后宣祖壬辰武科歷典竹山原州牧府使】

朴俊熙【號楸隱密陽人糾正鉉后性豪邁膂力過人高宗朝武科宣傳官退居林泉以終老焉】

司馬⁵⁰

鄭導【進士】

李亨祿【讓寧大君視后英宗朝進士志氣高尚博究經義致心性理之學嘗遊太學館儒推重之】

崔瑛【號默齋文憲公冲后孝友兼備文章成就純祖己卯司馬有遺稿】

申在秉【平山人純祖朝進士】

崔箕錫【號研史文憲公冲后善詩律哲宗朝進士有遺稿】

李晦榮【號雲樵平昌人散騎常侍天驥后高宗乙酉生員善文學性孝根天侍墓三年及卒彩虹亘于家見者異之事載五行實錄】

李時榮【號小蘭散騎常侍天驥后高宗壬午進士官至中樞院議官】

49 이치(李峙): 읍선생안(邑先生案)에는 이빙(李憑)으로 되어 있다.

50 사마(司馬): 과거 제도의 하나.

李泰奎 【時榮子博學善屬文高宗戊子進士】
 金哲奎 【高宗朝進士】
 李益奎 【號壁南時榮次子承襲庭學文詞風就高宗辛卯進士】
 朴龜大 【號春涓密陽人糾正鉉后高宗甲午進士】
 仕宦⁵¹
 [高麗]
 邵光賓 【平山人明宗朝官慶尙道按廉使】
 [李朝]
 沈演 【青松人青城伯德符后肅宗朝官至工參退居松鶴洞以終】
 蔭仕⁵²-附筮仕⁵³
 [李朝]
 許錦 【陽川人陽川君文正公伯后仁祖朝蔭春川府使】
 金魯奎 【號竹史三陟人牧使泰國后性順厚善文好施救恤貧窮高宗朝通仕郎】
 李時益 【號南逸散騎常侍天驥后性卓犖不拘小節高宗癸卯綏陵參奉】
 尹泰益 【號史海坡平人文肅公瓘后有文學好施與中樞院議官】
 李昌奎 【號東庵散騎常侍天驥后性純厚剛直高宗朝綏陵參奉】
 李曾云 【孝寧大君補后中樞院議官】
 安敬淳 【順興人文成公裕后中樞院議官】
 朴汝國 【通政祥勳子性純孝有文學散財救恤童蒙教官】
 壽職⁵⁴
 [李朝]
 李時玉 【號浦庵平昌人散騎常侍天驥后性端雅好文學壽嘉善】
 鄭義元 【號雲軒監司岏后性純厚敦宗恤貧壽僉中樞陞嘉善】
 朴祥勳 【號德庵密陽人糾正鉉后壽通政】
 張斗善 【仁同人太師貞弼后壽通政】
 文學

51 사환(仕宦): 벼슬, 또는 벼슬살이를 함.

52 음사(蔭仕): 음직(蔭職).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얻은 관직.

53 서사(筮仕): 처음으로 벼슬을 얻음.

54 수직(壽職):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관원 및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벼슬. 노직(老職), 화직(華職)이라고도 한다.

[李朝]

李祉善【全州人進士金亨祿曾孫承襲家學蔚有聲名以宗親薦入禮賓寺官至同中樞】

朴基柱【號一樹糾正鉉后性明敏識達天人深究經史雲遊山水晚築土室著詩易林上下全帙】

金昇燾【號雲庵三陟人通仕郎魯奎子性穎悟博學善屬文爲一時翹望】

崔海澈【初名學瑞號鶴棲全州人監務士興后文學富瞻壽通政有遺稿】

筆苑

[李朝]

李元奎【號無憂堂散騎常侍天驥后性清恬超俗好古筆法善書畫尤長於篆隸著名當世】

孝行

[高麗]

金敬範【以孝行旌閭】

[李朝]

沈春澤【一名裕澤號孝睦工參演后天姿敦厚自幼孝友根天母年七耋癘病累月嘗糞祝天斷指回甦及喪廬墓淚灑松枯人稱其洞以孝子士林累舉官有表賞立碑閣】

玄德卿【延安人中郎將簿后性溫順孝事父母母病欲斷指注血士林累舉自官特加表彰】

烈婦

[李朝]

金氏【籍三陟震國女豐壤趙玉立妻丙子亂夫出從政獨居避亂賊數十雲集欲刦氏誓死不屈賊縛置積薪上四面燒火會雨雪驟下得不死頭上火瘡終不完合肅宗朝復戶命旌閭】

金氏【籍全州兌容女海州崔秉根妻年十八遭父喪誓欲下從以舅姑在未果志物之奉小無怠忽鄉黨咸稱士林累舉立閣】

李氏【籍慶州東榮女金海金秉權妻貞淑端嚴嫁未幾其姑有疾嘗糞侍湯築壇祈天遭喪家貧賣嫁時粧具買山安葬後舅與夫俱罹惡疾至誠侍湯嘗糞祝天舅夫俱歿即欲從殉幼孤在襁未遂初志手自殮襲求山於十里外朝往暮歸有虎護行安葬其舅繼葬其夫哀毀中禮清心守節履針杵以資教子之費不墜家聲士林累舉于臺司以表彰之因以爲建閣立碑】

閨行

[李朝]

韓氏【籍清州平康蔡民永妻孝事舅姑夫病欲祝天願代及喪矢心下從以一孤在襁未遂初志日省夫墓有虎護衛士林褒狀承旨達城徐光弼撰碑】

金氏【籍三陟禮河女陽天許熙妻有婦德孝事舅姑不幸夫夭有孤呱呱家又貧寒送終如禮身兼樵織教子義方不墜家聲閨門雍雍宗族和睦隣里稱之】

慈善

[李朝]

鄭義洙【延日人嘉善義元子承襲庭訓善文學性又好施見人飢寒推以衣食行路頌德碑】

篤志

[李朝]

金澤演【江陵人溟州郡王周元后性行孝友志節慷慨見人飢寒輒思救恤】

寓居

[李朝]

李賢輔【號聳岩永川人縣監欽子虛白洪貴達文人燕山君乙卯生員戊午文科歷嶺伯至同副承旨刑參】

李緯【號陶菴牛峯人忠肅公晚成從子顯宗朝文科官至大提學諡文貞亨書院嘗侍陪仁顯王后來居】

金商弼【慶州人桑村自粹后高宗朝歷梁山山清居昌慶州詣郡性清廉所過郡縣有治績至掌隸院副卿晚年移寓自號隱坡嘯詠山水】

韓萬晟【號愚岳清州人判尹金剛后性穎悟博學經史善詩賦自咸南定平來寓郡東下楸村】

題詠

禹承範詩【古縣幾多歲 居民八九家】

河演詩【衆山深邃絕輪蹄 一路高低傍石溪】

成倪詩【過橋官道遠 林掩數人家 地爽常留雪 山深未有花 棘簷寒雀鬪 松樹晚風多 旅况增愁疾 支頤日已斜】

叢談-附記事

終喪日還家【郡東八峯山下龍沼深不可測魚多產出傍有漁夫趙允五一日獵魚入水中不知所到見朱蘭畫閣中有一老人問曰汝何爲者答曰家素貧寒以捕魚爲業遽至於此老人曰可矜人信宿歸去對以家事多忙卽拜謝而歸家不如前妻子設祭哀哭怪問其故妻疑答曰家君出獵不返于今三喪撤筵日也】

陵墓

平章事朴元宏墓【在麒麟面下馬路雖大官至此不下馬卽馬蹄自止不能行故立碑稱下馬路墓下有影堂】

碑版

文正公李緯遺墟碑【在麟蹄面合江里】

議官李時榮施惠不忘碑【在麟蹄面上東里銘曰捐義積仁恤窮賙貧施澤於郡致德于隣】

인제의 역사

인제에서 학문을 연마한 도암(陶庵) 이재(李穡)

도암(陶庵) 이재(李穡, 1680~1746)는 숙종 28년(1702)에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다. 경종 1년(1721) 예조참판으로 재직하던 중 소론의 재집권으로 삭탈관직당한 데 이어 신임사화로 숙부 이만성(李晩成)이 옥사하자 정계에서 물러나 인제로 와서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

연보를 보면 그의 인제 생활이 자세하다. 1722년 10월에 식구를 이끌고 인제 가덕산촌(佳德山村)으로 들어갔다고 적고 있다. 가덕산은 지금의 덕산을 말한다. 1723년 4월에 설악산을 유람하고, 그 해 8월에 상도촌(上道村)으로 이주하여 일최암(一最菴)을 지었다.

그는 김창협 문하에서 조광조(趙光祖)와 이이(李瑋)를 사숙하였으며, 김창협·김창흡 형제, 어유봉, 박필주 등 낙론 1세대를 이어 2세대를 대표하는 학자다. 심성론에 있어서 인물성동론

(人物性同論)을 주장했던 이간(李柬)의 학설을 계승하고 한원진(韓元震)의 호론을 반박한 낙론의 대표적 학자이다.

1836년에 인제현감 조기순(趙箕淳)은 도암선생의 유적이 있는 것을 알고 이조판서 조인영(趙寅永)에게 청하여 선생의 유허비문(遺墟碑文)을 요청하였다.



이재(李穡) 초상. 작가미상. 비단에 채색
97.9cm × 56.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숙부 충숙공(忠肅公)이 돌아가시자 모부인(母夫人)을 모시고 인제로 은둔하였다. (중략) 처음에는 선생께서 덕산(德山)에 머무르시다 이듬해 읍의 동쪽 상도촌(上道村)으로 옮기시어 작은 암자를 지으시고 일최암(一最菴)이라 편액을 거셨다. 땅에는 복룡(伏龍)과 비봉(飛鳳) 등의 여러 산들이 있고, 읍(邑)은 기린(麒麟)이라 부르니 오직 거북이만 빠진 것이나 사람이 가장 영험하니 빠진 하나를 감당할 수 있다. 꽃과 채소심어 모부인(母夫人)을 기쁘게 공양하니, 부인은 손수 연 줄기를 따고, 선생은 광주리 들고 따르며 즐거워 하셨다.

덕산리와 상도리는 도암 선생이 머무시던 곳이였다. 오랜 기간 인제에 머문 것은 아니지만 인제읍 일대에 그의 자취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인제군청 정문을 들어서면 좌측 한 귀퉁이에 선생의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인제를 읊은 한시

이익규(李益圭), 「봉미정(鳳眉亭)」, 『강원도지』

옛날 선친께서 이 정자 지으시고 昔我先君築此亭
 아름다운 이름 세우시니 길이 유지되길 嘉名肇錫擬長停
 단풍 물든 한 가을에 새로 뜬 달은 밝고 楓葉仲秋新月白
 찬 강에 지는 해에 저녁 안개는 푸르네 寒江落日暮烟靑
 옛부터 문장가는 취하지 않은 사람 없었으니 從古文章無不醉
 지금의 현인 달사 그 누가 깨어 있을 건가 當今賢達有誰醒
 여기 오르자 더욱 아버지님 생각 간절하니 登臨尤切羹牆慕
 오르내리시는 혼령 마치 살아계신 듯 彷彿洋洋陟降靈

비봉산(飛鳳山) 아래에 있어서 봉미정(鳳眉亭)이라 이름붙인 이곳은 진사 이시영(李時榮)이 살던 곳이다. 이 정자는 1900년 무렵에 건립되었는데 인근에 2칸 서재와 거실이 있어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아들이 익규(益奎)다.

修江今揭洪厚慶
 任寅去湖林川設並後受昌協三淵金恩翁門
 高李贊洪鄧泰李與成璽于白雲湖終有道仙申錫一
 孝人同中繼以古卿人自世孫承家江漢說孫度人良孝龍子舉義雲
 物能保先善友以己有財考盡歸宗徐秉武奉母至孝其母性愈後
 亦以其安善供七十始食肉每母生辰奉母以孝之孝其母性愈後
 麟蹄李朝金澤演友志節廉顯見人飢寒輒思救恤
 揚口李朝尹洙坡手人僕學址外明聖經善釋書密而子胤轉家
 尹鏡觀坡手人性簡默魚有文行早致里與手起世善
 李起永全州人注書宗伯六世孫性純厚致心志尤篤教育
 淮陽李朝金致豐經傳好批教有劇撰甚自址俾樹業究孝愚植
 世文事恒公之出后性歸達賦教育劇撰甚自址俾樹業究孝愚植

湖增從子通流義贈李自秀宜州人吏部尚書李英俊
 全州人茂林君善生后河士歸魯陽人文孝公淡后純祖己丑
 馬道葉官自金平默覽重卷清風人已卯學士老東漢后學于
 省島渠東立萬歲役不受米寫三柳來駿致良卷洋州人文成
 文料歷戎長縣監官至承旨高宗丙寅洋樓家官來駕君子李
 蓋龍其從和承旨李時為知府時承開風土之美歸也
 濟梁統瑞微明漢人忠壯公福九世孫良漢回四里門官掌
 泉衡受山水東涉壽春之關以文章自潔管于承悅來駕見
 嶺山
 麟蹄李朝李輔慶韓崇永川人縣監飲于虛伯洪黃門人韓
 李緯韓陶翁牛峯人忠肅公脫文成科舉宗朝文宗晉刊
 嶺慶州人萊村自前高宗朝歷梁山山清居五岳來居金尚
 嶺濟康所過郡縣有治績至李禮脫剛御晚午移寓自嶺落坡
 山休辭萬景壽詩自武南定平來寓嶺下樹行

楊口李朝金輔信三陟人大將軍元成后世宗朝官至判義明
 鄭自賢山朝除賊賜不執見後亂聖家避于西營村終老
 李郁韓安大君芳后永相親父永相親父永相親父永相親父
 山水來多士復設山仰濟羅策三詩詞又幸顯文編學自嶺落坡
 淮陽李朝金澤演友志節廉顯見人飢寒輒思救恤
 揚口李朝尹洙坡手人僕學址外明聖經善釋書密而子胤轉家
 尹鏡觀坡手人性簡默魚有文行早致里與手起世善
 李起永全州人注書宗伯六世孫性純厚致心志尤篤教育
 淮陽李朝金致豐經傳好批教有劇撰甚自址俾樹業究孝愚植
 世文事恒公之出后性歸達賦教育劇撰甚自址俾樹業究孝愚植

麟蹄馬承範詩古縣幾多歲河濱詩來山漢遼絕輪蹄成倪詩
 官道遠林掩數人家地災常雷雪山漢未有花柳
 楊口金克己詩紅噴未出海白鷗猶沉山晨吹欵來鷺道里九
 寬閣有聲與蒲影進出奇木間始知邑中吏迎我方過關暫見
 雲光鬪瑞瑞林簇北苑松柳青瑞玉錫符南砌輕盈紅雪舞
 松風飄灑暑竹日上明森却疑是洞府管籥非聖製使君青雲
 秀玄首尚未巖高嶺柳聲客籍贊成栢管嶺照回清照初視
 我頭東岩與柳枝四座羅幃期滿送海嶺妙舞回轉靜初視
 禮還可剛安能學兒女別淚空自清宋九贊詩人瑞靜心瑞靜成
 倪詩度空穿雲梭轉行橫林溪處聽聲天開沃野飛揚鹿山
 殺何苦勸耕
 淮陽李朝李詩地嶺重關年鐵嶺少山好居人却厭多
 白鷗歸身似官河水上浮雪滿江一帶綠羅羅姜淮伯詩華貞
 閑山飛鳥絕黃自南南樹樹開波林開板屋過客如歸發
 倪詩谷蓬雲常晴山高氣高寒京師知幾里歸夢日漫隱

即司成官至宗簿寺正歷金樂洙號退庵放五五世孫英宗甲
典殿乘洪溝開城陸善金樂洙號退庵放五五世孫英宗甲
泰利有文章德行洪彦喆號通邁英宗末金壽鼎科趙秉
敦寧李敦輔狀洪彦喆號通邁英宗末金壽鼎科趙秉
友聖賢人府使裁判后祀履進士來趙雲翎雲恩君裁治孫文
封趙趙容和源清昭聖恩君載浩曹孫學波淵黃憲科平海至文
楊君趙容和源清昭聖恩君載浩曹孫學波淵黃憲科平海至文
趙贊興官至史參封聖安君文金者升清州人忠武公德狀
科正言學諱李箕善號鳳岩左尹光建五世孫哲趙然誠咨和
至成韓都事李箕善號鳳岩左尹光建五世孫哲趙然誠咨和
科官至同副承旨李守寅號純室全州人歷高宗
文節檢問洪時衡哲宗辛酉文官李守寅號純室全州人歷高宗
至承旨趙肅夏號浩后文沈厚澤號石堂青松人高宗朝
麟蹄高麗玄孟仁號朝葵友文科官至司諫玄東師將朝朝考友
文科除江陵府使陸嘉善李朝鄭空朝進日人國聰夢周后考宗
李朝官至全羅道觀察使李朝鄭空朝進日人國聰夢周后考宗
楊口李朝李春元號能鳴或平人恩咸君從生五世孫進士丙申
文科歷江原觀察使官金靜淳進士儒文科李厚源號進士乙亥
至同知敦寧有文集

用喬察訪將滿浦兵馬衛使者又有東國通儒韓高履
邑社公百祥后高宗朝武科歷
麟蹄李朝金泰國三號人忠武林段以然老馬
朝武科正監后性忠武林段以然老馬
楊口李朝洪忠憲號武科歷武林段以然老馬
朝武科正監后性忠武林段以然老馬
人生第第曹孫明宗趙興緒號豐壤人平章李臣韓后李茂全州
朝武科官至府使趙興緒號豐壤人平章李臣韓后李茂全州
川君武科歷府使尹瀛官祖朝武科歷府使尹瀛官祖朝武科歷府使
進士武科歷府使尹瀛官祖朝武科歷府使尹瀛官祖朝武科歷府使
前鎭玄珉陸飛奉大龍軍李健中侍武科官趙璨號武科歷府使
生年武科官至大龍軍李健中侍武科官趙璨號武科歷府使
汶祖朝武科官至大龍軍李健中侍武科官趙璨號武科歷府使
坡平人嘉善珠琛甫京丙尹世捷號自鳴天民于甫家已卯
張武科副司果烈豐傳侍尹世捷號自鳴天民于甫家已卯
津淮使趙瑞號武科官尹世捷號自鳴天民于甫家已卯
通川高麗崔祥大將軍李朝崔雲海加通國使承德府事號
武科

趙贊興官至史參封聖安君文金者升清州人忠武公德狀
科正言學諱李箕善號鳳岩左尹光建五世孫哲趙然誠咨和
至成韓都事李箕善號鳳岩左尹光建五世孫哲趙然誠咨和
科官至同副承旨李守寅號純室全州人歷高宗
文節檢問洪時衡哲宗辛酉文官李守寅號純室全州人歷高宗
至承旨趙肅夏號浩后文沈厚澤號石堂青松人高宗朝
麟蹄高麗玄孟仁號朝葵友文科官至司諫玄東師將朝朝考友
文科除江陵府使陸嘉善李朝鄭空朝進日人國聰夢周后考宗
李朝官至全羅道觀察使李朝鄭空朝進日人國聰夢周后考宗
楊口李朝李春元號能鳴或平人恩咸君從生五世孫進士丙申
文科歷江原觀察使官金靜淳進士儒文科李厚源號進士乙亥
至同知敦寧有文集

江原道誌卷之八 仕宦
春川高麗王儒本姓朴性質直通經史初仕弓裔官至東官記室
諱士相曰今論之來如得得嚴濁濁山谷開季太祖即位來
民倫詢哀繼繼得美錫星職發好播伏如神吏朴義公大提學
民敬憐次做必詳當報受錄者官曰田君受之同樞趙熙元
兵參季朝柳汀全州人參議克恕子成揆憲號明濬昌寧人官
趙觀鎮朝官至參判李慶日煥蕭察朝官至刑參趙濟
口豐源君雲錫子官
麟蹄高麗邵光賓慶高道按廉使李朝沈演符后甫察朝官至
楊口李朝柳守濱官至贊成
通川高麗崔濬源高麗朝官上護軍追封通川伯崔之灑彦觀孫
職羽以終

| | |
|---------|------------------|
| 春川春川郵便局 | 在春川京春間 二日乃至三日 |
| 麟蹄麟蹄郵便所 | 在麟蹄京開間 二日乃至四日 |
| 便所 | 在麟蹄京開間 二日乃至四日 |
| 楊口楊口郵便所 | 在楊口京開間 二日乃至四日 |
| 淮陽淮陽郵便所 | 在淮陽京開間 二日乃至四日 |
| 郵便所 | 在淮陽京開間 二日乃至四日 |
| 通川通川郵便所 | 在通川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便所 | 在通川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高城高城郵便所 | 在高城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郵便所 | 在高城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襄陽襄陽郵便所 | 在襄陽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便所 | 在襄陽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長箭郵便所 | 在長箭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巨津郵便所 | 在巨津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杆城郵便所 | 在杆城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大浦郵便所 | 在大浦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通川通川郵便所 | 在通川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便所 | 在通川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高城高城郵便所 | 在高城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郵便所 | 在高城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襄陽襄陽郵便所 | 在襄陽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便所 | 在襄陽京開間 二日乃至三日 |

| | |
|-------------|---------|
| 麟蹄麟蹄金融組合 | 在麟蹄京開間 |
| 楊口楊口金融組合 | 在楊口京開間 |
| 淮陽淮陽金融組合 | 在淮陽京開間 |
| 通川東拓會社通川駐在所 | 在通川京開間 |
| 高城高城金融組合 | 在高城京開間 |
| 襄陽襄陽金融組合 | 在襄陽京開間 |
| 同巨津支所 | 在同巨津京開間 |
| 江陵殖産銀行江陵支店 | 在江陵京開間 |
| 合注文津金融組合 | 在文津京開間 |
| 三陟三陟金融組合 | 在三陟京開間 |
| 同北坪支所 | 在同北坪京開間 |
| 同交柯支所 | 在同交柯京開間 |
| 遠 | |

| | |
|-----|--------|
| 芝村市 | 在史北開市 |
| 麟蹄市 | 在麟蹄開市 |
| 市瑞和 | 在市瑞和開市 |
| 市上南 | 在市上南開市 |
| 楊口市 | 在楊口開市 |
| 市長坪 | 在市長坪開市 |
| 市淮陽 | 在市淮陽開市 |
| 市泗東 | 在市泗東開市 |
| 市通川 | 在市通川開市 |
| 市開浦 | 在市開浦開市 |
| 市史倉 | 在市史倉開市 |
| 市冠岱 | 在市冠岱開市 |
| 市元通 | 在市元通開市 |
| 市元通 | 在市元通開市 |
| 市文登 | 在市文登開市 |
| 市林塘 | 在市林塘開市 |
| 市末輝 | 在市末輝開市 |
| 市松田 | 在市松田開市 |
| 市慈山 | 在市慈山開市 |

| | | | | | | |
|---------|------|------|-------|------|-----|----|
| 麟蹄李朝李時 | 申鎮夏 | 鄭憲時 | 薛合 | 姜昌熙 | 鄭海運 | 石 |
| 明璋 | 沈相燾 | 李東鎮 | 吳維泳 | 李殷楫 | 崔晚達 | 任 |
| 是宰 | 金極一 | 鄭河亨 | 明麟華 | 全在禹 | 金學洙 | 金 |
| 村周邦 | 諭周 | | | | | |
| 警察署長 | 佐藤隆男 | 青山德治 | 堀江春五郎 | 沼田幸三 | | |
| 郎 | 遠藤國太 | 近藤眞登 | 猿川直之 | 佐藤鶴松 | 廣田 | |
| 專一 | 德久貞重 | 山田辰男 | | | | |
| 楊口李朝沈家甫 | 金漢臣 | 咸憲 | 趙昌勳 | 慎蘭 | 柳從篤 | |
| 鄭仁門 | 金智叔 | 安光先 | 金克孝 | 申淑 | 安彥鎔 | |
| 權應時 | 金玄度 | 申應泗 | 許錦 | 鄭士誠 | 李仁元 | 洪 |
| 息敦 | 洪敬紹 | 姜弘德 | 沈仁祿 | 尹復之 | 曹胤社 | 睦 |
| 叙欽 | 李星男 | 申景達 | 柳希契 | 申得滋 | 李勉 | 趙滄 |

校 在史北 面 東山尋常小學校 在球山 面 同附設北方簡易學
 校 在東山 面 錦山尋常小學校 在錦山 面 新南尋常小學校 在錦
 里 東內尋常小學校 在碩土里 面 柯亭尋常小學校 在柯亭里 春
 川女講習所 在昭通 青年訓練所 在本 春川幼稚園 在幼小 幼
 稚園 在旭
 麟蹄麟蹄尋常小學校 在麟蹄 麟蹄南尋常小學校 在麟蹄
 同附設檜洞簡易學校 在檜洞 同附設於論簡易學校 在
 麟蹄 遠冠冠尋常小學校 在冠冠里 同附設於論簡易學校 在
 麟蹄 元通尋常小學校 在元通里 瑞和尋常小學校 在瑞和里 長承
 尋常小學校 在瑞和里 同附設伊布簡易學校 在伊布里 麒
 尋常小學校 在麟蹄 蒼村尋常小學校 在蒼村里 同附設廣院簡
 易學校 在廣院里 同附設栗田簡易學校 在栗田里
 三十一

楊口楊口尋常小學校 在楊口 面 同附設雄仁簡易學校 在楊口
 里 林塘尋常小學校 在林塘里 文登尋常小學校 在文登里 同附
 設古方簡易學校 在古方里 同附設松巨簡易學校 在松巨里 同
 附設大井簡易學校 在大井里 面 長坪尋常小學校 在長坪里 面
 同附設乾方簡易學校 在乾方里 面 龍化尋常小學校 在龍化里 同
 附設下水內簡易學校 在下水里 面 梅東尋常小學校 在梅東里 同
 尋常小學校 在龍化里 面
 淮陽淮陽尋常小學校 在淮陽 面 同附設學和簡易學校 在淮陽
 同附設廣石簡易學校 在廣石里 面 金剛尋常小學校 在
 金剛里 同附設內金剛簡易學校 在內金剛里 面 泗東尋常小學校
 在泗東里 同附設雙鵝簡易學校 在雙鵝里 同附設支石簡易
 學校 在支石里 蘭谷尋常小學校 在蘭谷里 同附設梧桐簡易學
 校 在梧桐里

春川春川郡農會 在春川 春川學校組合 在成仁川 穀物檢查所 春
 川出張所 在春川 京城電氣會社 春川營業所 在春川 春川酒造株
 式會社 在春川 江原印刷會社 在春川 江原土木協會 在春川
 川消防組 在春川 春川繁榮協會 在春川 春川高工會 在春川 春
 榮會 在春川 東亞蠶絲會社 春川出張所 在春川 春鐵株式會
 社 春川支店 在春川 春川製絲工場 在春川 春川種蠶株式會
 東鮮印刷株式會社 在春川 朝鮮麵子株式會社 春川支店 在春川
 江原藥業株式會社 在春川 江原桑苗組合 在春川 江原殖產株式
 會社 在春川 漢江水力電氣株式會社 在春川 同水電物資配組合
 在春川 芳洞共勵水利組合 在春川 牛頭水利組合 在春川 農村振興
 會 婦人會 在春川
 麟蹄麟蹄郡農會 在麟蹄 蒼村副業組合 在麟蹄 麟蹄學校組合 在麟蹄

麟蹄消防組合 在麟蹄 農村振興會 婦人會 在麟蹄
 楊口楊口郡農會 在楊口 楊口學校組合 在楊口 消防組 在楊口
 磁器組合 在楊口 農村振興會 婦人會 在楊口
 淮陽淮陽郡農會 在淮陽 淮陽學校組合 在淮陽 麻布生產組合 在淮陽
 蘭谷水利組合 在蘭谷 蘭谷農民訓練所 在蘭谷 李王職牧場 在蘭谷
 機械農場 在蘭谷 淮陽消防組 在蘭谷 農村振興會 婦人會 在蘭谷
 通川通川郡農會 在通川 通川學校組合 在通川 水產組合 在通川
 水產組合 庫底支部 在通川 通川漁業組合 在通川 庫底漁業組合
 在通川 慈東漁業組合 在通川 通川消防組 在通川 農村振興會 婦
 人會 在通川
 高城高城郡農會 在高城 高城學校組合 在高城 水產組合 高城支部
 在城內 同長前支部 在城內 張同巨津支部 在城內 高城漁業組合 在城內

| | | | |
|---------------|---------------|-------------|---------|
| 平康二萬一千九百七十九戶 | 內地人一千六百六十六戶 | 朝鮮人一千九百一十三戶 | 外國人六十七戶 |
| 六萬五千二百三十四人 | 內地人六萬三千九百五十五人 | 朝鮮人一千九百一十三人 | 外國人六十七人 |
| 伊川一萬四千二百八十九戶 | 內地人一千六百六十六戶 | 朝鮮人一千九百一十三戶 | 外國人六十七戶 |
| 萬五千五百七十七人 | 內地人五千三百九十九人 | 朝鮮人一千九百一十三人 | 外國人六十七人 |
| 春川田一萬三千七十七町 | 番四千九百六十六町 | 成五百九十九町 | 雜種地三町 |
| 麟蹄田一萬二千二十町 | 番二千七百一町 | 成三百七十九町 | 雜種地一町 |
| 楊口田一萬一千二百八十八町 | 番二千五百九十九町 | 成二百八十八町 | 雜種地一町 |

| | | | |
|----------------|---------------|---------------|---------------|
| 麟蹄國稅三萬九千九百八十七圓 | 地稅一萬二千九百四十二圓 | 酒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附加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 道稅三萬二千七百七十三圓 | 附加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附加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附加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 楊口國稅三萬九千九百八十七圓 | 地稅一萬二千九百四十二圓 | 酒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附加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 五十七百九十四圓 | 地稅九千五百七十三圓 | 酒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附加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 濱陽國稅八萬四千五百九十九圓 | 地稅一萬一千七百七十三圓 | 酒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附加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 | | | |
|-----------------|---------------|---------------|---------------|
| 伊川國稅十三萬六千八百四十七圓 | 地稅二萬九千七百五十五圓 | 酒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附加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 道稅五萬五千二百四十四圓 | 附加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附加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附加稅一萬三千七百七十三圓 |
| 春川京春線 | 驛江川驛 | 驛西山驛 | 驛新南驛 |
| 春川線 | 驛京城春川線 | 驛四村春川線 | 驛杆城線 |
| 麟蹄春川杆城線 | 驛八村麟蹄 | 驛洪川線 | 驛洪川襄陽線 |
| 珍富蒼村線 | 驛八村麟蹄 | 驛襄陽線 | 驛楊口春川線 |
| 楊口楊口春川線 | 驛二村楊口 | 驛麟蹄線 | 驛楊口華川線 |
| 輝里線 | 驛三十八村 | 驛楊口 | 驛楊口 |

| | | | |
|----------|---------|-------|------|
| 鐵原線 | 驛五村鐵原 | 驛支石線 | 驛十六村 |
| 平康京元線 | 驛五村平康 | 驛京元線 | 驛十六村 |
| 金化南川店線 | 驛四村金化 | 驛南川店線 | 驛十村 |
| 伊川金化南川店線 | 驛三十四村伊川 | 驛元山線 | 驛十一村 |
| 伊川鐵原線 | 驛十八村伊川 | 驛鐵原線 | 驛十八村 |
| 春川昭陽橋 | 在昭陽 | 津橋 | 在津 |
| 之川橋 | 在之川 | 新死橋 | 在新死 |
| 麟蹄麟蹄橋 | 在麟蹄 | 冠空橋 | 在冠空 |
| 楊口松青橋 | 在楊口 | 龍代橋 | 在龍代 |

| | | | | | | | | |
|-----|------|-----|----|-----|----|-----|-----|-----|
| 古頭 | 楊口磁器 | 黃鼠皮 | 石簞 | 鱗蹄鐵 | 砂金 | 春山漆 | 土產 | 映而安 |
| 五味子 | 水獺皮 | 紫檀香 | 蜂窠 | 漆 | 金 | 海松子 | 海松子 | 映而安 |
| 紫草 | 豬鹿 | 安息香 | 紫草 | 紫檀香 | 木材 | 五味子 | 五味子 | 映而安 |
| 人參 | 人參 | 五味子 | 人參 | 安魚 | 棉花 | 紫草 | 紫草 | 映而安 |
| 蜂蜜 | 蜂蜜 | 紫草 | 紫草 | 餘項魚 | 麻布 | 紫草 | 紫草 | 映而安 |
| 石簞 | 石簞 | 紫草 | 紫草 | 錦鱗魚 | 山參 | 紫草 | 紫草 | 映而安 |
| 山參 | 山參 | 紫草 | 紫草 | 松茸 | 山參 | 紫草 | 紫草 | 映而安 |
| 山參 | 山參 | 紫草 | 紫草 | 重石 | 山參 | 紫草 | 紫草 | 映而安 |

| | | | | | | | | |
|----|----|----|----|----|----|----|----|----|
| 古頭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 | | | | | | | |
|----|----|----|----|----|----|----|----|----|
| 古頭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 | | | | | | | |
|----|----|----|----|----|----|----|----|----|
| 戶數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 嶺南 |

麟蹄本高句麗猪足縣一云高句麗新羅改豬蹄為楊麓那領縣高麗改為麟蹄屬春川更移屬淮陽恭讓元年置監務李朝太宗十三年改為縣監屬麟蹄一作木一從城在麟蹄北六里後抄道馬楊麓那領縣高麗改麟蹄屬春川高宗三十二年改為郡四十九年江陵郡三面來屬併合後因之舊郡名猪足烏沙回 豬蹄

楊口本高句麗楊口郡隱一云新羅改楊麓那高麗改楊溝驛春川後改楊口睿宗元年置監務以狼川監務來兼李朝太祖二年遷析之太宗十三年例為縣監屬方山縣在郡北三里現縣一云高麗改新羅改三歲為楊麓那領縣高麗改高宗四年方山屬淮陽府李朝世宗六年復來屬今方山而麟蹄宗四年因獄事革屬麟蹄未幾復設高宗三十二年改為郡併合後因之舊郡名楊口 要隱忽次 楊麓 楊溝

水滂山崩流入漢江而漢水漸淺矣

春川在本道中央西端東接楊口南隣洪川西連京畿道加平及抱川北界華川及金化形為三角金剛山脉逶迤南來作鳳儀山北漢江及昭陽江貫中央西流少灌漑丘陵重疊惟邑之附近僅成平野耕地雖小甚肥沃

麟蹄在本道中央東接襄陽南隣平昌及洪川西連楊口及春川北界淮陽及高城東西短南北長金剛山脉自西北來為巫峰大巖雪岳諸山麟蹄江源出瑞和而南流入昭陽江山岳重疊稱本道最峽地少水田多火田

楊口在本道中央東端東接麟蹄南隣洪川及春川西連華川北界淮陽東西短南北長金剛山脉南來為鳳凰山曲溪源出兜率嶺環東南入昭陽江山岳重疊繞圍四境郡之中央稍成原

郡并置醫師一人李朝置留守月令二人 檢律一人檢考法律○諸道請樂十七員如今之道立醫院長一人 檢律一人檢考法律○道檢律 ○道察使 高麗改道長官 道察使 高宗改道長官 道知事 長官 道知事 道事務官 理事官 技師 視學官 主事 警視人 視學人 屬三十 警部十四 警部補十六 書記二十 技手八十八 其他若干

春川府使 教授 儒學 一人。高麗置各道教授 留守一人。高宗為置 郡守一人。高宗甲午初改國內各州府縣之留守判官 守 郡守 及 教授 監 縣令 為 郡守 郡則仍舊併合 附用之

麟蹄縣監 訓導 各一人。高麗置各道諸縣風一人 高麗 守一人 郡屬八警察署長一人

楊口縣監 訓導 各一人 郡守一人 郡屬八警察署長一人

淮陽府使 教授 各一人 郡守一人 郡屬八警察署長一人

春川 朴辛 許金誠林 尹耕 陳忠 柳安元

沈鎭金 許書 孫瑞和 崔玄 李谷 卍 鄭

楊口 張金 李梁 方山 崔米 俞田

淮陽 高 李玄 金 齋 蔡 許全 鄭 齋 和 川 金

浦雲西山雨常留簾櫳之間萬介竹九畹蘭共茂惜道之下
壘上御林元年甲子九月上澗關東撥客使朴永輝叙

合江休沐感君恩十載江亭更把樽關東風雨蒼松叶沈盡

沈清台石村未穿解彭澤醫扁舟欲訪武陵村底事前賢
接此地到今明月照心魂

如藤朴宗永 題合江亭

合江觀漲

二江又處此高恰五月觀清何共哉且喜江亭猶舊出遷愁
雲微忽浮未文章顛倒何山水首道研劄出地雷老中眼中

庚子和夏朔日曾採

觀泉使李元正書 題合江亭

木板上韻

合江亭在合江隈才子佳人日宴開時或陪風瑟遠眺病能
扶杖上層塔增峻山勢千年古平鋪秋九四野田縱欲退公謀
一醉恨無此席共酌盃

丁酉仲秋上浣郡守鄭基恒

雄於水曾看滄海一泓盃

昔陶巷先生寄樓臨於亭之西南有遺甃我自出亭是
際為話舊蹟只有手植松一株泥以想當日老槃之趣而
又取集中七律一章刻揭亭楹以寓秋陽以漢之思歲丁
酉夏復學楊州趙箕浮雜書

諺火曾王考板上壽用始序

以明映坊古江隈四月芳菲薺頭開刺艾輜車隨夢飛大賢邁
軒傍松塔野迥三水西流去路接三山首置回怡悵寒溪猶刻身
空亭日暮且停盃 亭西南有先祖遺甃

合江亭重修工標文

述夫三山上戴金鬚靈巖攢壁三水中分白鷺紅亭枕江百
年重修兩辰相合念東映嶺麟蹄之勝而西江如龍尾之公
大勝吸瀑之發源見三洲之歷于簡五始之落脉 equal 二運
道濟深出其間 鄰元之徑可致蒸湘會于左韓愈之詩可傳
肆以合江亭名在茲大都會處三江既入居然成味間三標萬
堅爭流到此為 延津之鉤居縣北五里之延鐘不及齊雲落星
井幹龍旗之高華在閩東八景之中亦何讓越松望洋清澗
鏡浦之新啟清名直節遠挹五載蒼遺墟潭影滌聲長

流竹下臨長江發源出其源出嶽嶽之縣會三三三又於十亭世
是及為 淵淵之拾突兀見丘架標一層樓晴川漁漁映日月
北龍騎牙林香茫齊落霞托鶯昔川春燕視樓外樓而小亦
小村落入望田南而名有宅巴陵之勝實在此西湖之茂林
似以鷗鷺相親水碧沙明而危蕪雀未賀星移物換歲秋惟
茲巽然之新亭詎無爽焉之善頌 承輝 適恭按節之任索
之按簡之才胡公之行節過衡同如登覽非 職范老之按筆
記亦庸電運 遠皆震鐘太白未看 瀟樓之先鞭 庶子瞻
為下虛山之生客恭 既皆便之讀用助兒即之呼記即障地

留三洲翁秀句松綴數年之久速遂致神宇之歌傾蘭亭

之脩竹茂林那免不遇之暇黃樓之靈靈崑崙兩實有湯
朽之憂居民興嘆自此名區之無顏色遇客指點應笑
太守之不風沉滯豈非侯家承名家芝蘭之安下蘇松桂之
守郭細侯之九里河潤人自得拈湖山膝子京之二年政通治
先修拈棧觀登茲曰望慨然一新神壇處中央之州可無奉
香幣之呼迎却通南北之路若為 旣惟之方歸然獨存
豈容天公之吹倒質之仍舊實勞地王之從營山迤黃鵬村
小亦可持用 蘇捐亦只受民樂於其成拈是上聲殿閣

梁東快奈紅旭照客棧客棧影入于江潤人在道如兩鏡中
記即停拋梁西明月復溪過客題黃楊千年人去迷晴川芳草
綠草之記即停拋梁南烟林映蒂鏡波涵寒漢寺裡鐘聲
早知有高僧禮佛龕記即停拋梁北京風迤之依非陸菲
機波波快飛仙恐軒一聖玫瑰色兒即停拋梁上天水空
滋氣爽朗練帶平鋪合西襟風飄沙島紛相颺記即停
拋梁下閭閻井落環手野民無天札歲豐登 屬恭按節高勸
掃梁伏願上標之後江流與天地長存始樹閱風雨無恙合
必分必合容亦知夫水乎或有致之有法吾以名斯亭也向



光武三年二月日麟蹄郡衙舍樓臺形勝題詠文

| 년 월 일 | 내 용 |
|------------------|--|
| 仁祖15년 閏4월 (1637) | 23 · 강원도 흡곡·고성·인제에 눈이 내림. |
| 18년 5월 (1640) | 6 · 강원도 철원·안현·평강·인제등지에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림. |
| 19년 9월 (1641) | 17 · 강원도 인제현에 지진이 발생 |
| 肅宗10년 5월 (1684) | 25 · 강원도 인제등 네 고을에 황송이 성함. |
| 12년 8월 (1686) | 8 · 지난 7월에 인제현과 철원부에 비와 우박이 많이 내렸는데 큰 것은 제린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하다고 감사가 이를 보고함. |
| 正祖21년 7월 (1797) | 12 · 흡곡·인제·철원의 향교와 서원의 토지에 대하여 면세를 요청함. |

光武三年二月日麟蹄郡衙舍樓臺形勝題詠文

晚孤麟蹄縣

繫舟紅蓼下 驅馬白沙間 松影高低路 秋光遠近山 峽

農得無 澗巖邑 寂多閑 雪嶽橫天半 明朝故可攀

乙酉秋 觀察使 洪敬謨

東軒懸板

次 四省潔詩

昏昏亭午睡 毛垂小吏持筒忽 叫奇噴簿紙中 踈萬

點麟蹄太守水簾詩

癸亥夏

麟蹄卽我 先祖守愚公 曾按縣也 余以無肖猥叨 繩武

敬居先生案後志感

吾祖曾臨地 後孫復莅官 桐鄉何者 茫梅間 尚平安 御

下心猶別 追先故 益難明朝着 雪嶽白首我 懷寬

歲癸亥十月上澣 六代孫 宗永 謹稿 東軒懸板

翠塢回米白 粉塢使君於此 嘯聲長 不愁霜落 芭蕉 二病

漸見秋花 秋吐黃

公軒寂寂 復澄澄 太守前身是 誰能盡日焚香 聞古

或畫前相對 雪山僧

辛巳 維夏 溫州李 堉 謹書 東軒懸板 題 臨仙閣

鄭翻朝

庚午六月朔八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任百憲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黃我純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姜薰秀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鄭臺時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鄭澤奎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趙官錫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朱堯燮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朴聖根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丁喜燮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立濟祀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韓錄序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李文鉉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安昌烈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方澤七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洪承泰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李教秀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趙澤根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權澄鏞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金太鏞

庚午六月二十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於丙六月十六日政以長政令七月二十日即位

鄭臺時
以外府主事延陽二年三月二十日政以長政
陳曆丁酉三月二十日即位

| | |
|--------|--------------------------|
| 趙儀達 | 乾隆甲寅七月到任乙卯十二月在喪去 |
| 李元膺 | 乾隆丙辰正月以永同縣監掾來己未正月以迎華察訪去 |
| 白鳳周(文) | 乾隆己未正月以兵曹佐郎未同年十二月去 |
| 韓用謙 | 嘉慶己未十二月以典選署判官未壬戌七月移拜杆城郡守 |
| 趙鎮天 | 嘉慶壬戌八月到任甲子六月居水去 |
| 洪赫 | 嘉慶甲子七月以長寧殿令未丙寅十二月移拜金澤縣令 |
| 李宗孝 | 嘉慶丙寅十二月以禁府都事未己巳正月以御史怒罷去 |
| 李勉心 | 嘉慶己巳正月以刑曹正郎未辛未五月移拜林恩郡守 |
| 柳仁根 | 嘉慶辛未五月以杜稷署令未甲戌六月移拜安山郡守 |
| 林斗鎮 | 嘉慶甲戌六月以軍資監主簿未乙亥日捐世 |

| | |
|--------|------------------------|
| 鄭宅濟(武) | 己丑五月到任庚寅十二月罷去 |
| 趙來鎮 | 辛卯正月以漢城判官未甲午十二月去 |
| 李國亨 | 乙未正月以司饗主簿未丙申五月狀罷去 |
| 金道淳 | 丙申五月以敦寧府判官未戊戌十二月移拜永川郡守 |
| 呂善泰 | 己亥正月以刑曹佐郎未庚子十月捐世 |
| 尹得欽 | 庚子十一月到任壬寅八月捐世 |
| 任煢 | 壬寅九月到任丁未六月亦滿去 |
| 吳彥諒 | 丁未七月到任庚戌十月捐世 |
| 申光河 | 庚戌十月到任辛亥九月狀罷 |
| 朴宗福 | 辛亥十月到任甲寅六月移拜金城縣令 |

| | |
|-----|--------------------------------------|
| 李植祐 | 嘉慶乙亥四月以刑曹正郎未己卯五月嘉慶己卯五月以刑曹司禦未道光壬午九月御史 |
| 李度憲 | 道光壬午九月以杜稷令未丁亥二月 |
| 魚在琬 | 道光壬午九月以宗廟署令未己丑十月移拜枕山郡守 |
| 洪殷燮 | 道光丁亥二月以刑曹正郎未己丑十月 |
| 朴奎源 | 道光己丑十二月以司憲府監察未壬辰五月在喪去 |
| 鄭基重 | 道光壬辰五月以刑曹正郎未乙未五月移拜永川郡守 |
| 鄭淳榮 | 道光乙未五月以刑曹佐郎未丙申十二月移拜印符去 |
| 趙箕淳 | 道光丙申十二月以工曹正郎未戊戌六月居水去 |
| 金箕淳 | 道光戊戌六月以司憲府監察未辛丑閏三月捐世 |
| 李懿詰 | 道光辛丑閏三月以道鉉署別提未同年十月捐世 |

| | |
|-----|-----------------|
| 姜潛 | 道光辛丑十一月以龍仁縣令相繼來 |
| 朴容社 | 甲辰五月初三日 |
| 宋鍾寧 | 甲申三月二十二日 |
| 南致重 | 甲申三月二十二日 |
| 全頭初 | 甲申三月二十二日 |
| 李晚細 | 甲申三月二十二日 |
| 李仁會 | 甲申三月二十二日 |
| 朴玄承 | 甲申三月二十二日 |
| 朴在 | 甲申三月二十二日 |
| 朴元 | 甲申三月二十二日 |

柳 苾 順治丁酉八月以監察未己亥六月居水
去
順治己亥八月以別提未申辰六月瓜滿
運去
金世豪 康熙甲辰七月以禁府都事未乙巳六月
居下去
崔時高 康熙乙巳七月以宗簿寺主簿未己酉二
月以年滿運去
金 紐 康熙乙酉四月以內資主簿未癸丑三月
以同生齋本道監司相避運去
李 嗣 康熙癸丑五月以迎曙察訪未甲寅八月
居水去
金韶夏 (文) 康熙甲寅八月以監察未乙卯九月以備
司啟歸罷去
鄭正陽 康熙乙卯十二月以禁府都事未丁巳十
月在喪去
李世億 康熙丁巳十一月以前正印未戊午十二
月 御史書 啟罷去
姜壽楠 (文) 康熙己未二月以安陝縣監換差庚申六
月居水去

李舜岳 康熙辛酉二月以刑曹佐印未丙寅正月
瓜滿運去
沈 滌 康熙丙寅二月以禁府都事來辛未正月瓜滿
運去
李始興 康熙辛未正月以禁府都事來瓜滿後以賑
做仍任丙子五月以御史書 啟罷去
金昌國 康熙丙子六月以工曹正印未戊寅六月居
水去
李 洙 康熙癸卯六月以禁府都事來庚申六月瓜滿
後以仍任丙子五月以御史書 啟罷去
金威大 康熙甲辰八月以監察來庚申六月瓜滿
後以仍任丙子五月以御史書 啟罷去
申 截 上符 命只雅仍任丁亥八月以滿運去
趙光命 康熙丁亥十月以監察來庚寅六月吏曹 啟
罷去
徐宗積 康熙庚寅閏七月以掌樂主簿未乙未七
月瓜滿運去
李雨臣 康熙乙未八月以刑曹正印未戊戌四月移
拜韓山郎守
康熙戊戌五月以宗簿寺主簿未同年十二月
以善治限拜大兵判官 領銜任在 啟罷

李敬隣 康熙戊戌十二月以禁府都事來庚子七
月因本道狀 啟罷去
韓配厚 康熙庚子九月以漢城主簿未雍正三年
乙巳八月瓜滿去
權養性 雍正乙巳以漢城主簿未丁未六月陞拜
金提郎守
趙明震 雍正丁未七月來戊申四月連內艱去
趙鎮世 (文) 雍正戊申以軍職 除拜八月科文學仍
任辛亥八月以持平去
金相圭 雍正辛亥九月以前縣監來甲寅六月貶去
任安世 雍正甲寅八月以 社稷令來同年十二
月貶去
柳 澈 雍正乙卯正月以司僕寺主簿未丁巳三
月因本道狀 啟罷去
李普質 雍正丁巳三月以工曹佐印來庚申五月
因本道狀 啟罷去
尹得聖 雍正庚申閏六月未壬戌八月在喪去

申鎮夏 壬戌九月到任乙丑正月吏曹 啟罷去
李廣矩 乙丑三月到任己巳八月瓜滿去
金光遜 己巳九月到任癸酉十二月以病狀罷去
金善材 甲戌二月以司醫主簿未丁丑五月移拜
新溪縣令
李龜老 丁丑五月到任己卯閏六月 御史書
啟罷去
黃 植 己卯九月到任庚辰六月居水去
申光履 庚辰七月到任癸未四月以病狀罷去
尹昌柱 癸未四月到任丁亥十二月瓜滿運去
李顯白 戊子正月到任同年十二月 擢教道
差去
李命彬 (文) 戊子十二月以弘文館修撰 除授己丑
五月運去

尹殷卿

萬曆丁亥十一月前任新昌縣監未辛卯正月授忠敷郡守

朴文弼

萬曆辛卯正月自司府監察未壬辰正月居水去

李大順

萬曆壬辰四月自奉常寺主簿未乙未正月箇滿還去

李廷益

萬曆乙未正月自內應寺主簿未丙申十二月以災傷差錯罷去

朴大信

萬曆丁酉正月前沃川郡守未同年十二月在喪去

許鑄

萬曆戊戌正月自監察未己亥正月府啟罷去

閔佩

萬曆己亥三月自內資寺主簿未同年十二月居水去

李潔

萬曆庚子正月自監察未同年四月因御史狀啟罷去

崔東式

萬曆庚子五月前戶曹正印未同年十月戶曹以田結事啟罷去

沈宗道

萬曆庚子十一月前戶曹佐印未壬寅呈辭棄官去

李宜兒

萬曆壬寅八月長興主簿未同年十二月居水去

朴忠生

萬曆癸卯正月以監察未甲辰九月災傷差錯罷去

李有慶

萬曆甲辰十一月未同年十二月居下去

李慶林

萬曆乙巳正月以主簿未丁未七月箇滿以民願一年仍任戊辰七月御史狀啟罷去

閔緜

萬曆戊申八月前典簿未己酉九月稅脫違去

李馮

萬曆己酉十月以前益山縣監未壬子七月以府啟罷去

尹祥

萬曆壬子九月以監察未同年十月以府啟罷去

具仁基

萬曆壬子十一月前定山縣監未丙辰六月以府啟罷去

金叻

萬曆丙辰七月以典簿未辛酉七月箇滿天啟壬戌二月以三邑未癸丑御史狀啟罷去

李竣

天啟壬戌二月以三邑未癸丑御史狀啟罷去

李尚勳

崇德丁丑九月以某府都事未己卯正月以親病之重仍丁憂去

朴弘護

崇德己卯四月以前典簿未壬午五月捐世

李栢

崇德壬午七月以前奉常判官未順治甲申六月居水去

李旭

順治甲申七月以監察未同年十月以親病亟營終罷去

李之屏

順治甲申十一月以典籍未乙酉四月在喪去

李命寅

順治乙酉五月以主簿未庚寅正月箇滿去

柳仁聲

順治庚寅二月以監察未同年三月以生稔閣封事監營罷去

韓錫明

順治庚寅四月以銜率未辛卯七月以差使負不番監營罷去

金汝亮

順治辛卯九月以奉常判官未丙申六月順治丙申八月以監察未丁酉六月居水去

尹建之

順治丙申八月以監察未丁酉六月居水去

尹衡覺

天啟癸亥六月以司史未乙丑九月棄官去

朴煥

天啟乙丑十月以司評未戊辰正月棄官去

朴知馨

崇禎戊辰四月以尚衣主簿未己巳正月監司狀啟罷去

李巖慶

崇禎己巳二月以前益山縣監未庚午五月以差使負監營罷去

金溪

崇禎庚午七月以前主簿未同年十月災傷差錯罷去

李恭男

崇禎庚午十一月以前縣監未壬申六月居水去

柳文錫

崇禎壬申八月以前通禮院引儀未甲戌十一月以殺人奪去

朴烜

崇禎乙亥正月以前奉常判官未同年三月罷去

尹皓

崇禎乙亥四月以前奉常判官未同年十二月在喪去

金志頰

崇禎丙子正月以前監察未崇德丁丑八月御史書終罷去

嶺在縣北一百三十里淮陽界連脈合洞 閭嶺在縣北八十里杆
城界連脈三峙嶺彌矢嶺在縣東八十里襄杆界連脈閭嶺丁嶺
在縣東九十里襄陽界連脈五基山斗武洞峴在縣西五十五里揭
口界連脈揭口峴率山加水峴在縣南四十五里春川界連脈乾乾
峴乾乾峴在縣南五十五里洪川界連脈春川如里峰寒溪洞黃鵠山
在縣東五十里雲岳山落脈襄陽界五色嶺在縣東七十里曲百潭
紫山在縣東七十里襄陽界龍堡紫山在縣北八十里杆城界合
在縣東五里合江里村前流下春川界

土產 當歸 蒼木 茯苓 人參 清蜜 金銀花 芍藥 麻布
金蜂魚 熟日魚

館宇 靈昭館 睡仙閣 武庫 穀倉

樓宇 合江亭 間數六間 下有兩水 乙丑縣監朴宗永重修

關防 烽燧 名賢塚墓 人物 名賢 忠節 孝子 并無

結總 元結合三百二結 五圭負束每結二十五兩式價錢五千十
三兩七錢八分 大粟結合百三十結 三十負每結二十兩式價錢
二千六百六兩

戶總 元戶一千六百十三戶 每戶三兩式 四千八百三十九兩 山戶五
百六十五戶 每戶二兩五錢式 一千四百十三兩五錢

邑先生錄

權詠 嘉靖己酉二月自司憲府一察未甲寅二月箇滿
而授活人署別根去
嘉靖甲寅二月以禮賓寺判官未己未二月
除道徽署司獄去

柳湜 嘉靖己未二月自司憲府主簿未同年十二月
居水去
嘉靖庚申正月自司憲府監察未十二月
居水去

李公仁(文) 嘉靖辛酉二月 監司狀 除據以戶曹佐即擇
差除學家未亥八月 除授典籍去
嘉靖癸亥八月 自成均典籍未乙丑六月 殿
最居下去

沈錫(文) 嘉靖乙丑自成均典籍未丙寅十二月 居水
去
隆慶丁卯二月 自司憲府監察未己巳九
月 除通禮院引儀去

尹忠慎 隆慶己巳九月 自司憲府監察未庚午二
月 親于安邊府捐世

洪致禹 隆慶己巳九月 自司憲府監察未庚午二
月 親于安邊府捐世

李慶雲 隆慶己巳九月 自司憲府監察未庚午二
月 親于安邊府捐世

黃應泰(文) 隆慶己巳九月 自司憲府監察未庚午二
月 親于安邊府捐世

任瀚(文) 隆慶己巳九月 自司憲府監察未庚午二
月 親于安邊府捐世

朴之亨(文) 隆慶己巳九月 自司憲府監察未庚午二
月 親于安邊府捐世

柳秘 隆慶己巳九月 自司憲府監察未庚午二
月 親于安邊府捐世

閔忠烈 隆慶己巳九月 自司憲府監察未庚午二
月 親于安邊府捐世

吳克達 隆慶己巳九月 自司憲府監察未庚午二
月 親于安邊府捐世

薛應寅(文) 隆慶己巳九月 自司憲府監察未庚午二
月 親于安邊府捐世

李一元(文) 隆慶己巳九月 自司憲府監察未庚午二
月 親于安邊府捐世

尹溶 隆慶己巳九月 自司憲府監察未庚午二
月 親于安邊府捐世

樓亭 合江亭 在巖北五里一派水自嶺轉懸長一泓水
佛宇 百潭寺 在巖東六十里 鳳頂菴 在巖東百里亦有

五巖菴 自巖東八十里亦在嶺中而梅月先生
永矢菴 自巖東八十里而菴 瑞龍菴 自巖北
巨巖 紅津浦 自官門東距五里

物產 五味子 紫草 人蔘 蜂蜜 當歸 松茸
驪潭 會付各穀四十六百八十二石十二斗三升五合
五斗今為各穀一萬五百二十五石七斗五升五合
合九斗又菴運各穀七千一百十三石二斗三升

大同 田米三十四石
田稅 田米二石六斗四升三合一升四釐二斗五石一
斗三升四合七勺太十五勺十四斗三升一合六

俵庫 夕二月收博春川北臨江裝載運于京江納于戶
會大同均稅同令則以錢代穀
大木三十五石十三斗一升五合田米三十五石
十三斗一升五合錢四百七十九兩九錢七分柴
一千二百束炭三十石車雞八百首

軍保 騎兵保七十 禁衛保七十 御營保八十 步兵保三十
四名 禁軍保二 別破陣保十 軍餉保十二 砲保十
大 危輦隊保一名 內吹保三名 楸直保六名 樂工保六名
僕諸負十五 牙兵七十 東伍一百二十

題詠 萬里蒸湘逼千尋湖嶺空吾兄有明眼荒縣抗
仙風潭影令人羨灘聲與攸通村氓來講裡沙際翫窓櫺
右金昌翁 覽三洞

嶺界時為鳥足縣本而瑞和里在縣北云東高句麗時為瑞城縣合
為五而

如心 沈金雀 李郭朴 權

山川起龍山在縣北二里縣之鎮小金剛山落脉峨瀾山在縣西
三里揚口兜率山落脉飛鳳山在縣東四里江陵五臺山落脉
萬戶臺在縣東五里飛鳳山落脉紅塵浦在縣東三里邑之奇口
八峰山在縣南五里嶺增山落脉龍治在縣南五里八峰山下巖
石中匯為池其深無底大巖山在縣北五十里金剛山落脉智異山
在縣東六十里雲岳山落脉大勝浦在縣北六十五里寒蔭山上有
一水飛下長百之三時巖在縣北一百日 高城界連脉金剛小槽田

麟蹄誌續輯

東至下嶺襄陽界九十里彌矢嶺杆城界八十里閭洋杆城界八
十里西至斗洞楊界五十五里南至加水峴春川界外四十五里乾
泥峴洪川界五十五里指京路北至三時嶺高城界一百里檜田嶺淮
陽界一百三十里邑距京都三百七十里五日程
建置沿革 新羅時號曰鳥足縣 唐高宗歲自濟高句麗時
為瑞城縣 王太祖時為猪足縣今為麟蹄縣未知何年改號
鎮管屬京州官員縣監一員 郡名麟蹄別號靈昭雪山
坊曲縣內邑治王太祖時為猪足縣東面在縣東三十里南面在縣南
十里北面在縣北二十里瑞和面在縣北三十里本面伊布里一百二十里

太宗十三年癸巳為縣監縣名瑞城在縣北六十里水

高句麗王岐羅新羅德王改馳道為楊麓郡領露西

改名今屬春川後屬淮陽猶足烏斯田穉蹄新增靈昭

名山 伏龍山 在縣北五里而後是山始淮陽全剛山南

至瑞和西邊臺岩山起中粗峰遠連而未伏龍

雪岳山 在縣東五十里是山自淮陽全剛南麓落脈至

嵐北嶺未空長山自望長山未為真寶嶺自真寶

嶺未為此伊嶺自此伊嶺來為西坡嶺自西坡嶺

寺永入卷五歲菴又有萬景臺寒溪瀑連濕水瀝

洞泉石絕勝峯密非奇全剛相上下云

大勝瀑布 在縣東五十里山上有勝庵址前山泉流成

濕布數千丈望之如白虹垂天其上度絕

下橋二千二十尺

地理室 在嵐校 距東二十里石山嵯峨岩流清冽早

彌勒川 在官門五里合十四洞水南流為加奴津

風俗 淳朴生業耕稼

壇廟 社壇 在縣西 文廟 在縣東 城隍壇 在縣北

祭壇 在縣北 壇壝 中央壇 在合江亭後而以

旱灾瘡痕之甚則 巡御親祭祈禱 在縣北

公解 客舍 二十九 衙舍 間三十五 軍器 間十二

水灾 官廳 一間 作廳 間十七 縣司 間二 軍官廳 間五

堤堰 元通堤 在縣北元通前自官門五里間四三

百十九尺廣八十三尺長一百十二尺

水深一丈 在水道地正處

倉庫 邑倉 二十 瑞念 間在瑞和而自官門四里十九

驛 元通驛 驛馬一匹下馬二匹奴四名 馬路驛 二匹

下馬四匹吏五人奴十五名婢八名在官門南距

三十里 嵐校驛 下馬三匹奴五名婢三名在官門刺潭四

院 建伊院 在縣南 馬路院 在縣南

古跡 寒溪古城 石築周四六千二百七十八尺高四尺

上勝菴 在寒溪深十里許而今有菴 白雲菴 在寒

東四十里 城隍無

人物 孝子金敬範烈女趙玉立妻三陟余氏並有旌門

司馬鄭魯武科金泰國行府使

早田 九十七結五十

水田 八負九束

津渡 磊灘津 在官門北距十 加奴津 在官門南距

馬路津 在官門南距

封山 雪岳山 自官門北距 寒溪山 自官門北距

龍基

嶺陀 彌矢嶺 自官門東距八十里 間嶺 自官門北距

杆城界 珍寶嶺 自官門北距八十里而

地接高杆界 檜田嶺 自官門北距一百五十里

書院 金三洞影堂 自官門南距三十里地名九萬里

道光二十三年麟蹄縣邑誌邑 先生案

原州鎮管所屬麟蹄縣東至襄陽府界七十里西至... 界五十里北至杆城郡界八十里西至京三三百七... 十里五日程南距 監營二百四十里東海濱濱一... 百三十五里二日程

坊曲縣內面 下道里自官門西距二里編戶一百二... 里自官門東距二里編戶七十三男一百四十一口... 女一百八十一口德山里自官門東距五里編戶四... 十二男七十七口女八十五口德積洞自官門東... 自官門北距四十里編戶二十七口女三十一口加里山... 四口清溪洞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十七男三十... 五口女四十八口古沙洞自官門東距十五里編戶... 十一男二十一女二十八口古沙洞自官門東距十五里編戶... 東而院袋里自官門東距三十里編戶四十男八十四... 口女一百二十口下楸洞自官門三十里編戶十四

六男三十口女三十三口耳吞里自官門東距五... 十里編戶二十四男五十九口女六十七口... 如牧里自官門南距十里編戶二十七男五十一... 女六十二口藍田洞自官門二十里編戶四... 十五男一百二十女一百九口馬路里自官門南... 距三十里編戶九十男一百九十九口女二百口... 北坪里自官門南距三十五里編戶三十九男九... 十三口女一百六十六口沙規里自官門南距四十里... 編戶四男十一口女十五口於論里自官門南距... 五十里編戶二十二男三十九口女四十七口... 時里自官門東距四十里編戶二男五口女五口... 存子羅里自官門南距五十里編戶十一男二十... 編戶八男十八口女二十二口羅加里自官門西... 距三十五里編戶九男十六口女十七口... 距四十五里編戶三十六男七十三口女八十一口... 頭毛洞自官門西距五十七里編戶八男二十一... 十七口女三十四口甲屯里自官門七十里編... 戶二十七男二十八口女四十四口

北而

元通里自官門北距十里編戶五十一男一百十五... 口女八十四口東溪洞自官門東距三十里編戶... 十九男三十二口女二十七口松鶴洞自官門北... 距三十里編戶二十八男七十六口女八十九口... 洞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六男四十七口... 洞五十六口歲校驛自官門東距四十五里編戶... 三十六男七十七口女四十二口加歷自官門東... 五十一男七十七口女四十二口加歷自官門東... 里自官門北距六十里編戶二十男四十一口女... 四十五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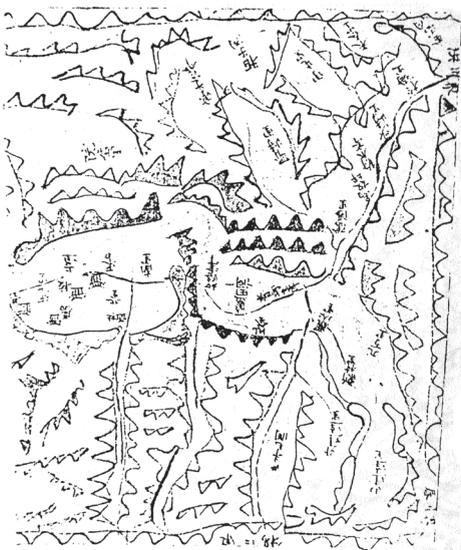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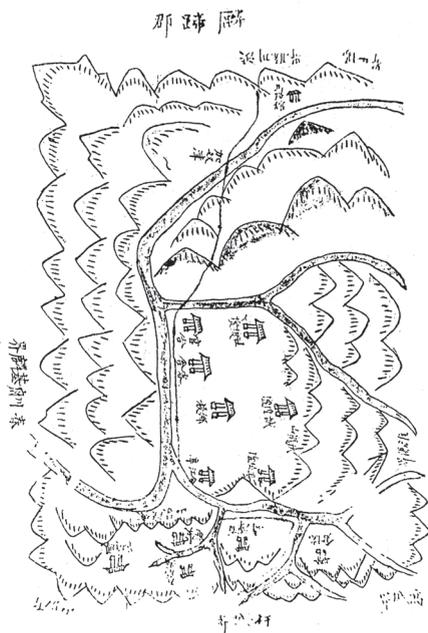
瑞和而

沙川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二十四男... 三十口女三十口論章里自官門北距四十里... 有倉曰瑞倉編戶三十六男六十一口女七十三... 口水濟里自官門北距四十五里編戶四十三男... 里編戶七十一男一百三十三口女一百五十二... 口西希里自官門北距七十里編戶七男十五口... 女十九口伊布里自官門北距八十里編戶十五男... 三十六口女四十二口龍山里自官門北距一百... 里編戶十八男三十六口女三十九口帳籍準... 自官門東至德山五里德山至德源十里自德植... 洞至加里山二十里自加里山至春川其計界二... 十里自官門南至如牧路十里自如牧路至藍田... 洞自沙時至於論里十里自於論里至建伊時三... 洪川界即馬路驛分設東北間至羅加里三十里... 自羅加里至頭毛洞嶺三十里楊自官門至... 元通驛十五里自元通驛至巖校驛三十里自巖... 校驛至巖校驛三十五里杆城元岩驛接界自官... 門西北間至龍山三十里自龍山至瑞承洞五十... 里自長承洞至龍山三十里自龍山至至檢... 四嶺二十里淮陽金剛山界

水路

建置沿革本高句麗楮足縣一云鳥斯新羅改稱蹄為... 楊麗御屬縣高麗改今名屬春川後屬淮陽恭讓王元... 年置監務

麟蹄邑誌 江原道



邑四一丈
世四九元

大東地志揚口

〔津渡〕北川 北二里冬

〔王産〕鐵漆紫檀五味子安息香紫草人荃茨苓松葦

石葦蜂蜜鈴羊白花蛇訥魚餘項魚○黃腸封山處

〔典故〕高麗禍九年倭寇橫川 本朝 太宗朝幸橫

城講武 仁祖五年縣人李仁居自桶倡義聚徒數

百突入本縣縛縣監李擢另悉發軍器屯縣後高阜

為犯京之計京賊戒嚴發近地兵守要害命三南兵

使領兵境上待變原州牧使洪寶發兵捕之

揚口

〔沿革〕本要隱忽次新羅為揚口景德王十六年改楊

麓郡 隸朔州都督府領縣 四 高麗太祖二十三年改

楊湑縣 顯宗九年屬春州睿宗元年改揚口以狼川

監務未兼 本朝 太祖二年析置監務 太宗十

三年改縣監 縣監一員

〔邑〕方山 北三十里本家波芳新羅為三峴景德王

二十三年改方山 顯宗九年屬春州 世宗六年未屬

〔山〕水飛鳳山 北二頭陀山 北五頭明山 西三十里羊

池有兜率山 東北四夜安山 東北六牛鳴山 南四水山

南四十五聖岩山 東南三十嶺率嶺 在兜率山嶺

里春川界峴峴 北里頭毛峴 東南三十嶺率嶺 在兜率山嶺

里嶺率嶺 峴峴 北里頭毛峴 東南三十嶺率嶺 在兜率山嶺

邑四一丈

十五沙里串峴 十里三嶺峙東三十里松峴 鶴峴 俱

二十里文登峴 北六十里鋪遷南三十里路甚 遠

下通合流 時洛峴 西二十里 〇南江 南三十里 江

頭陀川 經東北五里 涼出沙汰 潤 〇南江 南三十里 江

雲南川 舊稱曲漢 涼出峴 南流 亥安川 涼出五十里

繞南流 入嶺 西北涼入頭陀川 南流 亥安川 涼出五十里

嶺南流 入嶺 西北涼入頭陀川 南流 亥安川 涼出五十里

坊里縣 內面 終十 西面 初三 五 南面 三十 終 北面 十

十 三 上 東 初 七 五 下 東 初 十 終 方 山 十 西 北 初 十

安 東 初 十 終 方 山 十 西 北 初 十 終 方 山 十 西 北 初 十

〔城〕池飛鳳山 古城 十 尺 九

〔倉庫〕北倉 西三十里 亥安倉 在 亥

〔驛站〕舍春驛 北五十里 逐仁驛 南三十里 銀溪道

〔王産〕五味子 紫草 人荃 茨 苓 松 葦 石 葦 海 松 子

羚羊 白花蛇 訥 魚 餘 項 魚 錦 鱗 魚 麻 白 土 磁 器 〇 黃

腸 封 山 北 六十 里 沙

〔典故〕高麗禍九年倭寇侵揚口

麟蹄

〔沿革〕本島斯面新羅改猪足景德王十六年改猪蹄

為楊麓郡 領縣高麗太祖二十三年改麟蹄 顯宗九

年屬春州 後屬淮陽 恭讓王元年置監務 本朝

顯忠邑誌

辰五月在喪去

鄭基重

道元壬辰五月以刑曹正郎來乙未五

日移拜永川郡守

鄭淳榮

道元乙未五月以刑曹佐郎來丙申

十二月授印符去

趙箕淳

道元丙申十二月以工書正郎來戊戌

六月卷水去

金箕溲

道元戊戌之月以司憲府鑑察來辛丑

閏三月捐世

李懿詒

道元辛丑閏三月以造紙署別提來

同年十月捐世

姜潛

道元辛丑十一月以龍仁縣監換來

三九二

關東邑誌

申光履

庚辰七月到任癸未四月以病狀

羅去

尹昌柱

癸未四月到任丁亥十二月瓜滿遊

去

李顯白

戊子正月到任同年十二月因特教遊

差去

李命彬

戊子十二月以弘文館修撰除授

己丑五月遊去

鄭宅濟

戊己丑五月到任庚寅十二月罷

去

趙來鍊

辛卯正月以漢城判官來甲午

十二月吏曹 答罷去

李國業

乙未正月以司饗主簿來丙申

全道淳

五月狀罷去

呂善養

己亥正月以刑書左郎來庚子十月

指世

尹得欽

庚子十一月到任壬寅八月指世

指世

任堉

壬寅九月到任丁未六月瓜滿去

吳考諤

丁未七月到任庚戌十月指世

申光河

庚戌十月到任辛亥九月狀罷

去

朴宗福

辛亥十月到任甲寅六月移拜

金城縣令

趙儀遠

乾隆甲寅七月到任乙卯十二月

在喪去

關東邑誌

三八九

關東邑誌

李元膺

乾隆丙辰正月以永同縣監換

來己未正月以延華察訪換去

白鳳周

文乾隆己未正月以兵書佐郎來同

年十二月貶下去

韓用謙

嘉慶己未十二月以典性署判

官來壬戌七月移拜杆城郡守

趙鍾大

嘉慶壬戌八月到任甲子六月居水去

嘉慶甲子七月以長寧令來丙寅

李宗若

嘉慶丙寅十二月以禁府都亭來己

己丑正月以御史 啓罷去

李勉心

嘉慶己巳正月以刑書正郎來辛未

五月移拜 報恩郡守

柳仁根

嘉慶辛未五月以社稷署令來甲

朴斗鍊

嘉慶甲戌六月以律學監 呈 旨

東乙亥三月指世

李種祐

嘉慶乙亥四月以刑書正郎來

己卯五月陞拜淳昌郡守

李度憲

嘉慶己卯五月以翎衛司司禦來

道元壬午九月 御史 啓罷

魚在珉

道光壬午九月以社稷令來丁亥

二月陞拜槐山郡守

洪啟燮

道光丁亥二月以宗廟署令來己丑

十二月移拜丹陽郡守

朴奎泳

道光己丑十二月以司憲府監察來壬

關東邑誌

三九〇

關東邑誌

三六

沈 淮 廉 丙寅二月以禁府都事卒
未正月簡滿去
李 始 興 廉 丙寅未正月以禁府都事卒
瓜滿後以賑政仍任丙子五日
以 御史書 啓罷去
金 昌 國 廉 丙子六月以工書正郎來代
寓六月居水去
李 洙 廉 丙寅未六月以禁府都事來
癸未八月瓜滿命出賑救事限
甲申來秋仍任同命七月以
善賑事回 御史廢 啓陞交
移拜寧越府使
金 盛 大 廉 丙寅甲申八月以禁府都事丁

東丙寅十月棄官 啓罷自上特
命只推仍任丁亥八月以病棄官去
申 載 廉 丙寅丁亥十月以監察來庚寅六月
吏書 啓罷去
趙 元 命 廉 丙寅庚寅閏七月以學樂主簿
來乙未七月瓜滿去
徐 宗 積 廉 丙寅乙未八月以刑書正郎來
戊四月移拜韓山別守
李 西 臣 廉 丙寅戊寅五月以宗朝令來同
命十二月以善治隨拜大立判官
李 敬 琦 廉 丙寅戊寅十二月以孫府都事來
庚子七月回本道狀 啓罷去
韓 配 尊 廉 丙寅庚子九月以漢城主簿來

關東邑誌

三六

權 養 性 廉 丙寅乙巳八月瓜滿去
六月陞拜金堤別守
趙 明 震 廉 丙寅丁未七月來戊申四月去
艱去
趙 鎮 世 文 廉 丙寅戊申八月以軍職除拜八月拜
文學仍任辛亥八月以持平去
金 相 圭 廉 丙寅辛亥九月以前縣監來甲寅
六月去
任 安 世 廉 丙寅甲寅八月以社稷令來同午
十二月去
柳 澂 廉 丙寅乙卯五日以司僕寺主簿來丁
巳三月回本道 啓罷去

李 普 寓 廉 丙寅丁巳二月以一書佐即來庚
申五日回本道 啓罷去
尹 得 聖 廉 丙寅庚申閏六月來壬戌八月
在喪去
申 鍊 夏 廉 丙寅壬戌九月到任乙丑正月吏書 啓罷去
李 鷹 矩 廉 丙寅乙丑三月到任己巳八月瓜滿去
金 光 遂 廉 丙寅己巳九月到任癸酉十二月以病狀罷
去
金 善 材 廉 丙寅甲戌二月以司饗主簿來丁丑五日
移拜新溪縣令
李 龜 老 廉 丙寅丁丑五月到任己卯閏六月御史書
啓罷去
黃 栢 廉 丙寅己卯九日到任庚辰六月居水去

申六月居水去

柳文錫 崇被壬申八月以通禮院引儀

庚申戌十一月以被入事奪去

朴燧 崇被乙亥正月以禁府都事未同令

三月罷去

尹 皓 崇被乙亥四月以司儀未同令十二月

在喪去

全志毅 崇被丙子正月以監祭未崇德丁

丑八月御史書 啓罷去

李尚 勳 崇被丁丑九月以禁府都事未

己卯正月進親病之重仍丁憂

朴弘護 文崇被己卯四月以司典籍未壬午

五月捐世

李楫 文 崇德壬午七月以前奉常判一作

未順治甲申六月居水去

李旭 順治甲申以日以監祭未同令十月

以祝病 監啓 啓罷去

李之屏 文 順治甲申十一月以典籍未乙酉四

月在喪去

李命 文 順治乙酉五月以主簿未庚寅正月

滿去

柳仁 聲 順治庚寅二月以監祭未同令三月

以主簿 闕封事 監啓 罷去

韓錫 明 順治庚寅四月以衛率未辛卯七

月以差使 復不晉 監啓 罷去

金汝 亮 文 順治辛卯九月以奉常判官未丙

申六月滿去

尹建之 順治丙申八月以監祭未丁酉六月

居水去

柳 必 順治丁酉八月以監祭未己亥六月

居水去

全世豪 順治己亥八月以別提未甲辰

六月瓜 滿 遯去

崔時高 康 順治甲辰七月以禁府都事未乙

巳六月 居 下 去

全 紐 康 順治乙巳七月以宗簿寺主簿

未己酉二月以年滿 遯 去

李 勳 康 順治己酉四月以司贊主簿未癸

丑三月以同生弟才道 監司相 遯

遯去

全韶 夏 文 康 順治己酉五月以迎曙察訪未

甲寅八月 居 水 去

鄭正陽 康 順治甲寅八月以監祭未乙卯

九月以備局 啓 罷 去

李世德 康 順治乙卯十二月以禁府都事未

丁巳十月 在 喪 去

李應采 文 康 順治丁巳十一月以前正印來

戊午十二月 衙 史 書 啓 罷 去

姜壽 桐 康 順治己未二月以安峽縣 監 授

差 庚 申 六 月 居 水 去

李舜 岳 康 順治辛酉二月以刑書佐 即 未

丙寅正月 瓜 滿 遯 去

關東邑誌

三七六

尹 濬 萬曆丁亥三月前任抱川縣監來同年
 十月在喪去

尹 旼 卿 萬曆丁亥十一月前任新昌縣監
 來辛卯正月授忠勳却老去

朴 文 湖 萬曆辛卯正月任下去

李 大 頤 文 萬曆壬辰四月自奉寧寺主簿
 來乙未正月筭滿去

李 廷 益 萬曆乙未正月自好禮寺主簿
 來丙申十二月以災傷差錯罷去

朴 大 信 武 萬曆丁酉正月前沈川却守來
 同年十二月在喪去

許 鏞 萬曆戊戌正月自監察來己亥正
 月符 答罷去

閔 低 萬曆己亥三月自汝波寺主簿來同年
 十二月在喪去

李 深 萬曆庚子正月自監察來同年四月
 御史狀 啓罷去

崔 東 武 文 萬曆庚子五月前戶曹正即來同
 年十月戶曹以田結事 啓罷去

沈 宗 道 萬曆庚子十一月前戶曹佐即來
 壬寅呈辭棄官去

李 宜 元 萬曆壬寅八月長興主簿來同年
 十二月任下去

朴 忠 生 萬曆癸卯正月以監察來甲辰九月
 災傷差 錯罷去

李 有 慶 萬曆甲辰十一月來同年十二月

關東邑誌

三七七

關東邑誌

三七八

李 慶 祚 萬曆乙己正月以主簿來丁未七
 月筭滿以民額一年仍任戊申七月
 御史狀 啓罷去

閔 滌 文 萬曆丙申八月前典簿來己酉九月
 被貶去

李 憑 萬曆己酉十月以前孟山縣監來壬
 子七月以府 啓罷去

尹 祥 萬曆壬子九月以監察來同年十月
 以府 啓罷去

具 仁 基 萬曆壬子十月前茂山縣監來
 丙辰六月以府 啓罷去

金 叻 文 萬曆丙辰七月以典籍來辛酉七月
 筭滿去

李 煇 天啓壬戌二月以主簿來癸亥五月 御史
 狀 啓罷去

尹 衡 覽 天啓癸亥六月以司果來乙丑九
 月棄官去

朴 煥 天啓乙丑十月以司評來戊辰正月棄官去

朴 知 警 崇禎丙辰四月以尚衣主簿來己
 巳正月監司狀 啓罷去

李 慶 慶 崇禎己巳二月以茂山縣監來庚
 午五月以差使負監騎罷去

金 羨 崇禎庚午七月以司膳主簿來
 同年十月災傷差 錯罷去

李 希 男 崇禎庚午十一月以前縣監來壬

關東邑誌

三七九

題詠

十五名 牙兵 三十七名 束任 一百二十八名

萬里 燕相 逼千亭 湖炭 空吾兄 有明
眼光 縣抗 仙風 潭影 令人 淡灘 聲與
政通 村砥 未盡 裡沙 際既 窓櫺

右 金昌 金翕 金翕 三判

邑先生案

權詠 嘉靖己酉二月自司憲府監察來中堂
二月箇滿而授治人署別提去

朴宣亮 嘉靖甲寅二月以禮賓寺判官來己
未二月 除造紙署司紙去

柳湜 嘉靖己未二月自司贍寺主簿來同
年十月居水去

金沆 嘉靖庚申二月自司憲府監察來十
二月居水去

李公仁 又嘉靖辛酉二月監司狀 答振以戶曹
左郎擢差 除學家癸亥八月除板
典籍去

金約 文嘉靖癸亥八月自成均典籍來

沈陶

乙丑六月啟 殿居下去
嘉靖乙丑自成均典籍來丙寅十二月
居水去

尹思慎 隆慶丁卯二月自司憲府監察來己
巳九月 除通禮院引儀去

洪致高 隆慶己巳九月自司憲府監察來
未庚午二月 親于交邊府授世

李慶雲 隆慶庚午三月自軍器寺判官來
壬申九月 授宗簿寺主簿去

黃應奎 文隆慶壬申九月自工曹佐郎來
萬曆癸酉五月以 監司狀 答罷去官
至考判

任 萬曆癸酉二月自司憲府監察來

乙亥九月 授成均館典籍去

朴世亨 文萬曆乙亥自成均館典籍來丙子
十月以火傷差 錯罷去

柳 萬曆丙子十月前任 德山縣監來以
庚二月 授世

閔忠烈 萬曆戊寅三月自司憲府監察來己卯
六月居水去

吳克達 萬曆己卯七月前任 司贍寺主簿來
庚辰十月 火傷差 錯罷去

韓應奎 文萬曆庚辰十二月自刑曹佐郎來癸
未八月箇滿 差去官至 議政

朴一元 文萬曆癸未九月前任 通禮院引儀
未丁亥二月居水去

關東邑誌

三六八

三六八

旱田 九十七結五十五畝二束
水田 二結五十八畝九束

津渡 森灘津 在官門北距十五里津船一隻
加奴津 在官門南距十里津船一隻

封山 雲岳山 自官門北距二十里
雲溪山 自官門北距四十里
龍臺山 自官門北距七十里

硤 隔 文嶺 自官門東距八十里地接襄陽界
問 嶺 自官門北距八十里地接杆城界

珠寶嶺 自官門北距八十里而與問嶺分岐并接杆城界

三峙嶺 自官門北距百里地接高杆界
檜田嶺 自官門北距一百五十里地接淮陽界

書院 金三洞 影臺 自官門南距三十里地名九萬里

樓 合江亭 在縣北五里一派水自猗猗縣來一派水自雲岳山來至亭前相合故名稱合江亭

寺 剎 白潭寺 在縣東六十里在雲岳山中
鳳及菴 在縣東百亦在雲岳山中

關東邑誌

三六九

三六九

關東邑誌

三六八

三六八

五歲菴 自縣東八十里亦在雲岳山中而梅月先生影懷奉安之所

永矢菴 自官門東距八十里而菴前有三洞先生碑閣

巨藪 瑞龍菴 自縣北七十里
紅津浦 自官門東距五里

物產 五味子 紫草 人參 蜂蜜 蜜歸 松茸
雞雜 會符各穀四千六百八十四石十二斗三升五合五勺
今為各穀一萬五百二十五石七斗五升五合

大同 田米三十四石作布二回二疋
九月又營還 春穀七千一百十三石二斗三升

田稅 大米二石六斗四升三合一勺田米二十五石
一斗三升四合七勺六十五石十四斗三升一合六勺二月收梓春川昭陽江嶽載達于

京江細于戶曹大同均稅同今則以錢代納
康 大米三十五石三十一升五勺田米三十五石三十一升五勺

軍保 錢四百七十九兩九錢七勺柴一千二百束炭三十石 雉鷄八百首

保 騎兵保七十二名 禁衛保四十七名 衛營保八十二名 步 兵三十四名 禁軍保二名
別破陣保十名 軍餉保十二名 砲保六十六名 虎 筆隊保一名 內吹保二名

祿 直保六名 樂工保六名 司僕諸吏

關東邑誌

三七一

三七一

隆脈至龍山後脈檜嶺分岐而東為高
 城炭化炭自炭化炭來望長山自望
 長山來為真寶炭自真寶炭來為
 此伊炭自此伊炭來為西坡炭自西坡
 炭來為彌矢炭自彌矢炭來為雪岳山
 山內有百潭寺永久菴五歲菴又有萬景
 崖寒溪深復深水瀦洞泉石絕勝峯
 密社寺金剛相上下云
 大勝瀑布
 在縣東五十里山上有勝菴前山泉流成瀑布
 數千丈望之如白虹垂天登其上度絕下垂
 二千二十尺
 地理室

在鹿校驛東距二十里石山岨岨岩流清冽
 旱則祈雨
 彌勒川
 在官門五里合十四洞水南流為加奴津
 風俗
 風俗淳朴生業耕稼
 壇廟
 社稷在縣西三里 文廟在縣一里二十門 城隍壇在
 縣北四里
 壇
 中央壇 在合江亭後而以一道之中故若值
 旱災 燭夜之甚則 巡部親祭祈
 禳

公解 容舍二十九間 衙舍三十五間 軍營十二間
 鄉廳八間 丁酉水災漂失官廳二十一間
 作廳十七間 縣司三間 軍官廳五間
 堤堰
 元通堤在縣北元通前自官門十五里周同
 三百十九尺 鷹八十三尺 長一百一十二尺 水深三尺外
 高三尺
 倉庫
 邑倉二十九間 瑞倉在瑞和面自官門四十里
 十九間
 驛
 元通驛 騎馬一匹 卜馬二匹 奴四名 婢一名
 在官門十五里
 馬路驛 騎馬二匹 卜馬四匹 吏五人 奴十五名

嶺 嶺八名在官門南距三十里
 嶺校驛 卜馬三匹 奴五名 婢二名在官門東
 距四十里
 院
 建伊院在縣南五十里
 馬路院在縣南三十里
 古跡
 寒溪古城 石築周同六千二百七十八尺 高四尺
 內有二井 今頽破
 上勝菴 在寒溪深十里 許而今有舊堰
 人物
 白雲菴 在寒溪寺東四十里 今有舊基云
 孝子金敬範 烈女趙玉主妻 三陟金氏 並有旌

關東邑誌

三〇

北面
元通里自官門北距十里編戶五十男一百十五口
女八十四口寒溪洞自官門東距三十里編戶十
九男二十二口女二十七口松鶴洞自官門北距三十里
編戶二十八男七十六口女八十九口楓田洞自官
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一男四十七口女五十六
口嵐校驛自官門東距四十五里編戶三十
六男七十口女百口加歷里自官門東距五
十里編戶十七男四十二口女四十六口龍頭里
自官門北距六十里編戶二十男四十一口女四
十五口

瑞和面
沙川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二十四男三十口論

幸里自官門北距四十里有倉曰瑞倉編戶三
十六男六十一口女七十三口水清里自官門北距
四十五里編戶四十三男九十七口女一百三十口瑞
和里自官門北距五十里編戶七十男一百
三十一口女一百五十二口西希里自官門北距七
十里編戶七男十五口女十九口伊布里自官
門北距八十里編戶二十五男三十六口女四十一
口龍山里自官門北距一百里編戶十八男
三十六口女三十九口帳籍準

道
自官門東至德山五里德山至德校洞十里自德
校洞至加里山二十里自加里山至谷川棋麟男
二十里自官門南至加奴津十里自加奴津至藍

關東邑誌

三一

關東邑誌

三一

田洞十里自藍田洞至馬路驛十里自駝沙
峙十里自沙峙至於論里十里自於論里至
建伊峙三里洪川界自馬路驛分歧北間至
羅加里三十里自羅加里至頭毛洞嶺二十里
楊口接界自官至元通驛十五里自元通驛
至嵐校驛三十里自嵐校驛至彌久嶺三十
五里杆城九岩驛接界自官門西北向至松
峙里二十里至瑞和峯承洞五十里自長承洞
至龍山里三十五里自龍山里至檐田嶺
二十里淮陽全剛山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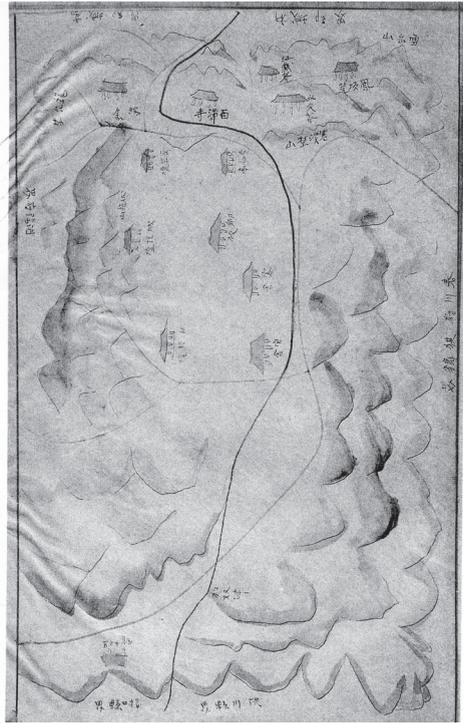
建置沿革
木高句麗猪足縣一云烏斯新羅改
豬蹄為楊麓郡屬縣高麗改今名屬

春川後屬淮陽恭讓王元年置監務
本朝
太宗十三年癸巳為縣監縣名瑞城在縣北
六十里木高句麗玉岐縣新羅景德王
改地道為楊麓郡領縣高麗改今名
屬春川後屬淮陽猪足島斯四驛蹄
新增靈昭
名山
伏龍山 在縣北五里向是山始淮陽全剛山南
麓落脈至龍山里後接田嶺分
岐而東至瑞和西邊基岩山起
中祖峰遙迤而來作伏龍山

靈岳山 在縣東五十里是山自淮陽全剛南麓

關東邑誌

三二



道光二十三年麟蹄縣邑誌邑 先生案

原州鎭管所屬麟蹄縣 東至襄陽府界
 七十二里西至楊口縣界四十里南至洪川縣界五
 十里北至杆城郡界八十里西至京城三百七十里
 五日程南距監營二百四十里東距海濱一百三十
 五里二日程

坊曲縣內面 下道里自官門西距二里編戶一
 百二十六男二百二十口女二百五十一口上道里
 自官門東距二里編戶七十三男一百四十一口女
 一百八十一口德山里自官門東距五里編戶四
 十二男七十七口女八十五口德稜洞自官門東距
 二十里編戶十三男二十七口女三十一口加里山自
 官門北距四十里編戶十五男三十九口女五十四口

麟蹄縣邑誌邑 卷之二 五十五 三五七

清溪洞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十七男三十五口
 女四十八口古沙洞自官門東距十五里編戶十
 一男二十口女二十八口

東面
 院袋里自官門東距三十里編戶十四男八十四
 口女一百二十口下楸洞自官門三十五里編戶十六男
 三十口女三十三口耳谷里自官門東距五十
 里編戶十四男五十九口女六十七口

南面
 加奴里自官門南距十里編戶二十七男五十一
 口女六十二口藍田洞里自官門二十里編戶
 四十五男一百二十口女一百九口馬路里自官門南
 距三十里編戶九十男一百九十三口女二百口

麟蹄縣邑誌邑 卷之二 五十六 三五八

北坪里自官門南距三十五里編戶三十九男九十一
 三口女一百六十六口沙峴里自官門南距四十里編戶
 四男十一口女十五口於論里自官門南距五十里
 編戶二十二男三十九口女四十七口所崎里自官門
 東距四十里編戶二男五口女五口亭子菴里
 自官門南距五十里編戶十一男二十四口女二十八口
 金寶皇里自官門南距五十里編戶八男十八口
 女二十四口羅加里自官門西距三十五里編戶九
 男十六口女十八口建達里自官門西距四十里編戶
 三十六男七十三口女八十一口頭色洞自官門西距五
 十里編戶八男十二口女十七口木化里自官門南距二十
 里編戶十二男二十七口女三十四口甲化里自官門
 七十里編戶十五男二十八口女四十四口

麟蹄縣邑誌邑 卷之二 五十七 三五九

牧場 分養馬一匹八月受米五月上納

烽燧無

樓亭吏隱樓 在衙門合江亭 在縣北五里一泝水自雪

寺刹白潭寺 在雲山十里 鳳頂菴 在雲山百里亦

五歲菴 在縣東八十里 瑞龍菴 在縣北五歲菴有梅

影堂隱寂菴 在縣東八十里 瑞龍菴 在縣北五歲菴有梅

古跡寒溪古城 石等尺內有六千二井今則破八尺上勝

菴 在寒溪濕十里許 白雲菴 在寒溪寺東四十

鎮堡無

人物古者鄭導生馬長

旱田 九十五結五

水田 八十五結五

進貢 人蔘 松茸 白清 餘項魚 茯苓

當故 生清

糶糶會付 各數四千六百八十二

大同 作田三石二斗四升五合五夕

田稅 一斗米二石四斗三合一夕四米二升一石

日合六斗三升四合七勺八

日合六斗三升四合七勺八

日合六斗三升四合七勺八

日合六斗三升四合七勺八

日合六斗三升四合七勺八

均稅 四結九兩十二兩八錢三分

俸廩 石一十斗五升五合錢四十七兩九錢五分

軍保騎兵保 七名 禁衛保 七名 御營保 八名 步兵 六名

名四別破陣保 七名 禁軍保 七名 軍餉保 七名 砲保 六名

扈輦隊保 一名 吹保 二名 直保 六名 樂工保 六名 司僕

諸負 針五牙兵 三十七 東伍 十八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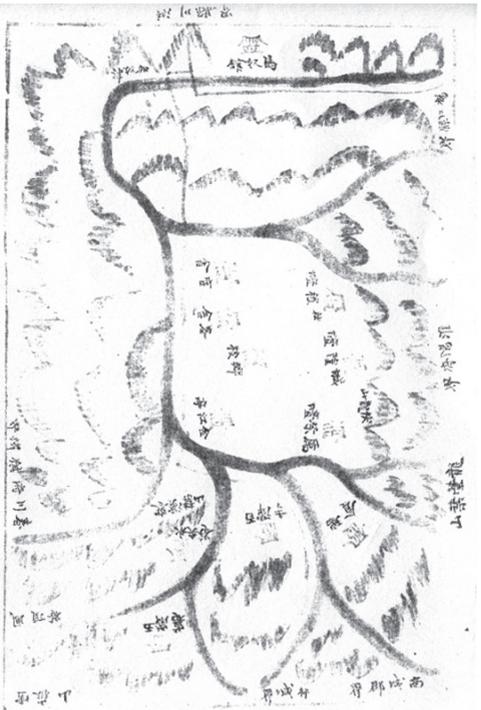
題詠 萬里蒸湘逼千亭湖嶺空吾凡有明眼荒縣抗

仙風 潭影令人淡灘聲與政通村氓來盡裡沙際

翫窓櫳 右金昌翁 湖三

麟蹄縣先生素

| | | | | |
|-----|-----|-----|-----|-----|
| 權詠 | 朴寅亮 | 柳湜 | 金沈 | 李公仁 |
| 金約 | 沈鏞 | 尹思慎 | 洪致禹 | 李慶雲 |
| 黃應奎 | 任瀚 | 朴之亨 | 柳軫 | 閔忠烈 |
| 吳克達 | 韓應寅 | 李一元 | 尹溶 | 尹殷卿 |
| 朴文弼 | 李大順 | 李廷益 | 朴大信 | 許鐔 |
| 閔係 | 李潔 | 崔東式 | 沈宗道 | 李宜兄 |
| 朴忠生 | 李有慶 | 李應祚 | 閔滌 | 李馮 |
| 尹祥 | 具仁基 | 金岫 | 李竣 | 尹衡覺 |
| 朴煥 | 朴知警 | 李曇慶 | 金漾 | 李泰男 |



| | | | | |
|-----|-----|-----|-----|-----|
| 申光履 | 尹昌柱 | 李顯白 | 李命彬 | 鄭宅濟 |
| 趙來鎮 | 李國亨 | 金道淳 | 呂善養 | 尹得欽 |
| 任焞 | 吳彥謨 | 申光河 | 朴宗福 | 趙儀達 |
| 李元膺 | 白鳳周 | 韓用謙 | 趙鎮大 | 洪赫 |
| 李宗孝 | 李勉心 | 柳仁根 | 林斗鎮 | 李種祐 |
| 李度憲 | 魚在旹 | | | |

| | | | | |
|-----|-----|-----|-----|-----|
| 柳文錫 | 朴炳 | 尹皓 | 金志顏 | 李尚翫 |
| 朴弘護 | 李楯 | 李旭 | 李之屏 | 李命寅 |
| 柳仁聲 | 韓錫明 | 金汝亮 | 尹建之 | 柳苾 |
| 金世豪 | 崔時高 | 金紐 | 李翮 | 金韶夏 |
| 鄭正陽 | 李世億 | 李熙采 | 姜壽楠 | 李舜岳 |
| 沈漵 | 李始興 | 金昌國 | 李洙 | 金盛大 |
| 申載 | 趙光命 | 徐宗積 | 李雨臣 | 李敬躋 |
| 韓配厚 | 權養性 | 趙明震 | 趙鎮世 | 金相圭 |
| 任安世 | 柳激 | 李善寅 | 尹得聖 | 申鎮夏 |
| 李廣矩 | 金光遂 | 金善材 | 李龜老 | 黃植 |

江原道 麟蹄

壇廟社稷壇在縣西三里文廟在縣東里二十間城隍壇在縣西四里

里屬祭壇在縣北四里

公廨容舍九間衙舍三十間軍器十二間鄉廳八間官廳十二間

一作廳間縣司三間軍官廳五間

堤堰元道堰在縣北元道驛前官長一百一十二尺

水深三尺五寸

倉庫苞倉九間瑞倉門四十里瑞和面自官

物產海松子 五味子 紫草 人蔘 茯苓

蜂蜜 羚羊 白花蛇 訥魚 餘項魚 錦鱗

魚



橋梁彌勒川自官門東距五里石灘川在官門北元道驛前十五里

一里加奴川自官南距十里馬奴舟淵津在縣馬門

一隻去揚口路

驛院元道驛名馬一匹下馬二匹奴四匹馬奴驛大馬

下馬四匹支五人奴十五名嵐校驛五匹三匹奴

自官門東新院驛在元道新增院自縣東界七十里達

伊院在縣南五十里

牧場分養馬一匹八月

關阮味拖在縣東距七十三里西坡嶺在縣東距七十三里屹伊嶺在縣北距七十三里真寶嶺在縣北距八十里炭屯嶺在縣北距百里五色嶺

在縣東距七十二里頭毛峙在縣西距五十里加奴峙在縣南距五里達伊峙在縣南距五十三里

烽燧

樓亭吏隱樓在衙門上合江亭在縣北自嶽門一里

雲岳山未至元道驛與瑞和水合流至亭前合江

名稱勤川東昭清江西背土山遠迤以至亭前合江

浦泗岫出岸上平鋪存在其中而址舊丙子冬營建

寺刹百潭寺在縣東八里鳳頂菴在縣東八里上勝庵在縣東八里

庵在縣東八里永矢菴在縣東八里上勝庵在縣東八里

古基後七里許松檜參天綠竹如織南望芙蓉寺

卓立天來勢若揮鉤東有獅子金望深金北有古

井甘冽 白雲菴在縣東十里行路險峻人跡罕到今

無比 隱寂庵在縣東十里

古跡寒溪古城高四尺內有二井今則頽破俞泓

窟俞相公泓為本道觀察使時有寒後越

窟三大窟立石題名于窟至今稱俞泓窟

鎮堡

人物鄭導生長邑內金泰國登武科官至

早田一百三十九結二十

水田八結已卯年結五

進貢人蔘 松茸 白清 生清 餘項魚

五味子 紫草茸 茯苓 羚羊 白花蛇

六〇八

江原道 淮陽

當歸 免絲子

糶 元會付穀三千六百八十七石 照穀二千六百四十七石 別會付穀一百九十六石 營穀四十四石 十月

田稅 大米一石 十月 四米十二石 太十七石 二月 秋 椿 春 川 昭 陽 江 裝 載 八 日 達 于 京

大同均稅同

均稅

大

均稅

俸廩 衙標公廩 俸米二十四石 十斗 四米二十石 九斗 錢三百三十兩 柴一千二百二十五米 炭三十四石 雜鷄八百首 寶用

軍兵騎兵 七名 禁衛軍保 七名 御營軍保 八名

步兵 三十名 別破陣 十名 禁軍保 二名 軍餉保 十二名

砲保 六名 扈輦隊保 一名 內吹保 二名 袂直 六名 樂

工保 六名 司儀諸貧 十五名 牙兵 三十名 東伍軍 一百一十八名

淮陽府



六〇九

原州鎮管所屬麟蹄縣

東至襄陽府界七十
西至揚州縣界七十
南至洪川縣界五十
北至北山縣界七十
程程南距監營一百三十里二日
程程東距監營一百三十里二日

坊里縣內面一百道里自官門西距二里編戶
戶九十七男一百九十九女一百六十二

七口德山自官門東距五里編戶三十
男六十女九十

東距二十里自官門北距十四口女二十八
口加里山自官門北距十四口女二十八

三男北距二十里編戶二十七口清溪洞自
官北距二十里編戶二十七口清溪洞自

四男北距二十里編戶二十七口清溪洞自
官北距二十里編戶二十七口清溪洞自

五口豐谷自官門東距四口古溪洞自
官北距二十里編戶二十七口清溪洞自

九口東距十五里編戶東面院自
官北距二十里編戶二十七口清溪洞自

江原道 麟蹄

門南自加里山至春川棋界二十里自官
 奴驛至沙時施店十里自沙時施店至馬
 接論界十里自奴驛分論里東至北間至羅加里三
 十里自羅加里東至頭毛洞元通驛二十里揚口
 地接界自羅加里東至頭毛洞元通驛二十里揚口
 自元通驛至武校驛三十里自武校驛至
 味拖嶺三十五里打城元岩驛接界自官
 和長承洞五十五里自長承洞至龍山至三
 二十里自龍山至金剛山接界

建置沿革 本高句麗楮足縣一云烏斯回新羅改佈
 蹄為楊麓郡屬縣高句麗改名屬春川後屬淮
 陽恭讓王元年已置監務 本朝

太宗十三年癸巳年例改為縣監屬瑞和縣
 名瑞城在縣北六十里本高句麗王岐縣新羅景
 德王改馳道為楊麓郡領縣高麗改名屬春川
 後屬淮陽 本朝

世宗朝來屬原州鎮
 郡名 楮足 烏斯回 麟蹄 新增靈昭

形勝
城池
官職縣監 文蔭從六品置其屬座首一人別監二人
 半官三人衙前十八人和印十人官奴二
 十名官婢六
 名校生十名

山川伏龍山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瑞和山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自伏龍山南來作本縣基又特向而東揚口伏龍山
 春川古論平山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南麓落龍山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城巖嶺自真寶嶺來為味拖嶺自味拖嶺來為雪岳山
 真寶嶺自真寶嶺來為味拖嶺自味拖嶺來為雪岳山
 坡巖嶺自真寶嶺來為味拖嶺自味拖嶺來為雪岳山
 五色嶺自真寶嶺來為味拖嶺自味拖嶺來為雪岳山
 辨方胎山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玉里後山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時落脈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未三十里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瀑布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八左石山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小生於石壁之間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石上四五峯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岩噴飛瀑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甚欬作層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有谷中白石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水深如釜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水南流為加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川為珠洲 在縣北二里始淮陽全剛而南麓
姓氏 朴 曹 孫 崔 玄 李 沈 金 鄭
風俗 峽俗淳樸力農資生多壽考或至百餘歲

大同 大時米十五石四斗

均稅 大錢四百五兩

俸廩 大錢四百五兩

二千東 米三十八石

軍兵騎兵 一百二十五名

砲保 一百七名

守禦別破陣 一百五十五名

軍需保 三禁庖保 四十六名

內吹 九名

儀工保 一名

武學 十九名

營牙兵 五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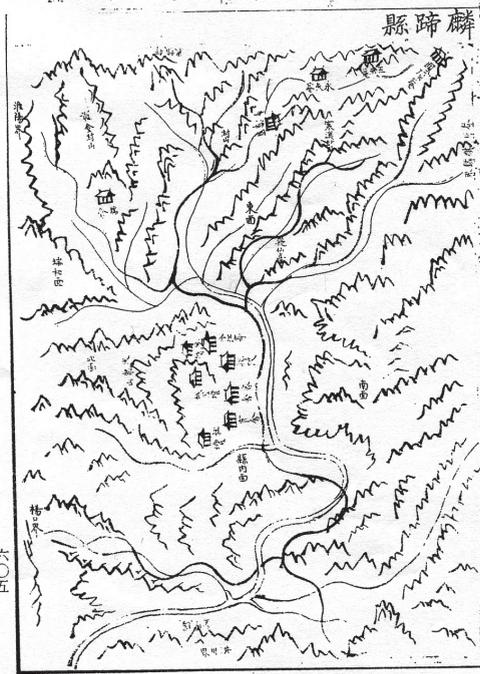
馬軍 六名

武學 七名

別隊 三名

元束伍差備 四名

破陣 三十名



六〇五

江原道 麟蹄

郵驛圓通驛 在縣東三十里 馬奴驛 在縣西三十里 嵐校驛 在縣北五十里
 臨川驛 在縣北五十里 新院 在縣南十五里 加歷院 在縣南十五里
 襄陽府界 中伊院 在縣南十五里 文廟 在縣南十五里 厲壇 在縣南十五里
 祠廟社稷壇 在縣南十五里 城隍祠 在縣南十五里
 寺刹上乘菴 大乘菴 俱在寒溪山 極峻 極險 極峻 極險 極峻 極險 極峻 極險
 寺 在寒溪山
 古蹟瑞和殿 縣本一作未一名瑞城在縣北六十里
 道為揚覽郡領縣高麗改瑞和仍併入春寒溪山
 州溪入淮陽本朝 莊憲王時移併于縣
 古城 石築周六十二百七十八伊布所 在縣北一百四十四尺內有一井今半頽落
 里本春川府地 世宗六年割八于縣
 橫城縣 東至江陵府界六十八里南至原州界十三里西至同州界四十二里北至洪川縣界四十二里距京都二百五十里
 旱田
 水田
 建置沿革本高句麗橫川縣一云於新羅景德王時改潢川為朔州領縣高麗初改潢川仍併入春州後移八原州恭讓王初復置橫川縣本朝因之太宗時以興洪川聲相近改為橫城縣掌面官
 貪縣監 訓導 各一人

郡名橫川 潢川
 山川馬山 在縣北二里 南山 在縣南六里 充峴 在縣東六十里 嶺峴 在縣東八十里 江陵府界 在縣南八十里 德高山 在縣南八十里 福山 在縣南八十里 金山 在縣東二里 西川 源出德高山 經縣西四里 南流八原州境 為濬水
 土產鐵 出縣西 伊添 紫草 紫檀香 安息香 五味子 人參 茯苓 石葦 蜂蜜 當歸 木山芥 羚羊 白花蛇 訥魚 餘項魚 黃蠟
 學校鄉校 在縣北三里
 宮室客館
 郵驛高原驛 在縣東三里 安興驛 在縣東十七里 苞豐驛 在縣東十五里
 西六 蒼峯驛 在縣北四里 大悲院 在縣東三十里 寶義院 在縣東五里 弘安院 在縣北二十里
 祠廟社稷壇 在縣西 文廟 在縣南 城隍祠 在縣南 厲壇 在縣南
 寺刹法興寺 石泉寺 俱在南山 開元寺 在縣南 奉福寺 在縣南 懷真寺 在縣南
 古蹟德高山城 石築周三十六百五十三尺內有一井今半頽落
 人物高麗趙永仁 明宗時累遷為承宣多所匡救物論歸重官至守太尉上柱國神宗即位有定策之功開府儀同三司時太師門下特即平章事趙永仁五年卒年七十謚文忠 趙冲 開強記諳練典故一時景配多出其手高宗朝以才兼文武特授翰林學士承旨上將軍浚破女真黃旗于鴨綠江為西

其品 海松子 五味子 紫檀香 安息香
 紫草 石葦 人參 黃芪 地黃 山芥 木
 松茸 茯苓 蜂蜜 黃蠟 羚羊 白花蛇
 訥魚 餘項魚 錦鱗魚
 學校 郟校 在郡西
 宮室
 郵驛 藥水驛 在郡西 平安驛 在郡東 祉祥院 在郡西
 泉川院 在郡東 文廟 在郡 城隍祠 厲壇 俱在
 祠廟社稷壇 在郡 城隍祠 厲壇 俱在
 古蹟 古林所 在郡東 新林所 在郡東 石乙項所
 在郡東 六 魯山城 石築周一千三百六十四
 人物 高麗李天驥 中元朝制科官 本朝李李男 官至
 判書 李季全 李男 登武科 官至領
 麟蹄縣 水至襄陽府界七十二里南至洪川縣
 界五十三里西至揚口縣界四十里北
 至杆城郡界八十七里 京都三百六十七里
 旱田
 水田
 建置沿革 本高句麗猪足縣 斯云鳥 新羅景德王時
 改名猪蹄為楊麓郡 領縣高麗初改麟蹄仍併八
 淮陽恭讓王初復置麟蹄縣 本朝因之 掌面三官

負縣監 訓導 各一人
 郡名猪足 猪蹄
 形勝 道塗險絕 洞壑幽深 本朝南李
 山川 伏龍山 在縣北 二 寒溪山 在縣東 五十里 極高
 府界 襄陽 入稱 為雪岳山 上有城 有川 自城中
 流出 即成 瀑布 而東 左右 皆大山 洞府 深遠 溪水 縱
 橫 而渡 者 千 餘 樹 木 如 蒼 龍 上 珠 雲 霄 其 南 峯 作
 絕壁 墜 其 下 清 泉 瀉 巖 成 潭 盤 石 可 坐 又 東 龍
 洞 口 甚 狹 細 徑 緣 崖 窺 穴 皆 峯 巒 峭 峻 如 龍
 穿 虎 攫 如 累 管 壘 者 無 數 其 形 勝 甲 於 嶺 西
 冬羅嶺 在縣東 七十二里 所波嶺 在縣北 八十二里
 時坡嶺 在縣北 八十里 路通 打 麟水 源出 瑞和 里
 與春川府之基 嶺 縣水 合而西流 至縣西 九里有
 津日舟 湖 津 要 則 用 舟 又 西 流 經 揚 口 縣 南 境 至
 春川府 為 圓通川 在縣東 二十五里 源出 所波嶺
 那陽江 前西流 至縣東 六里 八 麟水
 土產 海松子 五味子 紫草 人參 茯苓 蜂
 蜜 黃蠟 鷹 羚羊 白花蛇 漆 黃楊
 木賊 當歸 芍藥 姜活 訥魚 餘項魚
 錦鱗魚
 學校 郟校 在縣東 一里
 宮室 客館
 倉庫

人稱壽家丙戌秋府使設享老宴邊以上壽居首其以下八九十者上下內外一百八十餘人亦可謂壽域矣蘆其里月窟里 脩井

北內 加羅頂 半頭 溇山 大浦谷 陶井 冠古之月

降洞 於田 松峴 檜洞 古畝有孝甯世居洛城受澤於洪志誠而乃娶妻春川仍卜居古蘭山凡五十年服木布未修道安貧慈仁勤儉不求榮利辛酉年間權臣李爾瞻以書邀之嗚以官爵奉答以一絕曰雙里門高人五天一晴榮寵出人前山翁自有烟霞癖不領進隨寮陌邊聞者莫不嗟歎善文章詞翰多行於世年八十三而終其婦趙氏乃長子之妻夫死郭繼同穴人稱烈婦其家風如是 加谷

北中 粟木基 金光基 山木 鉢山 樺木 柳浦 漆井

泉田里

北山外 乾川 古谷 無老谷 今有老民莫丁者年百歲何

其村名之不特才有過客題詩曰孤跡初誰作識傳寶

不真莫言無老谷今有百年人 照吞 大洞 基谷 室

洞 水精洞 楸洞 樓頂 水山 距府 十五里

基麟縣 松峴 縣內 勇坪 光助田 仇乙井 五里洞 耳

屯苗洞 於里 竹川 薪浦 田 距府 二百三十里 金甫 王洞

及懸石人跡不到處今有人居

史吞縣 鋪 五芝 方端里 內倉里 朴端里 是川 距府 一百三十里

地界峴路

水府東 揚口 界八十九里 官門一百十里 南 洪川 界六十五里 官門八十七里 西 加平 界四十五里 官門六十三里 北 狼川 界六十四里 官門八十三里 西 距京都 二百五里

席政嶺在府西二十五里 通京路 諺傳古者新舊官交途於此 官人只持一席割而分坐 故名焉云 遂左脩路 傳曰 春州府西二十五里 許有嶺曰 席破 通京師之道路 而輒阻險 阻人馬 顛墜行者 病焉 嘉靖戊午 春 牛頭寺 僧智熙 慨然有平治之志 勸誘民間 得米布若干 計招集石工 治匠 役以縹 陝石之華 確者鑿之地 之於危者 災之紓者 置俠者 廢不數月 功已畢 向之羊腸 石棧 及成 坦途 無復有車推馬轉之患 僧之志 功矣 功普矣 余將卜隱 于春州 到此 每懷 遂窮之恨 今為 再過 甚其 平平 遂大書 于石 使東西 行過者 知功之所 始是 歲四月上 院 溫陽 鄒 嶺 景 舒 記 計 嘉 靖 戊 午 己 丑 十 二 年 之 久 嶺 遂 之 款 險 闊 測 幾 才 人 馬 不 通 丁 亥 春 府 使 履 慨 慕 得 遊 手 百 餘 董 役 平 治 今 為 坦 途

驛院 **圓通驛** 在縣東三十里 **馬奴驛** 在縣西三十里 **嵐校驛** 在縣南五十里

臨川驛 在縣南二里 **新院** 在縣南五十里 **新增**

加歷院 在縣東七十二里 **巾伊院** 在縣南五十三里 **新院** 在縣南五十里

祠廟 **社稷壇** 在縣西 **文廟** 在縣南 **城隍祠** 在縣南 **屬**

壇 在縣北

古跡 **伊布所** 在縣北一百四十四里 古屬 **寒溪**

山古城 石築周六千二百七十八尺 高四尺內有一井今半頽落

題詠 **居民八九家** 禹承範詩古縣 **衆山深邃**

絕輪蹄 河濱詩云一 **新增** **地爽常留雪** 倪

詩過橋官道遠林掩數人家云云山深未有花棘

簷寒雀闌松樹晚風多旅况增愁疾支頤日已斜

橫城縣 東至江陵府界六十八里南至原州界四十二里

至洪川縣界四十二里 距京都二百五十里

建置沿革 **本高勾麗橫川縣** 一云於 **新羅**

改潢川為朔州領縣高麗復稱橫川仍

屬後屬原州恭讓王元年置監務本朝

太宗十三年例改為縣監十四年以橫川

星雨晴嵐 雲斂青山當屋角 尹弘詩雨餘芳

白雲深鎖萬株松 鄭龜晉詩偶尋流水到深

天低嶺上僅三尺 鄭道傳詩中原

雲護危峯穿翠壁 南統詩霞標異境覆丹

直到山陰廣漠餘 金寄寧詩駭駭駒

百憂散盡魯城春 美希孟詩昨日曾從大嶺

麟蹄縣 東至襄陽府界七十二里南至洪川縣

建置沿革 本高句麗猪足縣 一云鳥斯回 新羅

改狶蹄為楊麗郡領縣高麗改今名屬

春川後屬淮陽恭讓王元年置監務本

朝

太宗十三年例改為縣監屬縣瑞和縣

屬縣瑞和縣

屬縣瑞和縣

屬縣瑞和縣

屬縣瑞和縣

作木一名瑞城在縣北六十里本高句麗王岐縣新
羅景德王改馳道為楊麗郡領縣高麗改今名屬春
川後屬淮陽本 **官員** 縣監 訓導各一
朝 世宗朝來屬

郡名 猪足 烏斯回 狶蹄

姓氏 本縣 朴許曹孫瑞和崔玄李谷邵

山川 伏龍山 在縣北二里 寒溪山 在縣東五十里

川自城中流出即成瀑布而下懸流數百尺望之如
白虹垂天自圓通驛而東左右皆大山洞府深邃溪
水縱橫而渡者三十六樹木如贊上疎雲霄旁無橫
枝松栢尤高不見其巔又其南峯作絕壁其高千仞
奇在莫狀禽鳥不能飛度行人疑遭壓墜其下清泉
觸巖成潭盤石可坐又東數里洞口甚狹細徑緣崖

竅穴塔呀峯巒峭拔如龍拏虎攫如 **所冬羅嶺** 在
累層臺者無數其形勝甲於嶺西

東七十 **所波嶺** 在縣北八十二里 **彌時坡嶺** 在縣

十里 **彌勒川** 在縣東五里其源有四一出所冬羅嶺

基麟 **舟淵津** 在縣西九里彌勒川下流夏用舟楫

土產 海松子 五味子 紫草 人參 苳

苓 蜂蜜 羚羊 白花蛇 訥魚 餘

項魚 錦鱗魚 漆

學校 鄉校 在縣東一里

卷四十六 橫城

三里西距京畿加平三十八里南距京畿楊根六十里北距楊口五十五里戶一千一百

十九口一千九百五十基麟戶一百單八口二百五十一軍丁侍衛軍二百九十八

軍一百三十四土姓三崔朴辛亡姓晉續姓八金成昌林尹泗泉池忠州石堤川安元

原州全旌善亡來姓二成韓史吞姓一宋亡姓八韓程朴楊徐吉李全基麟續姓一朴

人物質成朴恒忠烈王時人廢土多塔風氣寒墾田五千七百三十七結水四十分土宜

五穀桑麻莞梨栗楮漆土貢蜂蜜黃蠟松子五味子五倍子鐵真茸石茸孤皮狸皮獐

皮猪皮山獺皮水獺皮豹尾猪毛熊毛藥材人參秦芫茯苓當歸前胡芎藭牽牛

子白芨白膠香木賊奉白土產金產府西四十二里許所串里陶器所一在府南十三

里倉老里品龍華山石城在府北六十里周回四百五十二步四尺有三小泉旱則竭昭陽亭在府北成山下

水驛五保安原昌安保仁嵐富昌所領縣三狼川楊口麟蹄

狼川縣監一人李高勾麗狴川郡一云也新羅改狼川郡高麗初為春州任內睿宗

元年始置監務古與楊口兼任本朝 太祖二年癸酉析置監務 太宗十三年癸巳

例縣監南津在縣南四境東距楊口三十三里西距金化四十六里南距春川十六里北距

金城四十里戶二百六十四口七百五十軍丁侍衛軍一百單軍三十土姓三張程吉亡

下皇山石城

周回六百十六步五尺時以為邑城內有四泉一池泉則雖大旱皆不竭池則大旱或渴溫川在縣北四十四里興富

驛西仇水秀勿山洞驛三興富

古名德神新守山古名烽火四處全反仁山在縣南

南在平海沙冬竹津山

北在竹竹邊串北在巨巨出道山北在于山武陵二島在

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新羅時據于山國一云營陵島地方百里恃險不服智證王十二年吳斯夫為何楚羅州軍主謂于山人憑悍

難以或來可以計服乃多以木造猛獸分載戰艦抵其國謝之曰汝若不服則即放此獸國人懼來降高麗太祖十三年其島人使白書呈獻方物毅宗十三年審察使金季

立等回來告島中有泰山從山頂向東行至海一萬餘步向西行一萬三千餘步向南行一萬五千餘步向北行八千餘步有村落基址七所或有石佛像鐵鐘石塔多

生菓胡蒿木石有草我太祖時聞流民逃入其島者甚多再命三陸人金麟兩為安撫使刺出空其地麟兩言土地沃饒竹大如杜鼠大如猫挑

凡物稱是

春川都護府使一人儒學教授官一人本猶地新羅善德王六年為牛首州

即唐太宗貞觀十二年

年一云文武王十三年置首名州景德王改朔州一云首次若高麗成宗十四年乙未改春州團練使

屬於安邊州人以道途艱險難於往來至神宗六年癸亥略權臣崔忠獻陞為安陽

都護府南宋寧宗三年後降為知春州事本朝因之太宗十三年癸巳改春川郡十五年

乙未例改都護府別號壽春壽北所廢又屬縣一基麟本高句麗基知郡高麗改基

麟本朝因之鄉一史吞鎮山鳳山北在府母津北在府昭陽江北在府四境東距洪川四十

麟蹄縣監一人本高句麗猪芝縣一云鳥斯曰新羅改稱蹄縣為楊麓郡領縣高麗改麟

蹄縣初屬春州後屬淮陽恭讓王元年己巳始置監務本朝因之 太宗十三年癸巳

例稱縣監屬縣一瑞和三國史本高句麗王政縣新羅改馳道為楊麓郡領縣高麗

改瑞和初為春州任內後屬淮陽別號瑞城所一伊布古屬春州今上六年甲辰並京屬伏龍山左縣

人以為 四境東距襄陽四十一里西距揚口二十七里南距洪川三十二里北距杆城

六十九里戶一百二十五口二百單七瑞和戶七十二口一百九十一軍丁侍衛軍六

十九艮軍四土姓二朴許亡姓二曹孫瑞和姓一崔亡姓四玄李谷邵厥土塔風氣寒

壁田一千二百三十三結以四上十四結土宜粟稷豆麥桑麻梨栗土貢蜂蜜蠟磁石松子

五倍子石茸真茸芝草漆鹿脯狸皮狸皮熊皮猪毛熊毛正鐵藥材茯苓五味子

常歸人參前胡芍藥牽牛子秦芫安息香白膠香白花蛇粉羊角熊膽寒溪山石城二

在縣北十五里上城周四七百二十九步有一泉旱則竭下城周四一羣四富臨馬奴

臨川嵐校石二聲管在瑞和

杆城郡知郡事一人本高句麗守城郡一云加器忽新羅改稱守城郡高麗改杆城縣令後

陞為郡無任高城恭讓王元年己巳析為二郡本朝因之別號水城屬縣一烈山本高

縣九

嘉平郡嘉一作加本高勾麗斤平郡並一云新羅

景德王改今名顯宗九年來屬有花岳山

又有清平山

狼川郡本高勾麗往川郡一云也新羅景

德王改今名高麗初來屬睿宗元年置監

務兼任楊口

基麟縣本高勾麗基知郡高麗改今名來

屬

朝宗縣本高勾麗深川縣斯一云伏新羅景

德王改名浚川為嘉平郡領縣高麗更今

名顯宗九年來屬

麟蹄縣本高勾麗猪足縣斯一云為新羅景

德王改名狝蹄為楊麓郡領縣高麗更今

名來屬後屬淮陽恭讓王元年置監務

橫川縣本高勾麗橫川斯一云於新羅景德

王改名潢川為朔州領縣高麗復稱橫川

仍屬後屬原州恭讓王元年置監務別號

名來屬後屬淮陽

瑞禾縣作禾一本高勾麗玉岐縣次一云皆新

羅景德王改名馳道為楊麓郡領縣高麗

更今名來屬後屬淮陽別號瑞城

楊溝縣本高勾麗楊口郡德一云要新羅景

德王改為楊麓郡高麗更今名來屬睿宗

元年置監務以狼川監務來兼

東州本高勾麗鉄圓郡一云毛新羅景德王

改為鉄城郡後弓裔起兵略取高勾麗舊地

丹山縣

奉靈郡本百濟奈已郡薩婁王取之景德王改

名今剛州領縣二善谷縣本高句麗買谷縣景

德王改名今未詳玉馬縣本高句麗古斯馬縣

景德王改名今奉化縣

岷山郡本高句麗及茂山郡景德王改名今興

州領縣一鄰豐縣本高句麗伊伐支縣景德王

改名今未詳

嘉平郡本高句麗介平郡景德王改名今因之

三國志注

領縣一浚水縣本高句麗深川縣景德王改名

今朝宗縣

揚麓郡本高句麗揚口郡景德王改名今陽溝

縣領縣三稀蹄縣本高句麗指足縣景德王改

名今麟蹄縣馳道縣本高句麗玉岐縣景德王

改名今瑞木縣三嶺縣本高句麗三岷縣景德

王改名今方山縣

狼川郡本高句麗往川郡景德王改名今因之

大揚郡本高句麗大揚管郡景德王改名今長

朝鮮本作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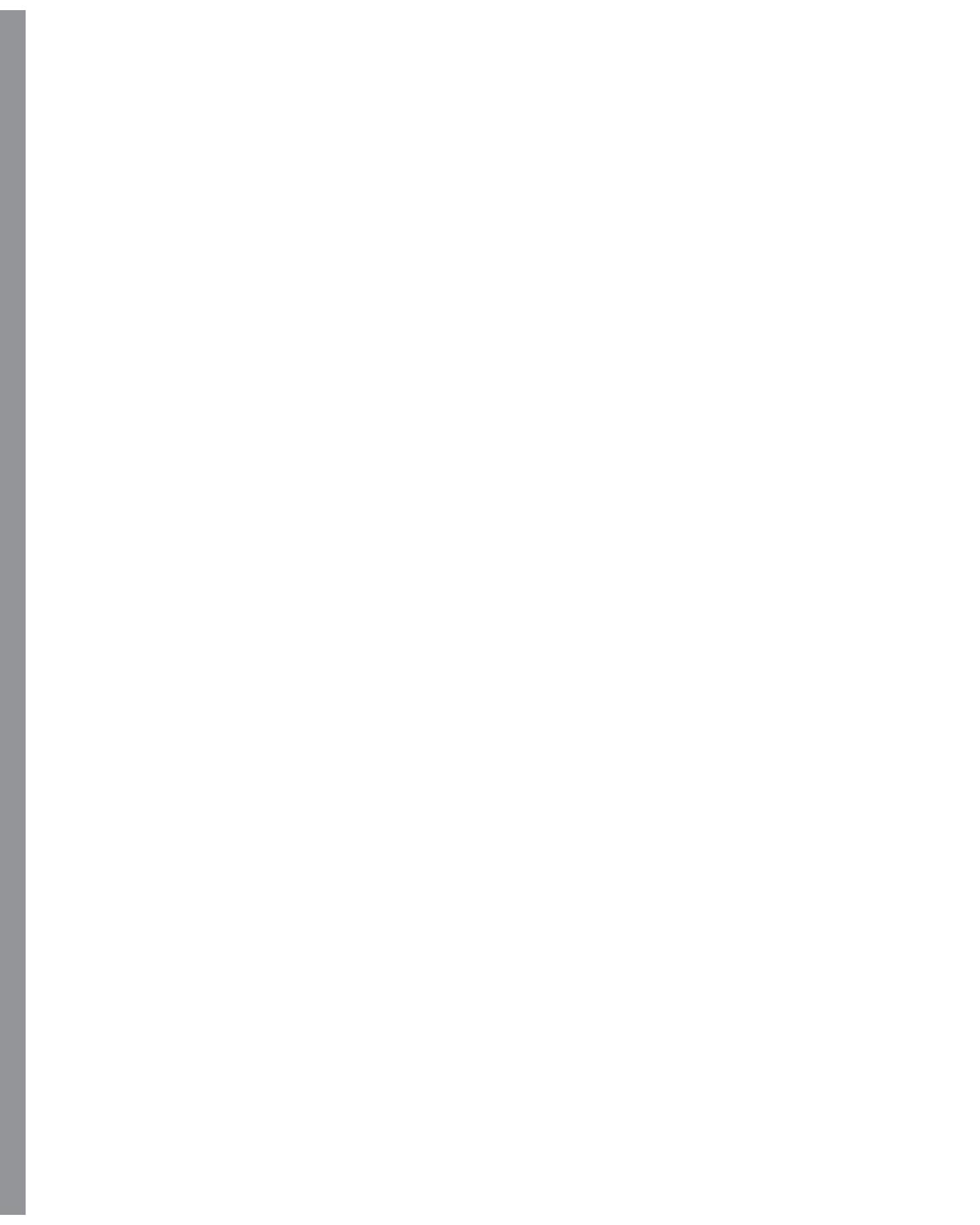
朝鮮本作木
太

太

遼 遼顯宗本

目次

| | |
|----------------------|----|
| 『삼국사기(三國史記)』 | 4 |
| 『고려사(高麗史)』 | 5 |
| 『세종실록(世宗實錄)』 | 6 |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承覽)』 | 9 |
| 『춘주지(春州誌)』 | 11 |
|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 12 |
| 『여지도서(輿地圖書)』 | 14 |
| 『인제현읍지(麟蹄縣邑誌)』 1 | 19 |
| 『인제현읍지(麟蹄縣邑誌)』 2 | 23 |
| 『춘천읍지(春川邑誌)』 | 33 |
| 『대동지지(大東地志)』 | 34 |
| 『인제읍지(麟蹄邑誌)』 | 36 |
| 『강원도지(江原道誌)』 | 48 |



부 록

원문자료